

제1회 경산시립박물관 학술대회

경산지역 청동기~원삼국시대 문화 전개양상

- 양지리유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2. 5. 20(금) 10:20

장 소 | 경산시립박물관 강당

주 최 | 경산시립박물관, 한국청동기학회

| 세부 일정

		사회 김은진 (경산시립박물관)
개회식	10:20~10:40	· 개회사 최영조 (경산시장) · 환영사 윤호필 (한국청동기학회장) · 축사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기조강연	10:40~11:10	·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 강연 이청규 (영남대학교)
제1발표	11:10~11:40	·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 발표 정인성 (영남대학교) / 토론 이창희 (부산대학교)
제2발표	11:40~12:10	·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문화 · 발표 이성주 (경북대학교) / 토론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12:10~13:30	· 점심식사
		사회 박영구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제3발표	13:30~14:00	· 경산 양지리유적 발굴성과 · 발표 박기혁 (성림문화재연구원) / 토론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제4발표	14:00~14:30	·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 · 발표 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 / 토론 우병철 (영남문화재연구원)
제5발표	14:30~15:00	·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 · 발표 이양수 (국립청주박물관) / 토론 오광섭 (울산문화재연구원)
제6발표	15:00~15:30	·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 발표 이제현 (국립김해박물관) / 토론 허준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5:30~15:50	· 장내 정리 및 휴식
종합토론	15:50~17:50	· 좌장 김권구 (계명대학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목 차

기조강연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 이청규 (영남대학교)	5
---------------------------------	---

주제발표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 정인성 (영남대학교)	29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문화 / 이성주 (경북대학교)	55
경산 양지리유적 발굴성과 / 박기혁 (성림문화재연구원)	73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 / 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	93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 / 이양수 (국립청주박물관)	113
고대 옷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 이제현 (국립김해박물관)	125

종합토론

이창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152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154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156
우병철 (영남문화재연구원)	158
오광섭 (울산문화재연구원)	161
허준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64

경산 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

이청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 목차 |

- I. 머리말
- II. 지역 범위와 단계 구분
- III. 조-전기의 마을과 사회
- IV. 중기의 마을과 사회
- V. 후기 이후의 마을과 사회
- VI. 맺음말

경산 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변천¹⁾

I. 머리말

경산 지역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의 고고학자료를 살피는 연구는 그 자체가 한국 고고학의 시공간적 최소 단위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구집단의 사회와 문화를 밝히는 작업이다. 또한 다른 시대와 연계하여 동 하위 지역의 통시적인 사회 문화 변천과정(이희준 2004)은 물론 그 상위 지역인 금호강 유역, 영남 지역, 더 나아가 남한, 한반도-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설명하는 토대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설정된 행정구역 자체를 단위로 하여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산은 1980년대에 행정제도 개편에 의한 것이고 중세 고려 조선, 고대 신라는 물론 그 이전의 소국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를 청동기시대의 당대에 의미 있는 단위지역이라고 전제하여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20세기 전반의 경산군에 해당하는 지금의 대구에 속하는 울하천과 옥수천 유역을 포함한 범 경산 지역을 공간으로 하여 조사 확보된 주거와 무덤 자료를 근거로 동 사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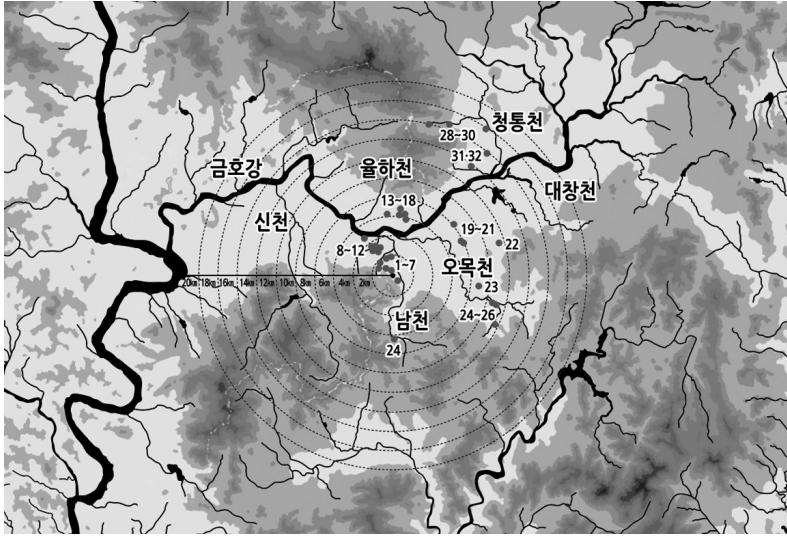
청동기시대는 1천년 남짓의 시간적 범위에 걸쳐 있으므로, 유구 유물의 형식과 공반관계를 통해서 몇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각기 다른 문화유형은 물론이고, 같은 문화유형에 대해서 동시성 또는 전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덤군과 주거군의 동시성과 그 시간적 폭에 대해 단정짓는데 어려움이 많아 구체적으로 당대 사회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산 지역을 단위로 하되 상위 영역의 시기구분과 변천 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주거군-마을-마을군 단위의 공동체 사회 구조, 개별무덤- 무덤군- 무덤 복합군 별로 문헌 구성원의 신분에 중점 둘 것이다.

II. 지역범위와 단계 구분

1. 지역 범위

금호강은 낙동강의 중류에서 합류하는 지류로서 116km 길이의 2차 하천이다. 동서로 완만하게 흐르는데 동쪽으로 포항 죽장면에서 발원하여, 상류의 영천, 하류의 대구를 거쳐 서쪽으로 달성군 지역에서 합류한다. 그러한 금호강의 중류 유역에 위치한 현재의 경산 지역은 경산시와 하양읍, 압량읍, 진량읍을 비롯하여 외촌면, 자인면,

1) 이 발표문은 "금호강 유역 초기사회의 형성"(이창규외 2015)에 게재된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변천'의 글 일부를 경산 지역에 맞추어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지도 1〉 경산지역 청동기문화 주거유적 분포

확한 공간적 범위는 파악하기 어렵다.

남산면, 남촌면, 용성면을 포괄한다. 이는 1981년 이후의 행정 단위로서 그 이전에는 지금의 대구시 수성구의 시지·매호동, 동구의 각산·신서동 지역이 경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1914년 이전에 하양과 자인은 별개의 현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750년에는 장산군, 그 이전 654년에 설치된 압량주는 물론, 그 이전 신라 병합 이전 소국 단계의 경산 지역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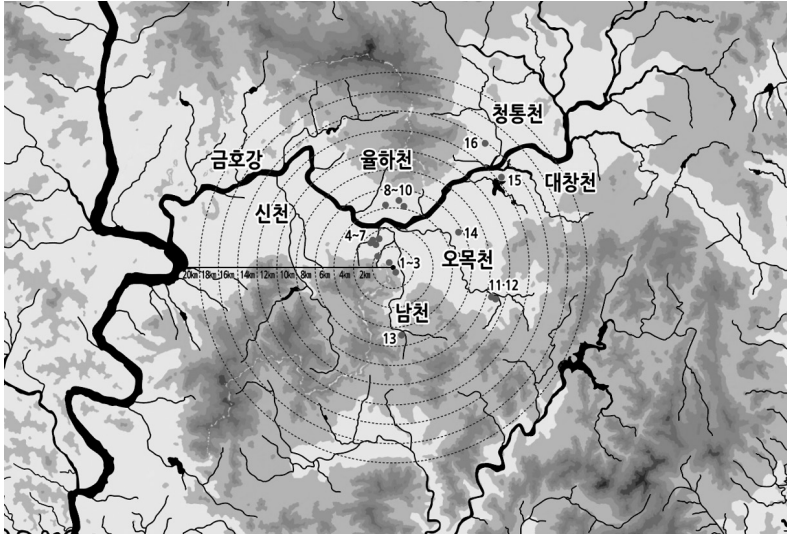
〈표 1〉 경산권의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정상수·방선지 2018 수정 보완)

번호	유적	개수	보고서
1	경산 옥곡동	27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2	경산 옥산동300	44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3	경산 옥산동 677-7	4	세종문화재연구원(2020)
4	경산 옥산동29	1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8)
5	경산 옥수동	1	영남대박물관(2004)
6	경산 옥수동128	3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7	경산 중산동160-1	2	성림문화재연구원(2011)
8	대구 가천동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9	대구 시지동60-1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10	대구 시지동	3	영남대박물관(1999)
11	대구 사월동	1	영남문화재연구원(2006)
12	대구 시지지구	3	영남대박물관(1999)
13	대구 신서동	6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
14	대구 각산동(1)	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2)
15	대구 신서혁신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1)
16	대구 각산동(2)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2)
17	대구 동내동	3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번호	유적	개수	보고서
18	대구 괴전동	1	영남대박물관(2004)
19	진량 내리리	13	한빛문화재연구원(2011)
20	진량 선화리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6)
21	진량 가야리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22	진량 마곡리	1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23	자인 서부리451	4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24	남산 삼성리665	5	영남문화재연구원(2003)
25	남산 산양리	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26	남산 경리440-5	5	삼한문화재연구원(2012)
27	와촌 음양리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
28	와촌 신한리	2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7)
29	하양 동강리	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30	하양 대학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31	하양 양지리	4	성림문화재연구원(2020)

〈표 2〉 경사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유적분포(정상수·방선지 2018 수정보완)

번호	유적	개수	보고서
1	경산 옥수동 134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4)
2	경산 옥산동 300	1	영남문화재연구원(2011)
3	경산 옥곡동	10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9)
4	대구 매호동 1008	2	영남문화재연구원(2009)
5	대구 매호동	15	영남대박물관(1999)
6	대구 시지동	21	영남대박물관(1999)
7	대구 신매동	1	영남대박물관(1999)
8	대구 신서혁신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11)
9	대구 신서동	83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
10	대구 동내동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2)
11	남산 산양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12	남산 경리 440-5	2	삼한문화재연구원(2012)
13	남산 삼성리	4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14	자인 갈지리	1	삼한문화재연구원(2016)
15	진량 가야리 376-1	1	영남문화재연구원(2005)
16	진량 내리리	1	한빛문화재연구원(2011)
17	하양 대학리	6	동북아문화재연구원(2019)



〈지도 2〉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유적 분포

바다의 섬이나 산간 분지와 달리 경산 지역의 경우 하천과 산맥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이거나 가로막혀 있지 않아 경계가 뚜렷한 지리적 단위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의 경산권 공간을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마을을 중심으로 삼아, 이로부터 일정 거리 내 범위의 분포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금호강 북변에 위치한 대구 신서동에서는 지역내 최대 규모 무덤군, 그리고 최근에 하양읍 대학리에서 최대 묘역의 무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성과를 볼 때 경산권에서 확인된 가장 큰 마을은 금호강 남변에 위치한 옥곡동에서 확인되었다. 현재의 경산시 중심은 물론, 경산권 최대의 고대 고총고분이 집중되어 있는 임당동 일대는 또한 금호강 남변이다. 따라서 선사-고대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금호강 남변에 위치한 남천 중하류의 옥곡동 일대의 마을 유적을 잠정적으로 중심 지구로 이해하고자 한다.

동 중심지를 기점으로 반경 8km 이내의 범위에 서쪽으로 담티고개를 경계로 동쪽 옥수천 유역의 시지, 매희구역, 북쪽으로 울하천 유역의 각산, 신서 구역, 동쪽으로 오목천 유역의 자인, 진랑읍, 남쪽으로 남천 중상류 유역의 남천면이 포함된다. 고산(시지, 매희), 하양, 자인을 포함한 경산 권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주거유적 31개소 중에 22여개소, 무덤 유적은 전체 17개소중 10개소가 이 구역내에 있게 된다.

반경 8-12km 권역에 동쪽과 북쪽, 남쪽은 대체로 현재의 경산시권이지만, 서쪽의 경우 금호강 하류의 지류 신천 유역으로 별개의 대구 중심부 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신천 유역의 상동, 대봉동 등지에서 확인된 다수의 대규모 주거와 무덤 유적 군은 경산과 구별되는 별도 권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산 남산면, 자인면 내의 청동기시대 주거와 무덤 유적 6개소는 이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경 12-16km 구역은 동북쪽으로 와촌면 북부, 동쪽으로 자인면과 용성면,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천면을 포괄하게 된다. 이 구역의 경산시 행정권 내에서 조사된 사례는 소규모 주거지 유적 6개소가 있다. 비슷한 거리에 동쪽은 대구 남구 봉덕동, 서북쪽으로 서변동에 이르고 있어 경산권에서 완전하게 벗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산 중심지로부터 북쪽과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구역도 경산권에 포함되지만 의미 있는 청동기시대의 1차 경산문화권은 8km 거리 이내의 권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 1, 2의 주거, 무덤 유적 분포도에서 보듯이 8km 이내의 권역은 다시 4km 이내와 이외의 권역과 각각 달리 살필 수 있다. 18km 이외의 권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유적의 분포상으로 보아 경산문화권에서 벗어

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유적의 분포상황을 살펴서 경산문화권을 몇 개의 하위지구권을 분류한 사례가 있는데, 안심지역의 북서군, 경산시 중심의 중서군, 남천면 중심의 남서군, 그리고 와촌면과 하양읍의 북동군, 진량읍과 자인면을 중심으로 한 중동군, 남산면을 중심으로 한 남동군 모두 6개군안이 그것이다(정상수·방선지 2018).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이는 근대 이후에 편제된 행정구역을 단일 문화권으로 전제로 한 구역 구분으로서 당대의 청동기시대 문화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중 대체로 중서군은 4km 이내의 1차권역, 북서군, 남서군은 8km 이내의 2차권역, 중동군과 남동군은 12km 이내의 3차권역, 그리고 북동군은 16km 이내의 4차 권역에 해당된다. 어림잡아 걸어서 1차권역은 1시간, 2차권역은 2시간, 3차권역은 3시간, 4차권역은 4시간내에 있어 모두 하루 낮 동안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있다. 그중 북서군과 북동군은 금호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거리와 교통상의 상황은 마을 상호간의 교류를 설명하는 조건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단계 구분

시기 혹은 단계구분을 하는 것은 사회, 기술, 경제, 종교 등 문화의 여러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제기된 시기구분안은 1)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전역을 범위로 할 경우 전기, 후기의 2분기설(이청규외 2020), 2) 남한을 범위로 할 경우 조기, 전기, 중기, 후기의 4분기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안재호·이형원 2016), 3) 다시 그 하위지역을 범위로 할 경우 남한의 시기구분을 토대로 세분된 안이 제시된다. 영남 지역의 경우 조기 1단계, 전기 3단계, 중기 2단계, 후기 1단계설을 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하진호 2017).

이처럼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시기와 단계구분 체계가 다른 것은 대체로 유구유물갖춤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의 경우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청동기 갖춤새로서 그 제작 보급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이 되고 있다. 하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식이나 유형이 전개되는 토기 혹은 토기군을 동일한 잣대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의 남한 혹은 3)의 그 하위 지역에서는 1)의 요령지역과 비교할 때 제작 보급되는 그 기종과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청동기 자체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토기와 석기가 동반되는 주거군의 발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남한 지역에서는 이들 갖춤새를 지표로 삼은 시기 혹은 단계 구분

〈표 3〉 청동기시대 시기구분

남한	중국동북지역 - 한반도	표지 유물
조기(BC 15-12세기)	전기	동검 이전
전기(BC 11-9세기)	후기	초기 비파형동검
중기(BC 8-7세기)		전형 비파형동검
후기(BC 6-4세기)		후기 비파형동검

안이 성행한다. 실제로 그 일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은 토기의 형식, 혹은 토기군의 유형이다. 대체로 이른 단계의 경우 토기의 구연부 장식에 중점을 두어 돌대문과 이중구연 토기의 조기,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문 토기를 전기, 늦은 단계의 경우 외반구연 항아리의 기형이나 횡점열문의 구연부 문양 토기를 중기, 그리고 원형점토편 구연부 토기를 후기로 삼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이형원 2009, 이수홍 2015)

그러나 이러한 토기의 속성 혹은 형식을 시간적 변천의 지표 이외에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각 형식별로 엄격한 시간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그 계통을 살펴 일정 인구 집단의 변화와 이동, 교류와 융합의 추세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다(황재훈 2014).

주거지의 형식은 조기에 1-2기 위석식 노지를 갖춘 장방형 주거, 전기에 2-5기의 위석식과 구덩이식 노지를 갖춘 세장방형과 장방형 주거, 중기에 노지가 없는 원형, 1기의 노지가 있는 방형 주거가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권구·공민규 2014). 한편으로 토기 형식의 조합과 절대연대 자료에 근거하여 조기의 주거형이 전기에, 전기의 주거형은 중기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주거지 형식 또한 일정 시기에 등장한 지표라기 보다는 집단 고유의 생활방식, 혹은 전통과 관련이 깊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남한 지역에서도 무덤은 물론 집자리에서 출토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청동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에서 그 기종과 형식에 따른 시기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검이 제작 보급되기 이전을 조기, 초기형 비파형동검의 전기, 전형 비파형동검의 중기, 변형 비파형동검의 후기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안은 앞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전체영역의 편년안과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표3에 보는 것처럼 전자의 조기는 후자의 전기, 전자의 전기, 중기, 후기는 후자의 후기에 대응된다.

현재까지 확보된 고고학 자료로서는 다소 무리한 시기구분안이지만, 비파형동검이 분포하는 전체의 상위 영역에 맞추어 하위 지역의 문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Ⅲ. 조-전기의 마을과 사회

남한의 여러 지역에서 조기에 속하는 돌대문토기 혹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100 제곱미터를 넘는 대형의 장방형 평면에 위석식 노지 1-2기를 갖춘 것이 일반적이다. 금호강 유역의 몇 개소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중류의 경산 지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지동에서 대형주거지에 딸릴만한 크기의 소형 집자리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경산 바로 남쪽의 청도의 신당리에서도 동 형식의 집자리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권승록 2014, 강지원 2017), 경산지역에서도 이 단계의 대형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이러한 주거 가옥내에는 그 면적으로 보아 다수의 세대 혹은 세대 공동체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가옥을 공동으로 건축하고, 여러 세대가 한 가옥에 거주하여 한 가구를 이루면서(김범철 2018), 단위 세대 혹은 가족 간에 사적공간이 유지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관행이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에 형성된 것이다. 그들은 공동으로 식량을 취득 소비하고, 긴밀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10-2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기의 대형 주거지 10여기 이상이 북한강 유역의 춘천 중도에서는 각각 소형의 집자리와 셋트를 이루면서 마을을 이룬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박영구 2022). 그러나 경산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일정 지점에 2-3기 미만의 주거지가 단위마을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전체의 인구가 많지 않은 데, 대형의 세대 공동체 주거 방식이 자리잡은 배경에는 유사시 외부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생산과 소비 방식의 일원화, 도구와 물자의 효율적 관리 등의 공동협업체제의 극대화 전략이 깔려 있음을 가정할 수 있겠다.

대체로 이중구연 단사선문의 가락동식토기는 전기전반, 그에 공렬장식이 추가된 혼암리식토기는 전기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김현식 2008). 가락동식 토기를 내는 집자리는 다시 2개의 화덕을 갖춘 장방형 평면의 둔산식과 3개 이상 6개의 화덕을 갖춘 용암식으로 발전한다. 혼암리식토기를 내는 집자리 또한 6-8기의 화덕을 갖추고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한 관산리식, 2-3기에 불과한 조동리식으로 구분된다(김권중 2020). 이들 형식의 집자리의 시기적 차이는 중서부지역에서는 분명하더라도, 금호강 유역으로 와서 다소 애매모호할 수 있다. 또한 두 형식의 토기를 내는 가옥 구조는 규모나 배치 상에 세부적 차이가 있지만 한 가옥 내의 거주 방식에서의 차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화덕 1기로 둘러싼 공간마다 1세대의 구성원이 점유하였다고 전제하여 화덕이 3기 이상 갖춘 세장방형의 가옥에 대해서는 그 숫자만큼의 여러 세대가 기거한 가옥이라고 주장되고 있다(안재호 1996, 김승욱 2006). 그러나 1세대가 1기의 화덕 공간을 차지하였다는 설명을 확실하게 입증할 민족지적 자료나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또한 그 1세대는 성인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일 수도 있지만, 동년배 동성그룹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앞선 조기의 가옥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별개 화덕이 세대별로 마련되어 구분된 공간을 갖게 된 가옥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주거지에는 화덕 사이에 칸막이 시설을 하는데 쓰였던 기둥구멍이 가로로 조성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조기의 집자리가 면적은 넓으면서 가옥내부의 공간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세대별로 사적 공간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면 공동 주거생활을 한 점에서는 같으나 세대 혹은 가족 생활의 독립 소극적이거나 인정되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김권구 2021).

그러나 중부 지역에 널리 유행한 4기 이상 다수 노지의 다 세대 주택 가옥이 경산 지역을 포함한 금호강 유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경산 옥산동 300번지에서 가장 긴 11호 주거지나, 옥곡동 2지구 29호 주거지도 3기의 화덕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선 단계의 세대별 공간이 뚜렷하지 않거나 공동주거 세대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주 방식이 지속된 셈이다. 많은 숫자의 화덕을 갖춘 세장방형의 관산리식 가옥은 경기 호서 지역에서는 대부분 산 구릉에 위치하고, 방향을 같이하면서 군집을 이루는 사례가 많은데(허의행 2014), 금호강 유역에서는 화덕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장방형 주거가 평탄한 충적대지나 완사면에 조성되고, 그 배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마을의 지리적 환경 이외에도, 단위 집단의 인구규모, 마을 조직의 운용방식 등 여러 부면에서 별도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하겠다.

금호강 유역의 마을 유적은 보통 가옥 3-5채가 단위 주거군으로 구성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한 단위 주거군이 하나의 세대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송만영 2013). 그러나 한 가옥에 이미 복수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므로, 이들 주거군은 다시 여러 세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단위 주거군이 하나 뿐인 앞서 조기의 사례와 달리 다수로 구성된 마을이 일반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위주거군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단위주거군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전기의 여러 단계에 걸쳐 100여채의 집자리가 확인된 마을 유적의 경우 일정 단계의 전체 주거지 숫자가 20-30기를 넘지 않으며 단위주거군은 3-5개 정도로 구성된 마을로 추정된다. 이러한 단위주거군이 다수인 마을이 경산지역에서는 남천유역의 옥곡동 유적에서 확인된다. 전기의 전체 주거 숫자가 30채 미만이고 일정 단계에 10채 미만인 옥산동, 신서동 등 다른 중위 마을에 비해 규모가 큰 상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지 면적당 인구수를 따져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인구는 대략 200-3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김권구 2005)

경산 지역을 포함한 금호강 유역에서 이러한 상위 마을 이상으로 이해되는 대규모의 최상위마을이 이 단계에 조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에 따르면 남한 전지역에 걸쳐 살필 때 여러 시기 혹은 단계에 걸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한 지점에 전기에 속하는 집자리가 2백여채 이상 확인된 마을 유적으로 북한강 유역의 춘천 중도, 화천 용암리(김권중 2020), 그리고 남강유역의 진주 대평리 등의 유적이 있다(고민정 2020).

이들 유적의 집자리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초기에서 전기 말에 이르기까지 수백년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므로, 일정단계에 동시에 축조된 가옥의 숫자는 훨씬 작은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지역에서의 전기 전반 혹은 후기의 집자리 숫자는 앞서 대구 경산지역의 상위 촌락보다 그 규모가 2배가 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그 인구는 일정 시점에 400-500명 정도 이르는 최상위 취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굴조사의 성과로 보면 남한 최대규모의 청동기시대의 단위 마을은 금호강 유역은 물론 경산 문화권에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경산 지역의 일정 규모 마을에 대해서 광장, 의례공간, 생산 공방 등의 구조와 기능을 살필 필요가 있으나(이홍중 1996),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고고학적 사실로만으로는 아직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기 단계의 무덤은 대체로 할석 혹은 판석으로 석관을 조립하고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상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것이다(윤호필 2021, 이성주외 2016, 윤형규 2017). 금호강 유역에서는 울하천 인근의 대구 신서동이나 진천 유역의 상동, 또는 진천 유역에서 소수의 사례가 확인될 뿐이다. 대체로 세대공동체의 우두머리나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정형화된 무덤과 부장품을 마련하고, 관련된 의례를 치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을 구성원 혹은 하위와 상위 마을의 촌장 간에 차별화된 위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무덤이 축조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집단 간의 무력적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발생하였음을 반영한 마제 석검과 석촉을 부장함으로써 무력적인 위세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배진성 2007, 히라고리 타츠야 2013).

IV. 중기의 마을과 사회

이 단계의 무문토기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단계의 골아가리와 공렬 장식의 속성이 부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문화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전 단계에 다세대 위주의 주거지가 조영된 전 단계와 달리 단세대 혹은 핵가족의 거주공간에 대응되는 축소된 주거지가 유행하였다(유병록 2015, 2019, 이종철 2016).

이에 해당하는 마을의 사례로 보면 금호강 하류인 진천 유역의 월성동, 동천유역의 서변동, 그리고 진천 유역의 대봉동 등의 사례가 있고(유지환 2012), 중류의 경산 옥산동에서는 방형 혹은 원형의 집자리가 수십채가 확인되었다. 대구 신서동에서도 20여채 이상의 원형 혹은 소형 집자리가 확인된바 있다.

이 단계에 경산 지역의 마을 유적에서 확인되는 집자리 숫자가 수십채를 넘는 경우가 없어 가옥 수는 오히려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시기의 가옥들이 다세대 주거용인 것을 감안하면 단위 마을당 그 인구 규모도 축소된 셈이 된다. 집자리 숫자가 10기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라도 수십 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시점에 단위마을의 인구가 백여 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남한에 중기 단계에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실제로 이처럼 전 단계에 비해 경산 지역 단위 마을의 인구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농경 등의 생업기술은 발달하여 생산되는 식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식량으로 일정 지점의 단위 마을을 이루며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각각의 단위마을은 규모를 축소시켜 너른 지역에 분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속하는 영남지역의 사례로서 전면적으로 발굴조사된 울산 동천이나 태화강 지류 척과천 유역의 경우를 보면 구릉의 완사면, 정상부 등을 가리지 않고 많은 단위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수홍 2015).

여러 연구자들은 단세대 주거의 유행은 집약적 농경방식과 관련되었다고 이해한다(김권구 2005). 경산 지역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서 수전 유구가 제대로 확인된 바 없지만, 여러 하천 유역의 충적지에 마을이 들어서고, 기경구와 수확도구가 다종다양하게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약 농경은 전체 마을 수준에서 인력의 조직적 운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 이외에도 마을 전체 수준의 조직과 이를 관리해야 할 다른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마을 전체의 우두머리가 단수 혹은 다수의 세대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더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 단계에 금호강 하류와 중류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석묘 석관묘군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지석묘 석관묘군 중 그 규모가 큰 것으로 금호강 유역에서 진천변의 상동과 대봉동, 진천변의 대천동 유적과 경산권에서는 울하천의 신서동의 사례가 있다. 상동 지석묘 석관묘군 유적은 총 50여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는데, 군집상태와 배치방향을 고려하면 3-4개 하위군으로 구분이 된다. 대천동 지석묘 석관묘군은 60여기로서 앞서 두 무덤군과 마찬가지로 3-5개의 하위군으로 구분이 된다. 신서동 B 6 구역의 단위 지석묘 석관묘 무덤군 또한 40여기가 넘으며, 그 역시 4-6개의 하위군으로 세분할 수 있다(김광명 2017, 조미애 2016, 허정화 2013)

일정 지점의 대규모 지식묘 석관묘군은 단위 마을의 구성원들만 묻힌 무덤이 아닌 것은 모든 연구자가 인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단위 마을의 구성원들이 묻힌 무덤으로서 유적 내 여러 개로 구분되는 하위단위군은 각각 다른 단위 마을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규모 지식묘군에 다수의 하위군이 있어 각기 다른 마을 구성원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남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수 월내동 지식묘군이 있다. 동 유적에서 확인된 140여기의 지식묘는 군집상태와 방향으로 보아 7-8개의 하위군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군별로 20여기 내외의 지식묘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2012).

한편으로 강 지류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지식묘군 유적이 조사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성강 유역의 주암대 수몰지구 지식묘군의 유적이 있다. 대체로 2-4km 떨어져 작은 곡간마다 20-50여기의 지식묘군이 조사되었는데, 각 지식묘군별로 그 근접한 공간에 위치한 크고 작은 여러 단위 마을의 구성원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강동석 2021).

지식묘 혹은 석관묘에 모든 마을 구성원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묻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공동체의 장 혹은 단위마을의 촌장, 혹은 그들의 가족인지 여부를 단정할만한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일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식묘 축조에는 많은 인력을 동원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위마을은 물론 여러 마을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일정지위의 사람을 위한 무덤 축조와 그에 딸린 장송의례를 치룬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서 지식묘를 통해서 마을 구성원 중에 보다 상위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마을 혹은 단위 마을 간에 협력 체제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다. 앞서 제시한 금호강의 지류별 대규모 지식묘군을 통해서 일정한 지구별 내에 다수의 마을이 있고 어떤 일정한 마을의 우두머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취락간에 위계질서가 일정 수준으로 정립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덤을 축조할 때 활용되는 다수의 마을의 협력체제는 평상시 다른 부면에서도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든가, 상호 필요한 물자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또는 기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축제를 베풀다든가 하는 등이 그에 해당된다.

한편으로 각 단위 마을 별로 지식묘 혹은 석관묘가 축조된 사례도 있음은 여러 유적의 발굴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진천 유역의 월성동, 상인동, 진천동 등지에서는 수기의 지식묘 혹은 석관묘가 단위마을 주변에서 확인된 사례가 다수 있다. 대구의 신천 유역이나 팔거천에서도 그러하고, 경산지역의 남천의 옥곡동, 옥산동, 옥수천의 대구 시지동 등지에서도 10여기 미만의 지식묘, 석관묘가 다수 조성된 예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단위취락의 구성원이 반드시 일정한 대규모 지식묘군에 묻힌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구축한 개별 무덤군에 묻힌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단계에 규모가 크고 작은 마을간에 일정 부면에서 위계적인 관계가 정립되었지만, 모든 마을이 대단위 공동체의 조정하에 일사분란하게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각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식묘, 석관묘군의 하위단위 또는 개별 마을별로 조성된 소규모 지식묘, 석관묘군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 다수이다.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단위집단의 인구규모가 크다는 것

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집단의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집자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정 시점의 인구규모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신 개척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거점 혹은 중심 마을이라 함은 여러 마을 중에서도 수공업 제품의 생산, 종교적 의례나 혹은 경제적 교역, 정치적 집회 등의 다양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을 일컫는 것이지만, 경산 지역의 청동기시대 마을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무덤군의 규모나 주거지 숫자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서 거점 혹은 중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마을이라기 보다는 장기간 존속한 마을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한 마을이 조성된 배경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이룩한 조직 자체가 갖는 원동력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을이 갖는 절대적인 환경과 관계적 위치가 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농경, 수렵과 어로, 그 외에 식량 획득의 유리함, 생활에 필요한 음용수 공급 등과 함께 근거리 이웃 집단과의 교역에 유리한 교통상의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금호강 남변 남천의 중하류 지역에 위치한 옥산동, 옥곡동의 마을 유적,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금호강 북변의 신서동의 마을 유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단계에 금호강 유역에는 같은 경북 지역의 청도 예전동, 김천 송죽리 등 다른 권역에서 확인되는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나 천하석제 옥제품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청동기나 옥을 생산하는 수공업 기반(고민정 2020)을 갖추거나 동 위세품의 유통 교역망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V. 후기 이후의 마을과 사회

이 단계에는 남한 전역에서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유구유물갓춤새가 두루 발견된다. 동일한 형식의 토기가 중국 요령지역에서도 확인되어 동 지역에서 남하한 외래 문화라고 이해되고 있다(박진일 2013). 경산의 조영동, 대학리 유적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산권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생활 유적이 확인된 바 있지만, 마을 유적 자체는 물론 단위 마을에 속하는 주거지의 숫자가 전 단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산 지역 또는 금호강 유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한 전역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고고학적 사실이 주목된다. 우선 하나는 동 토기가 출토하는 주거 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금호강 유역에서는 드물지만 경기 양주 수석동, 안성 반제리, 충남 보령 교성리 등의 널리 알려진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중기 마을과 격절된 위치에 이주 마을이 조성되었다는 설명이 많다.

다른 하나는 추정할 수 있는 마을 유적과 해당 인구의 추정 숫자가 적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점토대토기를 내는 무덤의 경우도 남한 전체는 물론 경산 지역에 드물게 확인된다. 경산 대학리에 다음에 볼 거대한 묘역

혹은 구획 지식묘에 근접하여 확인된 석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되었을 뿐이다.

점토대토기 출토 유구중에서 경산 소월리, 대학리를 비롯하여 영남의 여러 곳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는 폐기 유구가 주목된다. 이 유구에 대해서 제사 활동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비록 인근 지점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인구 집단이 거주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추정되는 취락의 규모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우선 검토될 것은 기존 편년안의 문제이다. 현재 통용되는 편년안을 따른다면 종전 형식의 무문토기와 석기가 출토되는 지식묘와 주거지의 대부분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머물고 후기 내지 초기철기시대에 거의 조영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정 토기 형식의 전통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여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통용되는 안으로서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편년안은 그 토기 형식이 크게 변성하는 단계는 가림할 수 있지만 그 명백이 이어지는 말기 혹은 쇠퇴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지식묘의 대부분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속하고 후기 내지 초기철기시대에 거의 조영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편년안의 대부분은 토기의 형식을 표지로 한 것이고, 그 절대연대는 또한 일정 토기가 출토되는 집자리의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식묘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심발형 조질토기의 출토예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만 부장용 토기로서 적색마연단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많지 않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금호강유역의 무문토기와 집자리, 그리고 무덤 등 상당수가 후기 내지 초기철기시대까지 내려와 이 시기의 공백을 메꾸어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성주 2017)

사정이 이러할 때 옥곡동 중심마을에서 다소 먼거리인 10km 정도 떨어진 경산 대학리에서 발굴된 거대한 묘역 혹은 구획공간을 갖춘 지식묘 유적이 주목된다. 잔존 길이 34m로 전체 추정 길이가 40m 정도 되는 석축 기단의 내부에 1기의 석관묘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앞선 지식묘 축조 전통의 확대 발전한 것으로 묘역의 규모로 보아 문헌 사람의 권위를 과시하되, 그 구성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이른바 공동체 지향적인 권위를 갖춘 족장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 부장묘는 물론 남한 서부의 세형동검 부장묘에서 보는 것처럼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되어 경제, 기술, 종교 등의 여러 부문에서 발전한 개인적인 권력의 소지자임을 과시하는 군장 무덤의 사례와는 대조가 된다.(이청규 2016) 점토대 토기를 표지로 한 호서 지역의 최상위 피장자의 적석목관묘에서는 무기, 공구, 의기 등의 청동기가 부장되어 있다. 그러나 금호강 유역을 비롯한 경산 임당동에서는 대전 괴정동 무덤에 부장된 동탁과 세형동검이 출토된 바 있지만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동 단계의 군장 무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구획식 지식묘가 축조된 이후, 그 인근에 조성된 대학리의 점토대토기 무덤은 청동기시대 후기말 초기철기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장된 유물에 청동기가 전무하다. 최근에 같은 금호강 상류 인근의 경주 전촌리에서 묘역식 지식묘와 유사한 규모를 갖춘 적석 구획식 시설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경산지역에서는 지식묘 전통의 공동체 제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이동희 2021)

Ⅵ. 맺음말 : 청동기시대의 경산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영남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고대 사회발전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는 대체로 두가지 관점을 토대로 한다. 그중 하나는 고대사학의 연구자들이 접근하는 틀로서 3세기 삼국지 위지 동이전 기록에 보이는 국과 읍락 등을 살펴 이에 맞추어 설명하는 관점이다. 그러한 설명의 틀을 서기전 1천년기로 소급하여 마을 유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은 다수 읍락으로 구성되고 읍락은 중심마을 또는 대촌이며, 그 아래에 소촌이 있다고 설명한다.(이희준 2000, 이청규 2019)

또 다른 하나는 서구 고고학자들이 제시한 신진화론의 관점이다(김경택 2004, 강봉원 2008) 그것은 주로 chiefdoms에 중점두는 것으로 대체로 지식묘와 청동기부장묘 등의 무덤 유적을 대상으로 삼는다. 지식묘의 축조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근거로 공동체 지향의 족장사회를 설명하거나(최몽룡 1990), 청동기 부장품의 위세적 특징을 토대로 개인 권력 지향의 군장 사회를 제안하는 것이다(김정배 1985). 1980년대부터 드물게 양자의 관점을 맞추어 설명한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거와 무덤자료를 어떻게 대응시켜 일정지역의 사회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취락자료는 실제 생활에서 전개되는 사회의 부면을 반영하지만, 무덤자료는 이데올로기 혹은 사후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주거지는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지만, 단위무덤은 개인의 위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거 마을은 일정집단의 인구규모와 조직을 간접적이거나 반영하지만, 무덤군은 죽은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여 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경산권에서의 사회적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기전 13-12세기 경 청동기시대 초기에 처음 최소 규모의 마을이 등장한다.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대형 주거지가 2-3기 썩 갖추어진 소촌으로 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마을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서기전 11-9세기의 전기에 이르면 가옥 내에 화덕과 칸막이 시설이 있어 세대별 사적 공간이 독립되는 거주방식이 남한 중부 호서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경산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에서는 3기 이하의 화덕 시설을 갖춘 세대공동체 가옥이 주로 확인된다. 3-5기의 단위 주거군 다수가 조합하여 200여명의 인구를 갖춘 상위 마을이 경산 지역에 등장하는데, 대체로 금호강 하류의 대구 대봉동과 상동, 월성동 등지와 함께 경산 지역에서는 옥산동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마을의 지도자를 정형화된 무덤에 묻는 장송의례가 행하지만, 그 규모나 숫자는 많지 않다.

서기전 8-4세기의 청동기시대 중기와 후기에는 한 세대가 한 가옥에 거주하는 소형 주거지가 유행한다. 단위 세대공동체보다는 보다 조직적인 공동협업을 뒷받침하는 단위 마을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 강조가 되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의 주거군 다수로 구성된 마을이 경산 지역에 등장하는 사실이 경산 옥곡동, 신서동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마을의 규모가 앞선 단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인구 규모는 늘어나지 않은 단위 마을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슷한 사례는 인근 울산 태화강이나 동천 유역의 발굴 사례를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수십여기의 지식묘가 조성된 대형 무덤이 금호강 하류의 대구 대천동, 상동과 함께 경산 문화권에 속하는 대구 신서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여러 마을의 실력자를 공동으로 묻힌 공동묘지로서 이 지역에 족장사회

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상응하는 마을 유적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큰 마을 주변에 작은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위계적 구조가 초보적이거나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분명하게 편년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금호강 유역의 지식묘사회가 청동기시대 후기 이후 서기전 4세기대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산 대학리 대규모 묘역 지식묘 유적이다. 그것은 지도자의 개인적인 권위가 강화되었지만 호서지역에 다량의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국> 혹은 군장사회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과 대조가 되는 <읍락> 수준의 족장사회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청규 2016, 2019).

참고문헌

〈경산 지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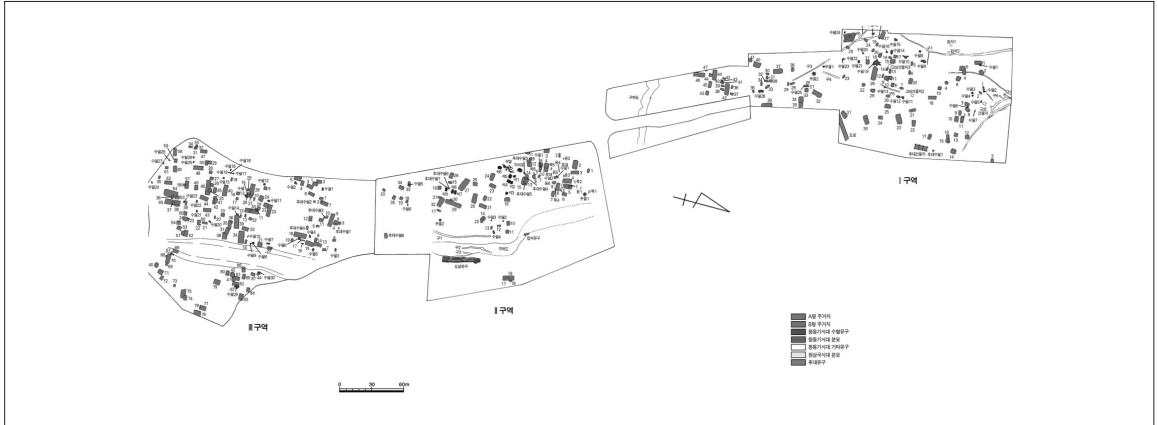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음양리·사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하양 대학리 와촌 동강리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경산 신항리 취락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경산 산양리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대구 신서혁신도시 B-3 복구역 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대구 각산동 유적”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대학리 교리 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경산 경리 440-5번지 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경산 가야리 376-1번지 유적”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중산동 160-1번지 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6, “청도 갈지리지석묘 유적, 경산갈지리지고분군”
- 세종문화재연구원, “경산 옥산동 677-7번지 유적”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시지의 문화 유적 I”
-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대구 괴전동 유적”
-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대구 옥수동 생활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동내동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경산 삼성리 665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가천동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시지동 60-1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옥수동 128번지 생활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옥수동 134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경산 가야리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경산 마곡리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구간내 경산 삼성리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대구 사월동 400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대구 매호동 1008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서부리 451번지 유적”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옥산동 300번지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경산 옥산동 29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경산 옥곡동 유적 (I~IV)”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대구 신서동 유적 (I~V)”
- 한국문화재재단 2016,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 대구 경북 (2014) VIII”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1, “경산 내리리 유적”

〈기타 논문과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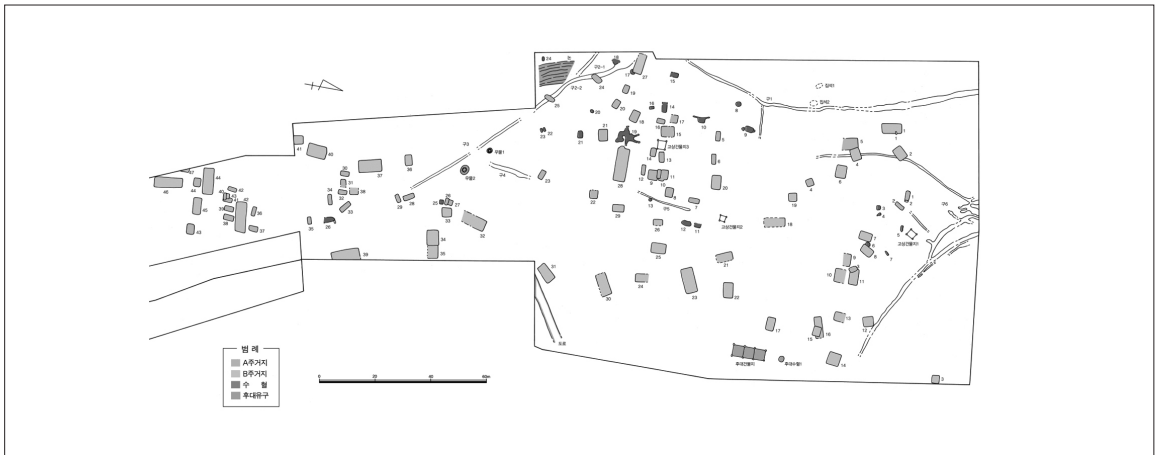
- 강봉원 2008, “한국고고학의 일방향”, 학연문화사.
- 강동석 2021, ‘섬진강 탐진강 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재조명 발표요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원주문화재연구소·한국청동기학회
- 강지원 2017, ‘밀양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청도지역 수혈주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 고민정 202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승록 2014, "밀양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택 2004, '한국 복합사회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한국상고사학보" 44, 한국상고사학회
- 김광명 2015, '청동기시대 묘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김권구 2012,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화 양상의 불안정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편, 학연문화사
- 김권구 2021,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의 취락구조', "영남고고학" 90, 영남고고학회
- 김권구 · 공민규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취락", 서경문화사
- 김권중 2020,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권중 2022,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상길 교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김범철 2018, '가옥 가옥 가구-청동기시대 사회변화에 대한 가구고고학의 이해', 충북대학교출판부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김정배 1985,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현식 2008,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영남고고학" 44, 영남고고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편 2020,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Ⅰ)-선 · 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Ⅱ-Ⅲ)"
- 박영구 2022, '춘천 중도동유적 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와 취락 양상', "호서 고고학" 51, 호서고고학회
-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문화사
-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 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안재호 1996, "무문토기시대 취락의 변천", "석오 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 안재호 · 이형원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 서경문화사
- 우명하 2017,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영남고고학" 75, 영남고고학회
- 유병록 2015,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영남문화재연구" 28, 영남문화재연구원
- 유병록 2019, '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환 2012, '대구 진천천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8,
- 윤형규 2017, "대구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사회변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규, 2017,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의 전개', "대구 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
- 윤호필 2017,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축조배경과 상징성', "한국청동기학보" 21,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 2021, '영남지역 지석묘의 기원과 출현', "영남의 지석묘 사회-가야 선주민의 무덤", 국립김해박물관
- 이동희 2021, '고대산만 지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영남의 지석묘사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학술제전 발표요지, 국립김해박물관
- 이성주 2017, '지석묘의 축조중단과 초기철기시대', "대구경북의 지석묘문화", 영남문화재연구 30, 영남문화재 연구원
- 이성주외 2016,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 학연문화사
- 이수홍 2015,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연구", 함춘원
- 이수홍 2021, '영남지역 지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영남의 지석묘사회", 국립김해박물관
- 이영문 · 윤호필 2017, "청동기시대의 고고학(4): 분묘와 의례", 서경문화사
- 이종철 201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진인진
- 이흥종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이종욱 1999, "한국초기국가 발전론", 새문사
- 이청규 2016, '청동기 보급의 주체와 지석묘 축조 집단', "백산학보" 106, 백산학회
- 이청규 2018, '금호강 유역 (국)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시론', "금호강과 길", 국립대구박물관
- 이청규 2015,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적 변천', "금호강 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 학연문화사
- 이청규 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회 2019년 학술대회 발표집, 영남고고학회
- 이청규 · 손준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도구론", 서경문화사

이희준 2000, '대구 지역의 형성과 고대 정치체의 변천', "영남고고학" 26, 영남고고학회
 이희준 2004,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정상수·방선지 2018, '경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묘지로 본 인구의 변화', "영남학" 65,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조미애 2016,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배치양상',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최몽룡 1990, '호남지방의 지석묘 사회', "한국고고학보" 25, 한국고고학회
 하진호, 2015, '청동기시대 촌락의 형성과 발전',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 학연문화사
 하진호, 2017, '금호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통시적 접근', "대구 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발굴 10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
 허의행 2014, "청동기시대 전기 호서지역 취락연구(I)",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3, 서경문화사
 허정화 2013, "대구지역 지석묘사회 연구",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황재훈 2014, "무문토기시대 전기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히라고리 타츠야 2013, "무덤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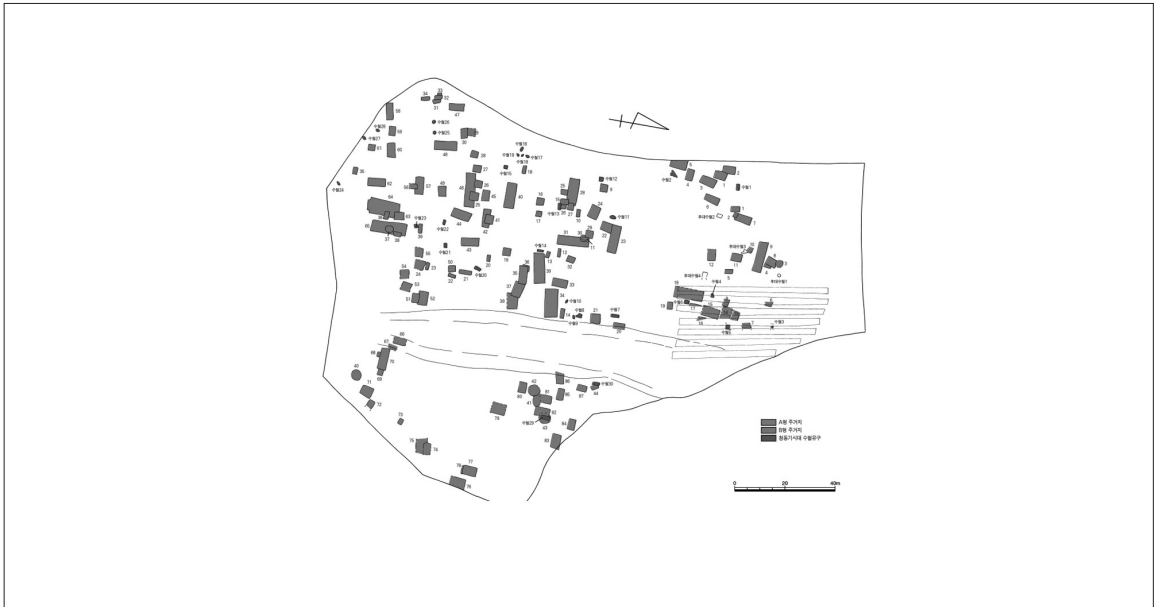
〈그림 1〉 경산 옥곡동 마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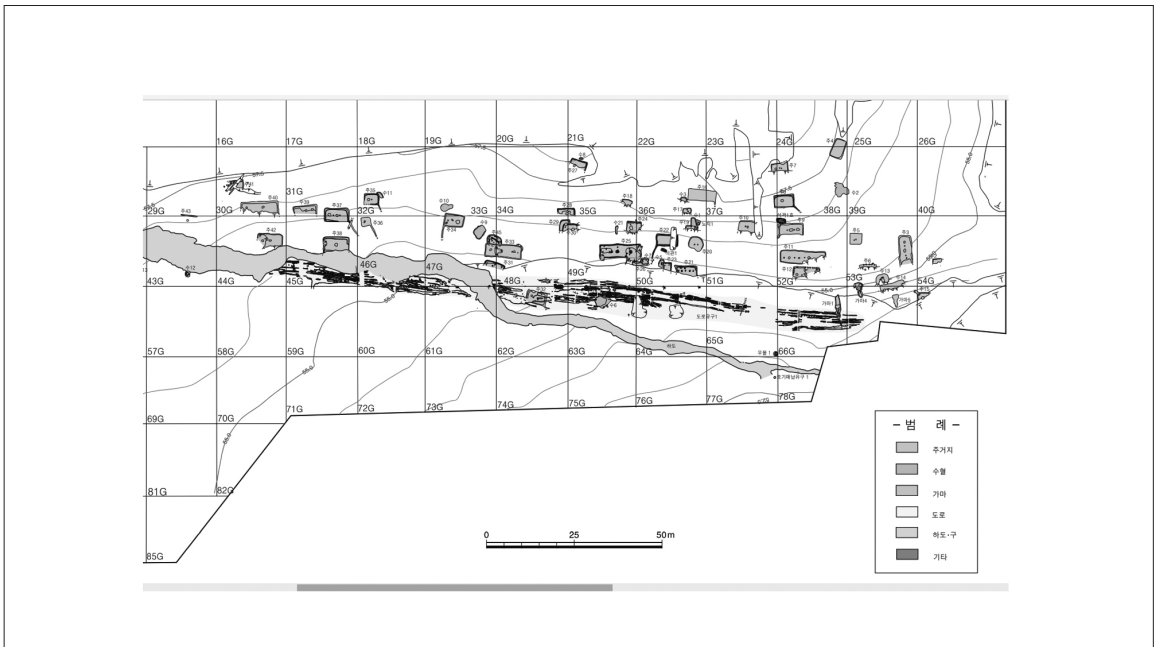
〈그림 2〉 경산 옥곡동 1구역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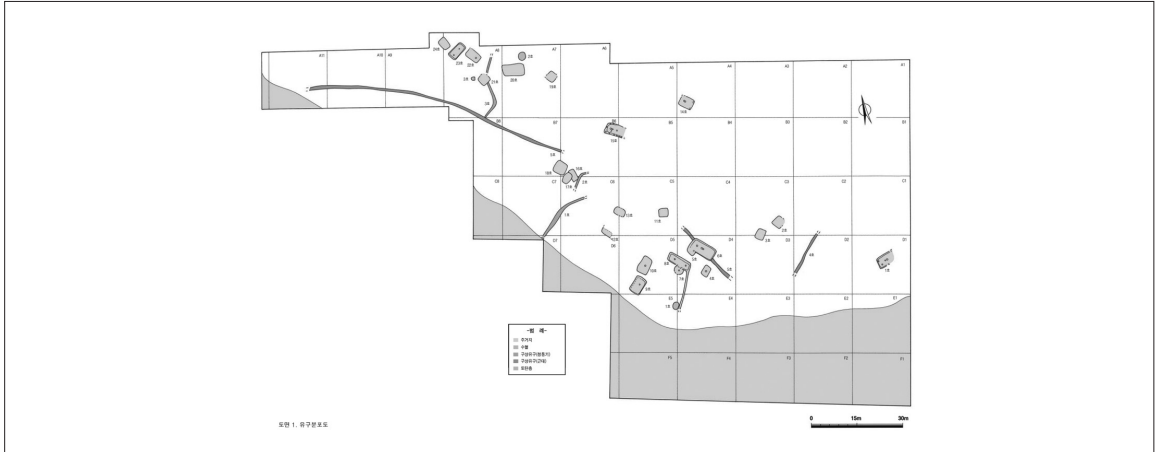
〈그림 3〉 경산 옥곡동 2구역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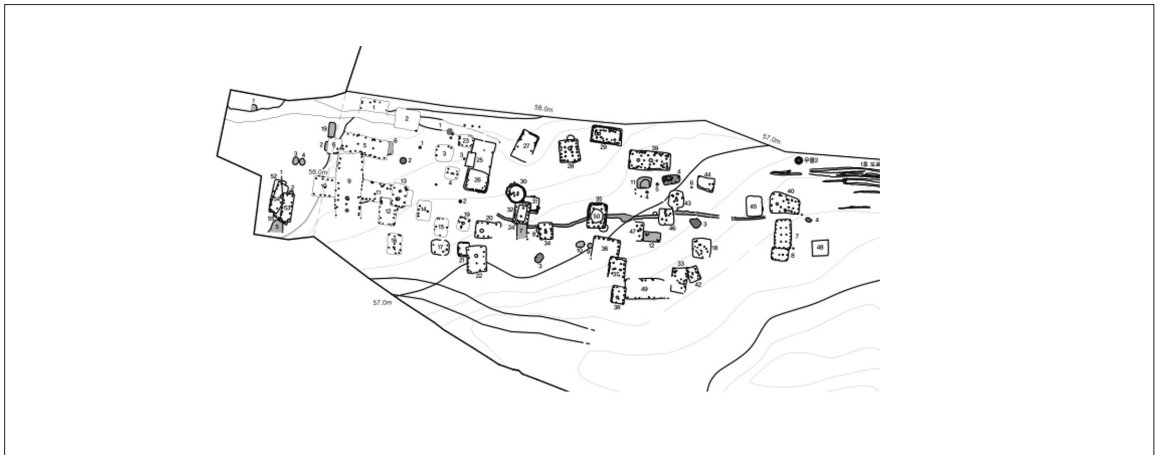
〈그림 4〉 경산 옥곡동 3구역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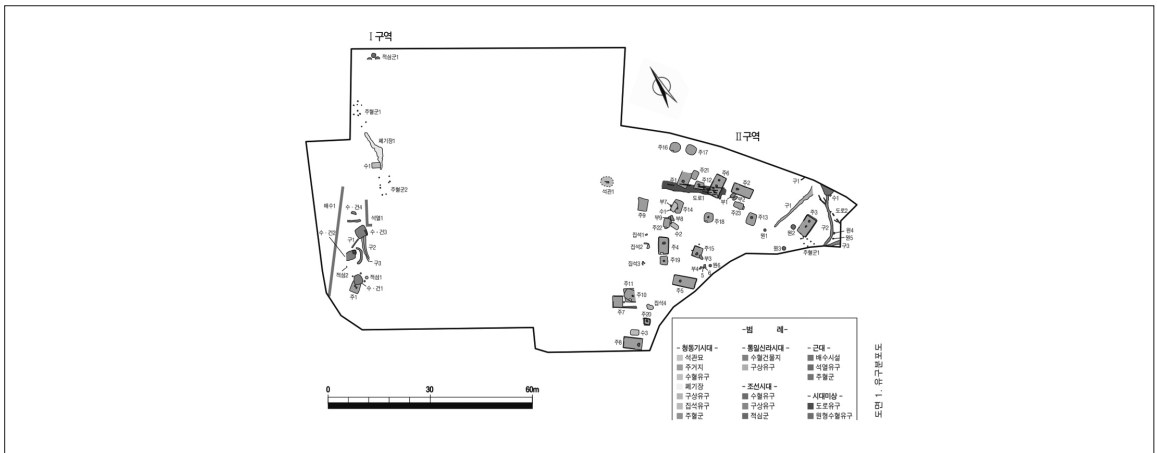
〈그림 5〉 경산 옥산동 300 마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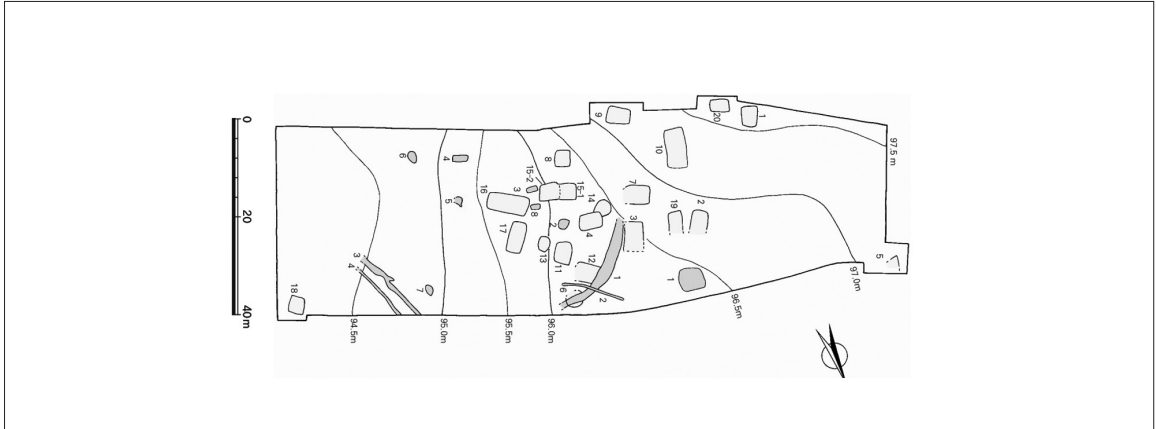
<그림 6> 대구 각산동 주거유적



<그림 7> 신서동 B-6구역 마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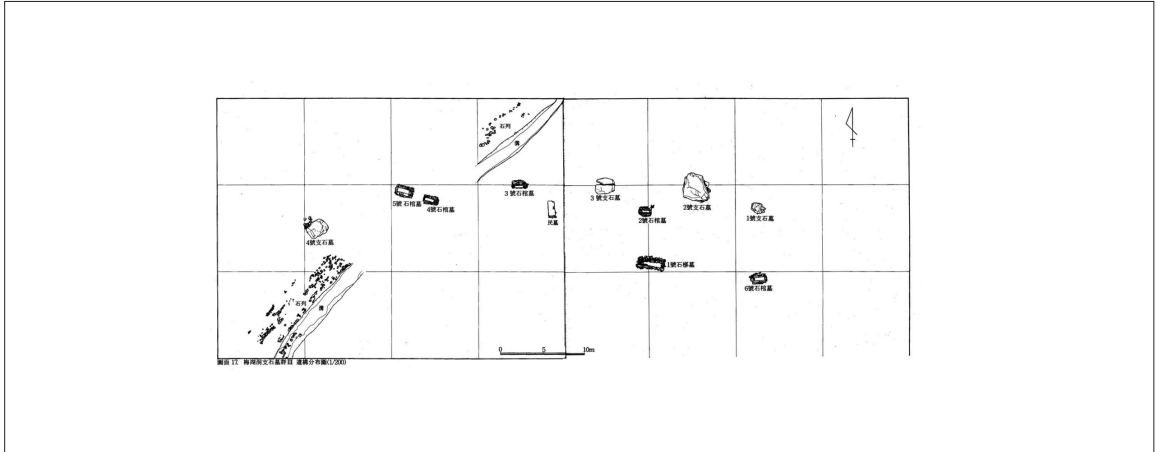
<그림 8> 남산 산양리 주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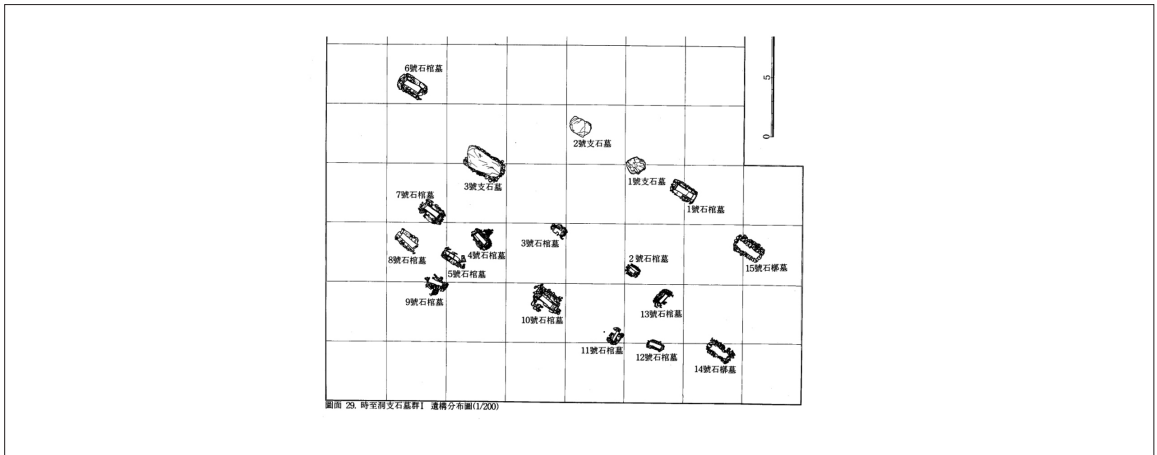
〈그림 9〉 와촌 신한리 주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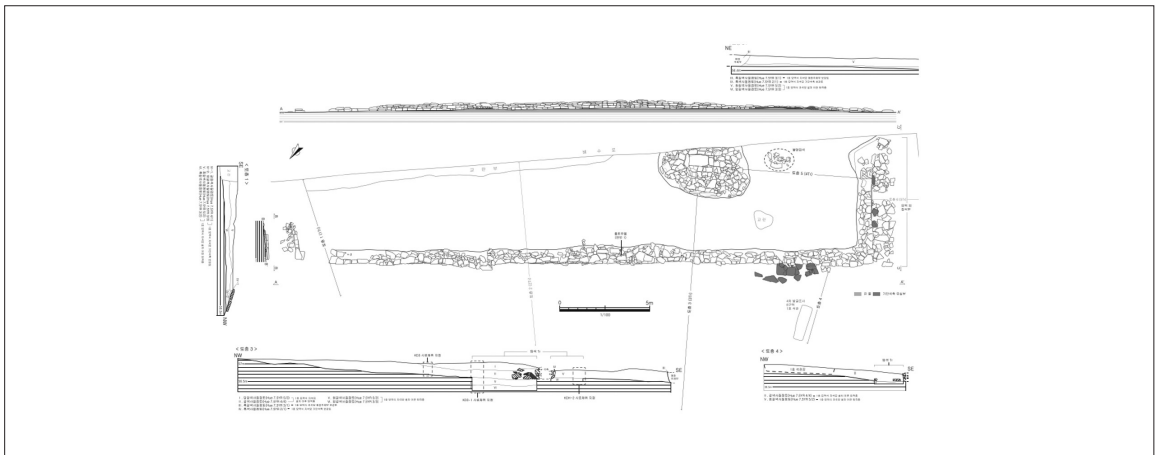
〈그림 10〉 신서동 B-1구역 지석묘군 유적



〈그림 11〉 매호동 3지구 지석묘군 유적



〈그림 12〉 시지동 1지구 지석묘군 유적



〈그림 13〉 경산 대학리 구획 지석묘

경산지역의 초기철기 문화

- 진·변한 사회의 '주조제 철서(鐵鋤)'와 그 함의

정인성
영남대학교

| 목차 |

- I. 머리말
- II. 경산지역 출토 전국계 주조철기
- III. 진·변한 지역의 주조제 철서(鐵鋤) 자료 소개
- IV. 삼한지역 출토 철서의 편년적 위치와 '시간적 공백'
- V. 동북아시아 세계의 주조 철서와 삼한지역의 철서
- VI. 결 론

I. 머리말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자가 청동기학회에 요구받은 것은 ‘경산지역의 초기철기시대와 그 문화를 개관’하는 것이었다. 학술대회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반부의 발표는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그리고 원삼국시대이다. 이는 한국고고학회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이기도 하다. 김원용의 정리 이래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에 후행하면서 원삼국(삼한)시대로 전개되는 과도기로 이해한다. 청동기가 더욱 성행하는 시대이면서 불완전하지만 철기가 출현하는 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실상 한국고고학에서 초기철기시대를 전 시기와 구분 짓는 기준은 철기의 출현보다는 점토대토기의 등장이 지표이다. 오랫동안 무문토기와 지석묘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와 점토대토기와 철기, 그리고 목관묘로 알려진 초기철기시대는 그 선후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최신 조사·연구성과를 살펴건대 두 문화요소는 비록 선후관계는 인정되지만 공존기간 역시 길었음이 인정된다.

최근 김해 구산동에서 발굴된 초대형 고인돌의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비교적 늦은 점토대토기는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구분이 애매해진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철기문화의 출현이 청동기에 후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철기의 출현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알리는 지표로 이해되는 만큼 그 출현배경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고고학의 과제이다. 그리고 철기문화의 단계별 내용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고조선사회의 성장과 진·변한사회의 성립과 전개를 고고학적으로 살피는데 필수적인 연구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진·변한 사회가 성장했던 영남은 지금까지 드러난 고고자료로 보건데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철기의 자체생산이 가장 빨랐던 지역이었다.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의 대부분은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인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지역 내에서 철기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배경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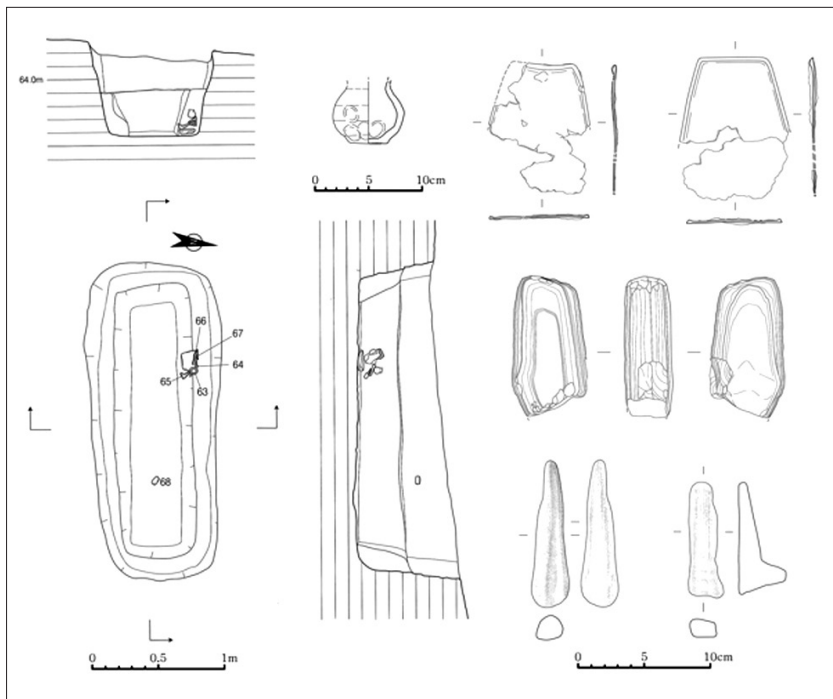
한편 경산지역은 대구분지와 함께 의외로 철기의 출현과 생산이 빨랐던 지역으로 알려진다. 대구 월성동 유적 뿐만이 아니라 경산 임당동과 신대리 유적과 대리리 등지에서 기원전 1세기대는 물론 그 이전으로 소급되는 철기 자료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들 철기 자료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 즉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철서와 형태가 유사한 주조철기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경산지역 출토 전국계 주조철기

경산지역의 내리리 유적과 임당동 유적의 목관묘에서는 전국시대 연국 철기와 흡사한 주조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진한(辰韓) 철기문화의 기원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정치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조철기가 출토된 유적은 경산 내리리 4호와 임당동 A-I-141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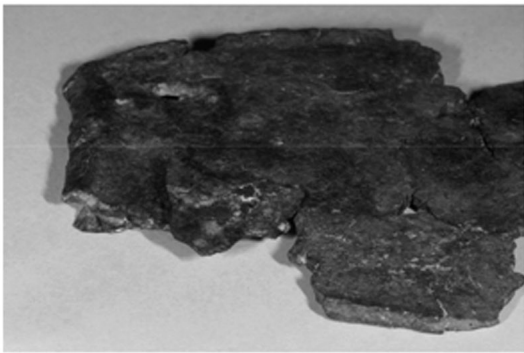
1)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

경산 내리리 유적은 진한시기의 목관묘로 구성되는 묘지이다. 이 중 4호 목관묘에서 주조철서가 출토되었다. (도면 1) 2점이 출토되었는데 파손이 심한 편이다. 철기의 형태는 쇠호미 즉 철서(鐵鋤)로 불리는 것이다. 유물을 관찰해보면 탈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조 제품임이 분명하다. (도면 2, 3) 외연을 따라서 주조 과정에서 형성된 탕구부, 즉 쇠물을 부어넣은 부위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외측면의 상면을 따라서는 도드라짐 현상이 인정된다. 이는 단합범으로 주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술속성이며 주로 중국의 전국시대로 소급되는 주조철서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동반된 유물로는 파손된 유구석부편과 소형 점토대토기 호가 있다. 점토대토기는 구연부가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저부는 평저이며 태토와 소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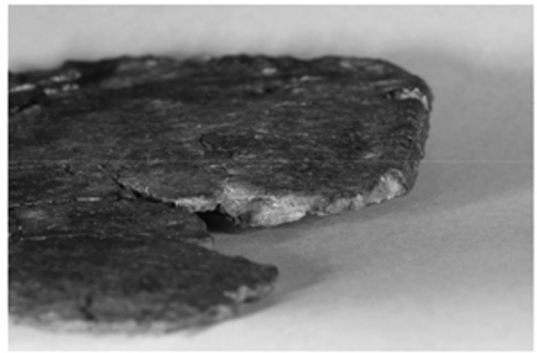


〈도면 1〉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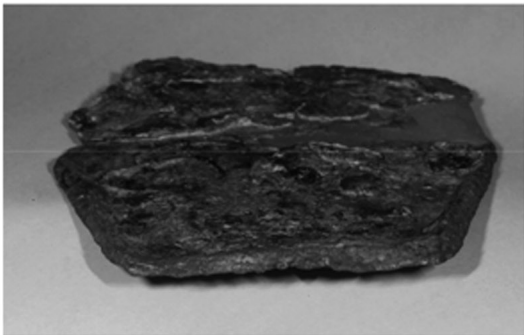
위기는 무문토기류에 속한다. 기원전 1세기대에도 산견되는 토기이지만 기원전 2세기대로 소급될 수 있는 토기이다. 유구석부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기였다면 기원전 2세기대라는 시기는 더욱 보장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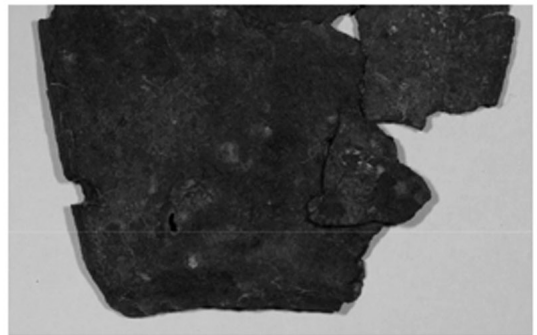
측면의 융기부



측면 외연의 융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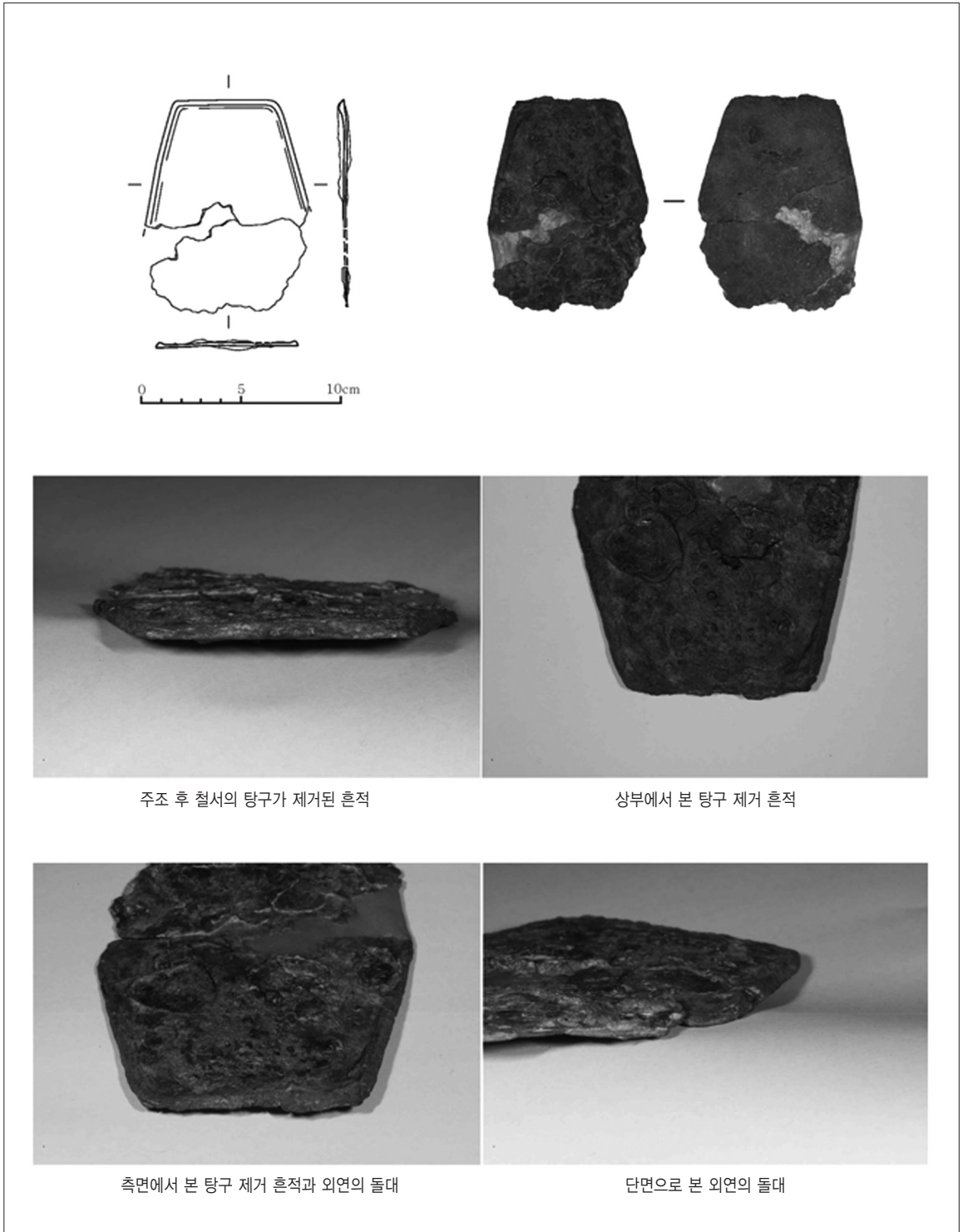


주조 후 탕구가 제거된 흔적



상부에서 본 탕구 제거 흔적

<도면 2>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1



주조 후 철서의 탕구가 제거된 흔적

상부에서 본 탕구 제거 흔적

측면에서 본 탕구 제거 흔적과 외연의 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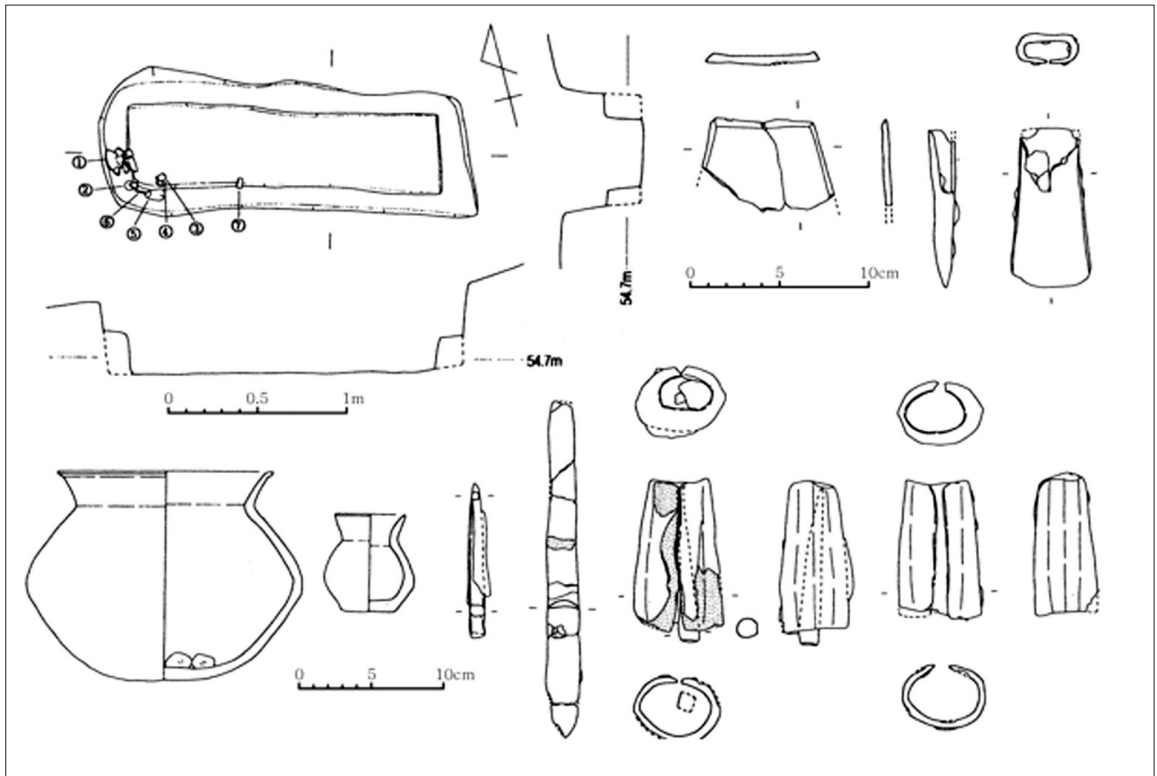
단면으로 본 외연의 돌대

<도면 3>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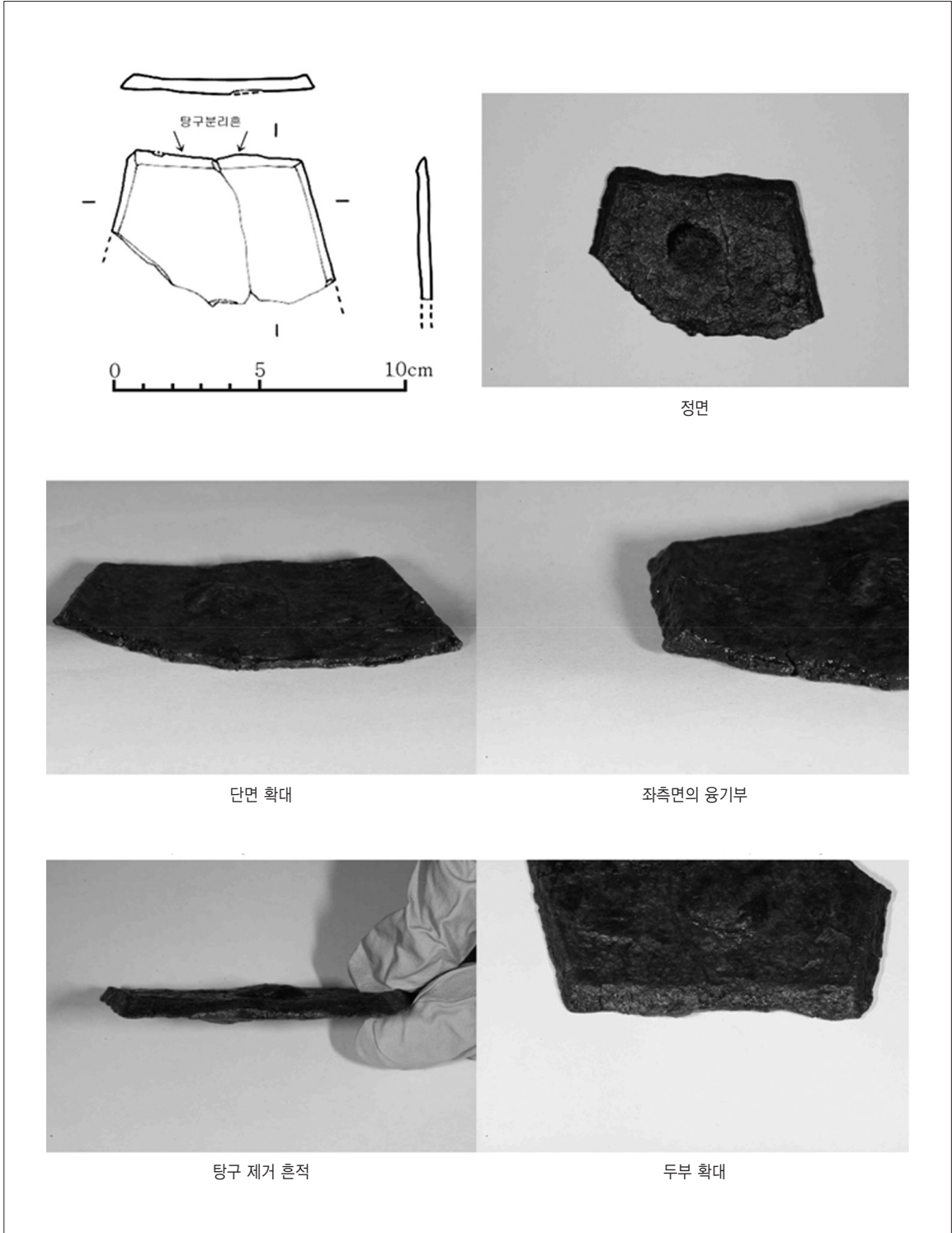
2) 경산 임당동 A-I-141호 출토 주조철서

경산 임당동 A-I-141호도 목관묘인데 여기서도 주조제품으로 보이는 쇠호미 즉 철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 철서는 두부만이 부분적으로 남았을 뿐 나머지 부위는 모두 결실되었다. 그렇지만 측면 상면의 도드라짐도 인정되고 두부의 탕구 절단흔도 관찰된다.(도면 5)

같이 출토된 유물로는 와질토기 단경호와 소형 평저호가 주목된다. 평저호는 평저에 무문토기로 평가된다. 단경호는 문양이 없는 것으로 이 기종으로는 고식으로 평가된다. 주머니호와 같은 편년에 표지적인 유물은 없지만 무문토기가 동반되고 고식의 와질토기 단경호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고려하면 기원전 1세기 전반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와질토기 출현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유구이다.



〈도면 4〉 경산 임당동 A-I-141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도면 5〉 경산 임당동 A-I-141호 출토 주조철서

Ⅲ. 진·변한 지역의 주조제 철서(鐵鋤) 자료 소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진·변한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주조제 철서의 출토사례가 있다.

1) 창원 다호리 61호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점의 주조 철서가 출토되었다. 그 중 61호 목관묘에 4점이 부장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철서도 모두 주조제인데 동일한 거푸집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각각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철서는 평면 사다리꼴이며 머리 부분이 좁고 그 반대쪽 인부가 넓은 전형적인 형태이다. 인부에 사용흔이 관찰되는 자료는 없다.

유물을 직접 관찰한 결과 잔존상태가 가장 좋은 철서(도면 6-1)는 두부에서 탕구 절단흔이 관찰된다. 보고서의 도면에는 둥근 형지공이 철서의 상위에 치우쳐서 표현되었지만 실물을 관찰한 결과 이는 제작시에 의도된 형지공이 아니었다. 주조시에 의도된 형지공은 이보다 조금 아래에서 관찰되었다. 위원 용연동 등지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철서와 형지공의 위치가 유사하다. 또 양 측면의 외연은 위쪽 방향으로 도드라진다. 이 역시 위원 용연동 등의 전형적인 주조 철서와 동일하다. 형지공의 단면 형태가 사다리꼴인 점을 더해서 생각하면 이 철서가 단합법으로 주조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부에서 사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도면 6-2는 보고서 도면에 두부 쪽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의 구멍이 뚫린 제품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관찰 결과 두부 쪽의 구멍은 의도되지 않은 주조결함에 의한 결과이며 인부 쪽으로 치우친 구멍 역시 파손의 결과로 판단된다. 즉 제작시에 의도된 형지공은 중간에 형성된 것 하나이다. 두부의 상면에는 타격에 의한 탕구 절단흔이 남아 있다. 인부는 선단이 부채꼴로 곡선을 이룬다. 일견 사용에 의한 마멸의 결과로 보이거나 실물 관찰에서는 적극적인 사용흔이 포착되지 않았다. 또 보고서 도면에는 좌우측 외연 상면에 돌기의 표현이 없으나 실제로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중앙 형지공의 단면이 사다리꼴인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 철서 역시 단합법으로 주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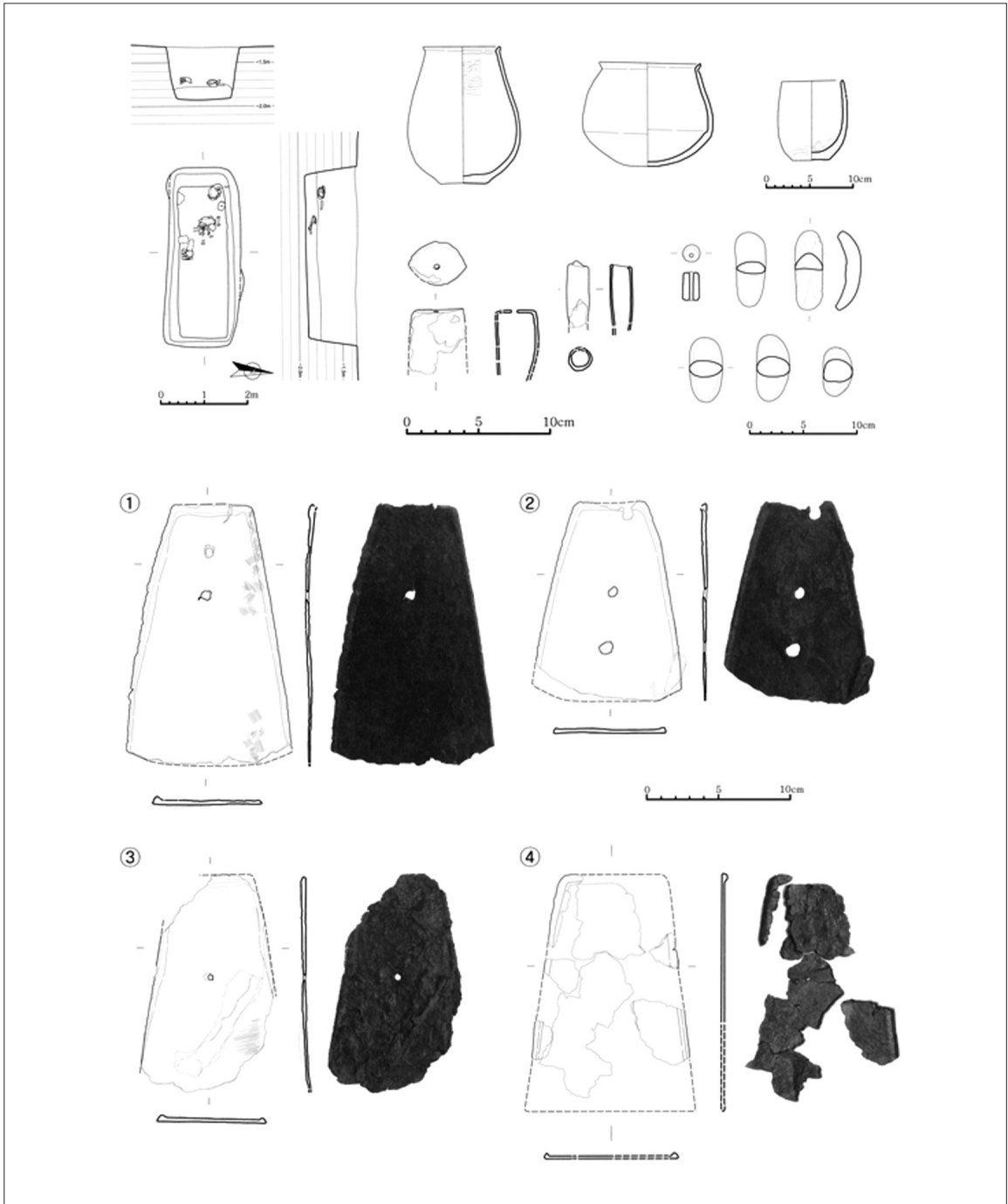
도면 6-3은 부분적으로 박락과 파손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철서의 형태를 이룬 것이다. 좁은 두부에서 인부로 직선적으로 넓어지는 형태이다. 좌우측 외연에는 보고서 도면에는 두드러지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돌기가 형성되었으며 중앙부에 둥근 형지공도 관찰된다.

도면 6-4도 인부 쪽의 잔존상태는 좋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주조철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좌우측 외연에서 돌기가 관찰된다. 인부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철늑과 함께 고착된 포흔이 관찰된다. 주조 철서를 보자기로 써서 매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흔적으로 보인다.

다호리 61호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관찰하니 이 외에도 철서의 파편으로 보이는 첩편 2점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위에서 살핀 철서에서 탈락된 첩편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부장된 철서가 더 많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동반된 유물에는 토기류가 3점이다. 주머니호로 분류되는 토기 2점과 컵형토기 1점인데 무문토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주머니호로 기재된 원저호의 경우 실물은 좀 더 평저에 가깝다. 태토 역시 완전한 와질 토기가 아니다. 조양동 5호와 가까운 시기의 목관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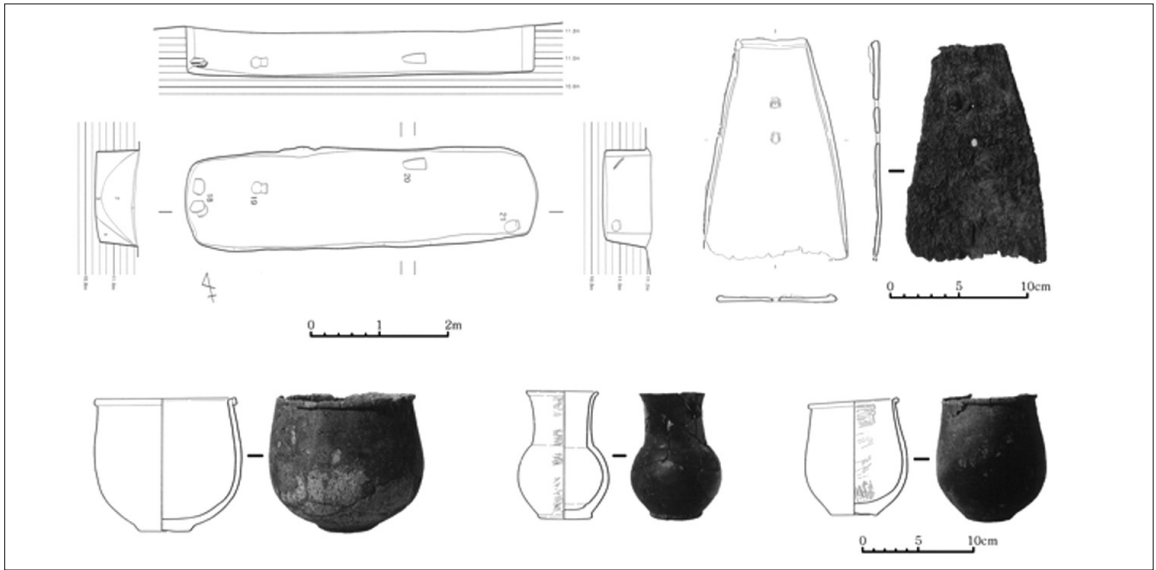


〈도면 6〉 창원 다호리 61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2) 창원 다호리 77호

다호리 77호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도면 7) 좁지만 평탄한 두부에서 인부로 가면서 곡선을 띠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그 크기와 형태가 위원 용연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서와 거의 흡사하다. 보고서 도면에는 신부에 상하 2개의 형지공이 표시되어 있는데 실물을 살펴건데 두부에서 가까운 구멍이 주조시에 의도되었던 형지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 측면에 위로 도드라진 돌기가 인정되며 두부에도 돌기가 있다. 이 역시 위원 용연동의 철서와 흡사한 특징이다. 인부는 전체적으로 결손이 인정된다.

동반되어 출토된 토기는 3점인데 모두 산화염으로 소성된 무문토기이다. 2점은 굽이 부착된 주머니호이며 나머지는 평저장경호이다. 조양동 5호와 비교되는 토기조합인데 다호리 61호보다는 고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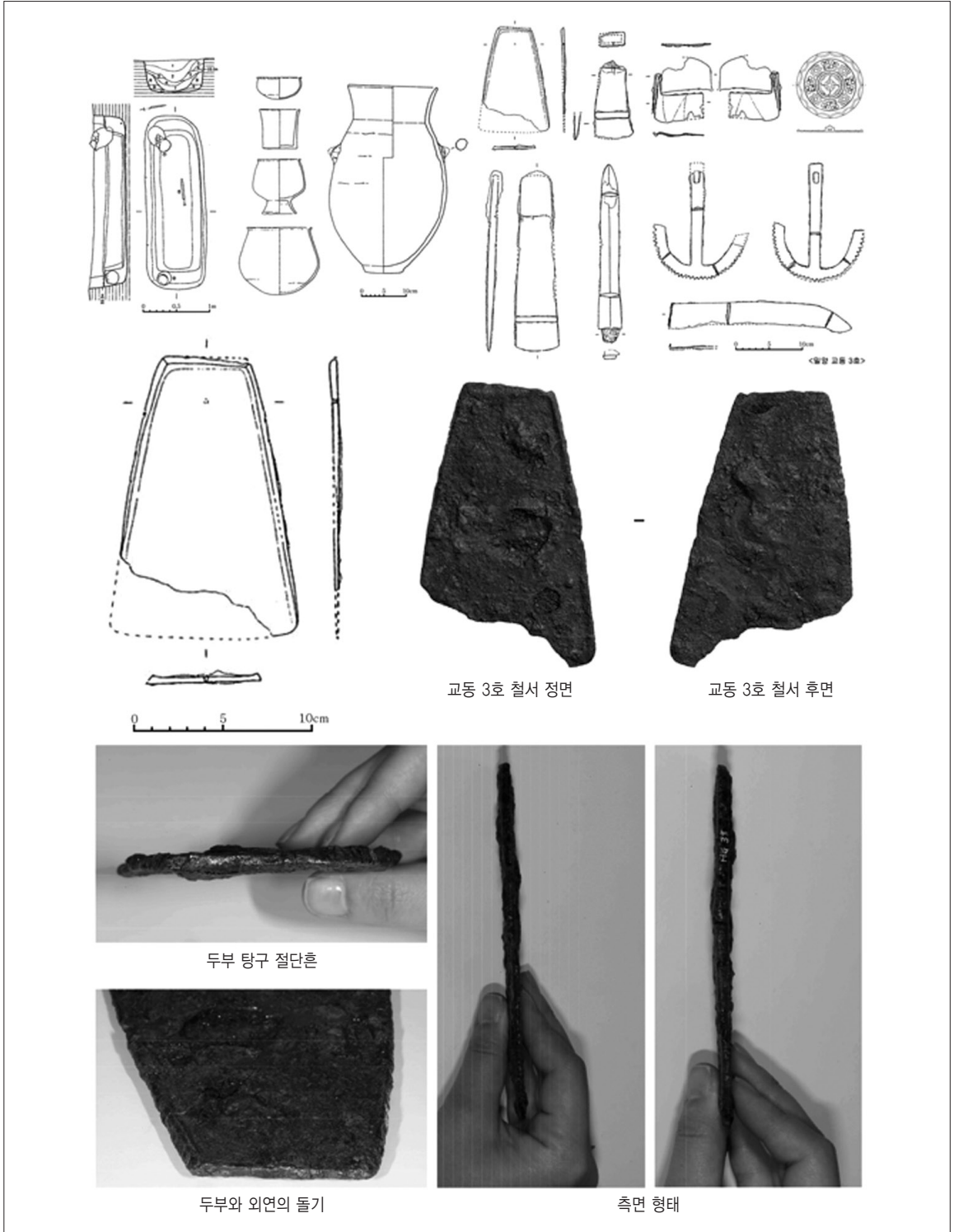


〈도면 7〉 창원 다호리 77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3) 밀양 교동 3호

밀양 교동 유적에서도 주조철서가 출토되었다.(도면 8) 그 형태는 다호리 66호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형지공이 약간 더 두부에 치우쳤으며 직경도 작다. 좌우 측면의 외연을 따라 위쪽으로 도드라짐 현상이 인정된다. 아래쪽 날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다. 두부에는 역시 다호리와 동일하게 탕구 절단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주조제 철서임을 증명하는 속성이다. 물론 단합범으로 제작된 것이다. 사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인부가 훼손된 상태를 관찰하건데 탈탄된 부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반 출토된 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주머니호이다. 완전하게 와질화된 토기로 발표자의 연대관으로는 기원전 1세기 2/4분기에 해당하지만 1/4분기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동반 출토된 성운문경은 이 연대관을 지지한다. 와질제의 꺾형토기와 완형토기 등도 동반되었으며 굽이 있는 양이호는 산화염소성의 무문토기제이다. 철기로는 판상철부와 철검, 그리고 철검과 닮형철기 등이 있다.



〈도면 8〉 밀양 교동 3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4) 경주 황성동 출토유물

이 외에도 경주 황성동 유적의 목관묘에서도 철서가 출토된 바 있다.(도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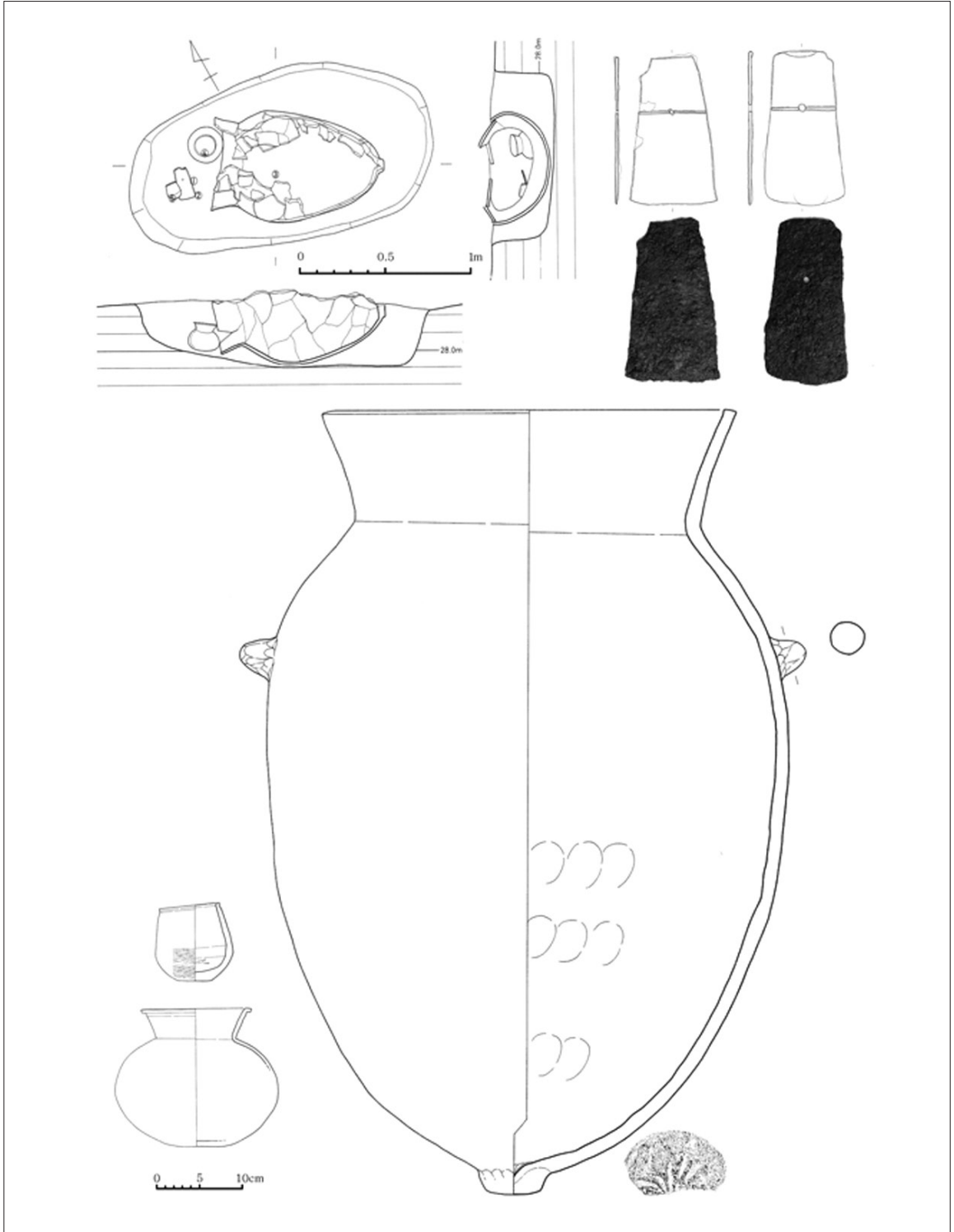
도면 10는 두부가 직선적이고 인부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신부의 중상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위에서 살핀 주조제 철서처럼 그 단면 형태가 사다리꼴이 아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뚫은 것으로 보인다. 두부와 좌우 측면을 따라 돌기도 관찰되지 않는다. 표면에 녹 피막이 주조제 철서와 다르게 켜켜이 형성된 것을 보면 단조제 즉 두드려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것처럼 두부에서 탕구 절단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두드려서 얇게 만든 철판을 재단하여 주조제 철서와 비슷한 형태를 만든 다음 신부에 구멍을 뚫어서 마무리 한 것이다.

도면 11도 그 특징이 도면 10과 유사하다. 다만 인부가 둥글게 마무리된 점, 그리고 두부의 일부가 두드려 접힌 점도 주조제 철서와 다른 점이다. 신부에 형성된 구멍도 주조제 철서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다. 물론 그 단면이 사다리꼴을 띠는 것도 아니다. 좌우 측면에 돌기가 없는 것도 차이점이다. 표면에 형성된 녹의 특징을 더하여 살피건데 단조제임은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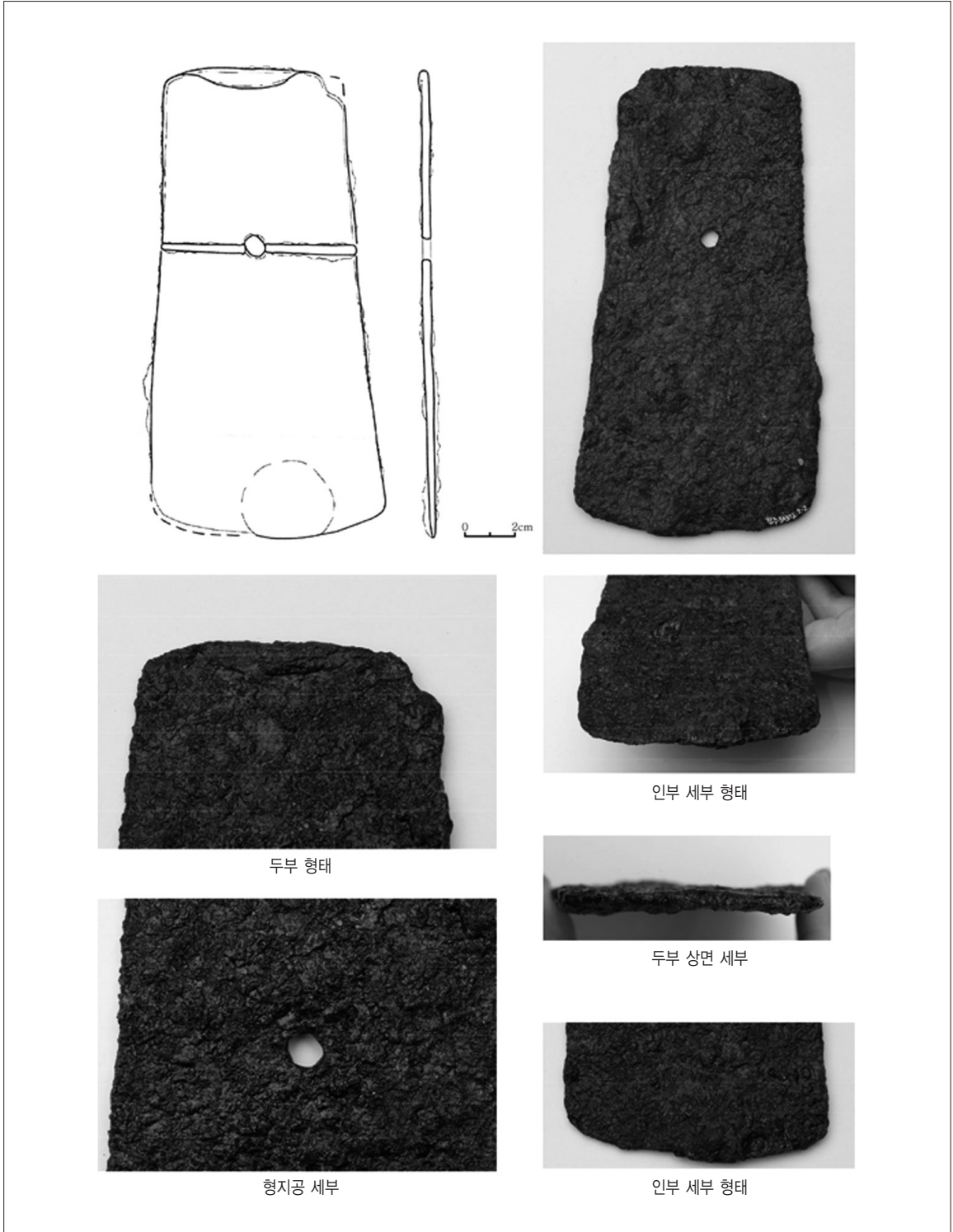
5) 나주 구기촌 출토 철서

진·변한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나주 구기촌에서도 주조제의 철서가 출토되었다.(도면 12)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철서와 평면형태는 비슷하지만 신부에 형성된 형지공이 대단히 큰 것이 특징이다. 두부 상면에서 탕구 절단흔이 관찰되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 주조제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주조제 철서는 탕구의 폭이 좁은데 비해서 구기촌의 철서는 두부 상면 전체에서 탕구 절단흔이 관찰된다. 거푸집의 탕구 설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두부 상면과 좌우측 외연을 따라 융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거푸집의 제작법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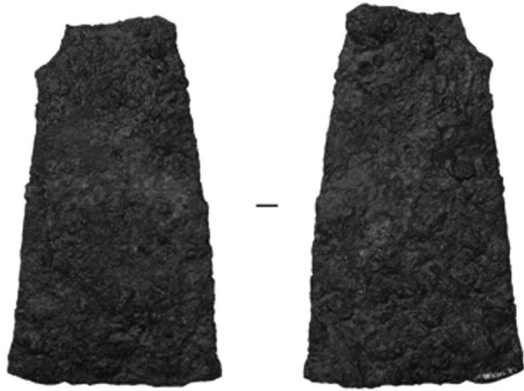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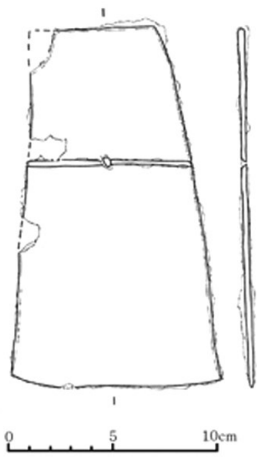
동반되어 출토된 토기들은 굽이 형성된 점토대토기 계열의 것이다. 영남지역이라면 와질토기가 출현하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나주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의 경우 와질토기의 출현이 늦은 점을 고려하면 그 편년적 위치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도면 9〉 경주 황성동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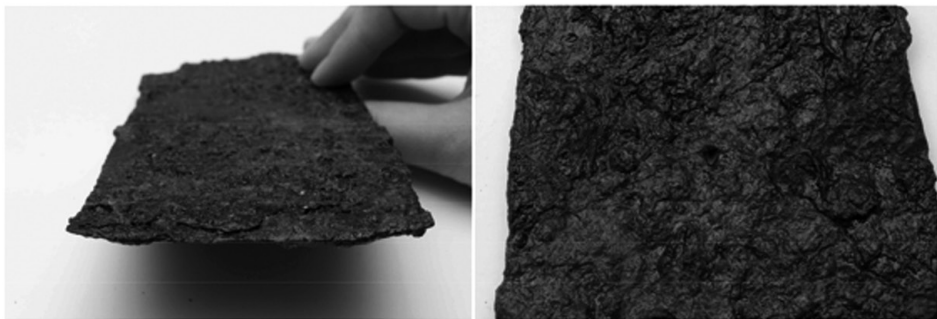


〈도면 10〉 경주 황성동 출토 주조철서1



상면 정면 모습 - 탕구 제거흔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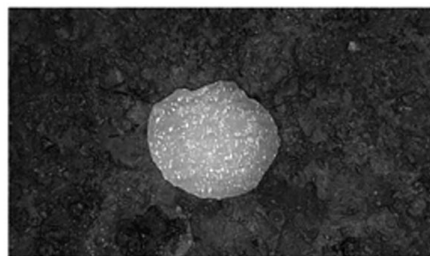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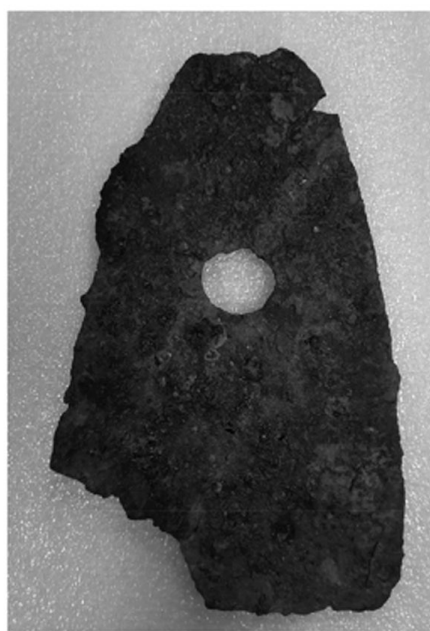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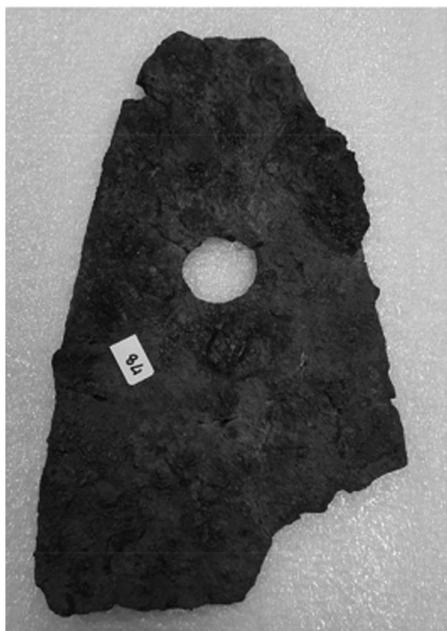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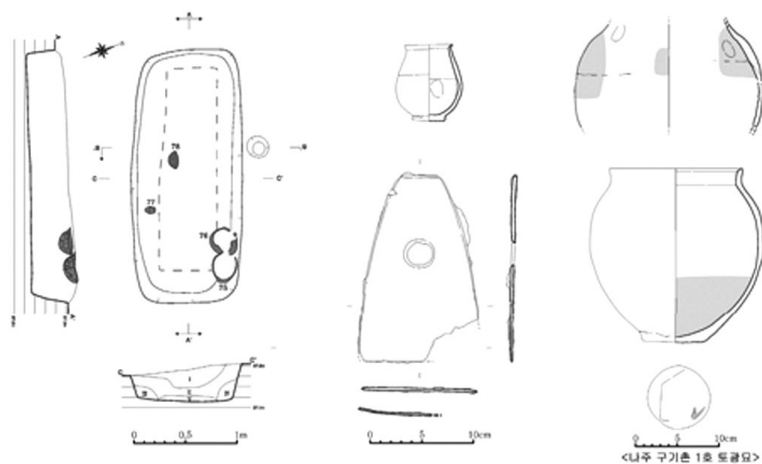
상면 모습 - 탕구 제거흔적 없음



외면에 돌대 없음, 단조품의 철녹 확인

정면에서 본 형지공의 천공모습

<도면 11> 경주 황성동 출토 주조철서2



두부 탕구 제거흔

형지공 확대 모습

<도면 12> 나주 구기촌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IV. 삼한지역 출토 철서의 편년적 위치와 ‘시간적 공백’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철서 자료는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위연 용연동형 철서이다. 주조제이면서 두부가 좁고 인부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두부 외연은 물론 좌우 측연을 따라서도 한쪽 방향으로 돌기(용기선)가 형성된다. 아울러 신부의 중상위에 직경이 작은 둥근 형지공이 뚫려 있다. 두부의 상단 중앙에 비교적 좁은 탕구가 설치되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이다. 다호리 77호와 61호의 모든 철서, 밀양 교동, 그리고 경산 내리리와 임당동에서 출토된 철서가 이 형식에 속한다.

두 번째는 나주 구기촌형이다. 좁은 두부에서 인부로 가면서 약간 곡선을 띠면서 넓어지고 인부는 직선적으로 마무리된다. 두부와 좌우측 외연을 따라 용기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신부의 중상위에 둥글고 큰 형지공이 형성된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서 중에서는 나주 구기촌 출토품이 유일하다.

세 번째는 경주 황성동형이다. 단조제로 좁은 두부에서 비교적 직선적으로 넓어져서 인부로 전개된다. 좁은 결박공이 신부의 중상위에 위치한다.

용연동형 철서와 동반되는 토기는 대부분 무문토기류인데 정확하게는 점토대토기류이다. 다호리 77호는 형식(形式)차가 있는 주머니호 2점과 굽 달린 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주머니호는 저부에 평저보다 선행하는 굽이 형성되었고 구연단에는 따로 만들어 돌린 점토피가 돌아간다. 장경호도 그냥 평저가 아니고 굽이 부착된 것이다. 조양동 5호와 비교되는 토기 조합인데 점토대토기 중에서 주머니호 기형이 출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발표자의 연대관으로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상당한다.

다호리 61호에서도 주머니호 2점이 출토되었다. 한 점은 저부의 형태가 굽형에서 탈피한 평저이고 또 한 점은 평저기미이면서 원저화가 진행된 형태이다. 평저기미의 주머니호는 다호리 1호보다도 고식 단계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여 기원전 2세기 4/4분기이거나 기원전 1세기 1/4분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경산 내리리 4호에서는 소형 무문토기 평저호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 상대편년을 시사하는 기종이 아니어서 명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1세기 1/4분기 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합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구석부가 안정된 동반품이라면 그 시기는 더 소급될 수도 있다.

임당동 A-I-141호는 와질화가 진행된 원저단경호가 출토된 점이 중요하다. 내리리 4호와 같은 무문토기 소형 평저호가 있지만 와질토기 원저호로 볼 때 기원전 1/4분기 정도가 안정된 연대일 것이다.

밀양 교동 3호에 동반된 토기들은 모두 와질토기화가 진행된 것이다. 전형적인 주머니호는 완전한 원저에 동체 상위는 내만하고 구연단부는 꺾여서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에 별도의 점토피를 붙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 주머니호 역시 저부와 동체부 그리고 구연단부의 형태가 동일하다. 완형토기는 둥근 저부에 살짝 외반하는 구연단부가 특징인 토기이다. 기원전 1세기 2/4분기의 유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성동 유적에서는 문화재보호재단이 발굴한 1호 옹관묘에서 단조제 철서가 2점이나 포개진 채로 출토되었다. 동반된 토기들은 평저기미의 단경호와 주머니호의 일종으로 분류될 듯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이들

토기 2점을 와질토기라고 평가하였으나 석사립이 다량 함유된 토기라고 설명한 것을 보면 완성형의 와질토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옹관으로 사용된 대형토기는 어깨부의 두귀(兩耳)가 소형화되었고 저부에는 작은 굽이 달렸다. 저부의 작은 굽은 그 내면에 조자기 주름이 형성되었다. 토기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도치성형으로 저부를 마무리한 결과이다. 이 역시 무문토기가 와질토기화 과정에서 등장한 기법이다. 결국 황성동의 철서들은 동반 유물들로 보아 기원전 1세기 1/4분기 정도로 편년된다. 물론 조금 더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유물 조합이다.

한편 영남지역은 아니지만 나주 구기촌 출토 철서는 동반 토기들의 형태로 교차편년을 해 본다면 창원 다호리 77호 단계에 비정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주머니호 기종이 유행하지 않고 바로 와질토기화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영남지역 상대편년 안과 역연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관련 자료의 출토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바,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철서들은 낙랑군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반입되었거나 생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시대 연국의 강역에서 이들 주조 철서들이 생산되고 유행하던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3세기 이전이지만, 진·변한 지역에서의 무덤 부장시기는 빠른 것이라도 기원전 2세기 후반대라는 점이다. 분명히 의미있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공백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진·변한 지역에서 철기 생산의 개시가 전국시대 연국 철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철기문화의 확산은 일률적이지도 일원적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V. 동북아시아 세계의 주조 철서와 삼한지역의 철서

이상 살핀 것처럼 진·변한 지역과 마한지역에 비교적 다수의 ‘주조 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들 철기들이 기원전 3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중국 전국시대 철기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지역에서의 출토 시점은 기원전 2세기대 후반부터이기 때문에 전국시대 연국 철기와 진·변한지역 주조철기를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분명한 ‘시간적 공백’이 인정된다. 이 시간적 공백은 최근 일본고고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주장되었던 ‘전국시대 연국 강역의 확대와 철기의 확산’이라는 설명들의 모순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주조철기가 낙랑고지에서 출토사례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낙랑군의 치소이자 조선현의 현치라고 이해되는 낙랑토성에서는 다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근년 발표자는 이를 직접 조사하여 소개했는데 그중에서 주조 철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발굴 역사가 있는 낙랑고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주조제 철서를 포함한 영남지역의 초기철기 생산체계가 낙랑군의 영향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 오랫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낙랑군(문화) 영향설’로도 진·변한의 철기생

산 개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진·변한 사회에서 출토되는 주조제 철서의 시공간적 위치와 그 함의를 살피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적인 시선에서 관련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시대 연국의 수도 중 하나인 하북성 연하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하도에서 출토된 철서는 영남지역의 철서와 외형이 닮은 것도 있지만 형지공이 없거나 형태가 다른 것이 더 많다. 특히 일부 쪽에서 외연이 외반하는 형태는 크게 이질적이다. 보고서에는 두부와 측연을 따라 용기돌선이 표현되지 않은 자료도 소개되었다. 보고서의 도면에 이 속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 판단하건대 연산산맥 이남의 연국 강역에서 출토된 철서는 진·변한의 주조 철서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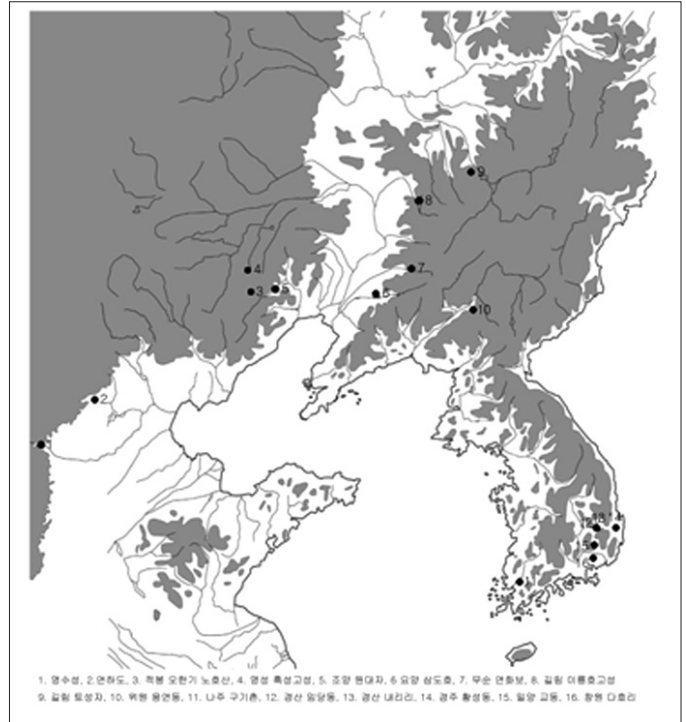
연국과 인접했던 중산국의 영수성에서도 주조철서와 거푸집이 출토된 바 있다. 특히 공개된 거푸집 자료는 외연의 용기돌선이 없는 형태이다. 이 거푸집에는 형지가 설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실물 자료에서 형지공이 없는 철서가 있는 이유도 설명된다. 탕구를 경사지게 만든 점도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주조용의 거푸집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주조된 제품에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고 탕구를 제거하기 위한 고안이다. 실제로 진·변한 지역의 일부 철서 자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된 탕구흔이 있는 자료가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세계에서 철서 자료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찰 속성이라고 평가되지만 실물 관찰을 경험한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기여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리고 영수성 출토 철서 자료에는 신부가 휘어진 것이 있다. 이것이 주조제인 것을 감안하면 거푸집을 곡면으로 설계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철서는 중국 동북지역이나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상 연하도와 영수성 등지에서 출토된 철서들은 진·변한 지역의 철서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국의 전통적인 강역을 벗어나 연산산맥의 동북에 해당하는 내몽고 지역의 적봉 오한기의 노호산 유적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 철서는 의외로 영남지역의 주조 철서와 유사도가 높다. 전체적인 형태, 두부와 좌우 측연의 용기 돌선, 그리고 형지공의 위치와 크기도 그러하다. 화림격이 토성자 출토 철서도 형태가 유사하다.

요서지역에서 연국의 물질문화 요소가 확인되는 유적인 조양 원대자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 비록 인부가 닳아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속성에서 진·변한의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같은 요서지역인 영성의 흑성 고성에서는 형태가 약간 다른 주조철서가 출토되었다. 도면으로 보아 두부 전체에 파면이 형성되었고 신부 중앙에 둥글고 큰 형지공이 뚫린 형태이다. 두부 전면의 파면은 탕구가 두부의 폭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던 결과일 수 있다. 이는 탕구가 두부의 중간에 좁혀서 설계된 대다수의 철서 사례와 비교된다. 지금까지 실물을 확인한 자료로는 시기가 빠른 것일수록 탕구의 폭이 좁은 경향이 인정된다. 특히 한대(漢代) 제국(齊國)의 강역에서 출토된 철서 중에는 두부와 폭이 동일하게 설계된 거푸집이 확인되었다. 어쨌거나 흑성고성의 자료는 나주 구기촌 자료와 연결된다. 다만 외연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요동지역의 자료를 살피건대 요양 삼도호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가 주목된다. 이 역시 나주 구기촌의 철서처럼 신부에 큼직하고 둥근 형지공이 뚫린 것이다. 실물 자료를 살피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보고문의 도판에는 좌우 측연을 따라서 용기돌선이 관찰된다. 구기촌 철서와는 다른 점이다. 요양 삼도호는 전국시대 후기에서 전한대에 걸치는 취락유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토기로 보아서는 전한대와 후한대의 유물이 대부분이다.

한편 무순 연화보에서 출토된 철서는 형태적으로도 제작기법의 면에서도 진·변한의 철서와 유사도가 높다. 두부와 좌우측 외연을 따라 형성된 용기돌선과 단면이 경사지는 형지공의 형태는 물론 그 위치도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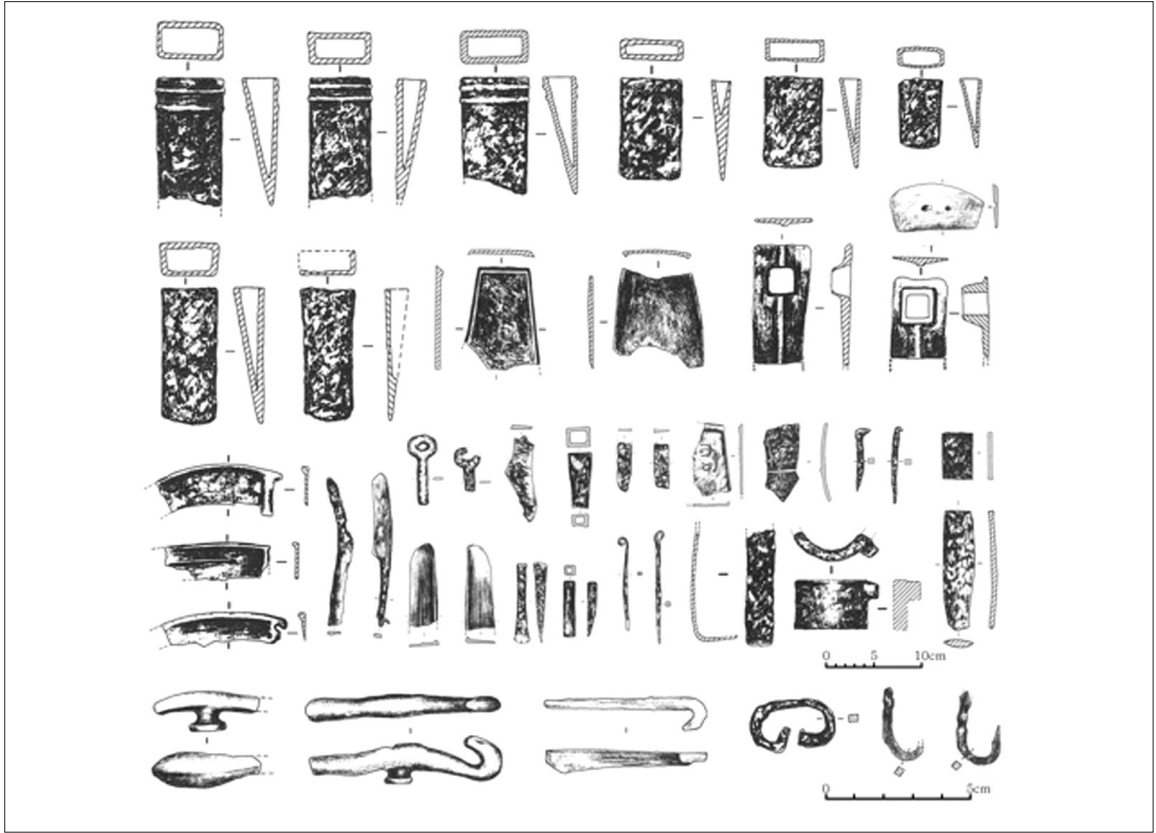
〈도면14〉 주조철서가 출토된 대표 유적의 위치

그리고 위원 용연동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서는 영남지역의 그것들과 더욱 닮아있다. 두부에서 인부로 전개되는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이고 형지공의 위치와 좌우측 외연을 따라서 형성된 용기돌선도 매우 유사하다. 용연동에서 출토된 철서와 철모 역시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이 영남지역에서 출토된다.

길림지역의 이룡호고성에서 출토된 철기들도 중요하다.(도면 15) 연산산맥 이남에서 유행한 철기들이 다수 확인되는 한편 요동지역에서 특화된 철기들도 관찰된다. 그중 주조철서는 영남지역은 물론 연화보나 위원 용연동의 것과 형태상 흡사하다. 철서 중에는 문자가 압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시대 연국 공방에서 제작된 철기라는 의견이 있다. 이 토성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는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대표적인 토기인 요동식 부형토기가 닮은 토기가 있다. 큰 틀에서 세죽리-연화보와 공통분모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철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발견되었다. 임치의 제국고성과 동평릉고성이 대표적이다.(도면 16) 제국고성에서는 한대의 공방유구와 수혈에서 철서가 출토되었는데 구기촌 철서처럼 신부 중앙에 큰 형지공이 형성된 것이 많다. 형지공은 네모진 것과 원형이 있다. 현지에서 실물을 관찰한 결과 두부 전체에 탕구 절단흔이 관찰되는 것이 많으며 외연을 따라 용기돌선이 없는 것도 있다. 또 동평릉고성의 한대 공방에서도 다수의 철서와 거푸집이 출토되었다. 거푸집에는 신부의 중앙에 둥근 형지공과 네모진 형지공이 모두 관찰된다. 철서 두부의 폭과 동일하게 설계된 탕구가 설치된 것도 있다.

결국 지금까지 동아시아 세계에서 출토된 철서 자료를 살피건대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철서는 한대 산둥지



〈도면 15〉 길림 이릉호고성의 주조철서와 각종 철기

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흑성고성과 삼도호 유적에서 출토된 한대 산동형 철서들의 경우 현 지에서의 제작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산동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한대 산동산 물품의 증가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경산 임당동에서 출토된 초엽문경은 대표적인 산동산 한경이며 사천 늑도에서 출토된 ‘S’자형 대용의 경우도 산동에서 생산된 물품이다. 물론 낙랑군 설치 시기보다 빠른 기원전 2세기대의 물품이다.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반량전도 이 역연대를 지지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 것처럼 진·변한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용연동형 철서는 연산산맥을 넘어서 설치된 연장성과 관련된 지역의 출토품과 닮아있다. 그리고 이들 연산산맥의 북동지역을 따라 형성된 장성 유적들은 흔히 연의 동진과 결부시켜 이해한다. 짧은 시기에 조성되었다가 그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존속시기가 짧다. 구체적으로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역연대가 도출된다. 진·변한의 철서 자료들과는 100여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인정된다. 결국 양자를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이를 메울 수 있는 자료는 요동지역과 청천강 이북에서 형성된 세죽리-연화보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주조철기들일 수밖에 없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치는 역연대는 동반되는 명도전과 반량전으로도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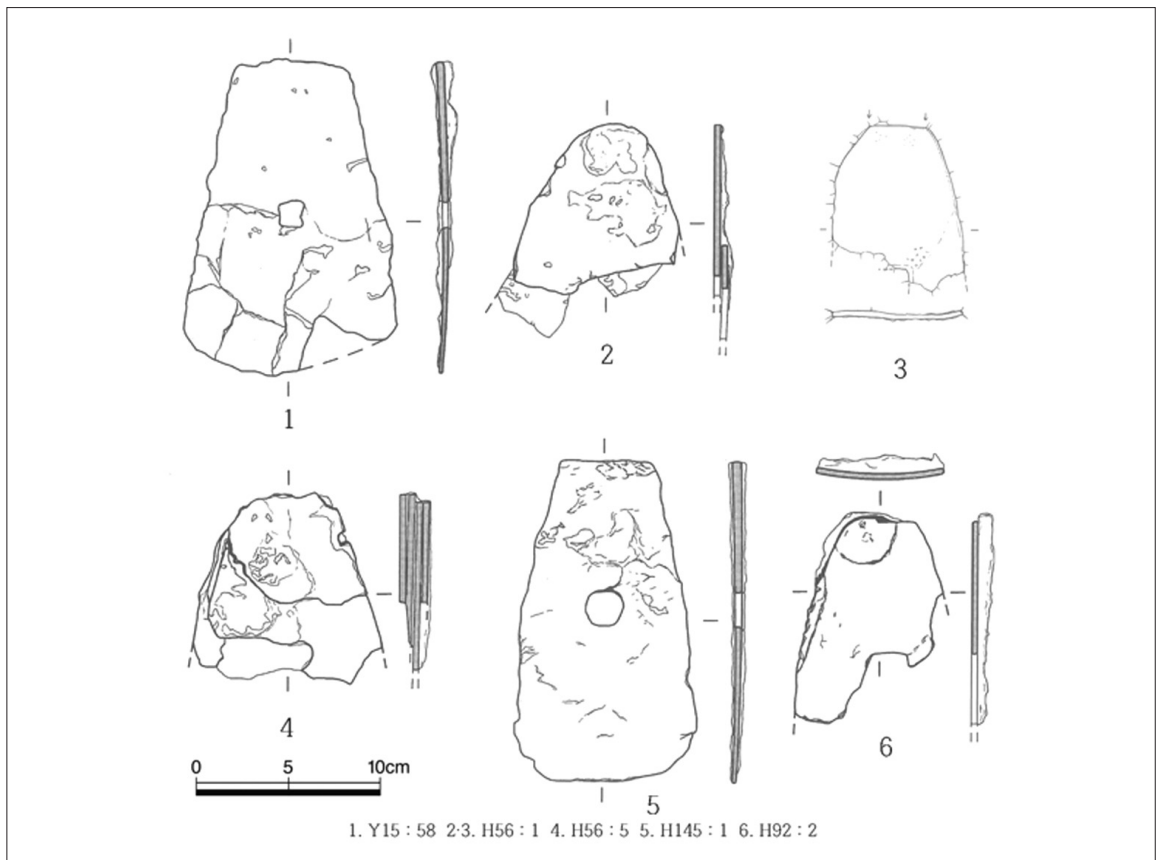
세죽리-연화보 유형은 영남지역의 초기철기 문화의 여러 요소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고려

되지 않았던 주조철서를 더해서 생각한다면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란 서북한지역의 낙랑철기가 아니라 세죽리-연화보 공간의 기원전 2세기대와 통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다만 서북한식 화분형토기와 주조 철서가 동반된 대성동 유적이거나 최근 삼각형점토대토기와 동반된 회도와 화분형토기,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등이 출토된 남양주 유적의 사례를 살피건대 중계지로서 서북한지역과 중부지역의 내륙 교통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이미 세죽리-연화보 유형이 유행하던 공간에는 전형적인 연식 부형토기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지역을 연의 정치적 지배공간이 아니라 고조선의 세력공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초기철기란 전국시대 연국이 아니라 요동지역에서 서북한 접경지역까지를 아우르는 후기 고조선 지역의 철기문화와 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화분형토기가 유행한 서북한 지역과의 관계이다. 기원전 2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요동지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북한지역의 화분형토기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토성동 486호 등의 사례처럼 분명 낙랑군 설치보다 소급되는 목곽묘도 인정된다. 위만조선의 중심지와 강역의 변화 등 민감한 문제가 많으나 이 발표문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도면 16〉 산동 임치 제국고성 출토 한대 철서(3은 발표자 직접 실측)

Ⅵ. 결 론

경산지역을 포함하는 진·변한지역의 '주조철서'를 분석한 결과 초기철기의 기원과 계보는 전국시대의 연국 철기에 돌 수 없음을 알았다. 나아가 낙랑군의 철기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전국시대 연국 철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의 철기문화로 정착한 기원전 2세기대의 고조선 철기와의 관련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편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건대 중국 산둥지역에서 유통된 철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유통의 주체와 방법을 둘러싸고는 밝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어찌되었거나 철기문화의 파급은 일원적이지 않았으며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끝으로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된 단조제 철서가 시사하는 문제이다. 이는 지역에서 주조제 철서의 기능을 개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성 있는 농공구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정백은, 1958, 「우리나라 철기사용의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3.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李南珪, 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문화」, 『한국고대사논총』제5집, 한국고대사학회.
- 孫明助, 1998, 「韓半島 中南部地方鐵器生産遺蹟의 現狀」, 『嶺南考古學』22, 嶺南考古學會.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 송계현, 2002, 「嶺南地域 初期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第11회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 李南珪, 2002, 「韓半島初期鐵器文化의 流入樣相」, 『韓國上古史學報』36, 韓國上古史學會.
-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 『西安南郊秦墓』, 陝西人民出版社.
- 金武重, 2004, 「華城 旗安里製鐵遺蹟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第40輯.
- 白云翔, 2005, 『先秦兩漢鐵器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 鄭仁盛, 2006, 「樂浪土城의 鐵器와 製作」, 『樂浪文化研究』, 東北亞歷史財團.
- 李南珪, 2006, 「樂浪地域 漢代 鐵製兵器의 普及과 그 意味」, 『樂浪文化研究』, 東北亞歷史財團.
- 春成秀爾, 2006, 「彌生時代의 年代問題」, 『新彌生時代의 始まり-第1-彌生時代의 新年代』, 雄山閣.
- 九州테크노리서치·TAC센터 大澤正己, 2007, 「樂浪土城出土 椀形滓·鐵器의 金屬學的調查」, 『東아시아에서 樂浪土城出土品의 位置-平成17年度~平成1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村上恭通, 2007, 「樂浪土城의 鐵製品」, 『東아시아에서 樂浪土城出土品의 位置-平成17年度~平成1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李成珪, 2008, 「樂浪郡에 普及된 鐵官의 鐵製 農具」, 『木簡과 文字』2號, 韓國木簡學會.
- 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三卷, 雄山閣』.
- 정인성,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영남고고학』47호, 영남고고학회.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韓國考古學報』68輯, 韓國考古學會.
- 金想民, 2009, 「韓半島 鑄造鐵斧의 展開樣相에 대한 考察」, 『湖西考古學』20, 湖西考古學會.
- 孫明助, 2009, 「韓半島 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동북아 고대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전북대 BK21사업단.
- 金一圭, 2010, 「最近 調査成果로 본 韓國 鐵文化의 展開」, 『東아시아의 古代鐵文化』, 雄山閣.
- 吳江原, 2010, 「燕나라 遼東郡과 東遼河 流域 土着集團의 독특한 交流方式」, 『白山學報』제88호, 白山學會.
- 김새봄, 2011, 「원삼국 후기 영남지역과 경기·충청지역 철모의 교류양상」, 『한국고고학보』81, 한국고고학회.
- 임영희, 2011, 「영남지역 원삼국기 철검·환두도의 지역별 전개과정」, 『영남고고학』59, 영남고고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韓中鐵器資料集 I-중국 동북지역 출토철기-』, 금강인쇄사.
- 李昌熙, 2011, 「韓半島初期鐵器의 實年代」, 『韓國における鉄器生産』たたら研究会平成23年度北九州大會.
-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戰國期の燕国における初期鐵器と東方への拡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67集.
- 中村大介, 2012, 「燕鐵器의 東方展開」, 『埼玉大學紀要(教養學部)』第48-1號(日文).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韓中鐵器資料集 II-河北省 출토 燕國 鐵器-』,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韓中鐵器資料集 III-한반도 북부지역의 초기철기-』,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이남규, 2012,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동향 -초기철기~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국립문화재연구소.
- 白雲翔, 2012, 「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의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石川岳彦, 2012, 「燕下都遺跡 鐵器文化의 性格」,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일규, 2012, 「韓半島 中部地域 鐵器文化의 性格과 展開樣相」,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郭京寧, 2012, 「京津地區戰國秦漢時期的燕系鐵器及野鐵遺存」,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徐海峰, 2012, 「中國河北至西漢時期的燕系鐵器與冶鐵遺存」,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정인성 외, 2012a, 『嶺南地域 原三國時代の 木棺墓』, 학연문화사.
- 鄭仁盛, 2012b, 「瓦質土器의 출현과 歷年代 再論」, 『原三國·三國時代歷年代論』, 세종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3, 학연문화사.
- 鄭仁盛, 2013a, 「樂浪郡의 鐵(器)生産」, 『원삼국시대 한반도 철기문화의 제 양상』, 제8회 한국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철문화연구회.
- 鄭仁盛, 2013b, 「衛滿朝鮮의 鐵器文化」, 『백산학보』第96號.
- 李清圭, 2012, 「남한의 초기 철기문화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Ⅲ) - 동아시아의 철기문화와 고조선』, 제42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
- 이청규, 2013, 「남한의 초기철기 문화에 대한 몇 가지 논의」, 『사학지』, 단국대 사학회.
- 李南珪, 2013, 「韓半島 初期鐵器文化 流入의 몇 問題」, 『제8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철문화연구회.
- 金想民, 2013a, 「東北아시아에서 初期鐵器의 成立과 展開」,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學府.
- 김상민, 2013b,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연계·한식철기의 유입연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 武末純一, 2013, 「일본의 연계 또는 전한대 관련 철기의 시기 비정 문제」,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 박선미, 2013, 「완충교역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Ⅳ)-고조선·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 43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 劉文兵 外, 2013, 「吉林省梨樹二龍湖遺址出土的戰國鑄造製鐵製品及其意義」, 『亞細亞鑄造技術史學會 研究發表資料集』7號, 아시아鑄造技術史學會.
-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東北亞歷史論叢』, 東北亞歷史財團.

(보고문)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62, 「영변 세죽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유산』6.
- 김정문,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2.
- 김정우,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4.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고조선·부여·진국편-』2.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 소국 형성과정에 관하여

이성주
경북대학교

| 목차 |

- I. 머리말
- II. 문제의 제기
- III. 접근의 관점
- IV. 점유의 역사와 의례 경관의 변동
- V. 경산지역 국의 형성과 성격
- VI. 맺음말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 소국 형성과정에 관하여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경산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押督國 혹은 押梁小國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이름과 연결되어 이 지역 고대 물질문화는 매우 선명한 역사적 연고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삼국시대 고층이 군집해 있는 임당 구릉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발굴되어 원삼국~삼국시대 지배집단의 분묘와 주거,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 토성(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점토대토기 환호 등이 확인됨으로써 이곳이 초기 철기시대부터 6세기까지 이어지는 소국의 중심지라는 생각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경산지역은 많은 유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고대 압독국의 실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에 관해서도 고고학 자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다. 압독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임당 구릉에서도 당시의 목관묘군과 취락의 양상이 확인되어 소국 형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이희준 2004; 장용석 2007, 2012; 정민 2012). 최근 원삼국시대 전기에 속하는 특출한 수장묘, 양지리 1호분이 발굴 보고됨으로써(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이 시기 경산지역의 수장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철 2020). 이처럼 경산지역은 그동안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원삼국시대의 연구 특히 소국 형성과 관련된 논의도 손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숨어 있다.

경산지역 소국 형성기의 고고학적 논의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 듯하다. 첫째, 경산지역, 특히 임당 일원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발굴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조사가 불충분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의 공백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경산의 고대 물질자료를 보는 우리의 관점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먼저 경산지역 소국의 형성과 발전의 논의에서 자료적·개념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대안으로서 새로운 접근의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고고학적 문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정리하여 한 시대의 문화를 파악할 때 당대의 물질적 양상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문화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산지역 인간집단 점유의 역사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유적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소국형성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끝으로 목관묘와 피장자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소국의 조직적 특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했다.

II. 문제의 제기

경산지역 소국 형성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발표자는 먼저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고학 자료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연구 관점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는 어찌 보면 경산지역의 변동을 지나치게 임당유적군의 자료에만 의존해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고 나아가 소국의 성장 배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신라의 영향을 강조해 온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이 지역 고고학 조사자료가 지닌 문제점이다.

원삼국시대 소국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려 할 때 그간의 임당지역 발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몇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임당 구릉지에서는 환호로 둘러싸인 초기 철기시대 의례의 중심지가(김민철 2011; 하진호 2012) 발견되고 원삼국시대 소국 지배집단의 주거와 분묘군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원삼국 초기부터 임당지역이 소국의 중심지 즉 국읍의 소재지로 보는 것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발굴자료를 살펴보면 소국의 중심지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최고의 수장묘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당 목관묘군에는 주요 청동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으로 보아 상위 위계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목관묘가 섞여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우 특출한 부장양상의 수장급 무덤이라고 할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당대 최고 수장을 위한 매장예의 방식이 따로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매장이 이루어진 무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수장묘는 임당지역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양지에서 거의 단독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 단계(서기전 2세기 중엽 ~ 서기 2세기 중엽) 다음에 오는 목곽묘 단계(2세기 중엽~4세기 후엽)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물론 목관묘군과는 구간을 달리하여 3~4세기의 목곽묘가 발견되기도 했고(김대욱 2020), 고총 직전 단계 목곽묘 양상도 파악되었다(김용성 1966). 그러나 해당 목곽묘 단계의 자료는 얼마 되지 않으며 한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 엘리트 즉 수장 무덤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목곽묘 단계의 수장급 매장예는 매우 특출하며 소국의 중심고분군에서는 수장묘가 누세대적으로 점유해간 공간적 배치패턴이 드러난다. 하지만 당대 중심고분군에 나타나는 수장묘의 분포패턴을 임당유적에서는 볼 수 없다. 경산분지 내 도처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자료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목곽묘 단계의 고분군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의문이다. 이점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후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소국의 형성과 변천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압독국의 성립과 성장 과정을 임당유적에 초점을 맞추어 혹은 지나치게 의존하여 설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물론 중심지의 규모와 기능, 그로부터 영향력과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소국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소국이라는 정치체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중심지 그 자체의 양상과 변화만으로는 소국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압독국 형성 시기의 변동은 임당유적을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 경산분지 전역, 혹은 금호강 유역 일원의 경관 안에서 소국의 중심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후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당 구릉지는 초기 철기시대 직전까지는 점유가 없었다. 초기 철기시대의 점유도 주거나 분묘군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소국 중심지

의 형성으로서 임당 구릉에 점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은 금호강 중류 일원, 경산분지의 전체 경관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원삼국 전기 임당 유적 목관묘의 군집과 그 분포(정민 2012에서)

임당유적은 많은 구간이 발굴되기는 했어도 전면 발굴된 것이 아니다. 구간과 구간 사이의 미발굴지를 포함하여 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즉 구간과 구간 사이에 어떤 유구가 분포하는지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의미이다. 임당유적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목관묘군이 분산되어 분포하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2개, 5개 혹은 그 이상의 군으로 나뉜다고 한다(김용성 2000; 이희준 2004; 정민 2012). 각 군을 조성한 집단을 축조집단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어떤 집단, 혹은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임당 구릉 인근에 집중하게 된 여러 (지역)집단으로 간주한다면 타 지역에서의 소국 형성과 비교해서 특별한 측면이 있다. 특히 목관묘 단계에도 임당유적 외에는 목관묘가 발견되지 않는 현재까지의 조사 현황을 임당 국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집단의 통합으로 이해한다면 역시 타지역의 양상과 비교하여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원삼국시대의 문화변동에 관한 논의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압독소국의 변동을 신라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거나 압독국의 발전에 신라에의 복속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임당토성의 축조나 압독국 수장묘의 변화를 신라의 영향으로 보려는 입장에(이희준 2004; 이재홍 2009; 장용석 2012, 2016) 대해 다른 관점의 논의가(김대환 2012) 필요하다는 것이다.

Ⅲ. 접근의 관점

고대 경산의 문화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에 관한 역사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지역 원삼국시대(BC100~300AD)의 문화에 다가가려면 경산에 남아 있는 물질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물·유적과 같은 물질자료를 통해 과거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고고학에서는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고학자들은 문화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속하는 물질문화의 특징적 요소들을 모아놓은 집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개념은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의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적절하지만 한 시대의 문화가 다른 시대로 바뀌어 갈 때 그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가령 어느 지역에 환경이 변하거나 사는 인구가 늘어날 때 그에 반응하여 문화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변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문화의 변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문화를 여러 요인과 기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체계로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는 변화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 세대가 다하기도 전에 지금의 문화는 예전의 문화가 아니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전통사회에서는 문화의 변동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수백 년의 오랜 세월 작은 변화가 누적되거나, 문화체계의 안팎에서 변화의 큰 동기가 발생하면 변화는 급격히 진행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과정에 대해 체계 이론가들은 어떤 문화라도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진행되면 완전히 다른 문화체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구분의 경계에서처럼 외부 세계의 커다란 전환과 내부의 동기가 장기간 축적하게 되면 문화변동이 촉진되고 그 이후 시기의 문화는 그 이전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게 된다.

한 문화 안에는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있어 온 사고나 실천의 방식이 새로운 시도에 거슬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저항하는 일도 있다. 전통적 사고나 이전의 물질적 경관과 같은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테면 청동기시대 수백 년에 걸쳐 축조된 지석묘가 열 지어 있다면 다음 시기의 사람들이 목관묘라는 새로운 무덤을 축조할 때 그 이전 기념물적 분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덤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지석묘에 묻힌 인물들에 대한 기억들이 다음 시대의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는 점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이런 측면들에 관해 문화를 체계에 빚대어 설명한 이론들은 잘 다루지 못했다. 체계론적 관점이 환경의 변화, 인구의 증가, 식량 생산, 혹은 물품 제작기술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와 기제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잘 설명하였지만, 이질적인 요소들 예컨대 사고나 문화경관의 의미와 같은 것이 앞서 말한 물질적 요소들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해가는지를 잘 생각할 수 없었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시대와 지역에 한정된 물질문화 요소로 보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다. 그리고 문화를 물질적 요소와 기제들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차라리 문화는 어떤 패키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환경이나 생업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사고와 경관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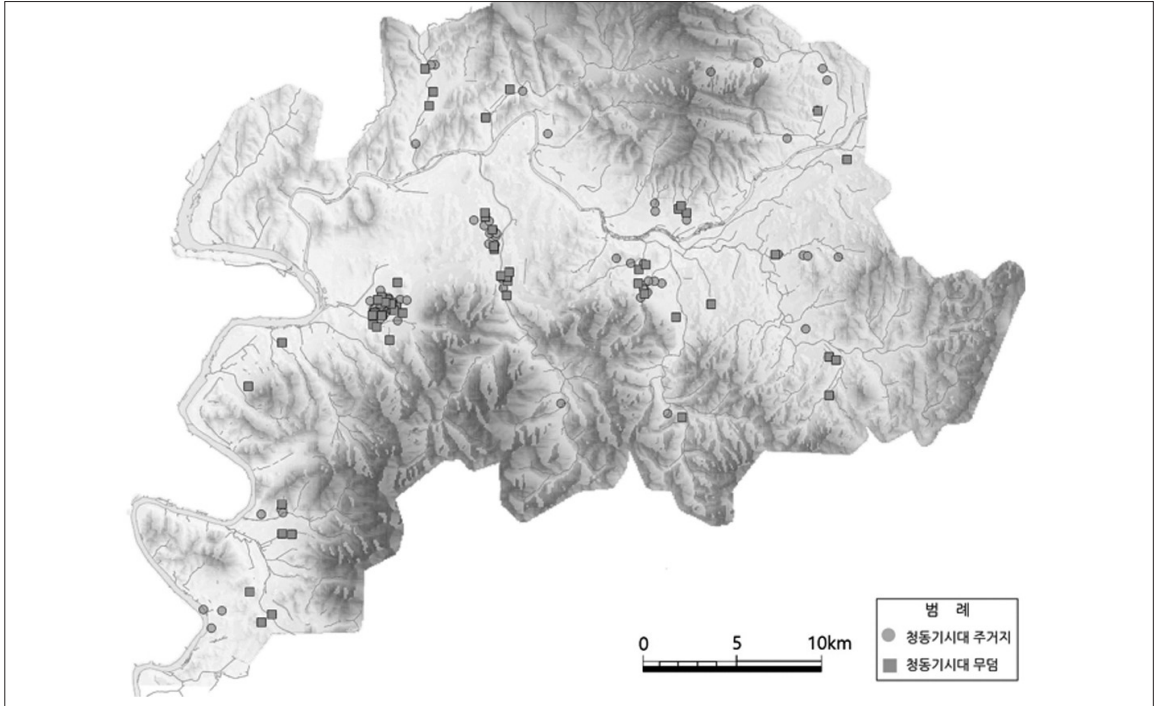
된 의미와 같이 비물질적인을 포괄하고 당시에 만들어지거나 축조된 것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함께 포함하는 패키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이와 같은 복합적인 꾸러미로 생각하고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에 다가간다면 설명이 쉬워질 것 같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경산의 원삼국문화는 하나의 단위체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시간과 지역으로 한정된 특징적인 문화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인 원삼국시대에는 이미 한 제국이라는 중원의 고대국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들의 직·간접적 개입이 주변 사회에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 한편 경산의 지역 집단은 진·변한 사회의 일원으로 원근의 집단 혹은 정치체들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속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경산의 원삼국문화에 관해서는 그 내부의 조직과 특성으로 파악해나가는 접근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인접한 소국과 읍락들을 넘어 광역으로 연결된 관계망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Ⅳ. 점유의 역사와 의례 경관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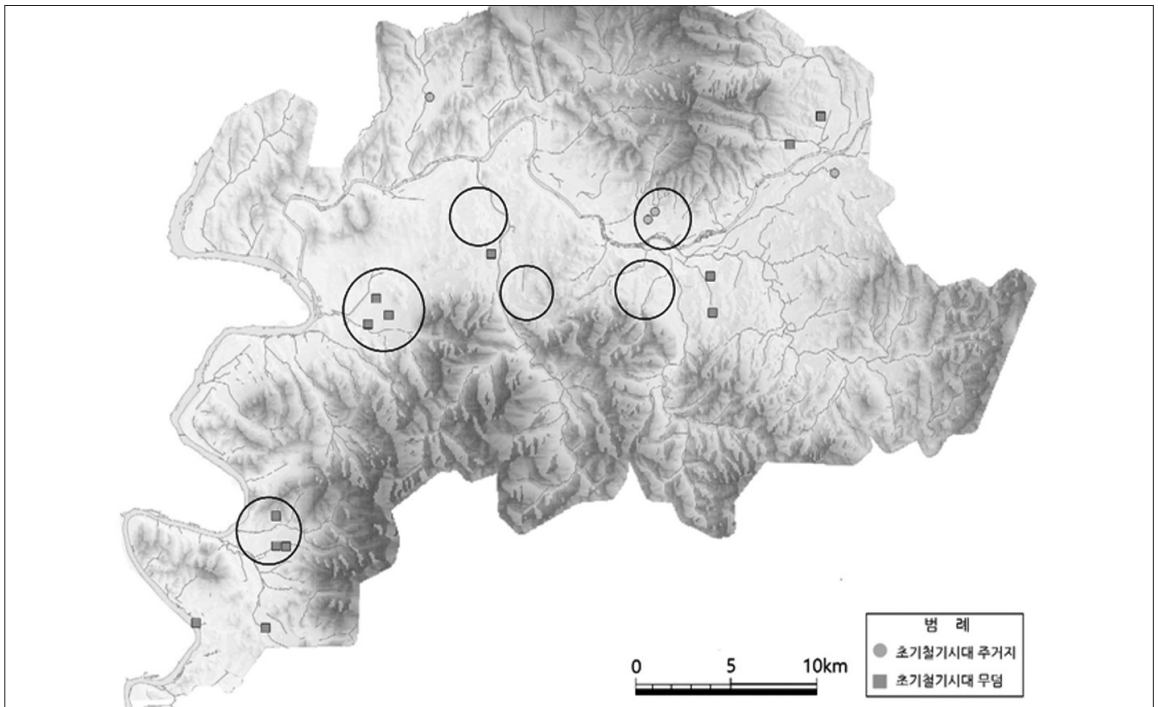
원삼국시대의 문화적 패키지 안에는 이 시대의 시작을 전후해서 새로 등장한 목관묘, 청동기와 철기, 와질토기, 한경 등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존속해 온 청동기시대 지식묘와 초기 철기시대의 석관묘, 혹은 목관묘군, 환호로 둘러싸인 공간 등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청동기시대 이래 이 지역에 살면서 의미가 부여되어 온 장소와 집단들 사이의 관계망과 교통로 등은 원삼국시대 소국과 중심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동기시대 이래 경산을 중심으로 한 금호강 중하류에서 인간집단의 점유와 기념물 축조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산지역에서 시대별 점유와 문화경관 구축의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각 시대 시간적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식묘는 청동기시대의 구축물이고 초기 철기시대는 세형동검묘 혹은 목관묘의 축조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의 동남부 특히 검단리 문화권으로 갈수록 점토대토기 문화와 세형동검묘의 등장은 지체되고 무문토기 문화와 지식묘 축조는 늦은 시기까지 지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영남 동남부 권역에서는 초기 철기시대가 되어서야 기념물적인 묘역식 지식묘가 축조된다(이수홍 2007, 2020b; 우명하 2016). 그래서 이 지역 초기 철기시대 수장묘를 묘역식지식묘와 세형동검묘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수홍 2020a). 경산지역은 검단리문화권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문토기 문화가 늦은 시기까지 존속하다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점을 고려하면 경산지역의 초기 철기시대도 상당히 압축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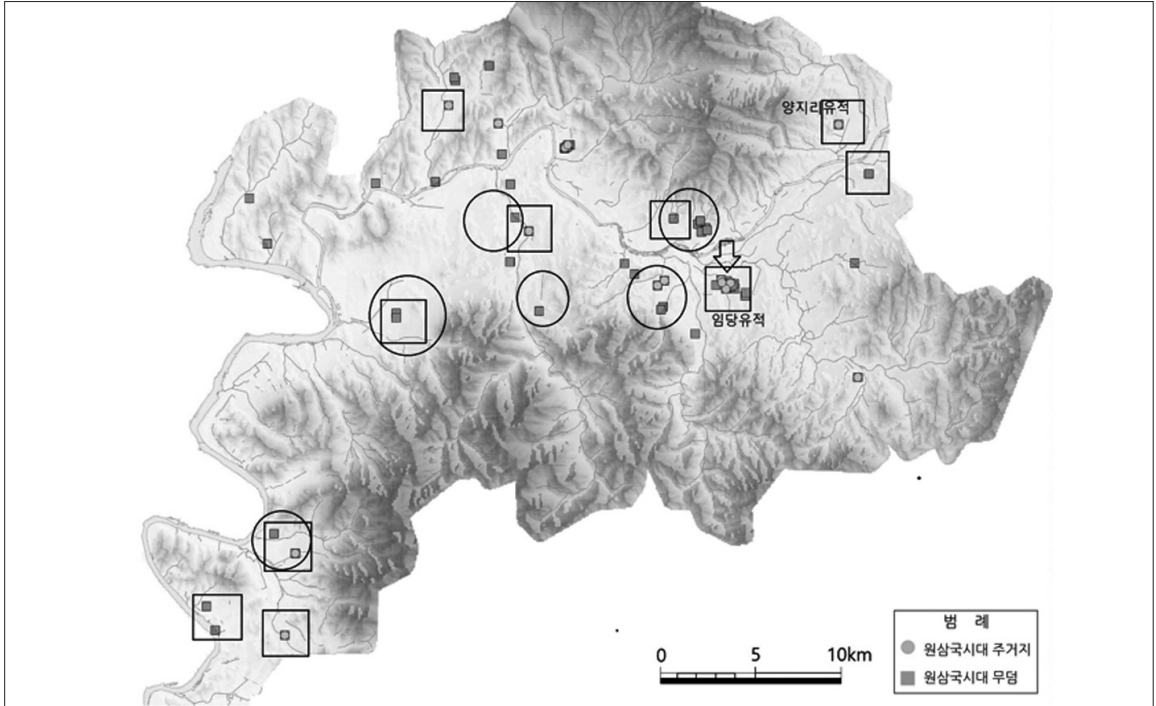
그림2~4는 금호강 중하류에서 발굴조사로 유적의 존재가 파악된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주거와 분묘의 분포이다. 문화재의 구체조사가 고고학적 발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고고학의 현실에서 유적의 분포 밀도는 개발과 비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발에 앞서 구체발굴이 이루어져도 유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발이 유적 분포 자체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발굴된 유적의 분포는 과거 인간 점유를 어느 정도



<그림 2> 청동기시대 주거(●)와 분묘(■)의 분포



<그림 3>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분묘(■)의 분포. ○의 범위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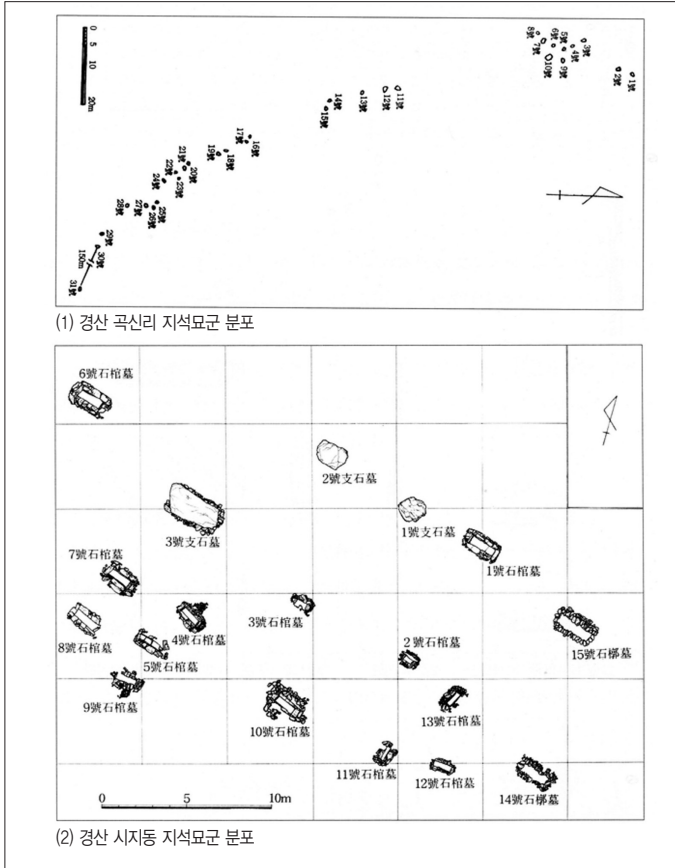


〈그림 4〉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분묘군(■)의 분포. ○의 범위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영역.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대별 점유의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그림3과 그림4는 각각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유적의 분포인데 ○과 □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전 시기까지의 주거와 분묘가 밀집 분포하는 영역이다.

그간 초기 철기시대 주거와 분묘가 들어서는 장소는 이전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는 아주 판이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국리문화의 절정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집주가 이루어져 하안대지와 낮은 구릉지의 마을이 대규모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진주 대평리와 부여 송국리 유적과 같은 거대취락이 송국리 문화기에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절정기가 지나면 거대 취락들이 해체되고 새롭게 점토대토기의 마을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 관해 여러 연구자는 이 점토대토기 마을이 중소형으로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 구릉정부의 높은 장소에 입지한 취락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송국리 마을, 특히 거대취락의 분포구역과는 입지를 쉽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林淳發 1993; 鄭仁盛 1999; 李亨源 2005, 2011; 宋滿榮 2011, 2013; 송중열 2015; 金承玉 2016). 이러한 취락유형의 변동을 생업경제의 차이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의례적 관계망의 형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기도 한다(李亨源 2005; 宋滿榮 2011).

하지만 금호강 중하류역에서는 사정이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동기시대 점유가 밀집된 곳에 초기 철기시대 주거나 분묘가 반드시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점유지역을 피하지도 않았다. 청동기시대 주거와 기념물이 밀집된 진천천 일대 월배 선상지에는 초기 철기시대 분묘가 들어서고 역시 이전 시기의 유구가



〈그림 5〉 경산 곡신리지석묘 상석열과 시지동 지석묘 소군집(김광명 2015)

묘군도 있지만,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철기시대 점유구역에는 원삼국시대 유적이 반드시 들어서는 편이다. 임당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에 점유가 시작된 유적인데 이후 원삼국시대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금호강 유역에서 진행된 점유의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청동기시대 가장 현저한 문화경관인 지석묘는 처음 월배지역과 같은 넓은 선상지의 선단부나 천변 범람원의 자연제방을 따라 축조되었다고 한다(황상일 2017). 오랜 세월 축조가 진행되면서 지석묘군은 일정한 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흔히 선형배치, 혹은 열상배치라고 하는 분포를 보이는데 1열로 단조롭게 배치되는 듯해도 그렇지 않다. 발굴을 통해 상석 아래 드러난 석관 혹은 석곽과 같은 매장시설의 분포를 보면 일정한 방식의 배열로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우명하 2017). 소규모로 매장시설의 군집이 형성되어 있으며(이때 모든 매장시설 위에 상석이 얹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다시 군집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긴 지석묘 열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림5는 용성면 곡신리에 형성된 지석묘 상석 열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시지동 제1 지석묘군의 상석과 매장

밀집 분포하는 신서동과 현풍읍 일원에도 점토대토기 주거와 분묘가 들어선다. 물론 금호강 하류의 신천 일원의 청동기시대 유적 집중 분포구간에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이 들어서지 않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금호강 유역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적은 청동기시대 이른 단계와는 잘 겹쳐지지 않지만 늦은 시기 유적의 분포와는 아주 높은 빈도로 겹쳐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의례의 장소에서 그러한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는 듯하다. 예컨대 경산 대학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늦은 시기의 모역식지석묘 주변에 청동기시대 매장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석관묘가 축조되고 부장토기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다(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8).

한편 원삼국시대 주거와 분묘는 이전 초기 철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원삼국시대 점유구역이 확대되어 새로운 입지를 선택한 주거와 분

시설의 분포이다. 즉 지석묘 하나하나가 열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여러 매장시설과 상석 몇 개로 구성된 지석묘 소군집이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됨으로써 일정 경관에 열상의 기념물이 조성된 셈이다. 지석묘군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군집이 완성되고 다음 군집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긴 선상의 기념물이 축조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소공동체가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소군집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면 여러 공동체가 참여한 지석묘 건축의례의 반복을 통해 서로 다른 군집에서의 축조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축조의례의 장기적 과정의 결과가 천변 자연제방을 따라 길게 배열된 금호강유역의 지석묘군인 셈이다.

지석묘의 긴 열에는 축조에 참여한 여러 공동체의 기억이 장기간 퇴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가 묻힌 사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석묘를 공동체적 의례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견해는 타당한 듯하다. 장기간 축조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지석묘의 긴 열은 당시 교통로와 일치한다는 의견이 있다(김춘영 2015).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하천 변 자연제방은 교통로로 활용되는 지형이다. 열상의 지석묘군은 일상적인 교통로를 따라 걷는 주민들의 이동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공동체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했을 것이다. 지석묘군은 사회적 기억의 장치이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물질화되어 주민들의 사고를 안내하는 문화경관이었다.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가 되면 지석묘의 축조가 좁은 곡간 저지로 이동하게 된다. 경산 대학리의 묘역식지석묘군이 그러한 늦은 시기의 사례로 보인다. 입지는 변했지만, 공동체적 의례의 반복과 문화경관으로서의 물질성은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 묘역식지석묘군에 인접하여,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 단계의 석관묘가 배열된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매장시설이라면 토광에 목관을 쓰거나 해야 하지만, 대학리의 것은 변형된 석관묘라고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민이 묘역식지석묘 주변에 청동기시대적 석관묘를 배치하고 지석묘적 의례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묘역식지석묘가 반복해 온 공동체적 의례를 점토대토기 단계에도 지속해 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국리문화에서 후기 점토대토기문화로의 전환을 문화접변의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에서 접변의 유형을 4가지 구분한 바 있는데(신영애 2011) 그에 따르면 이 변화는 융합형에 해당한다. 융합형이란 토착 집단이 외래 집단의 문화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토착문화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는 과정을 뜻한다.

지석묘 축조사회의 종언과 점토대토기 사회의 형성에 대해 기초적 검토를 한 연구(鄭仁盛 1999)에서는 유물의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첫째, 두 집단의 공존과 상호관계, 둘째, 유적 입지패턴의 상이, 그리고 셋째, 대외교역망의 확장, 이 세 가지를 이 시기 변화의 중요 연구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鄭仁盛 1999). 두 집단의 공존과 상호작용, 그리고 입지패턴의 차이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대외교역망의 확장은 점토대토기 단계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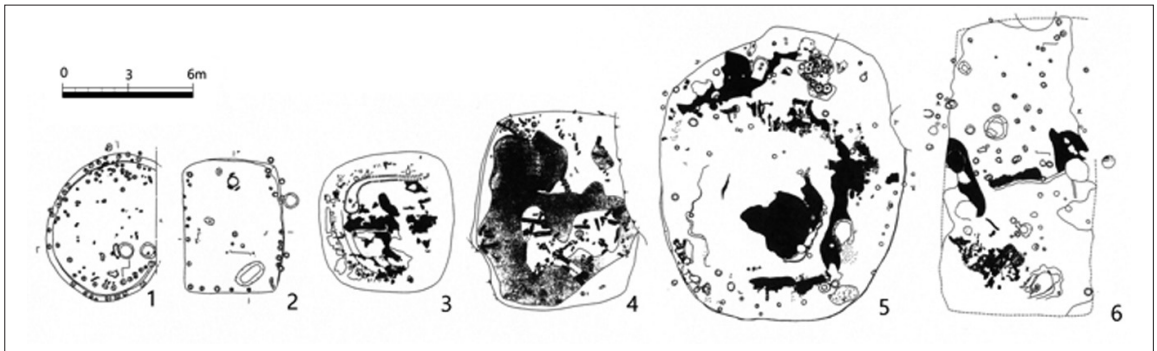
흔히 점토대토기 단계의 세형동검묘는 개인-지향 혹은 네트워크-모드로 작동되는 사회의 산물이고 지석묘는 공동체적 의례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점토대토기 사회는 엘리트 개인이 관계망을 넓혀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치권력을 확보하는 사회이며 세형동검유물군의 매장 의례와 부장양상은 그러한 사회의 권력을 물질화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지석묘의 축조는 양호한 농경지를 배경으로 하여 오랜 점유를 통해 형성된 역

사와 기억을 일정 경관 안에 물질화한 것이며 지식모라는 물질적 양상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기억을 지속하게 된다(李盛周 2012). 대학리의 점토대토기 분묘 축조자들은 지식묘의 공동체적 기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 변화를 시도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V. 경산지역 국의 형성과 성격

임당유적은 압량소국의 중심지이다. 임당 구릉의 고총군이 경산 분지의 중심고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4세기 후반에는 제 기능을 했을 토성과 함께 국읍의 증거물이다.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2세기 후엽부터 4세기 전반에 걸치는 목관묘 단계에는 I지구의 주거지들이 중심지적 성격을 보여준다(김경환 2015). I지구 주거지 가운데 대략 3세기에 속하는 가옥들에는 격벽이 내부 공간을 분할한 것도 있어 당대의 집자리 가운데서는 보기 힘든 구조이고 가옥의 면적이 당시 일반 수혈주거에 비해 3배 가량이나 넓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기거했을 만한 가옥이다. 그 이전 목관묘 단계에 이미 임당 구릉이 중심지적 지위를 가진 유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한다(이희준 2004; 장용석 2012). 2중 환호로 둘러싼 장소, 그리고 가장 높은 분포 밀도를 보이는 목관묘군의 형성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임당 구릉의 점유 초기부터 과연 경산 분지에서 소국의 형성을 말할 수 있고 임당유적을 국읍이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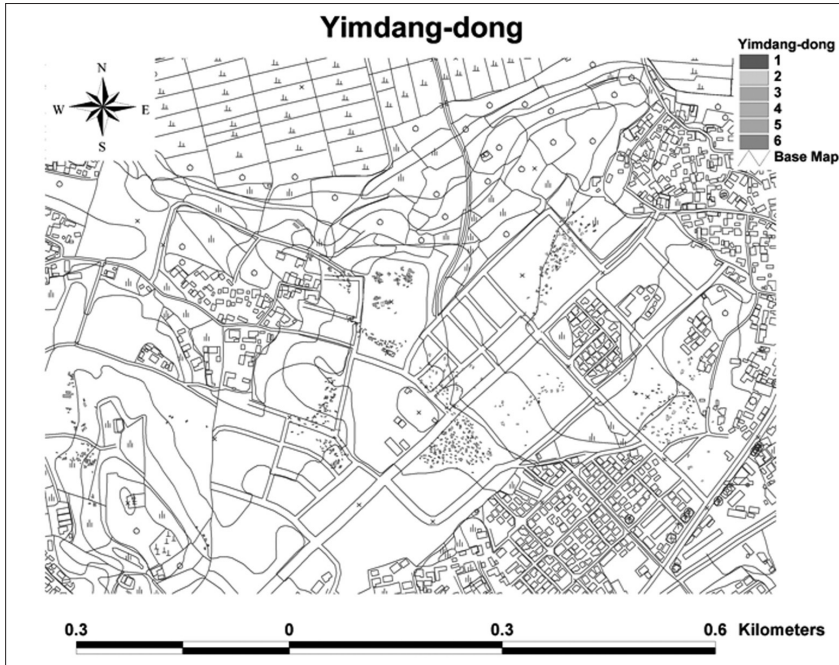
임당유적에서 가장 이른 유구인 2중 환호의 축조연대로 미루어 이 구릉에서의 인간 점유는 점토대토기 이른



〈그림 1〉 3세기대 영남지역 주거지의 비교:

1. 양산 평산리9호, 2. 양산 평산리1호, 3. 포항 호동 92호, 4. 포항 호동131호, 5. 경산 임당35호, 6. 경산 임당1호

단계까지 소급해서 볼 수 있다(김민철 2011). 그리고 뒤이어 임당구릉의 다른 지점에서 목관묘의 축조와 근집화가 진행된다.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의 점유는 어떤 관계이며 이것이 경산지역 소국 형성과 어떤 관계인가? 임당유적의 조사자는 이중 환호가 존속하던 2세기 어느 시점에 목관묘군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든가에 의견을 일치를 본다(장용석 2007; 하진호 2012). 환호 축조 시기에 공동작업을 위해 임당 주변의 4~5개 촌의 주민이 함께 노동을 했고(장용석 2012), 그만큼 수의 집단이 서로 다른 지점을 공동묘지로 점유했다고 본다(이희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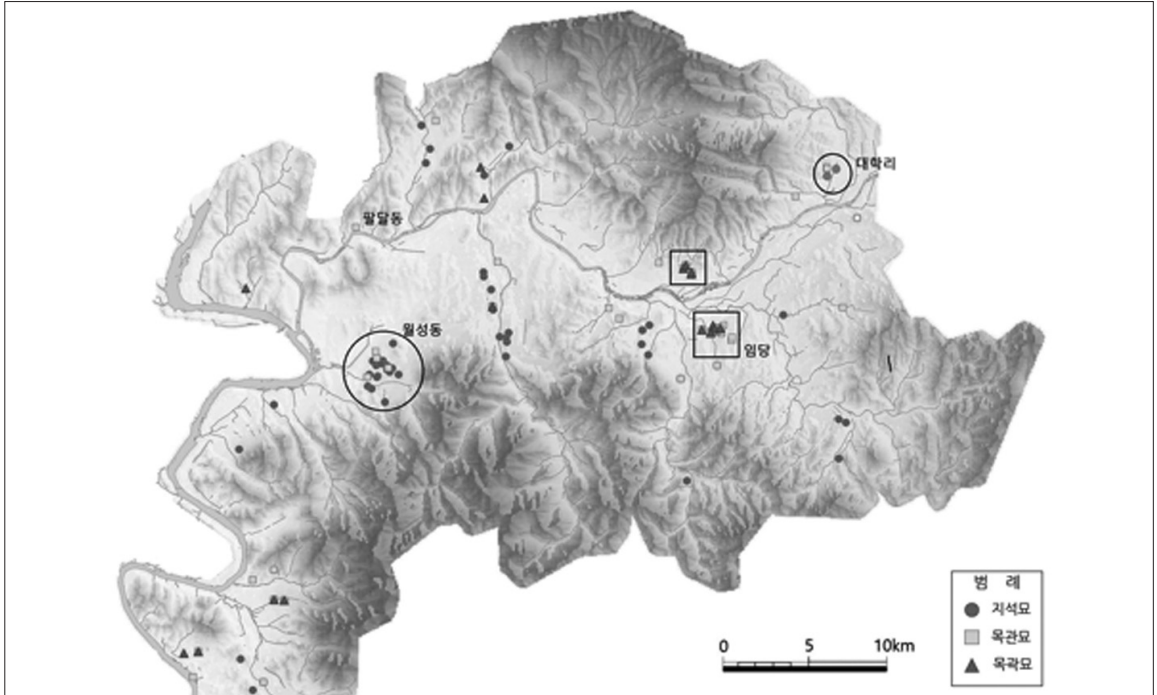
〈그림 7〉 임당 구릉지 발굴조사 유구의 분포(2005년 기준)

환호 사용 시기와 초기 목관묘군 형성 시기의 주거지는 임당 구릉이나 인근에서 발견된 바 없으므로 환호 축조집단이 목관묘군을 조성했다고 보고 그들이 인근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해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추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환호 사용 시기에 목관묘군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임당 구릉에 목관

묘군이 들어서는 시점에 환호가 여전히 의미 있는 장소로 이용되었는가의 의문이다. 층위 자료로 보았을 때 환호가 매몰되어 의미를 상실한 이후 그 위로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들어서는 것은 2세기 중엽을 전후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환호가 이 무렵까지 매몰되지 않고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연대를 좀 더 좁혀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층 환호의 매몰토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환호 매몰토에서는 와질토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환호는 와질토기 발생 이전에 매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김민철 2011). 또 하나의 근거는 환호 사용 시기에 폐기되었다가 뒤에 원삼국시대 6호 주거지 매몰토에서 발견된 검파두식이라 할 수 있는데 발굴자의 관찰대로 이 검파두식은 BC 1세기대 유물이다(김민철 2010). 따라서 환호의 폐절은 BC 1세기 중엽 이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목관묘 군집화의 시작을 서기전 1세기 후엽으로 본다면 그 시점은 이층 환호로 둘러싸인 공간이 의례의 장소로서 의미 있게 사용되던 시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경산지역 점토대토기 개시기의 매장시설은 세형동검유물군이 나오는 목관묘가 아니라 석관묘였다. 경산 대학리유적(경북문화재연구원 2018;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점토대토기 단계에 속하는 석관묘의 입지와 배치는 이전 지석묘의 공동체 의례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사실 금호강 유역에는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의례 공간에 초기 철기시대 세형동검-철기 유물군의 목관묘가 들어서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백 년간 지석묘적 의례가 누적된 월배 선상지에 월성동 토광묘군이 들어선 사례를 들 수 있다. 물론 철기-세형동검 목관묘군이 청동기시대의 의례가 누적된 공간에 들어서지 않고 이전에 점유가 없었던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입지하는 사례도 많다. 임당 구릉도 초기 철기시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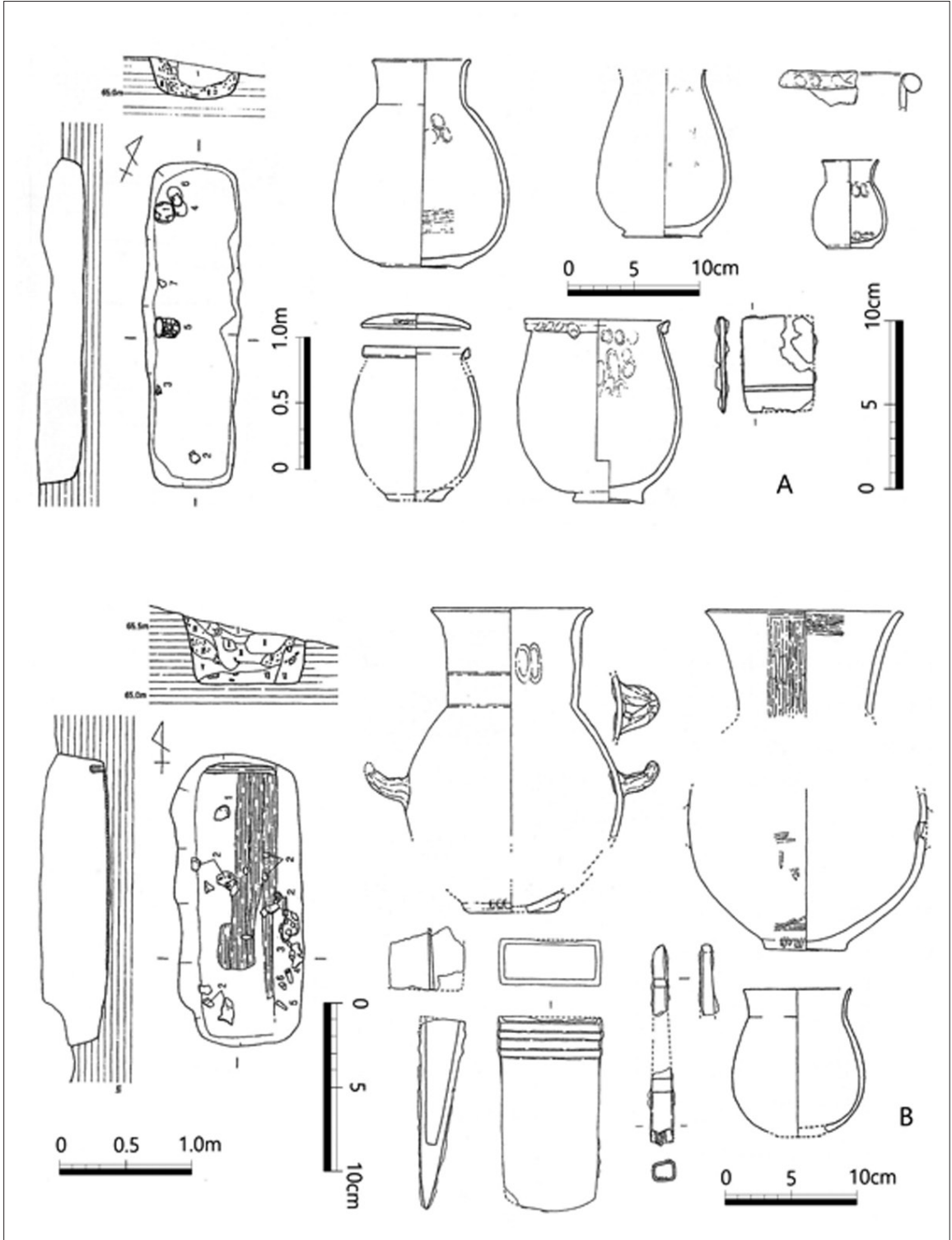


〈그림 8〉 금호강 중하류 청동기~원삼국 분묘군의 형성

에는 점유된 적이 없었다. 의례의 장소를 에워싼 이중 환호가 구축된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목관묘군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청동기시대 의례가 집중된 곳에 들어선 점토대토기 분묘군은 이후 임당 유적과 같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면서 대규모 목관묘군으로 발전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임당유적의 형성은 분명 진변한 ‘國’과 그 중심지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호 성소라 할만한 의례의 장소를 조성하기 시작하는 것, 지석묘적 의례를 벗어나 새로운 배열방식을 취한 목관묘군의 조성, 초기 철기시대 이래의 관계망을 통해 유통되었던 청동기 및 철기, 한식 유물의 부장은 확실히 원삼국시대의 어셈블리지이다. 경산지역에서 이전의 점유가 없던 지역을 선정하여 새로운 의례의 장소로 마련된 곳이 임당 I지구 북편 구릉의 이중환호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석묘 의례와는 다른 관념과 방식의 제의가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러던 가운데 새로운 조성원리를 구현한 목관묘군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간 많은 연구자가 제안해 왔던 것처럼 경산지역 소국 형성과정에서 임당유적이 중심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임당 구릉과는 멀리 떨어진 금호강 북안의 양지리유적에서 발견된 1호 목관묘는 대단히 특출한 부장양상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양지리 1호목관의 위세품 부장양상도 그러하거나와 겹겹이 베풀어진 매장 의례의 절차는(김동숙 2020) 피장자가 매우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지금까지 임당유적에서 발굴된 어떤 목관묘보다 풍부한 위세품과 복잡한 의례의 절차를 거친 수장묘이다. 물론 임당유적의 목관묘군이 전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장소에서 양지리1호에 버금가는 수장급 목관묘가



〈그림 9〉 경산 임당 FII-33호 목관묘(A)와 FII-34호 목관묘(B)와 출토유물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양지리 1호목관묘의 발굴이 경산지역 수장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국의 중심지가 잠시라도 교체되었다거나 하는 논의는 의미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해석의 관점을 달리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변한의 소국의 형성이나 국읍의 존재, 그리고 개별 읍락과의 관계 등을 유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성주 2017).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 전하는 진변한의 상태도 취락 위계의 어떤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상태로 묘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중심지가 있었기에 국읍의 존재가 기록으로도 남았지만, 그것의 물질적 상태가 그리 현저하지 않고, 우두머리의 존재가 분명하기에 그것을 적어 두었지만, 그들의 주거와 의복의 차이나 분리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상태를 『삼국지』는 그렇게 기록한 듯하다.

금호강 유역 목관묘의 위계(신영애 2017)와 위세품의 연구(방선지 2017)는 이 지역 목관묘 피장자들의 계층 분화와 그것을 표시하는 방식의 시기적 차이를 잘 보여준다. 목관묘의 위계는 대략 3등급 정도로 파악되는(정민 2012; 신영애 2017) 것처럼 보인다. 물품의 조합과 위세품의 비중을 고려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제도적으로 정립된 당시의 계층질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이성주 2017). 진변한 분묘(군)의 계층분화에 대한 분석적 검토에서도(이재현 2016)도 진변한 분묘군 대다수를 등급으로 나누면 대략 2등급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등급으로 나뉜다 해도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무덤은 많아야 한 고분군에서 3~4기이다. 차라리 필자는 무덤에 묻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결국 사회는 무덤에 묻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크게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목관묘에 묻힌 사람이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구분되는 것은 계층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장자의 또 다른 인격성과 관련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진변한의 계층구조는 피라밋 형태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가 넓게 잘린 사다리꼴 모양일 가능성이 크다(이성주 2017). 상하의 이동이 어려운 두 등급 정도의 계층이 존재하며 하층민이(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 많고 상층민은(무덤에 묻힌 사람) 소수인 그런 사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장이 될 자격이 주어진 인물군이 있었다면 그것이 확고히 제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상층군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군 안에서 주어진 여러 기회에서 성공을 하고 수장이 된다면 그의 죽음 뒤에는 매우 특출한 위세품을 사용한 복잡한 매장 의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다. 수장으로 될 수 있는 인물군은 경산지역 여러 지역 집단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임당 출신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지리 집단의 상위 계층에서도 분명 수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군이 있었고 그들의 명성도 경산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 경산지역 원삼국시대 소국형성 과정에 관하여 간략한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이 글을 통해 소국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 시대에 개발된 것, 그리고 눈에 띄는 물질적인 것만을 그 시대의 문화 패키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부터 누적된 관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보았다.

※ 후기: 발표문 작성에 필요한 도면을 정리해 주신 방선지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김경환, 2015,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1지구 주거지 연구」, 『嶺南文化財研究』28,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71-207.
-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76, pp. 51-76.
- 김대욱, 2020, 「경산 임당 유적 내 목관묘 발굴과 그 성과」, 『목관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 유적 사례 발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116-131.
- 김대환, 2012, 「임당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73-101.
- 김민철, 2010, 「나.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慶山 林堂洞 環濠遺蹟』,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87-211.
- 김민철, 2011, 「林堂丘陵 環濠의 年代와 性格」, 『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30周年紀念考古學論叢』, 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 pp. 211-246.
- 김민철, 2020, 「진·변한 소국과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땀다! 지배자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날무덤』, 2020년 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 pp. 84-86.
- 김승욱, 2016,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한국고고학보』99, pp. 40-77.
- 김용성, 1996, 「林堂 1A-1號墳의 性格에 대하여」,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會: pp. 311-343.
- 김용성, 2000, 「임당유적 분묘와 축조집단」, 『압록 사람들의 삶과 죽음』, 국립대구박물관, pp. 140-153.
- 김준영, 2015, 「支石墓 分布를 통해 본 南海岸 各 地域의 交通路」, 『牛行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이상길교수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서울: 진인진, pp. 174-95.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대학리 · 교리유적』, 동북아문화재연구원.
- 류지환, 2010,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발, 1993, 「漢江流域의 靑銅器 · 初期鐵器文化」, 崔夢龍 外, 『한강유역사』, 서울: 민음사, pp. 115-223.
- 방선지, 2015,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부장유물」,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서울: 학연문화사.
- 방선지, 2019, 「사로국의 위신재 구성과 특징」,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52-59.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慶山 陽地里 遺蹟』, 성림문화재연구원.
- 송만영, 2011,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韓國考古學報』80, pp. 29-61.
-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湖南考古學報』50, pp. 52-69.
- 신영애,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애, 2015, 「원삼국시대 목관묘」,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서울: 학연문화사.
- 우명하, 2016,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嶺南考古學』75, pp. 5-36.
- 우명하, 2017, 「금호강 하류역 지석묘의 변천과 성격」, 『대구 · 경북의 지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pp. 31-47.
- 이성주, 2015, 「I 총설: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영남고고학회 편, 『영남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 pp. 221-227.
- 이수홍, 2007, 「東南部地域 靑銅器時代 後期의 編年 및 地域性」, 『嶺南考古學報』40, pp. 27-50.
- 이수홍, 2020a, 「영남지역 수장묘의 등장과 사회상」, 『嶺南考古學』86, pp. 259-276.
- 이수홍, 2020b, 「경주지역 지석묘 사회의 종말」,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 삶과 죽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114-129.
- 이재현, 2016, 「진·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辰 · 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pp. 87-107.
- 이재홍, 2009, 「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 『韓國考古學報』70, pp. 156-191.
- 이형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樣相」, 『湖西考古學』12, pp. 15-33.
- 이희준, 2004,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嶺南考古學』34, pp. 5-34.
- 장용석, 2007, 「임당 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고대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천」, 『야외고고학』3, pp. 43-85.
- 장용석, 2008, 「4世紀 新羅의 土城築造 背景-達成과 林堂土城의 例를 통하여-」, 『嶺南考古學』46, pp. 5-31.
- 장용석, 2012, 「考古資料로 본 林堂 中心邑落의 諸 樣相」,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33-155.
- 장용석, 2016, 「林堂土城 築造에 따른 취락공간의 再編」, 『韓國考古學報』101, pp. 90-123.
- 정민, 2012, 「임당유적 목관묘 축조집단의 성격」,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72-37
- 정인성,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 文化」, 『嶺南考古學報』22, pp. 1-74.

- 정인성, 1999, 「支石墓文化에서 細形銅劍문화로의 移行」, 『제2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전환기의 고고학 II, pp. 47-87.
- 채상훈, 2019, 「사로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 62-81.
- 하진호, 2012, 「林堂遺蹟 聚落의 形成과 展開」, 『嶺南文化財研究』25, 영남문화재연구원, pp. 103-131
- 하진호, 2012, 「林堂遺蹟 聚落의 形成과 展開」, 『嶺南文化財研究』25, 嶺南文化財研究院, pp. 103-131.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임당토성』, 한빛문화재연구원.
- 황상일, 2015, 「청동~원삼국시대 지형 및 지질」,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서울: 학연문화사, pp. 17-44.

경산 양지리 유적 발굴성과 목관

박기혁

성림문화재연구원

| 목차 |

- 머리말
- 유적 개요
- 유구 및 유물
- 1호 목관묘 축조양상의 특징과 경산지역 목관묘
 - 옹관묘
 - 목관묘
- 맺음말

I .머리말

경산 양지리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걸쳐 조성된 대단위 생활·생산·분묘유적이다. 조사대상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양지리 일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시행규칙 제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의거 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동문화재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지표조사는 2009년 5월 12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사업 대상부지 1,305,000㎡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역은 청동기~조선시대 건물지, 분묘군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아 시굴·표본 및 입회조사 의견이 도출되었다.¹⁾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표조사에서 보고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시굴·표본)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²⁾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개발 사업 범위를 481,630㎡로 한정하고 표본 및 시굴 조사에 대하여 공개 입찰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원이 선정됨에 따라 시굴조사 허가를 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³⁾

표본조사는 2차례, 시굴조사는 2017년 3월부터 동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1·2차 시굴·및 표본조사의 조치결과에 따라 조사 구간을 3개 구역(I·II·III구역)으로 나누어 2017년 5월 29일에 착수하여 2018년 2월 5일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기간 중 현장공개 설명회 2회, 학술자문회의 6회, 전문가검토회의 2회와 공사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분완료 하였다.

1) (재)해동문화재연구원, 2009, 『경산 무학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경산시 새마을문화과-16639호(2009. 09. 24),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366호(2009.09.24),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문서.

3) 발굴제도과-14591호(2016.11.29.)

II. 유적 개요

- 유 적 명 :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 허가번호 : 허가 제2016-1477호
- 발굴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207답 일원
- 조사기간 및 면적 :

구 분	조사기간	조사일수	조사면적	발굴조사면적(㎡)
표본 1차	2017. 04. 03 ~ 2017. 04.07	5	23,257	4,922
2차	2017. 12. 06 ~ 2017. 12.08	3	11,679	
시굴 1차	2017. 03. 13 ~ 2017. 03.31	15	107,162	20,893
2차	2017. 04. 14 ~ 2017. 05.15	19	131,934	22,836
추가	2017. 08. 28 ~ 2017. 09.01	5	13,608	7,616
3차	2017. 09. 04 ~ 2017. 09.26	17	68,425	12,519
발굴조사	2017. 05. 29 ~ 2018. 02. 05	172	367,111	68,786

조사구역의 남쪽은 금호강의 지류인 조산천이 서쪽의 환성산과 초례봉 사이의 계곡부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동남쪽의 지점 부근에서는 넓은 평야지대가 발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도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고 있어 식수 획득이 용이하고 농경지를 운용하기에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듯 경산 양지리 유적에 위치한 선사 및 원사시대 주거지는 취락 입지를 위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서쪽과 북쪽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금호강이 서류하기에 동쪽을 제외한 3면이 자연적 경계를 이루어 유적이 입지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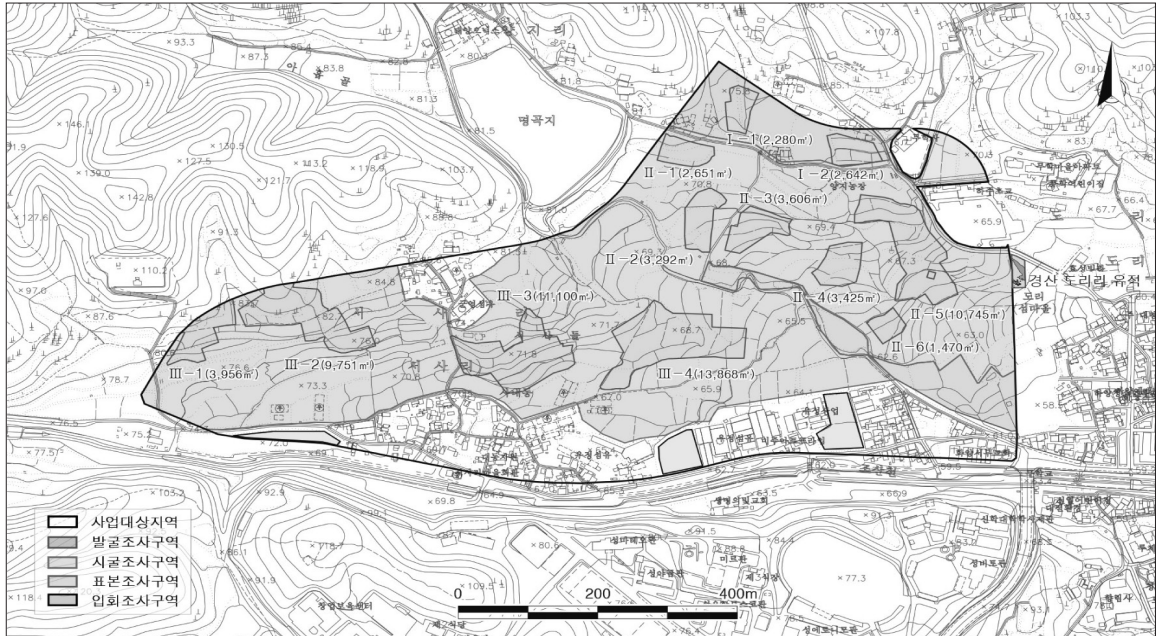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사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과 건물지·분묘군이 유존하는 서사리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바 있고,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양지리고분군과 양지리 유물산포지, 서사리고분군과 부호리고분군3, 부호리민묘군1·2, 부호리 유물산포지 등이 입지하고 있다.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대학리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석관묘, 묘역식 지석묘가 확인된 바 있다.⁴⁾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환호, 초기철기시대 주거지·옹관묘, 원삼국시대 주거지·수혈·목관묘, 삼국시대 토기가마·석곽·석실묘, 고려~조선시대의 기와가마·삼가마·토광묘 등 총 633기가 조사되었으며, 유구 내부에서 615건 64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환호가 조사되고 초기철기시대와 의 주거지·옹관묘, 삼국시대의 토기가마, 고려~조선시대의 기와가마는 조사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II-5구역의 목관묘와 II-2~5구역에서 조사된 옹관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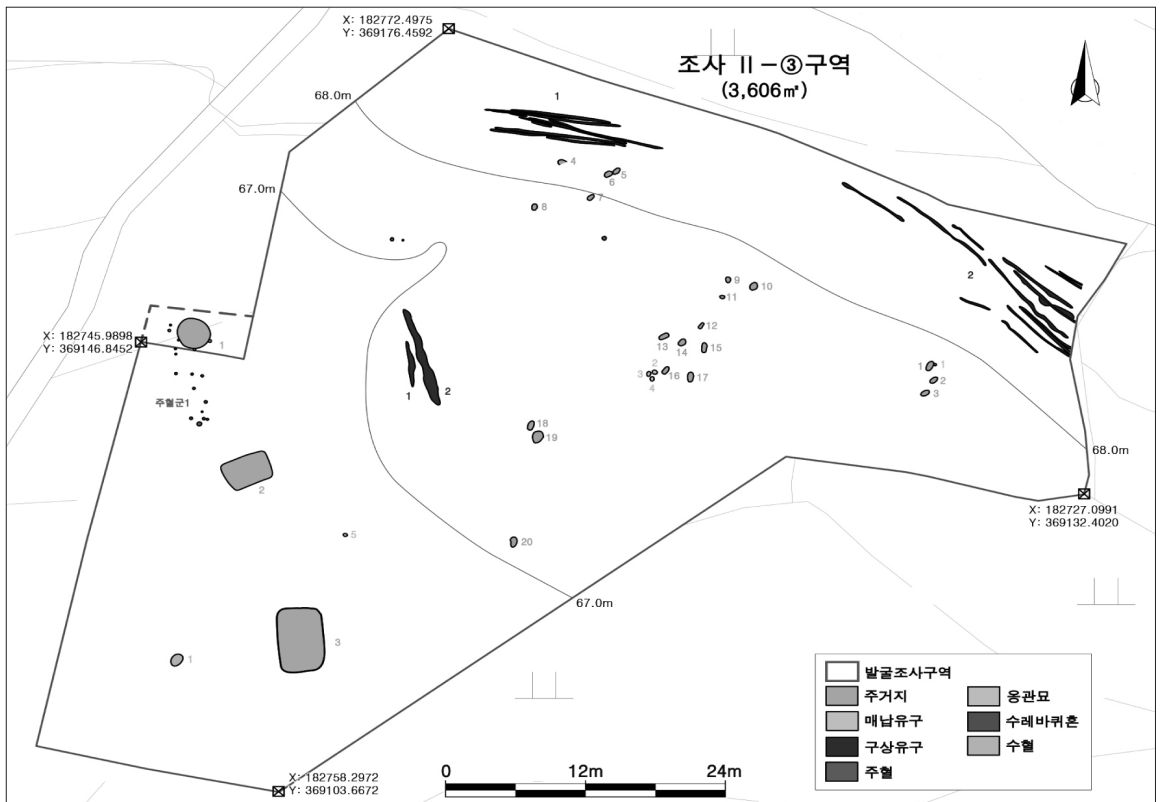
4) (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18, 『경산 대학리 51-1번지 유적 -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II』
(재)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9, 『경산 대학리·교리 유적 -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삽도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삽도 2〉 조사지역 조사 현황도(1/10,000)



〈삽도 3〉 II-3구역 유구분포도



〈삽도 4〉 II-5구역 유구분포도

〈표 1〉 유구 성격별 발굴조사 현황

유구종류 (시대)	생활시설(청동기, 원삼국, 고려~조선)											생산시설 (삼국, 고려~조선)			무덤 시설(초기철기~원삼국, 삼국, 고려~조선)						합계		
	수혈 주거지	고상식 건물지	(주혈) 주혈군	유물	소토 노지	집석 적심	수혈	폐기 수혈	매납 유구	환호	구상유구	수레바퀴	축대	삼가마	와무지	기와/ 토기/목탄가마	옹관묘	목관묘	위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토광묘
I-1구역	2		(3)		2		4				2					4			1			2	17
I-2구역			(52)		2	1	11	2			5	3		2									26
II-1구역					2		20	3					1			1							27
II-2구역	14		(44)			1	20				4	3											42
II-3구역	3		(3) 1				1		5		2	2					21						35
II-4구역	10		(25) 1				18				3	1					1						34
II-5구역	5		(432)	1	2		146				11			5			1	6					178
II-6구역		1	(23)				4				3			1									9
III-1구역	3				1		7				1		1		9								23
III-2구역	2		(46)		2		19				11	2	1	6		1				1	2	4	50
III-3구역	11	3	(55) 10		1		51				15			1									92
III-4구역	15		(58) 11				19			1	7												100
합계	65	4	23 (741)	1	12	2	320	5	5	1	64	11	3	15		15	23	6	1	1	2	6	633

Ⅲ. 유구 및 유물

1) 옹관묘

옹관묘는 II-3구역 21기, II-4구역 1기, II-5구역 1기 등 모두 23기가 조사되었다. 옹관묘 23기 가운데 8기는 단옹식이고, 14기는 주옹과 부옹이 한 세트인 합구식이다. 이 가운데 II-3구역 19호와 20호는 묘광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음식 옹관묘 15기 가운데 주옹은 점토대토기이고 막음옹은 무문토기인 것이 12기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점토대토기는 삼각구연부 형태가 10기로 주를 이룬다.

II-3구역에서 옹관묘는 해발 67~68.5m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상단부 북쪽 경계에 연접한 곳에서 1기가 확인되었고, 북동쪽 경계에 연접한 곳에서 3기가 조사되었다. 나머지는 조사구역의 중위에서 군집을 이루고 조성되었다. 유구가 입지하고 있는 곳은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상부가 많이 삭평되어 경작층 아래의 유구는 바닥만 잔존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에 초기철기시대 옹관묘가 광범위하게 군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II-4구역에서 옹관묘는 조사구역의 상단부 북쪽 경계에 연접한 지점인 해발 65.5m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위치는 II-3구역에 옹관묘가 군집을 이루는 곳과 약 20m 떨어져 있다. 조사된 옹관묘는 단옹식으로 주옹은 점토대토기 옹이고, 구연부에 와질토기 동체부편을 세워서 막음처리 하였다.

II-5구역 옹관묘는 조사구역의 선상지대의 중위인 해발 65.0m 선상에서 단독으로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옹관묘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 주옹만 확인되었으며, 막음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옹관묘 유구속성표

연번	구역 구분	유구 번호	장축방향	규모(cm)			묘광 평면형태	결합 형태	토기 조합	합구 형식	
				길이	너비	깊이					
1	II-3	1호	N-23°-E	75	38	12	타원형	이음식	주옹(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발) 1점	A	
2	II-3	2호	N-62°-E	70	38	8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 저부편) 1점	?	
3	II-3	3호	N-60°-E	78	42	5	타원형	이음식	주옹(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발) 1점	B	
4	II-3	4호	N-81°-E	74	(39)	11	타원형	단옹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	
5	II-3	5호	N-60°-E	71	38	7	타원형	이음식	주옹 1점(삼각구연점토대토기) 막음옹(무문토기 저부) 1점	C?	
6	II-3	6호	N-69°-E	71	41	9	타원형	이음식	주옹(무문토기호) 1점 막음옹(무문토기편) 1점	마감 호?	단옹 ?
7	II-3	7호	N-48°-E	67	36	4	타원형	이음식	주옹(무문토기) 1점 막음옹 1점	불명	
8	II-3	8호	N-12°-E	56	42	2	타원형	단옹식	옹관(무문토기) 1점	.	
9	II-3	9호	N-8°-W	52	38	5	타원형	단옹식	옹관(발형토기) 1점	.	
10	II-3	10호	N-48°-E	42	27	5	타원형	단옹식	옹관(무문토기) 1점	.	
11	II-3	11호	N-83°-W	59	29	6	타원형	단옹식	옹관(무문토기) 1점	.	
12	II-3	12호	N-44°-E	91	40	10	타원형	이음식	주옹(발형무문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 1점	.	
13	II-3	13호	N-13°-E	88	40	6	타원형	이음식	주옹(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점토대토기) 1점	불명	
14	II-3	14호	N-62°-E	70	51	7	타원형	단옹식	옹관 1점	.	
15	II-3	15호	N-76°-E	76	59	3	타원형	이음식	옹관(무문토기호) 1점 막음옹 1점	A	
16	II-3	16호	N-43°-E	78	40	6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 1점	A	
17	II-3	17호	N-15°-E	90	51	9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발) 1점	불명	
18	II-3	18호	N-28°-E	88	48	5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A	
19	II-3	19호	N-85°-W	114	72	10	장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점토대토기) 1점	A	
20	II-3	20호	N-51°-E	128	85	12	장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천발형무문토기) 1점	A	
21	II-3	21호	N-13°-E	87	54	10	타원형	이음식	주옹(삼각구연점토대토기) 1점 막음옹(무문토기파수부호) 1점	B	
22	II-4	1호	N-80°-W	90	30	10	타원형	단옹식	주옹(무문토기호) 1점 뚜껑(와질토기편) 1점	.	
23	II-5	1호	N-88°-W	42	25	10	타원형	단옹식	옹관 1점(삼각구연점토대토기)		

* 합구 형식 - A형: 막음옹의 구연부가 주옹의 구연부를 덮고 있음. / B형: 주옹의 구연부가 막음옹의 구연부를 덮고 있음.
C형: 주옹과 막음옹의 구연부가 서로 맞닿아 있음.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사진 2〉 II-5구역 항공사진

2) 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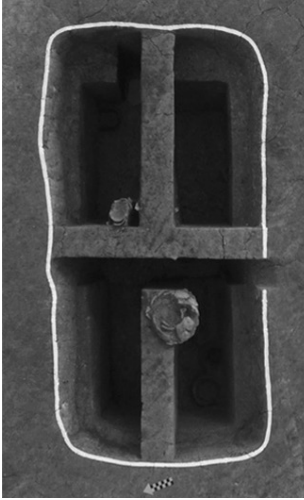
목관묘는 II-5구역에서 6기가 조사되었으며, 지형은 남동쪽으로 뺨어 내려오는 저구릉의 말단부와 동-서 방향으로 둘러싼 지맥 사이의 충적지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은 완만한 평탄지로 자연적으로 퇴적된 곳을 일부 개간하여 계단식 경작지로 사용하였던 곳으로 상단 사면부는 과수식재가, 하단은 논으로 사용되었던 지대이다. 토층퇴적 양상은 크게 상단은 경작지 조성을 하면서 삭평이 많이 되어 경작지 토층 아래에 황등색 사질점토인 기반층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구조만으로 분류했을 때 저구릉의 남서쪽 말단부에 연접하여 조성된 목관묘 1호는 토층에서 완만한 ‘U’자 상으로 부식된 흔적으로 볼 때 통나무형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목관묘 3~5호는 묘광의 규모가 작고 삭평이 많이 이루어져 목관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

〈표 3〉 목관묘 유구 일람표

번호	장축방향	묘광 규모(cm)			목관 규모(cm)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호	N-65°-W	318	150	121	283	93	동검2, 철검2, 동모2, 청동팔찌1, 동과1, 호형대구1, 유리제경식, 동경3, 동탁1, 동포2, 철모1, 철부47, 철기부채3, 주머니호1, 파수부장경호1, 단경호2, 웅형토기1(?)
2호	N-77°-W	353	182	144	252	64	세형동검1, 검파두식3, 동과1, 철검1, 철모6, 재갈1, 철부2, 철착2, 파수부장경호1
3호	N-70°-E	101	28	20	94	20	없음
4호	N-88°-E	86	28	18	75	19	없음
5호	N-60°-W	167	73	30	133	32	없음
6호	N-89°-W	228	98	67	182	50	소용1

(1) 1호 목관묘

1호 목관묘는 북서쪽의 2~6호 목관묘군과 100m 이상 떨어져 해발 64.5m 선상의 충적대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18cm, 너비 150cm, 깊이 121cm이고, 목관의 규모는 길이 273cm, 너비 84cm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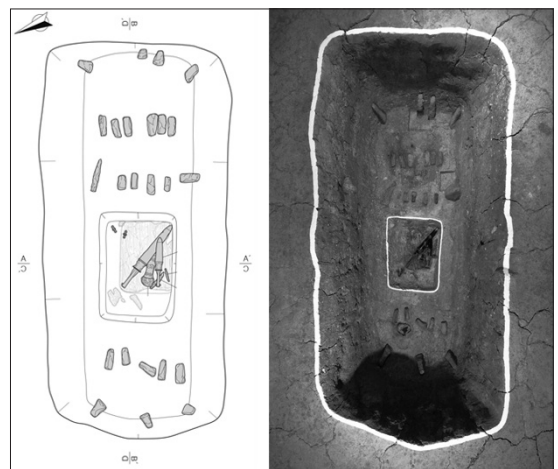
〈삽도 5〉 1호 목관묘 토층 함몰양상

이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N-65°-W이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묘광은 전반적으로 북동고 남서저의 지형에 황갈색사질점토인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1호 목관묘는 토층에서 완만한 'U'자 상으로 부식된 흑색 점토피의 흔적으로 볼 때 통나무형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목관 내부 토층에서 목개 상부의 봉토흙으로 추정되는 퇴적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일정 정도 높이의 봉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는 장방형의 수혈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요갱부를 만든 다음, 통나무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의 동편에 판재로 격벽시설을 마련하였다. 이후 목관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하였다. 유물의 부장이 완성된 후에는 목관에 뚜껑을 덮고 목개를 설치한 다음 봉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축조 공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① 장방형의 수혈 구덩이와 요갱부 조성(1단계)

무덤을 조성할 위치가 선정되면 주변 일대를 정지하고 통나무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평면 장방형의 수혈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정지면에는 요갱을 설치하고 판상철부를 묘광 모서리와 정지면에 열을 지어 깔았다. 동서 양단벽부의 벽면에는 각각 4점과 3점의 판상철부를, 남장벽 우측부에서도 판상철부 1점을 묘광 벽면에 비스듬히 기대어 두었다. 정지면에는 동쪽 두부에 주조철부를 6점, 4점씩 2열로 깔고, 서쪽 측부에도 5점의 주조철부를 1열 깔아 모두 3열로 배치하였다. 요갱부 근처에서는 철모 1점이 바닥에서



〈삽도 6〉 묘광 및 요갱부 설치

출토되었는데 이는 벽면에 기대어 두었던 것이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철모의 표면에서 초본 식물흔이 보존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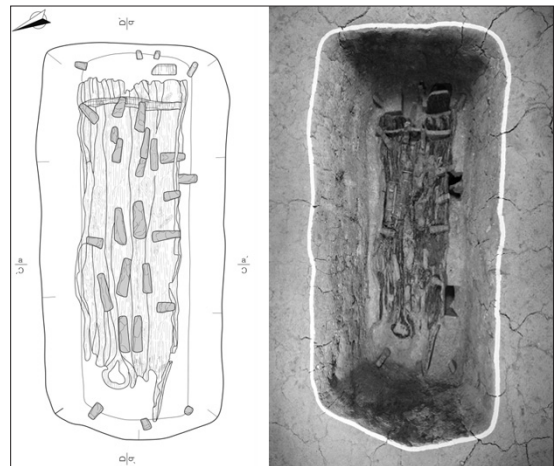
요갱의 상면에서 확인된 검파두식 2점은 목관 내부에 부장하였던 청동 또는 철검의 손잡이가 목관의 함몰 과정에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서는 길이 57cm, 너비 46cm, 높이 12cm 정도의 유기질 범위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을 담아 두었던 칠함으로 추정된다. 이 칠함 안에 칠초동모, 오수전으로 장식한 칠과초 등 출토되었는데, 과초의 앞뒤 면에 오수전을 13점씩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삽도 7〉 1호 목관묘 요갱 내 출토 유물

② 목관 하부 설치(2단계)

통나무 목관을 하관한 후에 목관의 동쪽부는 “교”자 상으로 판재를 세워 공간을 분할하였다. 구유형관을 설치한 뒤에는 둥근 바닥면을 고정하기 위해 사방에 30cm 정도 높이로 충진토를 채웠다. 목관의 안쪽에도 여러 점의 판상철부를 측면과 바닥에 깔았다. 목관의 동단벽 격벽용 판재에는 판상철부를 2점, 북장벽에 2점, 남장벽에 4점씩 비스듬히 기댄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에는 2-2-2-2-3점씩 5열로 모두 판상철부 11점을 깔았다. 바닥에서 확인된 판상철부는 북장벽 측면에 기대어 두었던 것이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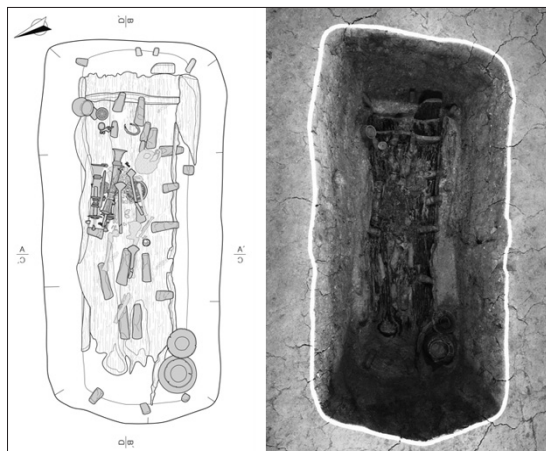


〈삽도 8〉 목관 하부 설치

통나무 목관의 양 장벽에도 비스듬하게 내면에 기댄 상태로 철부 4점씩을 놓고, 바닥에는 2~4점씩 5열로 판상철부 12점을 깔았다. 피장자를 안치하기 전에 대형 이체자명대경 1점(직경 17.4cm)을 피장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장하였다.

③ 피장자 안치(3단계)

목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피장자를 안치하고 주위에는 유물을 부장한다. 피장자의 목에는 경식을 왼쪽 팔목에는 청동제 팔찌를 착용한 상태이며 머리는 동쪽을 향해 있다. 피장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철초동검·철초철검과 검초 4세트, 성운문경, 동탁을 부장하고, 피장자의 머리, 가슴과 배 위에는 칠기부채 3점을 부채살이 동쪽을 향하도록 엮어 두었다.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 위치에는 칠기 위에 호형대구와 전한경(소명경) 1점씩을 각각 엮어둔 상태로 장례가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삽도 9〉 피장자 안치 및 유물 매납

남장벽 서쪽부 충전토 상면에는 단경호와 파수부장경호를 각 1점씩, 북장벽의 동쪽부 충전토 상면에는 주머니호 1점을 매납하였는데, 단경호 안에서 칠기류와 송어 머리뼈, 복숭아, 참외 등의 제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목관의 뚜껑 설치(4단계)

내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관의 판재가 켜켜이 겹쳐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노출된 판재는 목개나 목관의 뚜껑이 내려앉은 것이고, 유물 노출 후에 인골과 함께 바닥면에서 확인된 것은 목관의 바닥재이다.

⑤ 목개 설치 단계(5단계)

내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관의 판재가 켜켜이 겹쳐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노출된 판재는 목개나 목관의 뚜껑이 내려앉은 것이고, 유물 노출 후에 인골과 함께 바닥면에서 확인된 것은 목관의 바닥재로 판단된다. 뚜껑의 형태는 토층 함몰양상과 동단벽부에 칸막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판재형일 가능성이 크다.

⑥ 봉토 조성 단계(6단계)

목개 설치 후에는 봉토를 최소 1m 내외로 성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 함몰된 토층의 깊이와 양상을 보아 흑색 점토피 상부에 목개 위에 일정 정도 높이의 봉토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봉토에 매납한 유물로는 와질제 타날문 단경호 1점과 옹형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2) 2호 목관묘

2호 목관묘는 묘광을 이단 굴착한 적석목관묘이다.⁵⁾ 묘광을 평면 장방형으로 넓게 판 다음, 바닥에서 70cm

5) 남부지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는 대구 팔달동 45호가 대표적이며, 경주 조양동 5호, 경산 임당 F1-15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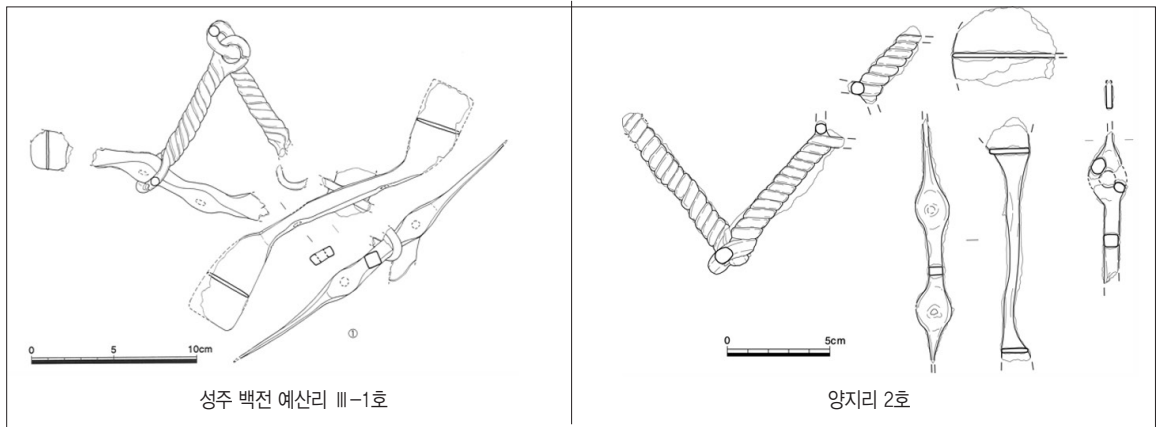
높이에서 30cm 정도 안쪽으로 들여 턱을 지워 이단으로 광을 만든 구조이다. 단이 지는 위치에서 남-북 방향으로 대칭되게 3조의 구덩이가 횡으로 굴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호 목관묘는 3개의 횡대를 걸친 다음, 그 위에 목개를 덮고 상부를 10~30cm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덮은 적석목관묘이다.

목관의 규모는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니질점토의 범위로 추정해 보면 길이 204cm, 너비 64cm 크기의 판재식으로 추정되며, 충전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관 내부에 함몰된 천석 사이에서는 흑색마연장경호와 판상철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목개를 설치하고 적석된 상단에 부장된 유물로 판단된다. 유물의 출토위치로 볼 때 대부분의 유물은 목관의 밖과 묘광 사이 공간에서 철검, 철모, 동과, 재갈, 불명철기 등이 부장되었으며, 목관의 내부에서 동검 및 부속구, 동포, 이형동기, 철사와 인골흔이 확인되었다. 영남지방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재갈은 성주 백전 예산리 유적 III-1호에서 출토된 것으로, 2호 목관묘에서 이에 후행하는 재갈의 형식이 확인되었다.⁶⁾



〈삽도 10〉 2호 적석목관묘 토층 함몰양상 및 조사후 전경



〈삽도 11〉 영남지역 출현기 재갈

6) 이현우, 2020, 『기원전 6~1세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마구』, 『북방의 재인식 - 우리 고대문화 연구에서의 함의』,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상고사학회.

IV. 맺음말

경산 양지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거 및 생산, 무덤과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비록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유구가 많이 훼손되고 하부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만, 단위 지역에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된다는 사실은 이곳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자연환경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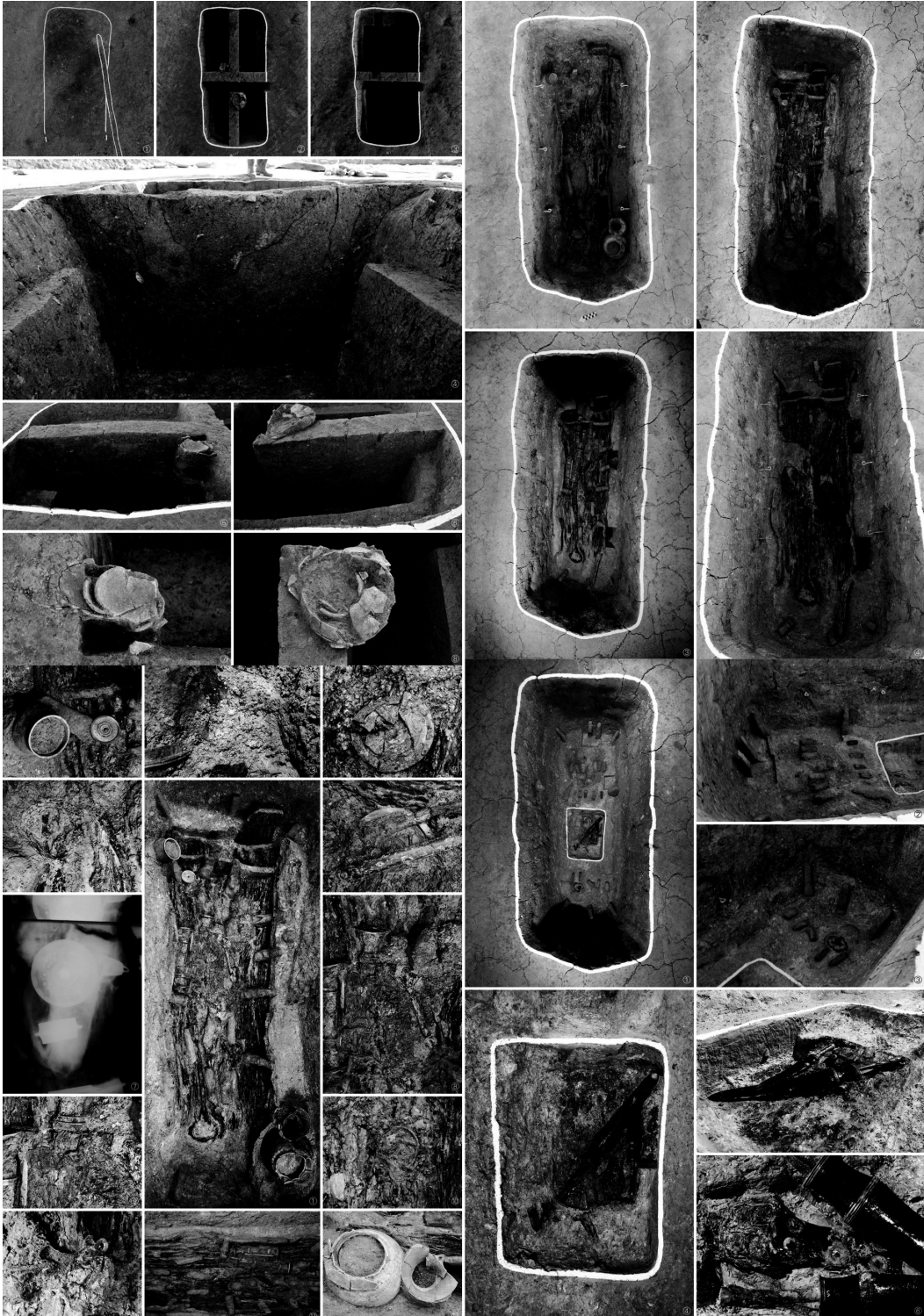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 2호 적석목관묘는 이단으로 굴착된 지점에서 3열의 횡대시설의 발견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호 목관묘에서 기원 전후 중국과 교역의 산물인 다량의 청동제 유물이 통나무 목관과 함께 확인되었고, 요갱에서도 신분을 상징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오수전 장식의 과초와 중국제 거울로 볼 때 다호리 1호, 조양동 38호와 유물 공반상에서 유사점이 확인된다. 또한 바닥과 벽면, 목관 내면에 철부를 깔거나 벽면에 기대어 두는 양상은 경산 임당동, 영천 용전리 1호, 경주 조양동 38호, 경주 사라리 130호, 창원 다호리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진변한 사회의 수장급 무덤에서 공유되던 매장 의례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산 양지리 유적 목관묘의 연대는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형식을 중심으로 토기 편년 성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2호 목관묘는 1호 목관묘보다는 한 단계 이상 선행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2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흑색마연장경호는 굵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굵이 일부 확인되나 평저인 유물이 함께 출토된 경주 조양동 5호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밀양 교동 3호와 17호에 출토된 주머니호와 단경호는 양지리 1호보다 빠르고, 조양동 38호보다는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이 시기의 표지유적과 비교해 보면 양지리 2호→조양동 5호→다호리 1호→조양동 38호→교동 3호·17호→양지리 1호의 순서로 상대 서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한경은 창원 다호리 1호, 밀양 교동 3호·17호, 포항 성곡리 13호와 같이 진변한 각지 최고 수장급 무덤에서 1점씩 출토되었다. 그런데 경주 조양동 38호에서 출토된 전한경 4점은 소형이고 문양 구성이나 명문의 내용으로 볼 때 양지리 1호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토기의 편년 검토에서 조양동 38호가 다소 앞선 형식이라는 점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전한경의 수입 시점 및 전세와 무덤의 조성 시기 간에 다소 차이로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삼도 12〉요갱부에서 출토된 칠과초는 오수전의 형식과 이것이 장식적으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피장자를 덮었던 칠기부채 2점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서 기원 전후로 결과가 도출되어 편년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경산 양지리 유적의 1호 목관묘의 피장자는 금호강 일대의 대구 만촌동, 영천 용전리, 경주 조양동은 물론 성주 예산리, 창원 다호리 목관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최고의 위세품이 모두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보아 진변한을 아우르는 개인 유력자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원전 1세기 전반		대구 팔달동 45호
		경산 양지리 2·6호
		경주 조양동 5호
기원전 1세기 후반		영천 용전리 1호
기원후 1세기 전반		경주 조양동 38호
		밀양 교동 3·17호
		경산 양지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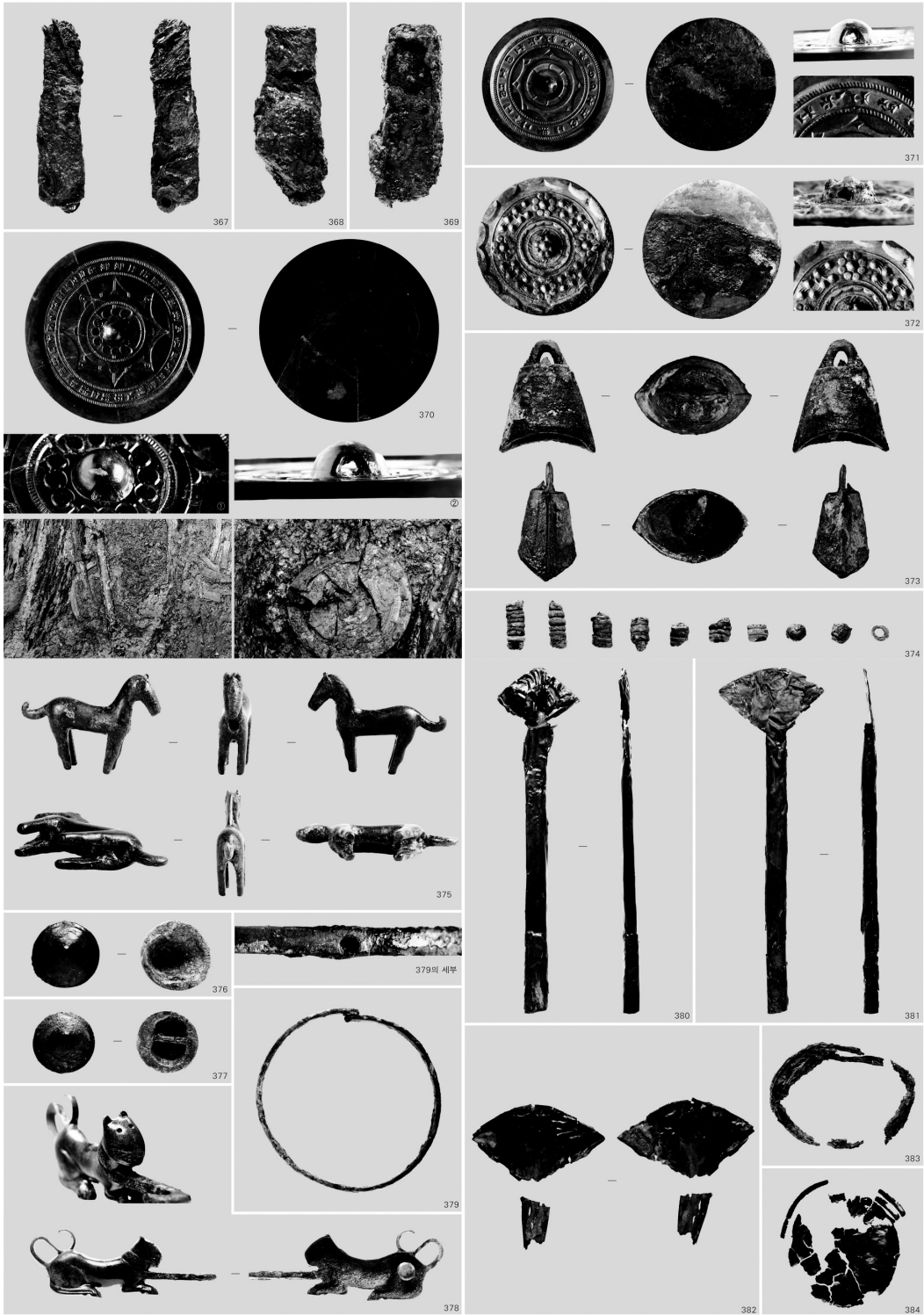
〈삽도 12〉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토기의 상대편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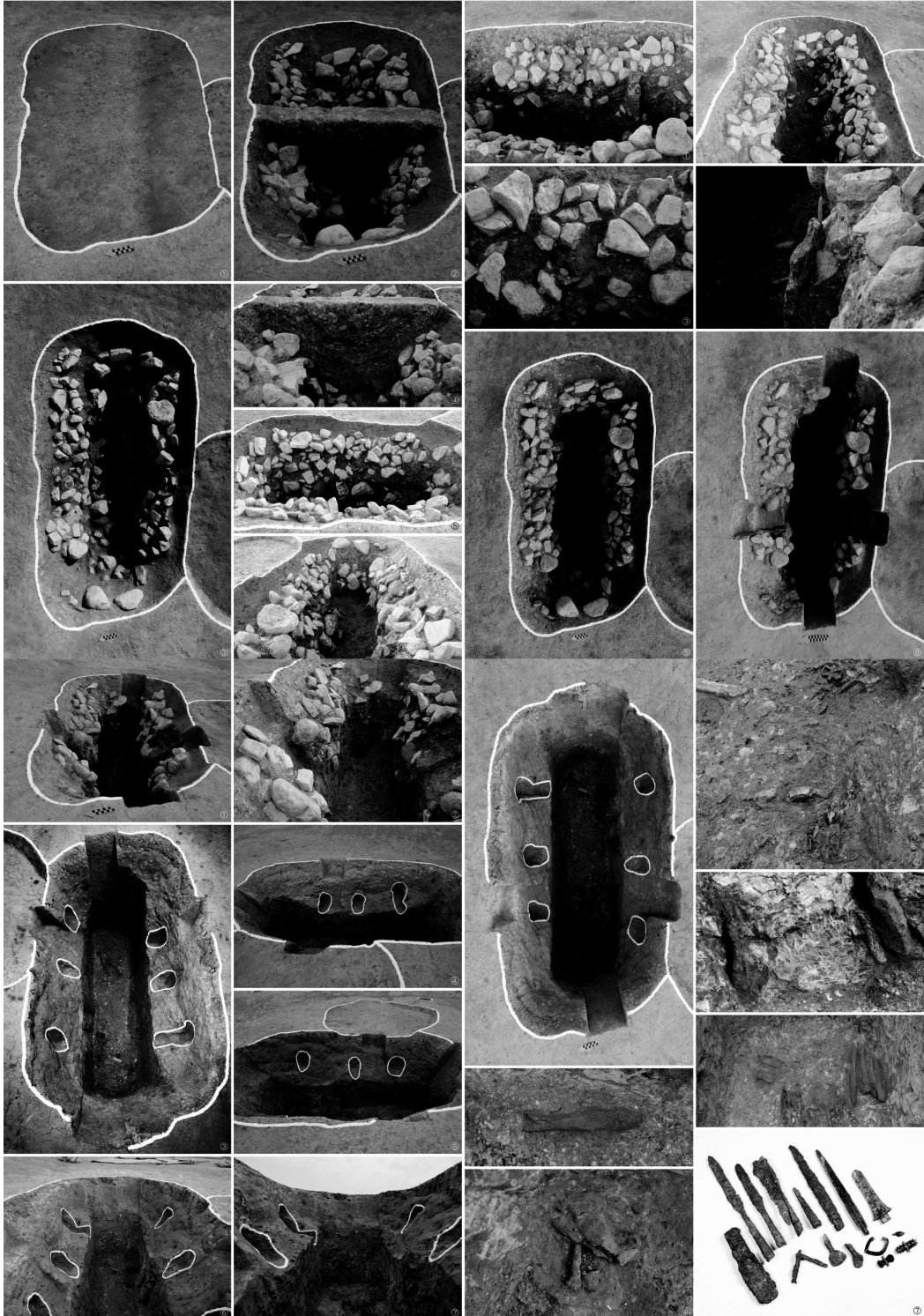
(사진 3) 1호 목관묘 조사 전경 및 유물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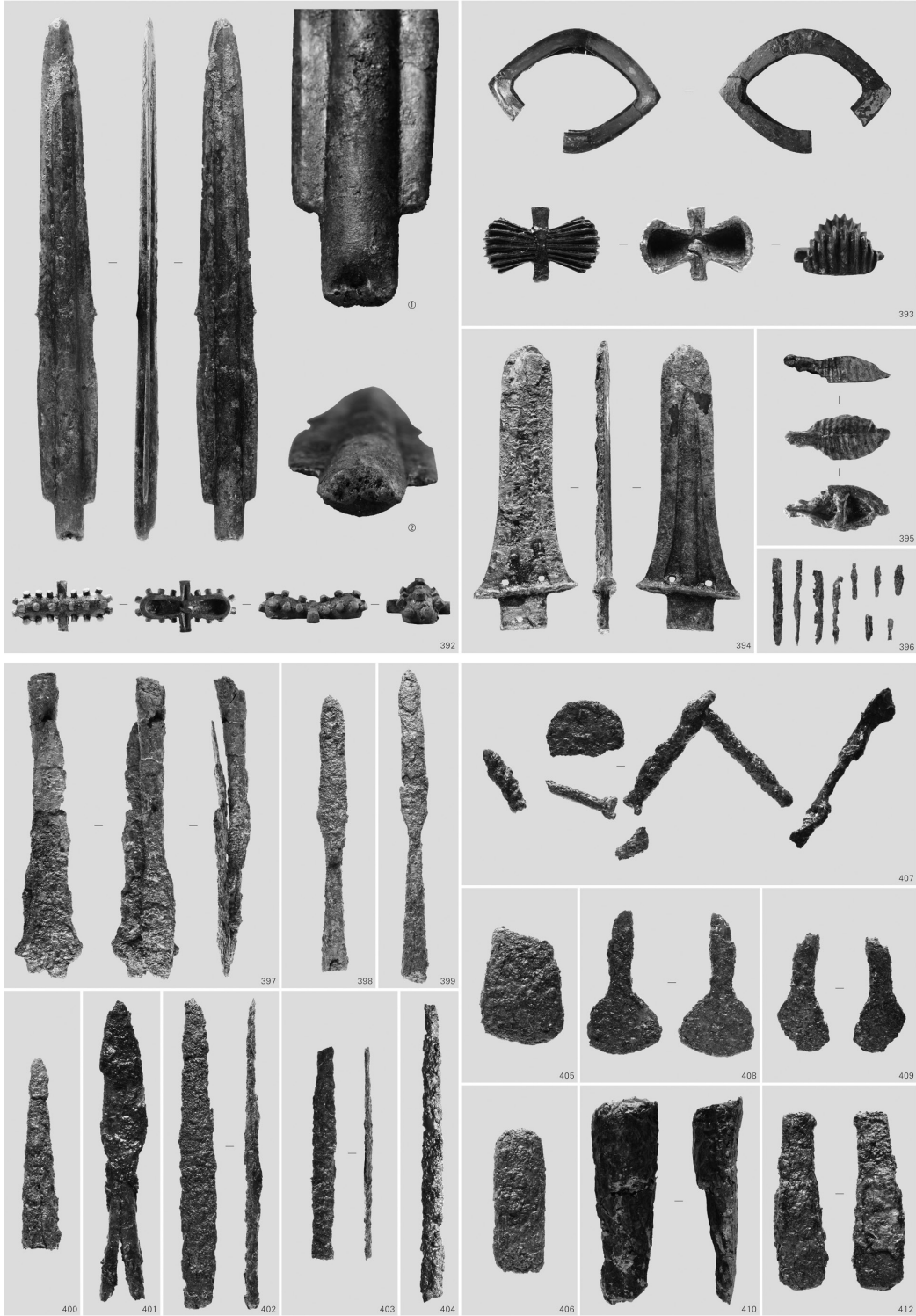
〈사진 4〉 1호 목관묘 출토 유물



〈사진 5〉 1호 목관묘 출토 유물



〈사진 6〉 2호 목관묘 조사 전경 및 출토유물 일괄



〈사진 7〉 2호 적석목관묘 출토유물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

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

| 목차 |

- I. 머리말
- II. 원삼국시대 목관묘 연구 概況
- III. 2호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특징
- IV. 1호 목관묘 축조양상의 특징과 경산지역 목관묘
 - 1) 1호 목관묘 구성요소의 특징
 - 2) 유적 내 공간배치 정형-독립묘는 존재했는가?
- V. 맺음말

I. 머리말

목관묘는 인류가 사용해온 여러 형태의 묘제 중 가장 보편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공간의 괴리를 뛰어 넘어 凡用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고고학의 연구범주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구조와 부속시설의 변화를 동반한다. 선사시대를 포함한 上古史 연구 고고학 자료로서 목관묘는 그 木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매장주체부의 파악이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런 탓에 막연히 토광묘라 지칭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경주 조양동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목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 창원 다호리유적 등의 발굴이 다수 이어지면서 그 구조와 축조양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馬韓·辰韓·弁韓이 태동하고 발전하기인 초기철기~원삼국시대는 단편적인 문헌 사료로 말미암아 그간 고고학적 분석과 해석이 당해시기 역사와 사회복원에 큰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거관련 자료가 비교적 영성한 가운데 화려한 금속유물과 일괄출토 정보를 제공하는 목관묘(군)과 그 출토 유물에 대한 분석이 단연 관련 연구의 대세를 이끌어 왔다.

그간 경산권역에서 조사·보고된 목관묘 자료 상황은 영남지방 내 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임당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 정치체의 통시적 동향, 읍락의 존재 양태, 나아가 국가형성과정과 사회복합도의 진전에 관한 논의까지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고산, 남천, 진량, 하양, 그리고 금호강 북안의 안심지구까지 권역 내 여러 지점에서도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처럼 경산지역은 목관묘 단계 진한 사회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탁월하다.

최근 하양읍 양지리 유적에서 걸출한 후장묘가 확인되어 많은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경산지역 목관묘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될 또 하나의 자료가 더해졌다. 특히, 한반도 중남부 지역 특유의 후퇴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의 잔존상태가 훌륭한 편이라 무덤의 구조와 축조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구조와 축조양상의 특징 파악을 통해 경산권역은 물론 진·변한 지역에 알려진 목관묘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우선, 그간 영남지방 목관묘 관련 연구를 대략적으로 개관하고, 양지리 유적 1, 2호 목관묘를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도면·도판, 원고를 분석·검토해가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목관묘 현황과 축조양상에 대한 일반론적인 記述을 가급적 피하는 동시에 각 요소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또 그에 관한 새로운 지견을 더해 경산지역 목관묘의 축조양상과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한편, 논의 전개의 편의상 주된 분석의 대상인 양지리유적 1, 2호묘에 대한 절대연대관은 다음과 같은 틀에 준거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영남지방 목관묘 단계 연대 결정에 있어 중요한 표지적 유구 중 하나인 경주 조양동 5호묘를 서기전 2세기말로 소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 필자의 전고(김민철 2019)에 따라 그 이전 단계의 대

구 월성동 목관묘군, 울산 교동리 1호묘 등 일부 유구들은 서기전 2세기 중엽 이전으로, 창원 다호리 1호묘는 서기전 1세기 전엽, 경주 조양동 38호묘를 서기전 1세기 중엽, 경주 사라리 130호묘를 서기 1세기 후엽으로 본다. 이 틀에 준거하여 양지리 1호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 2호 적석목관묘는 서기전 2세기 말의 연대로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II. 원삼국시대 목관묘 연구 概況

원삼국시대 목관묘에 대한 연구는 영남지방 자료가 중심이 된다. 영남지방 이외의 한강유역이나 영동지방, 호서·호남지방의 경우 서기전 1세기대 이후 1~2세기대의 주된 묘제가 무엇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옹관묘나 토광묘 등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서기전 3~2세기대의 자료들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료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의 이러한 편중과 제약적인 특징 까닭에 원삼국시대 목관묘에 관한 연구는 영남지역 목관묘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 목관묘의 출현연대와 변천과정에 관해 기왕의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에서 최초의 목관묘가 출현하는 시점을 서기전 2세기末~1세기初 즈음으로 보는 입장¹⁾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구 팔달동유적의 적석목관묘들이 서남부지역으로 영향을 받아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영남지방에 있어서의 출현단계의 목관묘로 인식, 점차 적석의 요소가 없어지는 변천을 겪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영남지방에서 나타나는 목관묘의 계보는 시간적으로 앞서 나타나는 호서·호남지방의 소위 ‘초기세형동검묘’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²⁾. 그리고 이 시기 목관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형식학적 변화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며, 목관묘가 등장하는 시점을 전후한 무렵부터 묘광의 깊이가 점차 얕아져 가는 변화와 관련해서 소위 ‘木棺系 木槨墓’의 등장³⁾ 정도만이 그 구조적 변화로서 인식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목관묘 구조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위와 같이 비교적 논의가 소략했던데 비해 목관형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통나무관과 판재관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차후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논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므로 장황하지만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金洙南, 1998, 「慶山 林堂遺蹟 木棺墓의 性格에 대하여」,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제3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鄭仁盛,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文化」, 『嶺南考古學』22, 嶺南考古學會.

진수정, 1998,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영문연조사연구발표회』9회.

朴升圭, 2000, 「大邱·慶北地方의 木棺墓 資料紹介」,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高久健二, 2000, 「樂浪郡と弁·辰韓の墓制」,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宋桂鉉, 2000, 「辰·弁韓文化의 形成과 變遷」,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2)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第5輯, 韓國古代史學會.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pp.286~289, 學研文化社.

3) 安在皓, 1995, 「慶州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12, pp.121~134,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이재홍, 2001, 「목관계목관묘의 등장과 배경」, 『嶺南文化財研究』14, (財)嶺南文化財研究院.

통나무관과 판재관이라는 목관형태 차이는 그간 일반적으로 초기철기시대 이래 그 사용 주체가 주민계통이 다른 것으로 추정하여 재지민 혹은 새로이 渡來한 유이민들이 사용한 관으로 간주해 왔다⁴⁾. 이러한 추정은 다호리 1호묘 통나무관의 계통을 따지면서 이전 시기의 화순 대곡리 유적에서 통나무관이 확인됨을 근거로 하고, 판재관은 한반도 서북지방의 묘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대구지역의 삼한소국형성과정의 일면을 재지계 통나무관과 외래계 판재관의 時空的 분포양상을 바탕을 추찰한 연구⁵⁾도 발표되었다.

통나무관=재지계, 판재관=외래계라는 목관묘 계통에 관한 가정은 영남지방에서 화순 대곡리유적이나 대구 팔달동, 창원 다호리유적의 시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목관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유효한 전제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김천 문당동 유적의 목관묘를 염두해 두면 그러한 가정은 再考의 필요성이 있다. 소위 변형비파형동검과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에서 출토된 것과 동단계로 파악되는 흑도장경호, 그리고 마제석검(석창?) 등이 공반되어 화순 대곡리유적의 목관묘 보다 이른 것이 확실한 문당동유적의 목관묘는 판재식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즉, 통나무관의 사용보다 선행하는 판재관의 존재가 뚜렷해진 것이다. 목관의 형태에 관한 논의는 중국적으로 각 단위 지역에서 유이민과 재지사회의 융합·통합과정을 특히, 영남지방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려는데 이용되었다고 본다.

한편, 崔鍾圭는 목관묘의 출토유물과 부장양상의 검토를 통해 목관묘 단계에서의 ‘禮制’를 검토한 바 있다⁶⁾. 그는 조선시대 목관묘의 검토를 토대로 葬地에서 이른바 埋葬三祭가 거행된 것으로 보고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에서도 유사한 儀禮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儒敎式 喪葬禮가 거행되었을 조선시대 자료의 검토를 초기철기~원삼국시대까지 과연 그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목관묘의 유물부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 이러한 검토는 목관묘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연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은 구조나 계통의 문제라기 보다는 木棺墓群의 등장 의미⁷⁾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시기 단독묘 혹은 소수군집묘의 형태로 조성되던 목관묘가 서기전 100년경을 전후한 시기부터 떼를 지어 누세대로적으로 조영되기 시작하는데—물론, 이후 연속적으로 자료가 나타나는 辰·弁韓지역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삼한 소국정립의 증거로써 간주해 온 까닭에서 그러하다. 목관묘의 누세대로적인 조영을 삼한 소국들의 성립된 증거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취락고고학의 관점에서 이것이 취락의 장기적인 영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목관묘 이후의 분묘들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조영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만 대개는 이후 각 지역 단위의 중심 정치체가 성장하는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분묘가 조성되는 것을 볼 때 목관묘의 군

4)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考古學誌』1, p.52, 국립중앙박물관.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고대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嶺南考古學』, 26, p.103, 嶺南考古學會.
이건우, 2009, 「茶戶里遺蹟 發掘의 意義」『考古學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紀念 特輯號, pp.8~11, 국립중앙박물관.
權志瑛, 2010, 「영남지방 목관묘의 전개양상 검토」, 『考古廣場』, 부산고고학회.
5) 李熙濬, 2000, 「前揭文」.
6) 崔鍾圭, 2007, 「三韓 早期墓의 禮制」『考古學探究』, 創刊號, 考古學探究會.
7)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新羅文化』第十四輯, pp.28~29,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李在賢, 2003, 「弁·辰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pp.90~93,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집현상을 ‘소국’이라 할만한 지역정치체 성립의 증거로서는 충분히 수궁할 수 있다. 그리고 목관묘가 군집하는 고고학적 정형성의 이면에는 한반도 서북부나 서남부로부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유이민의 파동이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이해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Ⅲ. 2호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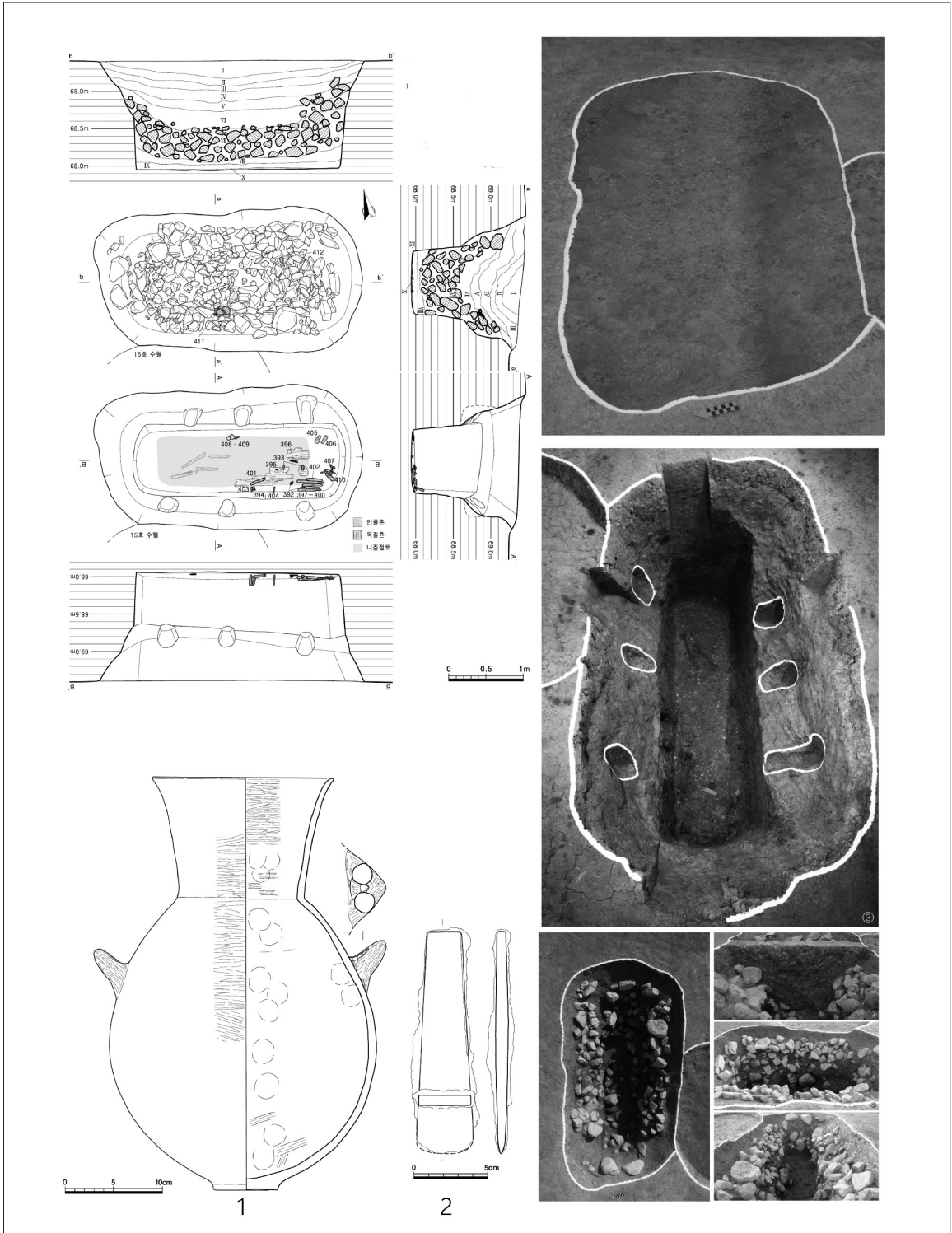
양지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모두 6기이다. 모두 유적의 동편 Ⅱ-⑤구역에서 확인되었다. 3~6호 목관묘는 2호 목관묘에 인접하여 축조되었고 비교적 규모가 작다. 출토유물도 없거나 토기 한 점이 발견되었다.

2호묘는 묘광 내 적석이 확인된 이른바 적석목관묘인데 목관 상부의 적석이 확실한 사례이다. 묘광 길이 353cm, 너비 182cm, 잔존깊이 144cm이다. 금호강유역에서 기왕에 알려진 목관묘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⁸⁾를 감안해 본다면, 경산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목관묘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한다. 묘광은 이단 굴광의 구조인데 바닥에서 70cm 높이에 단이 지워져 있다. 단이 지는 이 위치에 굴착흔이 확인되었다는 특이점이 있다. 남장벽과 북장벽측 단에 각각 3개씩 3조의 구덩이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일대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로서 보고자는 여기에 횡대를 거치하고 목개를 설치한 후 그 상부에 15~30cm 크기의 강돌을 적석한 구조로 추정하였다. 함몰된 적석부에서 흑색마연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판상철부가 각 1점씩 확인되어 목개를 설치하고 봉헌한 유물로 보인다. 목개 아래 안치한 목관은 204cm×64cm의 규모로 판재관이며, 충전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부퇴적 양상을 근거로 한 보고자의 이와 같은 구조 복원안은 대체로 적확하다고 보이며, 2호 무덤을 적석목관묘로 명확히 규정할 만하다.

한편,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목개 위에 안치한 흑색마연장경호와 판상철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단 굴광의 단 위에 횡대를 걸치고 그 위에 목개를 놓고 돌을 쌓았는데 두 기물은 적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양상으로 보건데 파수부호와 판상철부는 무덤 축조를 완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헌된 물품으로 목관 내부 혹은 그 주위에서 확인되는 유물들과 폐기의 동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적석에서 출토된 유물은 발굴 당시 잔존한 묘광의 어깨선 아래의 레벨에서 확인되므로 봉토와는 관련이 없는 즉, 무덤 하부 구조의 일요소로 봐야 한다. 그것은 목개와 목관의 부식으로 발생한 현재 함몰 양상을 염두에 두고 원래의 구조를 추적해 볼 때 이단굴광의 턱 레벨에 위치한 목개 상부의 적석부가 묘광 어깨선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즉, 적석부는 묘광 어깨선 위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무덤 축조 당시 구지표에 형성되었을 어깨선의 높이가 현재 확인된 레벨보다는 어쨌든 더 상부에 위치했을 것임을 감안해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양상은 적석과 공헌물인 토기, 철기가 봉토와는 관계없는 시설이자 유물이며 무덤 축조과정을 복원해 볼 때 양자는 애초에 무덤의 하부 구조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봉토 내부에 위치한

8) 금호강유역 일대 목관묘 규모 분석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지적하기 어려우며, 유물부장량과의 상호관계에서도 양자 간에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인지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신영애 2016:211).



〈도면 1〉 양지리 2호 적석목관묘와 출토유물(1·2목개 상부 출토)

기물이라면, 축조 완료 이후 특정할 수 없는 시간에 행해진 의례 행위등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적석 내부에서 출토한 흑색마연장경호의 저부는 굽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무문토기 소성으로 확실히 와질토기 출현 이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판상철부는 평면 제형에 신부 두께가 1.1cm, 너비, 5.3cm, 길이 15cm 내외이다⁹⁾〈도면1-2〉.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판상철부의 형태 변천은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인부 폭 역시 넓어지고 두께는 얇아지는 것으로 인식된다(金度憲 2004, 申東昭 2007, 류위남 2009). 즉, 양지리 2호 출토 품은 古式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경주 조양동 5호 출토품 역시 길이 14.7cm, 너비 5.5cm, 두께 1.5cm로 양지리 출토품과 규격이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2호 적석목관묘의 연대는 경주 조양동 5호와 병행하는 시기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절대연대는 서기전 2세기 말에 소급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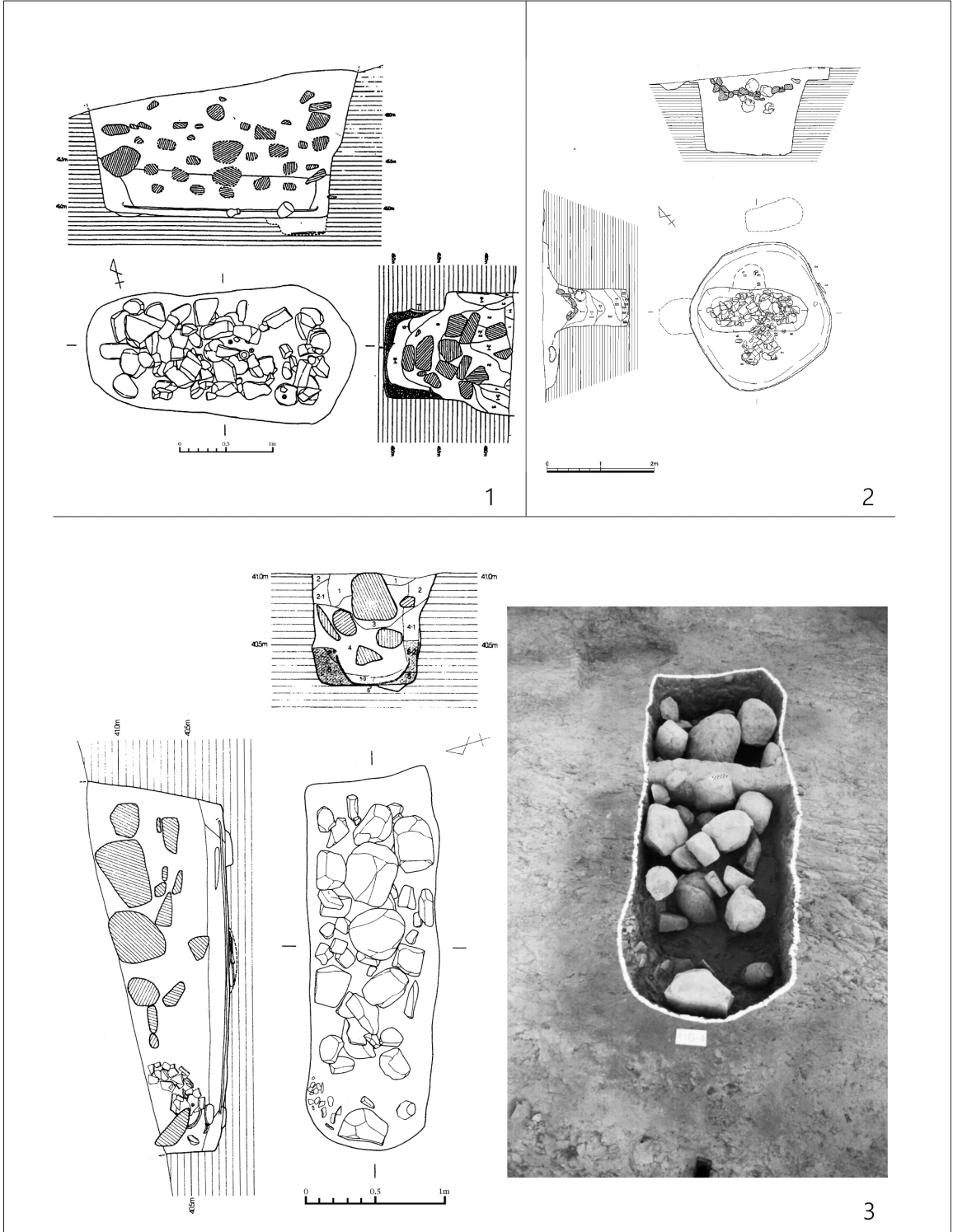
2호 적석목관묘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경산지역에서 그간 알려진 목관묘 자료에 대비해 보면 굉장히 돌출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서력기원 전후 약 300여년 동안의 시간폭에 해당하는 경산지역 목관묘 자료 약 300여기 가운데 목관 상부를 적석한 무덤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기실, 상부 적석 요소를 차치하고 경산지역 목관묘에서 물리적 구성요소로서 돌의 존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일부 유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석재는 묘광과 목관 사이를 충전하는 역할로서 흙과 함께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그간 영남지방에서 적석목관묘로 익히 알려진 팔달동 유적의 적석목관묘, 경주 조양동 5호 등과 같은 상부 적석 요소가 명확한 자료는 경산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양지리 2호 무덤이 최초의 발견 사례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산지역에서 돌연 출현한 양지리 2호 적석목관묘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구조적 계보를 어떻게 考究해야 할 터이다. 적석목관묘는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등 한반도 서남부지방에도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만, 우선, 시·공간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팔달동 유적, 경주 조양동 5호 등과 비교가 필요하다.

먼저, 대구 팔달동 유적에서는 102기의 목관묘·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적석목관묘로 보고된 것은 45호 등을 비롯하여 15여 기에 이른다. 이 무덤들 중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상부적석이 확실해 보이는 45호, 90호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만 한다. 45호 무덤의 경우 보고자는 묘광을 굴착하고 목관을 안치한 후 묘광을 덮은 목개를 놓고 그 위에 할석 약 100여 개를 적석한 것으로 추정한다. 목관과 목개 사이는 충전하지 않고 비워놓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함몰토가 잔존하는 어깨선부터 급경사를 이루고 충전토와 함몰토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90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관 상부에서 확인되는 함몰토와 석재는 묘광을 덮고 있던 목개 위의 적석과 봉토로 추정한다.

경주 조양동 5호묘는 이단굴광을 조성한 적석목관묘이다. 상단은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의 형태로 잔존 깊이 15cm 정도로 났다. 두 번째 굴광은 목관묘와 같은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되어 있다. 이 무덤의 구조에 대한 해석은 다소 의견이 분분한데 애초에 묘광 어깨선에 목개가 있었다고 추정됐지만, 정식 보고에서는 목관 상부를 황갈색토와 회(갈)색점토로 충전해 올리고 적석은 그 위에 한겹 정도 깔았으며, 목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정했다(국립경주박물관 2003:51). 유구 실측 도면상으로는 과연 그러한 수정된 설명이 일견 적확한 듯

9) 정식보고문의 유물 기술에 길이는 23.2cm이지만, 도면에 제시된 축척을 기준으로 본다면 잔존길이는 15cm 내외이다.



〈도면 2〉 영남지방 적석목관묘(1:팔달동 45호, 2:조양동 5호, 3:팔달동 90호)

하지만 이주현의 지적처럼 애초에 목개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던 무문토기용의 출토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이주현 2009:121). 도판을 참고하건대 상부 적석량은 하단 묘광의 범위를 한계정도 敷設한 양으로 보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묘광내 목관상부의 충전유무 역시 이 사례에서도 논란이 되어 구조 해석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쉽사리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 어떠한 효과적인 대응 담론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하기에 명확한 상부 적석시설의 존재만을 전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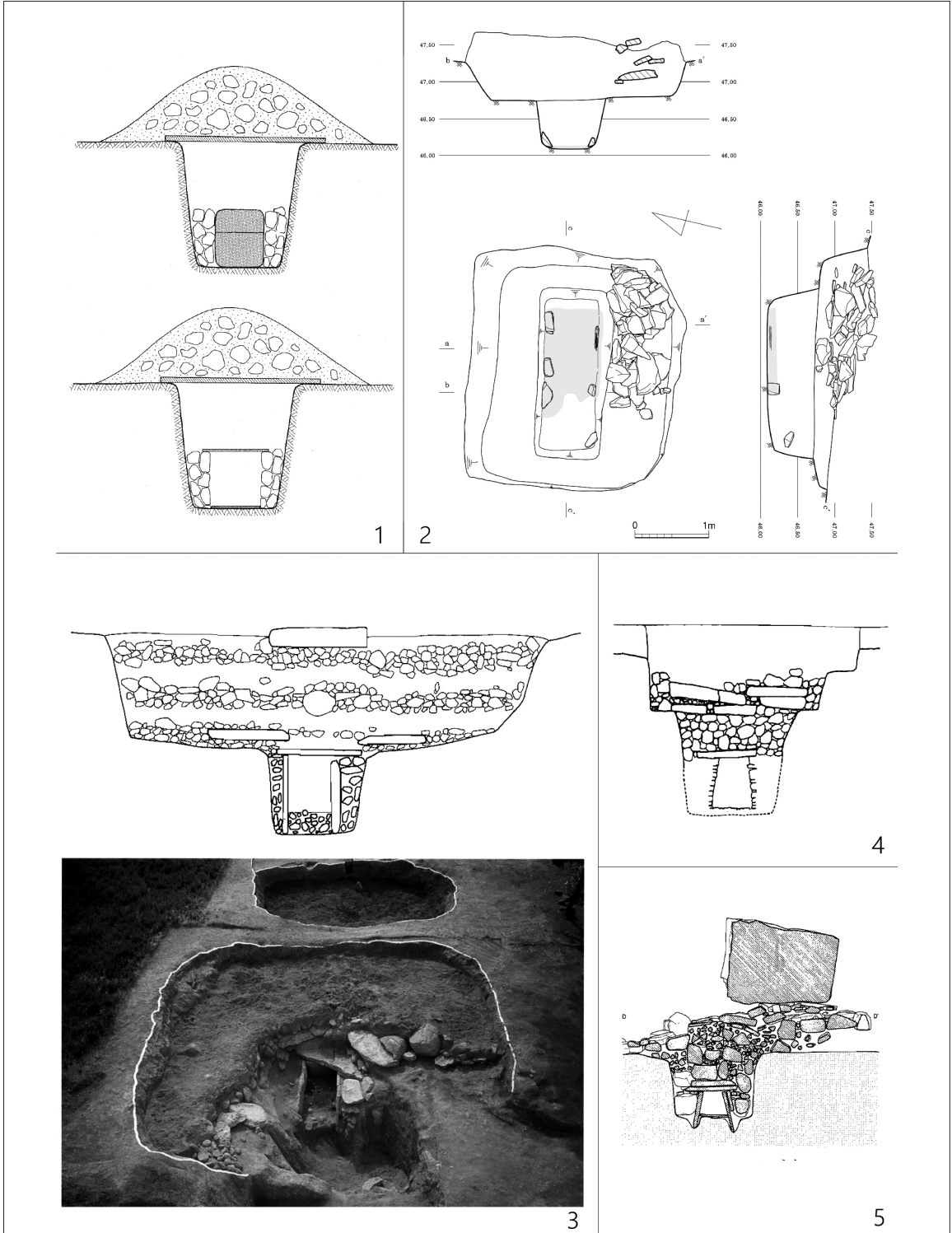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목관묘의 구조적 속성으로서 묘광 어깨선과 목관상부 사이의 공간에 관해서는 빈공간으로 판단하는 입장, 일부 채워진 경우로 보는 입장, 마지막으로 모두 채워져 있었다고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각 입장마다 구사는 저마다의 논리는 있으나 무덤 조성당시 구지표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치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관묘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는 U자상의 함몰 굴곡은 어떤식으로든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일정한 관점이 내재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발굴 조사에서 무덤 조성 당시 구지표면을 파악할 수 있다면 논의의 간극은 다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하튼 팔달동과 조양동에서 발견된 적석목관묘의 축조양상을 위와 같이 파악하고 양지리 2호 적석목관묘를 살펴보면 적석목관묘의 범주로 분류되면서도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차이는 묘광을 덮는 목개의 위치이다. 팔달동의 적석목관묘들은 구지표에 굴착한 묘광의 어깨선 목개를 설치하고 상부 적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지리의 경우 묘광내 이단 굴착한 턱에 목개를 덮고 적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목개와 목관 사이의 공간이 비워졌었는가? 혹은 충전된 상태였는가? 하는데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는 차치하고 이 자체로 양지리 적석목관묘와의 구조적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후자의 경우도 상부 적석의 요소만으로 동시기 인접한 지역의 무덤과 비슷한 구조로 파악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양지리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묘광내 적석 시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보성 동촌리, 창원 덕천리 등지의 대형 지석묘 하부구조와 유사한 점이 간취된다(도면3). 물론, 양자는 묘제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달리하는 터라 더 이상의 자세한 추적은 어렵지만, 무덤 구덩이 내부에 위치한 목개 위로 적석·충전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요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접한 자료에서 찾기 힘든 요소임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묘광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대형인 점 역시 주목할만 한데 금호강유역권에서 초현하는(적석)목관묘들 중 길이 350cm 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애초에 묘광 내부에서부터 적석을 의도한 축조 프로세스가 작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김천 문당동, 칠곡 심천리, 대구 월성동 등 양지리 적석목관묘 축조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목관묘들이 존재한다. 그런 와중에도 팔달동이나 조양동 등 일부 목관묘 유적에서 적석목관묘를 시간적으로 앞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 시기 묘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잔흔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김용성 2016:30). 여하튼 앞 시기 무덤이 돌을 주된 재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목관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적석은 분명 재지 사회의 전통이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산지역에는 김해 대성동84호, 율하B-9호, 부산 두구동 임석 무덤, 기장 동백리 석곽묘와 같은 과도기적 양



〈도면 3〉 적석목관묘와 지석묘의 하부구조(1:초포리 2:대곡리 3:동촌리 4:덕천리 5:이금동)

상이 짙은 목관묘를 확인할 수 없다. 상기 무덤들이 ‘과도기적’이라 평가되는 것은 재지 전통이 짙게 남아 있는 묘제 속에서 신석 문물이 출토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장 동백리의 경우 수직으로 세운 석곽에 와 질토기와 철기가 출토되었다. 영남지방 각 지역마다 보이는 이러한 상이한 양상은 지역별로 새로운 문화가 수용되는 과정이 크게 달랐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금호강유역권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목관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월성동 목관묘에서도 재지 분묘의 구조적 특징이 융합되어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다만, 칠곡분지 일대 팔달동, 학정동 유적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 사례가 찾아진다. 경산지역의 경우, 임당 구릉일대 중에서도 F지구와 조영 I B지구에서 확인된 목관묘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무덤들에서도 재지적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임당구릉에 분포하는 목관묘 중에는 상부 積石을 적극 긍정할 만한 무덤을 찾아 볼 수 없다. 임당일대의 목관묘를 축조한 집단의 출자가 재지계와는 매우 단절적임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이 일대의 조사에서 지석묘나 주거지 등 재지 무문토기 사회의 흔적¹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IV. 1호 목관묘 축조양상의 특징과 경산지역 목관묘

1호 목관묘는 유적의 II-⑤구역 동남쪽에 위치하는데 주위는 동시기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무덤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서북쪽으로 100m 가량 이격된 지점에 2호 적석목관묘와 3~6호 목관묘가 위치한다. 아래에서는 양지리유적 1호 목관묘의 발견을 계기로 쟁점이 될만한 목관묘 구성 요소들을 기존의 자료와 함께 재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면4>는 정식 조사보고서의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구조의 열개를 시각화 한 것이다.

1. 1호 목관묘 구성요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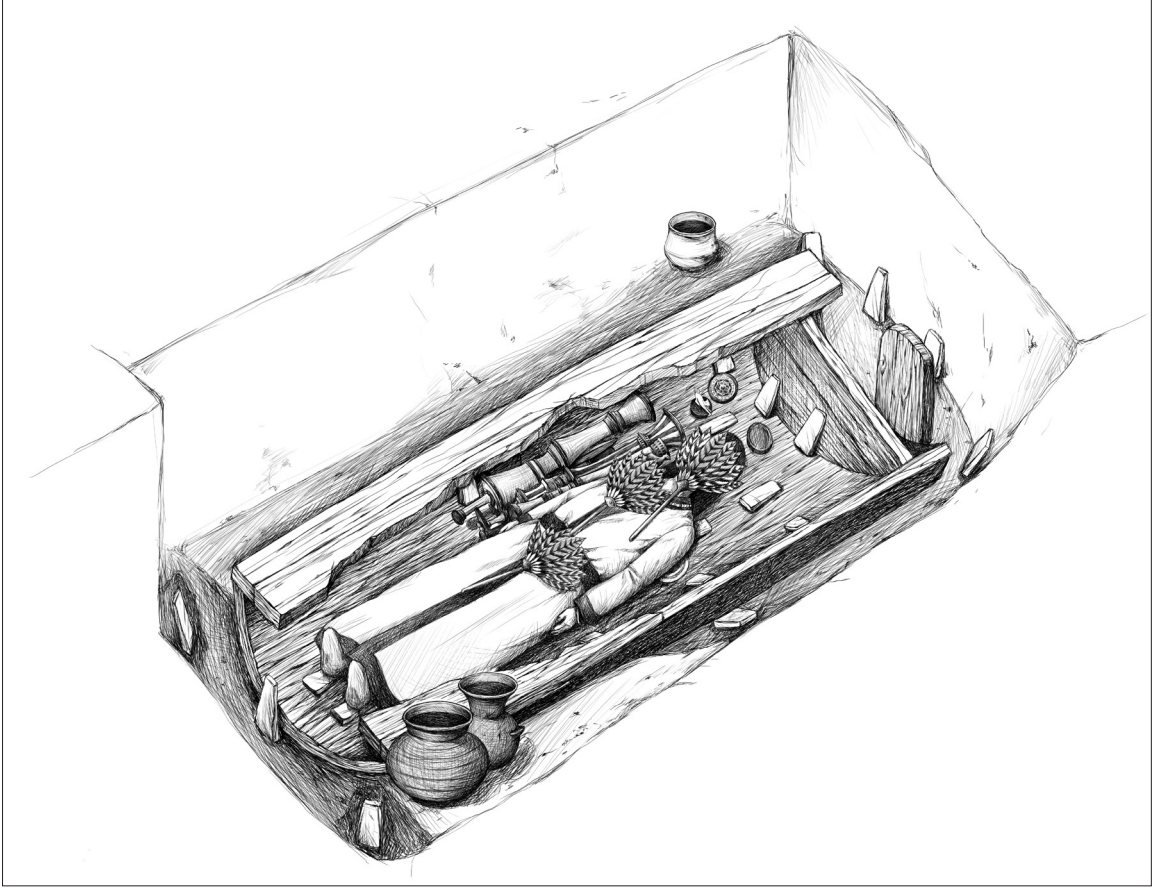
1) 묘광 바닥과 요갱부

무덤 구덩이를 굴착하고 먼저 별도의 부장공간 만들었는데 요갱이 바로 그것이다. 피장자의 허리춤에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묘광의 모서리쪽에 굴착한 경우도 있다¹¹⁾. 1호 무덤 하부에서도 요갱부가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칠초동모, 칠초철과¹²⁾, 철제 자귀 등을 부장했다. 묘광 모서리와 정지면에 판상철부를 깔거나 세워두고 주조 철부를 3열 배치했다. 바닥에 배치한 이 철기유물의 표면에 초본류 흔적이 확인되는 것에서 자리를 한 벌 깔

10) 임당환호(지구) 서쪽, 현 임당초등학교 북편에 면하여 대정동 유물산포지와 立石群이 알려져 있다(경산시·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2006). 대정동 마을 일부에서 선돌이 확인되었는데, 대구 진천동 입석 유적을 상기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대하리 일대에서 확인된 이른바 묘역식 지석묘와 같은 존재도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지석묘를 비롯한 전대의 무덤 역시 마찬가지이다. 옛 고산지구, 남산, 남천, 웅성, 안심지구 곳곳에서 적지 않은 재지의 무덤이 발견되는 반면, 임당구릉 일대에 보고된 사례는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임당구릉 일대가 추론하기 어려운 모종의 이유로 점유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된 사례가 없다.

11) 팔달동유적의 일부 유구처럼 묘광의 양 단벽에 치우쳐서 위치하는 것도 확인되므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棺下副葬坑(최병현 2018)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경산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피장자의 허리춤 부근에 위치하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요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정식보고서에는 銅戈로 보고되었으나, X선 투과사진에 나타나는 철제품의 특징, 형태로 미루어보아 鐵戈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민철 2020).



〈도면 4〉 양지리유적 1호 목관묘 축조양상 복원도(국립대구박물관 2020)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부장 양상을 일종의 시대로 파악하고 그 배치상의 정형을 토대로 권역별 특징을 논한 논의도 제시된 바 있다(장기명2018).

2) 목관 하부의 조성구와 피장자 안치

묘광 바닥과 요갱부의 조성단계까지는 그간 확인된 경산지역 목관묘 자료 전반을 놓고 묘아도 위에서 언급한 축조 프로세스상의 이견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목관이 묘광에 안치되는 전후 과정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고고자료를 통한 목관묘 축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은 사실 순전히 양지리 1호묘나 다호리 1호묘와 같이 보존상태가 양호한 자료의 발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복원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개진될 수 있는 만큼 입론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묘광 바닥과 요갱부를 조성하고 기물을 공헌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구유형관 하부 시설을 설치하고 둥근 바단

면을 고정하기 위해 사방에 30cm정도 높이로 층전토를 채운다. 목관 내부에도 여러 점의 판상철부를 바닥에 깔고 측면에 세운다. 목관내부 바닥에 깔린 판상철부의 윗면에서 초본류가 확인됨에 따라 주검을 안치하기 전에도 깔개를 깐다. 이후 피장자를 안치하고 관내에서 확인되는 여러 기물들을 매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조사 보고문의 대략적인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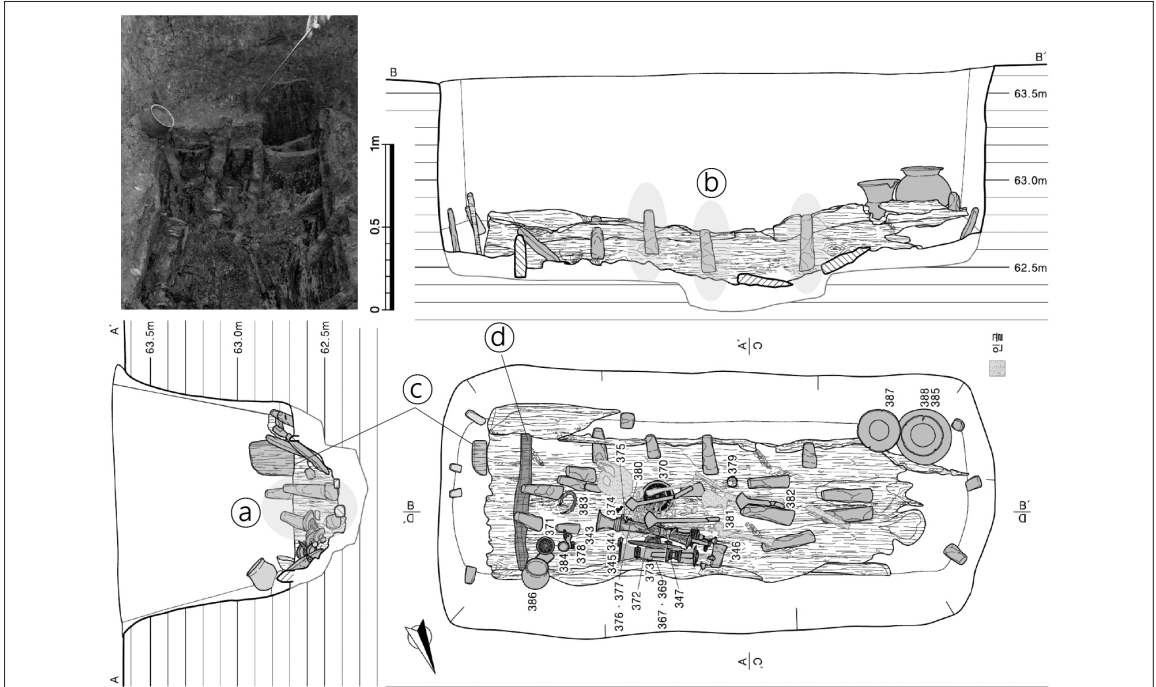
양지리 1호 목관묘의 축조과정을 위와 같이 추정할 때 기왕에 제기된 복원안과 가장 먼저 異見이 갈리는 것은 원삼국시대 사용된 당시 목관이 운구용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다호리 1호의 경우 통나무관의 피장자 足部 쪽에 ‘ㄴ’자형 구멍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 구멍이 끈을 꿰어 끌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 추정한다(李健茂 2012:426). 즉, 주검과 공헌품을 매납한 상태에서 장지까지 끌고 온 것으로 상정하는데 목관의 무게가 상당한 점에서 미리 파 놓은 흠에 굵은 끈 따위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목관에 애써 파놓은 흠의 기능을 적극 추론한 결과 그러한 프로세스를 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양지리 유적 보고자는 묘광 굴착에서 봉토의 조성까지 일련의 무덤 축조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축조의례가 무덤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 전제하면서 주검의 안치와 기물의 공헌은 구유형관의 하부구조가 묘광 내에 설치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김동숙 2020:730).

양자의 견해는 각기 나름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지만, 양지리 1호와 같이 목관과 부장유물의 출토맥락이 면밀하게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관 내부에는 다수의 판상철부를 바닥에 깔거나 세웠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단벽 격벽에 2점, 남장벽에 4점, 그리고 북장벽에 3점¹³⁾ 등 모두 9점의 판상철부가 세워져 있는 출토양상이 주목된다. 이 판상철부는 모두 날이 목관 바닥을 향하도록 기댄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도면5-㉓, ㉔). 만일 전자의 가설과 같이 殯을 행했던 모처에서 목관에 주검과 기타 기물을 안치하여 葬地까지 이동해 온 것으로 상정한다면 아무리 조심스레 운구하여도 노출된 상황과 같은 유물 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 혹여 주검을 안치한 후 장지까지 운구한 후 판상철부를 비롯한 목관 내부에 공헌 물품들의 위치를 재정비했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와 같은 매장 프로세스는 다소 어색하고 불합리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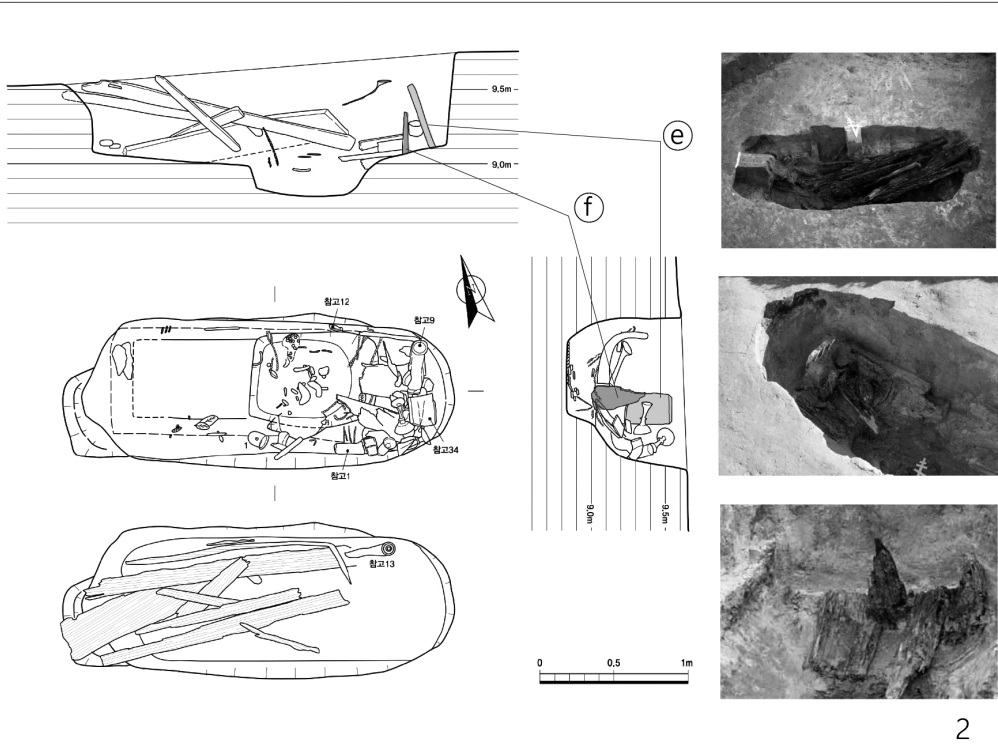
한편, 전자의 가설에 출발점이 된 다호리 1호 목관묘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호리 1호 목관묘 내부에서도 판상철부가 10점 출토되었다. 유구 원고와 도면 및 도판에서는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판상철부의 출토 양상을 파악할 수 정보가 없지만 개별 유물 설명에서 조사 당시 출토양상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총 10개의 판상철부 중 1-38번, 1-39번은 각각 목관 내부의 남장벽과 북장벽 세워진 채로 출토되었다고 한다(국립중앙박물관 2012:38). 이러한 출토 양상은 그동안 별달리 주목하지 못했던 맥락인듯 싶는데 양지리 1호에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됨으로써 판상철부를 목관 내부에 깔거나 네 벽에 기대에 세운 매납 방식이 존재했음이 명확해졌다. 목관 내부에 세워진 채 노출된 판상철부의 출토양상을 전제로 이러한 매납 방식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검과 부장품 안치 후 운구·하관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13) 북장벽측에는 2점이 세워져 있었으나 목관 바닥에서 확인된 1점(365번 유물)은 원래 북장벽측에 세워두었던 것이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바닥에 종방향으로 깔아 놓은 판상철부의 방향과는 다소 다른 점과 그 출토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고자의 판단처럼 원래는 북장벽에 세워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듯 싶다.



1



2

〈도면 5〉 목관묘 단벽 마감관련 내부구조와 부장유물(1:양지리 1호 2:다호리 15호)

낮아 보인다¹⁴⁾.

그렇다면, 후자의 가설이 현재로서는 구유형관의 하부 구성과 주검을 안치하고 기물을 매납하는 과정의 실상에 더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미리 설치’ 혹은 ‘놓은’ 관이 묘광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되게끔 하는 충전의 과정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즉, ‘미리 놓인 관’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목관과 묘광의 사이를 ‘충전’한 것인가? 혹은 목관의 안정적인 거치를 위해 미리 ‘棺床’을 조성했는가? 하는 쟁점이 잇따른다. 그에 관해서는 경산권역에서 확인되는 구유형관으로 파악된 목관묘들을 살펴보건대 어느 정도 推察이 가능하다.

권역 내 모든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묘광과 목관 상호간의 폭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구유형 관 외면이 곡선을 띠고 있어 안치 후 충전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유형관 하부 구조에 맞도록 점토를 정지한 후 설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이 경우 정지한 점토층을 이른바 ‘棺床’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도면6). 김천 문당동 목관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설의 존재를 유추한 바 있다(崔鍾圭 2014:154)¹⁵⁾. 그리고 원삼국시대 무덤에 사용된 관은 거의 모두가 미리 놓인 관으로 상정하면서 들어 나르는 관(운구용관)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吉井秀夫 2011). 아울러, 시간적 간극은 존재하지만 삼국시대 목관 내부에 목관의 안정적 거치를 위해 조성한 점토관상의 흔적(金斗喆 2010; 李熙濬 2016) 및 더 나아가 공간적 괴리가 크지만 黑塚古墳에서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점토관상 역시 이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상기 관점에서 목관 하부구조 설치 이전에 조성된 棺床의 존재를 잘 엿볼 수 있는 실제 발굴자료는 신서동 목관묘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목관묘는 주로 판재관을 사용하는 장기적 추세에서 적어도 구유형관은 소위 ‘미리 놓인 관’이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二中隔壁의 存否

양지리 1호 목관묘 동단벽측 목관구조에 대해 보고자는 목관 막음용 판재와 칸막이용 판재를 놓아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추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묘광의 동쪽 끝에서 20cm 안쪽에 목관 막음용 판재를 세우고, 거기서 18cm 안쪽에 칸막이용 판재를 놓아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보았다. 즉, 목관의 동측은 내·외부 이중의 칸막이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추정을 ‘二中隔壁說’이라 잠정적으로 칭하고 그 존부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과 도판으로 이해하자면 피장자 머리말에 이중의 격벽이 존재했던 셈인데 <도면5>의 ㉔와 ㉕가 보고자 판단한 바깥쪽과 안쪽 칸막이가 될 터이다. ㉕의 표면 전반에는 분명한 목질흔이 관찰되고 판상 절부가 여기에 기대어져 있는 것에서 목관의 동쪽을 막는 칸막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동쪽 묘광 끝 부위에 위치한 ㉔는 남쪽으로 치우쳐 남아있는데 높이 42cm, 너비 27cm 규모의 장방형 형태이며 이 판재의 樹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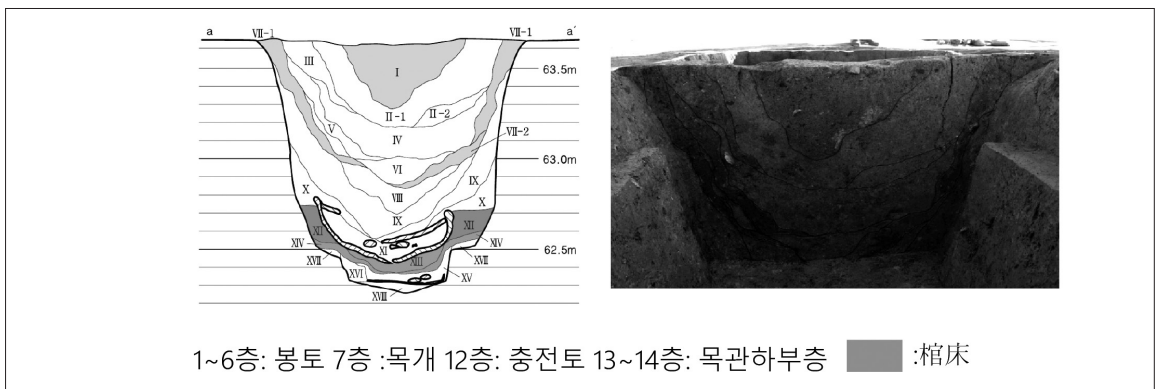
14) 이와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석곽·석관 등의 묘제는 현지에서 조립한 매장시설에 바로 주검을 안치하는 반면, 목관묘부터는 - 물론, 아닌 경우도 일부 상정하고 있지만-주검을 목관에 넣어 장지로 운반하여 장례를 치르는 새로운 장법을 보이며, 이는 중국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본 견해가 있다(김용성 2016:17). 하지만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장지에서 목관에 주검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 발굴조사시 묘광 내부에서 확인되는 회백색 니질점토를 부지불식간에 목관이 부식되면서 변화한 것으로 상정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이는 목관의 외면을 회백색 니질점토 도장하여 밀봉한 결과라 추정하였다. 관하반부를 위해 미리 점토상에 도포해 둔 것으로 추정한다.

소나무류로 확인되었다.

구유형관의 동쪽 끝 棺材에 맞닿아 확인된 점에서 일견 목관의 동단부 마감재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보고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적한 다호리 유적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보고자가 유사한 사례로 든 다호리 15호묘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무덤은 보고자가 이중격벽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유형관의 상부구조 즉, 목관의 덮는 구조물의 형태를 추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호리 15호 무덤은 목관 관재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공교롭게도 도굴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상태로 조사되었다. 과연 이 무덤의 동단벽에서도 양지리 1호묘와 유사한 관재들이 확인된다. 묘방의 동쪽 끝에 판상철기<도면5-㉔>가 확인되었는데 ㉔와 유사한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목관 바닥 관재의 동쪽 끝에서 8.5cm 들어온 지점 잔존길이 43cm의 관재<도면5-㉕>가 확인되었는데 목관 아래 바닥에서 10cm정도 깊이까지 박혀있었다고 한다. 다호리 유적 정식 보고에서는 이를 썩기로 판단하고 통나무관을 결합했던 장구였을 것으로 보았다(국립중앙박물관 2012:144).

우선, 이중 격벽 중 바깥쪽으로 인식하는 ㉔와 ㉕의 잔존상태가 공교롭게도 관의 동측 전부를 막고 있지 않고 남쪽으로 치우친 쪽에 잔존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다호리 11호에서도 희미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다호리 유적의 자료는 도굴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세 사례 모두 유기물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깥 격벽으로 추정된 목재들이 모두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일부만 남았던 셈인데 기타 부재 유기물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우연은 확률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에서 애초에 동단벽 전체를 막았던 관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안쪽 격벽으로 추정된 부위가 마감재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호리 15호의 경우 썩기로 추정되었지만, 다호리 1호 통나무관에 사용된 썩기와는 그 형태차이가 크고 양지리 1호 사례를 참고해 보면 썩기가 아니라 동단벽측 마감 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목관 아래로 뚫어 박은 것은 구유형관과 단벽 관재의 결합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호리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동단벽측 마감 판은 ㉔와 ㉕이고 ㉔와 ㉕는 별도의 기능을 지닌 흔적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추정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㉔와 ㉕가 각각 소나무판, 철기인 점에서 목관 관재로 사용된 상수리 나무와 樹種이 상이한 점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6> 1호 목관묘 棺床

4) 棺蓋와 壙蓋

양지리유적 보고자는 구유형관을 덮은 뚜껑을 너비 30cm 내외의 판재 3매 정도를 장축 방향으로 덮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다호리 15호, 가천동 3,4호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본 해석이다. 그런데 가천동 3,4호의 경우 잔존하는 목재흔이 목관의 뚜껑이 아닌 바닥재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호리 15호 역시 목관의 바닥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호리 15호는 도굴로 교란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바닥면에 설치된 요갱을 기준으로 동쪽 일부의 목관 바닥면만이 원래의 위치이며 잔존하는 묘광 어깨선에 걸쳐진-일견 뚜껑과 같이 보이는-판재들은 실은 모두 목관 바닥재이며 도굴로 인해 제 위치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도굴갱이 굴광선 내 동쪽 일부를 제외한 범위에서 확인된 점, 묘광 어깨선 걸쳐진 목재들이 요갱의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점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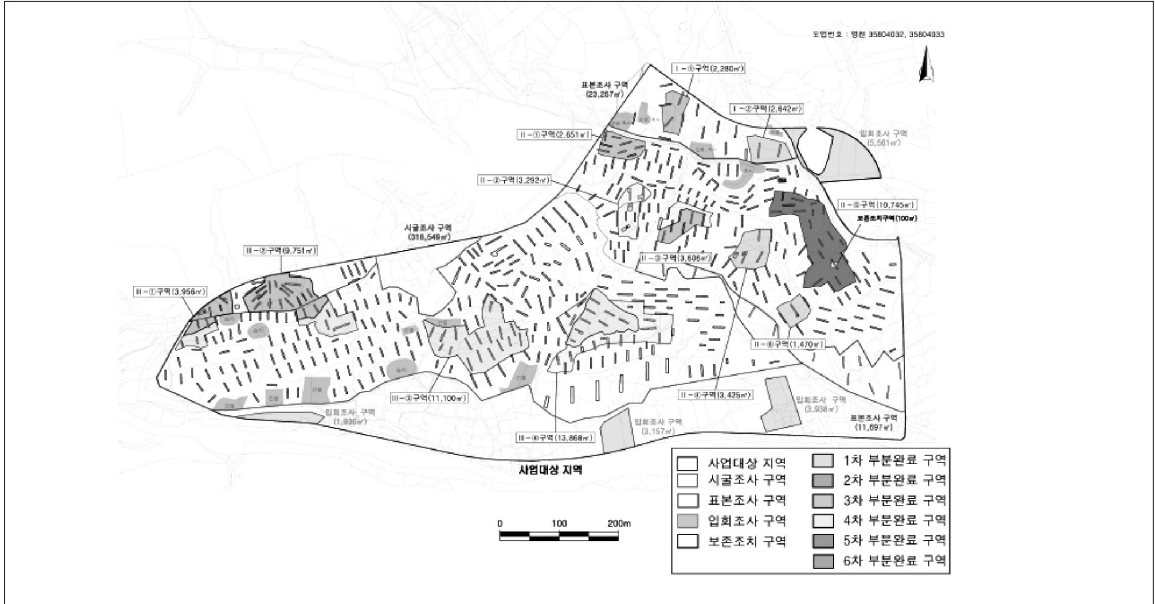
목관하부구조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관과 묘광을 덮은 뚜껑에 관한 추론이 필요하다. 애초 보고에서는 구유형관 위에 판재 수매를 뚜껑으로 덮고 묘광 어깨선에도 목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한 棺蓋의 상정에 참고가 되었던 사례를 재검토해 본 결과,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유구 단면 토층을 보면 묘광 덮개와 구유형관 사이에 관 덮개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뚜렷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유구에서 목관 흔적은 물론이거니와 묘광의 목개 흔적은 명확한데 비해 유독 목관 덮개의 흔적만 찾아볼 수 없다는 해석은 다소 의아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목관 덮개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견 조리에 맞지 않는 상정으로 보이지만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배제한다면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의 논리적인 추론은 향후 관련 자료의 발견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목관 상면과 목개 사이의 공간은 충전하지 않은 빈공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왕의 연구에서 이 점에 대한 격론이 상당함을 역시 앞서 지적하였다. 각 입장마다의 논리는 있으나 무덤 조성당시 구지표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치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관묘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는 'U'자상의 함몰 굴곡은 어떤식으로든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일정한 관점이 내재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발굴조사에 무덤 조성 당시 구지표면을 파악할 수 있다면 논의의 간극은 다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와중에 1호 목관묘 단면 토층에서 확인된 'U'자상을 그리는 검은 띠를 이루고 있는 Ⅷ층<도면5>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묘광 바닥면으로 함몰된 띠의 각도가 상당히 급격하고 'U'자상 띠의 최저점에서 잔존하는 구유형관재 상면까지의 높이 차이는 20cm에 불과하다. 이러한 토층 양상은 목관 상부와 묘광 덮개 사이의 공간이 비워져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봄직하다.

2. 유적 내 공간배치 정형-단독묘는 존재했는가?

영남지방에서 늦어도 서기전 2세기 중엽의 시점으로 목관묘'群'의 출현은 지역 단위 정치체의 진화과정의 일 단면을 시사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현상으로 평가되어 왔다. 서기전 일천년기 후엽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단독묘



〈도면 7〉 양지리유적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의 존재가 상정되는 지역은 한국식청동기를 반출하는 서남부지방의 무덤인데, 소위 巫의·儀器的 성격이 짙은 화려한 청동유물을 부장한 덕에 피장자의 성격과 당시 사회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 영남지방의 경우 조문경~세문경 단계의 청동유물은 알려진 사례가 드물거니와 그 단계의 무덤은 대부분이 단독묘인 점에서 목관묘群의 출현과는 양자가 반영하고 있는 당시 사회변동양상이 질적으로 상이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와 더불어 영남지방의 목관묘들은 초창기 발견·조사부터 대부분 군집한 양상이 확인된 터라 ‘단독묘’의 존재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양지리유적에 밝혀진 목관묘의 배치양상은 기존의 이해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호 목관묘를 포함한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유적의 동쪽에 위치한 II-⑤구역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1호 묘는 2~6호가 군집한 지점에서 100m가량 동남쪽으로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에서 다른 무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과연 ‘단독묘’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유적 전면을 조사한 것이 아닌 점에서 결정적 단서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굴조사의 트렌치 배치도와 유구 확인 양상을 감안하면 무덤떼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도면7). 즉, 임당동, 신대리 등 경산권역에서 기왕에 확인된 목관묘 분포상의 패턴을 고려하면 II-⑤구역의 남쪽 혹은 서쪽의 어디에선가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할 터이지만 확인할 수 없다. 시굴조사 범위 동쪽 밖으로 무덤떼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1호묘가 단독묘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인접한 안심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어 그 가능성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각산동 1·2호 목관묘가 그 사례인데 반경 100m 이내에 동단계 무덤이 확인되지 않았다. 1호 무덤과 2호 무덤은 5m 정도 이격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무덤 축조양상은 상당히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상호 미세지형의 기복이 없는 지점에

위치하면서도 1호 무덤은 잔존 깊이 12cm이며 내부에서는 주머니호 1점만이 출토되었다. 반면, 2호 목관묘는 잔존 깊이 128cm에 길이와 폭도 비교적 중형이상이며, 내부에서도 판상철부 6점, 칠초철검 2점을 포함하여 22점의 유물이 확인된 점에서 비교적 후장한 무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남장벽과 북장벽측에 판상철부를 세워놓은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수량은 적지만 양지리 1호 무덤을 연상시키고 있다. 안심지구의 목관묘군은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떼를 지어 분포하고 있다(신서동유적). 이 지점의 목관묘는 와질토기를 반출하지 않고 점토대토기와 철기만 부장한 단계의 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묘역이 확장되는 패턴을 보인다.

영남 중부지방 전체로 시야를 확장한다면 울산 교동리 1호의 사례 역시 단독묘로 보아도 좋을 만큼의 공간배치 정형을 보여준다. 조사의 성격과 범위의 한계는 있지만 어은동, 용전리 사례까지 염두에 둔다면,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 유적에서도 ‘단독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단독묘일 가능성이 높은 무덤들은 그 규모와 부장품 측면에서 질적·양적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목관묘 단계 내내 경산권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입당구릉 일대에서는 단독묘를 꼽아 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이대로 당시 모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독묘로 추정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터라 그 가능성만 지적해 두고 그 성격에 관한 구체적 추론은 향후 자료 증가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발간된 양지리유적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1, 2호 목관묘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간 배치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통해 단독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호 적석목관묘는 목개가 묘광 내부에 위치하는 독특한 형태임을 지적하면서 팔달동 유적 등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된 적석목관묘와는 분명한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잔존하는 하부구조로만 판단한다면, 거대한 상석을 가진 지식묘 하부구조와 일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1호 목관묘는 인근지역에서 유례없이 잔존상태가 양호한데다 부장품이 풍부하여 무덤 축조 과정 전반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다. 애초에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히 작성된 보고문의 해석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운구용 棺의 사용여부, 棺床 개념의 적용, 이른바 목관의 二中隔壁 구조, 목관 덮개의 존부문제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양지리 자료를 기반으로 기왕에 알려진 다른 지역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시각 제시를 시도했지만 지엽적인 문제 제기만 두서없이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본고의 문제제기가 목관묘 구조와 축조양상에 관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키시고 진전된 논의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를 나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자료의 발견만큼이나 정밀한 발굴과 세심한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조사단의 부단한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참고문헌

- 權志瑛, 2009, 「영남지방 목관묘의 전개양상 검토」, 『考古廣場』5, 釜山考古學硏究會.
- 국립대구박물관, 2020, 『땃대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2020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시도록.
- 김동숙, 2020, 「3. 경산 양지리 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 『慶山 陽地里 遺蹟』, 聖林文化材硏究院.
- 김두철, 2010, 「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 『韓國考古學報』, 第75輯, 韓國考古學會.
- 김민철, 2019, 「對外交流과 威勢品으로 본 首長層의 出現」,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민철, 2020, 「경산 양지리1호 목관묘 출토 검토키의 특징」, 『땃대!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2020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시도록.
- 김용성, 2016,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韓國古代史硏究』82, 한국고대사학회.
- 朴辰一,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진일, 2021, 「점토대토기문화기 오동~서남한 지역 묘제의 전통과 변형」, 『철기문화 수용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신영애, 2016, 「원삼국시대 목관묘」,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학연문화사.
- 吉井秀夫, 2011, 「원삼국시대·삼국시대 무덤에 쓰인 ‘棺’의 지역성과 변천」, 『考古學論叢』,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기념논총, 경북대학교출판부.
- 金洙南, 1998, 「慶山 林堂遺蹟 木棺墓의 性格에 대하여」,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제3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鄭仁盛,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文化」, 『嶺南考古學』22, 嶺南考古學會.
- 진수정, 1998,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영문연조사연구발표회』9회.
- 朴升圭, 2000, 「大邱·慶北地方의 木棺墓 資料紹介」,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高久健二, 2000, 「樂浪郡と弁·辰韓의 墓制」,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宋桂鉉, 2000, 「辰·弁韓文化의 形成과 變遷」,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第5輯, 韓國古代史學會.
-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新羅文化』第十四輯, pp.28~29, 東國大學校新羅文化硏究所.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 李盛周, 2007,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pp.286~289, 學硏文化社.
- 安在皓, 1995, 「慶州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12, , 東國大學校新羅文化硏究所.
- 이재홍, 2001, 「목관계목관묘의 등장과 배경」, 『嶺南文化財硏究』14, (財)嶺南文化財硏究院.
-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1, 국립중앙박물관.
-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고대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p.103, 嶺南考古學會.
- 이건우, 2009, 「茶戶里遺蹟 發掘의 意義」, 『考古學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紀念 特輯號, pp.8~11, 국립중앙박물관.
- 崔鍾圭, 2007, 「三韓 早期墓의 禮制」, 『考古學探究』, 創刊號, 考古學探究會.
- 崔鍾圭, 2014, 『鐵箱集 I-葬送-』, 도서출판考古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

이양수
국립청주박물관

| 목차 |

- I. 머리말
- II. 동검 제작과 관련된 연구소사
- III.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의 관찰
- IV. 스킴에 남아 있는 주조의 기억
- V. 맺음말

〈국문요약〉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에서는 동검이 두 자루인데, 두 점은 서로 형태나 마감에서 차이가 난다. 그 중 한 점은 솜베의 끝단을 깨끗이 정리하였지만 다른 한 점은 끝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원래 당도와 가스배출구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끝단의 형태를 기초로 한국식동검의 제작 방법을 복원하면 거푸집 위에 흙으로 만든 깔대기와 같은 부분이 있었고 한쪽은 가스배출구, 다른 한쪽은 용탕을 붓는 탕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검의 주조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들은 한반도에서 청동기 제작 기술의 기원과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한국식동검, 제작기술, 거푸집, 깔대기, 가스배출구, 탕구

I. 머리말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는 중국 전한의 성운문경 1점과 명대경 2점을 비롯하여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최근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뗏다 지배자’라는 제목으로 이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도록을 출판하여 연구자들과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¹⁾

필자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를 관람하고 유물을 열람하던 중 한국식동검의 스페부분이 이전까지 보왔던 동검들과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고, 이것이 동검을 제작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연유로 확인하게 된 동검의 제작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스페의 끝단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당시 청동기 제작에 있어 실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갈대기와 같은 형태의 기물이 있었고 그것의 형태가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모든 동검을 다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시기구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동검의 보고에 있어서 스페의 형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II. 동검 제작과 관련된 연구조사

청동기의 제작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이건무 1992; 後藤直 1996; 오강원 2005; 조진선 2006; 이양수 2018), 개별 사례로서 한국식동검을 만들던 공방이 발굴된 적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알 수 있는 제작과 관련된 것들은 단편적이다. 그나마 가장 잘 연구된 것은 거푸집에 대한 것인데, 동검의 거푸집은 전 영암, 용인 초부리, 평양 장천리, 완주 갈동 1호묘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외에 강원도 고성에서는 요령식동검, 평안남도 맹산에서 다뉴조문경, 경기도 고양에서 동모, 경기도 화성 동학산에서 동착, 전라북도 완주 덕동에서 동착, 전라남도 장성에서 동모와 동착 등의 거푸집도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푸집은 모두 석제이며, 고성 거진리를 제외하면 모두 한반도 서부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식동검의 거푸집의 특징은 모두 주입구가 스페 방향에 있으며, 두 개가 짝을 이루는 쌍합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개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기적인 동검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대표적으로 조진선(2006)은 한국식동검의 거푸집을 분류하며 4개의 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전 영암①식(1식), 전 영암②식(2식), 완주 갈동식(3식), 평양 장천리식(4식)으로 나누었다. 전 영암①식(1식)은 검신의 곡인 형태가 뚜렷하고, 검신 외곽선도 45°로 급하게 파여 윤곽이 뚜렷한 것이다. 전 영암②식(2식)은 전 영암 거푸집②, ③과 용인 초부리 거푸집①, ②, ③이 해당하며 검신 하단부 일부에 직선으로 제도가 이루어져 직인화가 진행되

1) 국립대구박물관에서 2020년 개최한 “뗏다 지배자”의 전시도록은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daegu.museum.go.kr/brdcust/boardcustView.do?menu_nix=2V8ztkm2&brd_id=BDIDX_7S6v5WJdMI9M68tXV3364o

고 검신 상부의 외곽이 약간 완경사로 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완주 갈동식(3식)은 검신의 직선 제도가 진행되어 직인화와 세신화가 뚜렷하며, 검신 상부 외곽을 완만하게 파서 인부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평양 장천리식(4식)은 평양 장천리 거푸집①, ②에 해당하며 장봉형 봉부가 형성되어 있고, 결입부는 생략되며, 검신 외곽선은 더욱 완경사로 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거푸집의 변화는 제도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완성된 동검과도 연계성을 지닌다. 또한 실제 동검으로 분류되는 거푸집은 총 9종이지만 실제 확인되고 있는 것은 4종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거푸집의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직접 동검을 주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도 주목된다. 최용일(2005)은 완주 갈동 1호 목관묘 출토의 거푸집을 모델로 하여 주조실험을 행한 바 있으며, 오광섭(2013) 역시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을 모델로 거푸집을 제작하여 주조 실험을 행하여 청동기의 제작에 있어 기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기술과 접목하여 복원 실험을 하였다는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제 복원 작업을 통해 많은 남아 있지 않은 작업 도구 등에 대해 검토해 볼만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푸집은 아니지만 잔존한 유물을 바탕으로 주조와 관련된 연구로 주목되는 것이 정인성과 허준양의 탕구찌꺼기에 대한 것이 있다.

정인성(2001·2011)은 탕도·탕구 자료로 영천 용전리 목관묘와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예를 제시하였다. 고 깔모양을 하고 있는 청동찌꺼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탕도와 탕구 등에 의해 필요없이 주조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격을 가하며, 잘 분리시키기 위해 특정 부분을 좀 더 가늘게 만드는 것을 지적하였다. 허준양(2021)은 정인성의 연구를 이어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품 중에서 탕도찌꺼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더 찾아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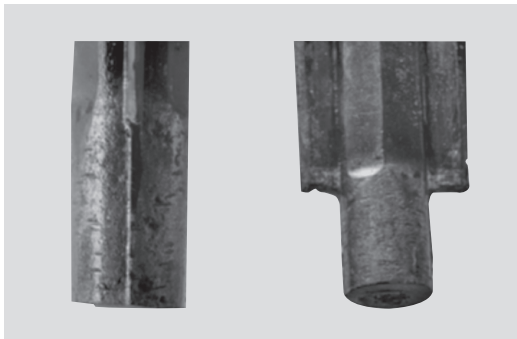
특히 정인성(2011)은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탕구 잔존물을 떼어내는 방법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목되는 점은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탕구 찌꺼기가 좌우에 분할선이 있기 때문에 거푸집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 점, 탕구 찌꺼기의 제거 방법이 찰절 마연보다는 타격에 의한 분리가 일반적인 점, 한국식동검의 습배 하단에 주조피부가 축약되는 현상으로 보아 탕구 찌꺼기의 제거를 용이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렇듯 한국식동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것에 대한 것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국식동검과 제작 관련된 유물의 관찰을 통해 거푸집에 주물을 붓기 위해 만들었던 깔대기를 복원해보자.

Ⅲ.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의 관찰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에서는 총 4자루의 칼이 출토되었는데, 동검 2점과 철검 2점이다(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모두 시신의 가슴 오른쪽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칼끝이 머리쪽을 향하고 있어서 착장했다기 보다는 모아서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동검1은 습베의 끝단을 매끄럽게 잘라낸 것이 특징이다(그림 1). 흑색에 가깝고, 습베의 색깔은 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다. <그림 1-1>과 같이 습베의 양쪽에는 주조 지느러미가 남아 있어 거푸집 두 개를 이용하여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손잡이의 착장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칼날의 끝단,



<그림 1> 경산 양지리 1호묘 출토 동검1

기부에 색깔이 다른 점에서 여기까지 손잡이와 칼을 고정하기 위한 유기물이 존재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동검2는 동검1과 비교해보면 습베의 끝단을 잘라내었다기보다는 부러뜨렸던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부러뜨린 부분이 반달 정도의 부분과 점상의 부분 두 군데에서 보이고 그 사이는 거푸집에 의해 매끄럽게 주조되어 있다. 색깔이 녹색에 가깝고, 습베의 양쪽에 주조 지느러미가 보이는 점에서 쌍합범을 이용하여 주조를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부나 습베에 특별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손잡이 접합과 관련된 정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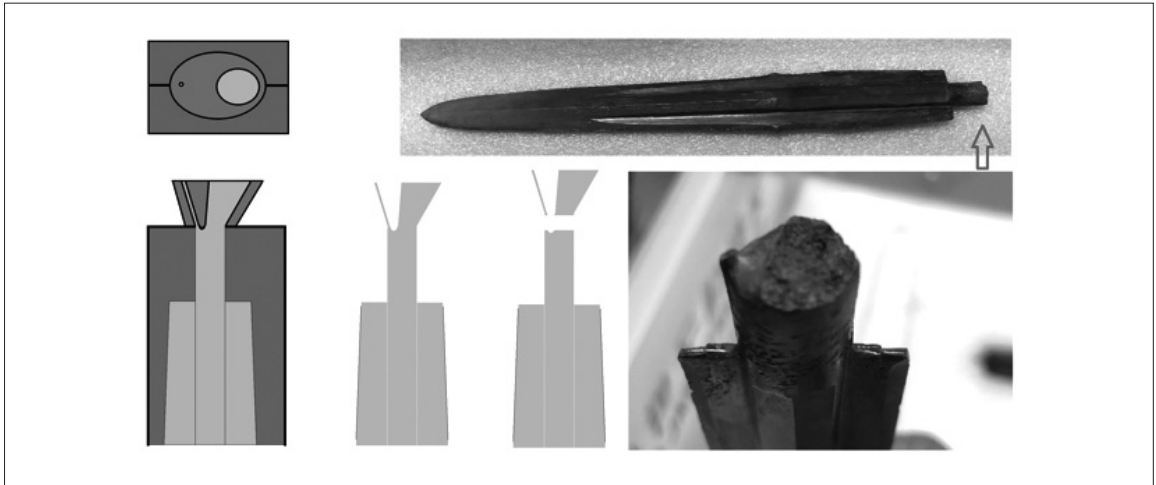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동검2의 습베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주조 당시 거푸집 위에 설치하였던 깔대기의 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습베의 끝단은 점상으로 부러진 부분과 반달모양으로 부러진 두 부분 사이를 매끄러운 주조면이 둘러싸고 있다. 추측컨대 반달모양으로 크게 부러진 부분은 거푸집에 주물을 부었던 주입구이며, 점상으로 부러진 부분은 거푸집 안에 있던 공기와 수분 등에 의해 만들어진 가스가 배출되는 구멍이었을 것이다.

즉 주조 당시 거푸집에는 주입구와 가스배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거푸집은 모두 주입구가 습베 방향에 있으며, 등대를 따라 주물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실제 남아 있는 자료는 없지만 ① 거푸집 위에 설치된 깔대기(현재로서는 주물이 거푸집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을 ‘깔대기’로 통칭한다)가 존재했고, ② 습베에 남겨진 부러진 곳 사이의 매끄러운 부분을 볼 때 그것을 만든 재질은 흙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동검2를 만든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석제로 만든 한국식동검의 거푸집 위에 토제의 깔대기를 접합하고, 거기에 두 개의 구멍을 거푸집의 습베 부분과 연결하여 주입구와 가스배출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깔대기의 큰 구멍 쪽으로 주물을 주입하고 작은 구멍쪽으로 가스를 배출하여 중국에는 작은 구멍까지 주물이 채워졌다. 주물이 식으면 거푸집을 분리하고 깔대기는 제거하는데, 탕도와 가스배

출구 쪽으로도 청동이 채워져 있다. 이것을 부러뜨리고 그 찌꺼기는 다시 녹여서 청동기로 제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탕도와 가스배출구의 청동찌꺼기가 출토된 사례가 영천 용전리 목관묘와 평양 낙랑토성지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뒷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 경산 양지리 1호묘 출토 동검2의 주조 방법

Ⅳ. 솥배에 남아 있는 주조의 기억

1.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청동찌꺼기로 본 갈대기의 형태

현재 한국식동검 주조 관련 유물로는 거푸집, 송풍관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유물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추론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런 관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과거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의 솥배와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의 청동 잔존물이다.

영천 용전리 목관묘의 연대는 와질토기의 형태나 동반된 거울의 형식 등으로 볼 때,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와 거의 동시기로 판단된다. 다만 영천 용전리 목관묘에서는 검 부속구는 출토되었지만 철검이나 동검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시기, 영천과 경산이라는 동일 지역권에서 청동기를 제작하는 방법은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의 청동장식-잔존물은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의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2007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영천 용전리 목관묘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바 있다(국립경주박물관 2007). 그때 출토된 많은 유물 중 용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여러 점 있었다. 그 중 원뿔모양을 한 청동장

식으로 보고된 유물²⁾이 있었는데 이후 정인성은 낙랑토성 출토품을 포함하여 탕구잔존물로 판단하였다. 이후 허준양은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주조와 관련된 잔존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보고서 도면 17-③에 제시된 청동장식은 어떤 청동기를 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깔대기 형태로 만들어진 점에서 탕구 잔존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주목되는 것은 양쪽에 합범을 이용하여 형성된 주조분할선이 확인되는 점이다. 즉 탕구를 만드는데 있어 주조되는 거푸집은 두 개의 거푸집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인성은 이를 근거로 거푸집에 탕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인성은 도면은 제시하였지만 물음표를 달았고, 허준양은 잔존물로 파악한 보고서 도면 17-⑩의 청동장식 역시 단면 방향에 기다란 형태로 가스배출구의 잔존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면 17-⑧은 잔존물보다는 특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서 기술과 마찬가지로 장식의 부분일 것으로 추정한다.

즉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잔존물은 삼각뿔 형태의 것과 단면 방향의 기다란 봉상의 것이 있는데, 이 둘 어느 것도 동검의 제작과 관련되었을 증거는 없다. 다만 청동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 둘은 모두 거푸집이 아닌 주입구가 있는 깔대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거푸집은 대부분이 석제로 만들었고 그것에 주물을 부어 넣는 부분인 깔대기는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흙으로 간단히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깔대기는 어떠한 청동기를 만들더라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잔존물의 형태는 동검이든 동모든 간에 동일한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청동잔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깔대기의 형태를 유추해 보자. 앞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2의 제작에 있어 주입구는 삼각뿔 형태로 만들어진 청동잔존물을 통해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삼각뿔형 잔존물의 양쪽에는 거푸집을 분할하여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주조 분할선이 확인되기 때문에 깔대기는 결합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둘째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삼각뿔형 잔존물은 꼭지점이 좁기 때문에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2의 습베에 남아있는 깨어진 흔적으로 볼 때, 주입구보다는 가스배출구쪽에 더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형태적으로 본다면 유사하겠지만 이보다는 꼭지점의 형태가 더 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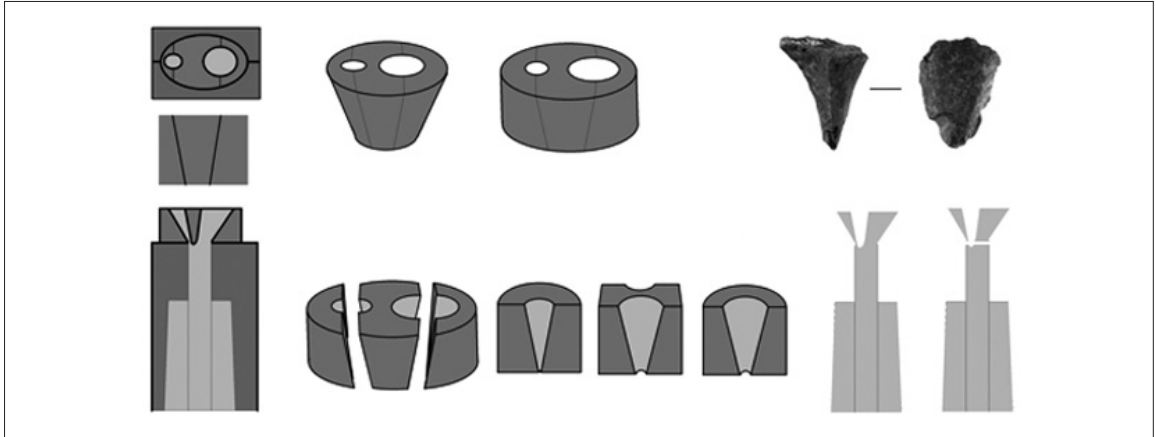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스 배출구 쪽의 잔존물이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 삼각뿔 형태의 잔존물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영천 용전리 목관묘에서 출토된 봉상의 잔존물이 가스배출구의 잔존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2의 습베에 남겨진 가스배출구 쪽의 깨어진 흔적은 단면 원형이라는 차이도 존재한다. 물론 단면 방향의 것과는 다른 단면 원형인 봉상의 잔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2의 깔대기 형태를 유추하면 <그림 3>과 같다.

탕구와 가스배출구의 잔존물은 영천 용전리 목관묘 출토품과 같이 원뿔형으로 생성되며 분할선의 존재에 따라 깔대기는 최대 3등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깔대기는 윗부분이 아래부분보다 넓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3등분 된 것을 거푸집에 고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윗부분과 아래부분이 같거나 더 넓은 것이 안정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왜 깔대기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분할했을까? 주물이 거푸집에 잘 들어가도록 탕구와 탕도, 그리고

2) 보고서 도면 17-③에 제시된 것으로 보강토 상부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림 3〉 경산 양지리 1호묘 출토 동검2

거푸집의 주형면까지 연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분적으로 막히지 않으며, 너무 좁아져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깔대기를 분할하여 만듦으로써 탕도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거푸집에 나타난 깔대기의 흔적

거푸집 중에는 상단에 깔대기를 접합한 흔적이 있는 것이 있다. 용인 초부리, 전 영암과 완주 갈동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검의 거푸집 상단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데 거의 정원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 있다. 이 검은 그을음 같은 경우 동검이 새겨진 부분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주물을 부어 피열되거나 그와 관련된 흔적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전의 형태는 〈그림 4〉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탕구 잔존물을 쉽게 제

〈표 1〉 거푸집에 새겨진 동검의 경부길이와 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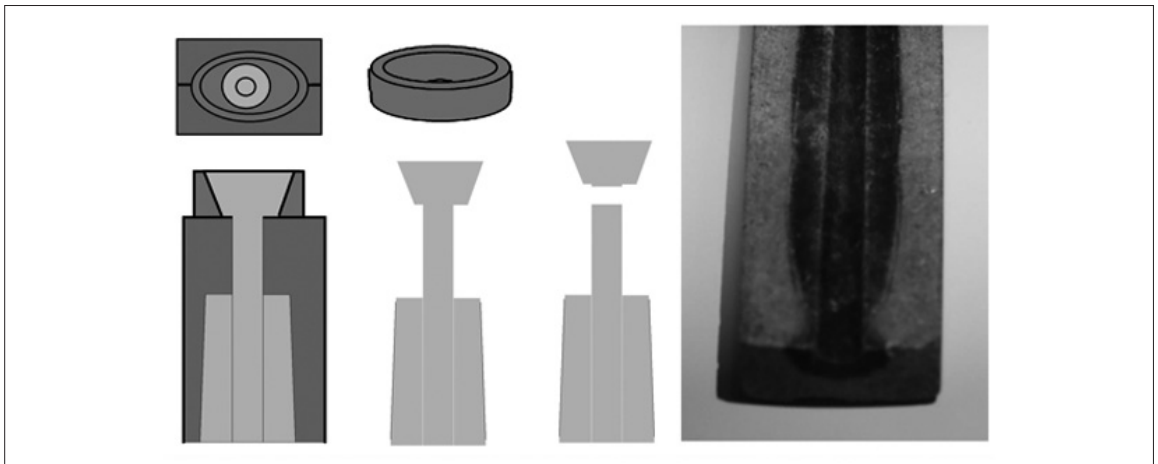
연 번	출토지	경부길이	전 장
1	전 영암①	2.6	33.4
2	전 영암②	2.5	32.2
3	전 영암③	1.9	19.6
4	초부리①	2.9	20.0
5	초부리②	2.9	25.2
6	초부리③	3.1	27.8
7	갈동	2.0	31.0
8	장천리①	2.5	31.65
9	장천리②	2.2	28.9
10	전 장성	2.0	17.0

거하기 위해 오목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완주 갈동 1호 목관묘 출토 거푸집에 새겨진 한국식동검의 습베길이는 2cm이다. 완성된 동검은 거푸집에 새겨진 것보다 약 3% 정도 축소되는 점에서 1.94cm 이하의 습베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습베 길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한국식동검의 거푸집 중 경부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은 10점인데, 가장 긴 것은 용인 초부리^③ 거푸집으로 3.1cm이며, 가장 짧은 것은 전 영암^③ 거푸집으로 1.9cm이다. 용인 초부리 출토 거푸집은 전장은 짧지만 경부 길이가 대체적으로 길고, 전 영암 출토품의 경우 전장이 긴 것은 경부가 길고, 전장이 짧은 것은 경부가 짧다. 특이하게 갈동은 전장은 긴 반면 경부길이는 짧다.

거푸집에 새겨진 것보다 완성된 동검은 더 축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는 동검의 습베 길이는 거푸집에 새겨진 것보다 짧게 된다. 현재로서는 요령식동검이 한국식동검에 비해 습베의 길이가 길다는 점 외에 특별히 습베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보인다. 정인성이 제기한 습베 하단에서 주조피부의 축약현상과 관련한 부분도 거푸집과 실제 동검의 습베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시 거푸집으로 돌아가 평양 장천리에서는 한국식동검의 거푸집 두 쌍과 검심의 거푸집이 출토되었다. 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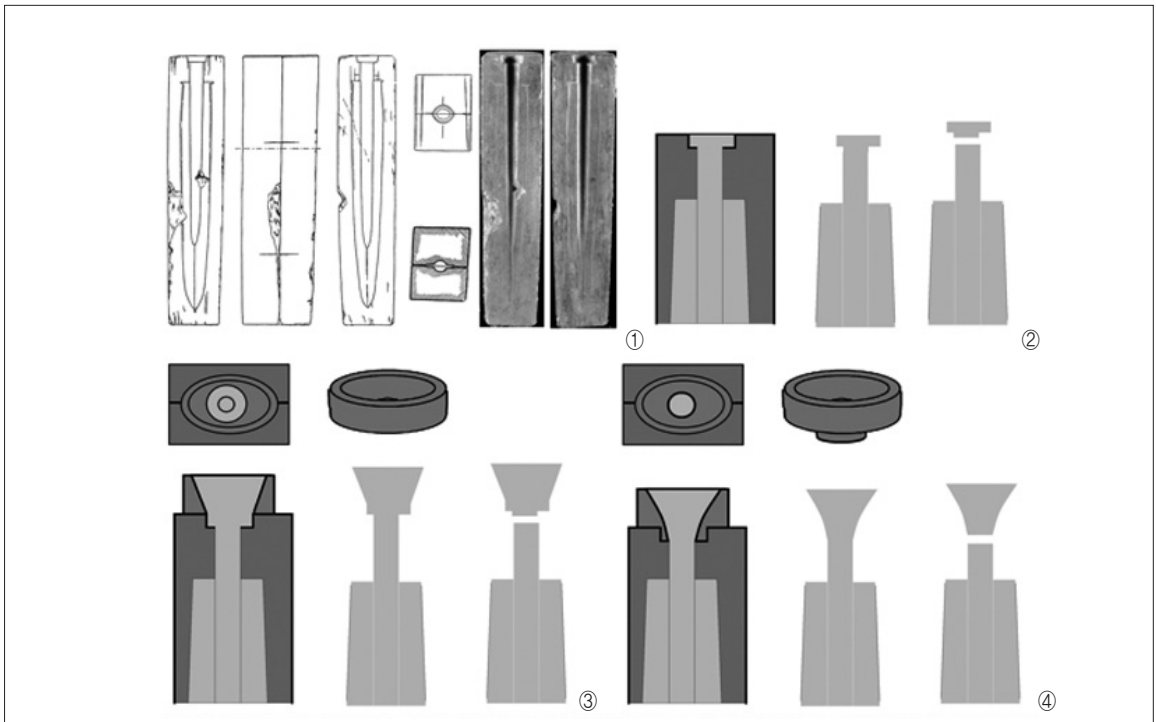


〈그림 4〉 완주 갈동 1호묘 출토 거푸집으로 복원한 깔대기의 형태

첫 번째 거푸집 짝이 다른 것들과 좀 차이가 있는데, 습베의 끝에 주입구처럼 단을 지게 하여 넓게 파여있다. 이것의 용도는 실물의 관찰이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추측 정도 밖에 가능하지 않다. 첫 번째 용도는 주입구를 넓게 하여 별도의 깔대기 없이 바로 주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5-2). 깔대기라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으므로 작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그 위에 바로 깔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그림 5-3). 확실히 주입구의 너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물의 주입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점은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깔대기를 아래의 단까지 내려서 끼워 넣는 방법이다(그림 5-4). 이것의 이점은 주입구의 너비가 넓어져 주물의 주입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외에 거푸집과 깔대기의 안정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실물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제시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종합하면 깔대기의 형태로 보아 탕구로만 이루어진 완주 갈동식에서 탕구와 가스배출구가 나뉜 경산 양지리



〈그림 5〉 평양 장천리 출토 거푸집으로 복원한 깔대기의 형태

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평양 장천리식은 갈동식에 가까울지, 아니면 양지리식의 형태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형식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솥배의 형태를 보더라도 갈동식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양지리식으로 탕구와 가스배출구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발전해 중국에는 경산 양지리 1호묘 출토 동검1과 같이 끝단을 매끄럽게 잘라낸 듯한 형태로 바뀌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V. 맺음말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의 습베 형태를 기초로 동검의 제작에 있어 깔대기의 형태를 추정해 보았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동검은 두 자루인데, 한 점은 끝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원래 탕도와 가스배출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끝단의 형태를 기초로 한국식동검의 제작 방법을 복원하면 거푸집 위에 흙으로 만든 깔대기가 있었고, 깔대기는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 한쪽은 공기배출구, 다른 한쪽은 용탕을 붓는 탕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한국식동검의 주조와 관련된 연구는 거푸집과 같이 형태가 남아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동검 습베에 남아 있는 주조의 흔적과 영천 용전리 목관묘 등지에서 출토된 주조 관련 잔존물을 근거로 남아 있지 않은 깔대기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었다. 한국식동검 주조와 관련된 당시 기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들은 한반도에서 청동기 제작 기술의 기원과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 국립경주박물관, 2007, 『영천 용전리 유적』,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19책
- 국립대구박물관 외, 2020, 『떴다!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2020 테마전 전시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외, 1992, 『한국의 청동기문화』, 특별전시도록, 범우사
- 국립청주박물관, 2020,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특별전시도록
- 미야자토 오사무(宮里 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오강원, 2005,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 제작과 용법』,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2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 오광섭, 2013, 『7.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청동제유물에 대한 주조사학적 관찰』, 『울산 교동리유적』Ⅳ, 울산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107책
- 이건무, 1992, 『한국청동기의 제작기술』, 『한국의 청동기문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도록, 범우사
- 이양수, 2018, 『제3장 청동기의 관찰과 해석』, 『고고 유물의 관찰과 유구 조사방법』,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6, 사회평론
-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경산 양지리 유적』 본문·사진·부록, 성림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147책
- 정인성, 2011,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무기형 청동기 제작기법-탕구의 처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 청동기와 그 제작기법』,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8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 조진선, 2006, 『세형동검 용법의 제작기술-주형의 설계 및 새김기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60, 韓國考古學會
- 최용일, 2005, 『거푸집 제작과 청동기 제작 공정』, 『완주 갈동유적 출토 거푸집과 청동기 제작 복원』, 호남고고학회 2005년도 1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호남고고학회
- 허준양, 2021, 『한국식 청동무기의 동북아지역 전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총서 44, 진인진

<일문>

- 後藤直, 1996, 『靈岩出土鑄型の位置』,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 깊은샘
- 鄭仁盛, 2001, 『樂浪土城と青銅器製作』,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16,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이제현
국립김해박물관

| 목차 |

- I. 머리말
- II. 옷칠과 옷나무
- III.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출현
 - 1) 중국과 일본의 옷칠 출현
 - 2) 우리나라 옷칠의 출현 시점
- IV. 한반도 고대 옷칠 문화의 형성과 전파
 - 1) 세형동검문화의 확산과 옷칠
 - 2) 목관묘문화의 확산과 옷칠
 - 3) 양지리유적 칠기의 특징과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 고대 옷칠¹⁾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창원 다호리유적과(이건무 외 1988) 광주 신창동유적(조현중 외 1997)의 발굴로 시작되었다. 다호리유적 발굴 이전에도 아산 남성리유적(한병삼·이건무 외 1977) 등에서 칠기편이 확인되었으나, 온전한 칠기가 다수 확인된 것은 다호리유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다호리유적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칠기와 함께 금속 부속구를 활용해 제작한 검초, 음각으로 문양을 새긴 칠기 등도 확인되었다. 또한 신창동유적 역시 다량의 목칠기와 칠기 제작도구인 칠주걱, 옷액이 담긴 토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후, 경산 임당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대구 팔달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성주 예산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을 비롯하여, 최근 발굴이 이루어진 충주 호암동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18), 경산 양지리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18), 경주 죽동리유적(한국문화재단 2020), 안동 가곡리유적(동국문화재연구원 2019)까지 칠기 출토 유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칠기 출토 유적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역사·고고학계의 관심은 부족하다. 이는 고대 칠기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발굴된 자료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형태나 특징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기적 특성을 보이며 출토되지 않았기에 편년 근거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과학적 분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칠 도막이 탈락한 상태에서 옷칠 여부를 육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옷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였다. 이로 인해 그간 고대 옷칠 문화에 대한 논의는 미술사, 보존과학, 혹은 목공예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전히 이러한 한계는 뚜렷하지만 최근 양지리유적을 비롯하여 새롭게 조사된 칠기 출토 유적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고대 옷칠 문화의 기원과 출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 분야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칠기는 고대부터 희소성이 강하고, 선진 기술을 내포하고 있는 사치재였다. 따라서 그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옷칠 문화의 확산 과정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양지리유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옷칠과 칠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옷칠은 정제된 옷나무 수액을 물건에 바르는 행위를, 칠기는 옷칠이 된 기물이라는 의미이다. 형태가 비교적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는 자료는 칠기로, 흔적 혹은 편만 남아 있는 경우는 옷칠 자료로 표현하였다.

II. 옷칠과 옷나무

옷칠은 옷나무 수액을 뜻하며, 동시에 정제과정을 거친 옷나무 수액을 소지(素地)에 바르는 것을 의미한다. 옷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대 옷칠 문화는 옷나무 자생지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발전하였다. 옷나무는 현재 흑룡강성, 길림성, 내



〈그림 1〉 옷나무의 자생 범위

몽고, 청해서, 녕하 및 신강성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張飛龍 2010 : 16~18). 반대로 한반도와 요령지역은 모두 옷칠 문화권 내에 포함되어 고대부터 옷칠 문화가 성행했을 것이다.

옷칠의 원료가 되는 옷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매년 적당량만 채취하는 양생법(養生法), 수액을 채취한 후 나무를 베어버리는 살소법(殺搔法), 옷나무 가지를 불 위에서 돌려 수액을 채취하는 화칠법(火漆法)이다. 화칠법은 남은 가지를 모아 수액을 채취하는 마지막 방식이기에

실제적으로 수액을 채취하는 방식은 양생법과 살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살소법과 화칠법을 혼용하고 있으나, 고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액 채취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옷나무 수액 채취와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이 남아있어 참고가 된다.

① “옷나무는 폐조(廢朝)를 지나면서부터 별채하여 거의 다 없어졌는데… (중략)”

(『中宗實錄』 권 13, 6년 2월 己亥)

② “매번 영문에서 책정해 징수해갈 때는 반드시 복을 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방에서 찍어내는데, 한번 겪고 나면 밭둑에 줄지어 섰던 나무가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옷을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한도가 있고, 칠의 용도는 끝이 없으며, 칠을 생업으로 삼는 백성들도 점점 줄고 있으니, 칠이 어찌 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응당 사용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칠(火漆)로 내도록 책정하고, 값도 일정한 액수에 맞추어 주도록 할 일을 문서로 만들어 불변의 법식으로 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正祖實錄』 권 51, 23년 5월 甲子)

위의 기록에서 옷나무를 벌채하고 사방에서 찍어낸다는 내용을 볼 때,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살소법으로 옷나무 수액 채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자료만을 근거로 고대에도 살소법으로 옷나무 수액을 채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옷나무의 수종(樹種)과 옷나무가 자생하는 자연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을 고려하면 채취방식 역시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채취방식 및 채취도구가 일본의 것과 유사하여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장용준 2019 : 218~219),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창동유적에서 대형토기 저부에 칠이 묻어 있는 천조각이 남아 있어 수액 채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조현중 2012 : 238), 잔존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용도나 채취 방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는 이처럼 옷나무 채취 방식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관련 자료가 좀 더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채취한 옷나무 수액은 정제과정을 거쳐 옷칠로 사용한다. 옷칠은 방부, 방습효과와 함께 내열성과 내구성을 높이며, 특유의 광택을 내는 칠도막을 형성하여 물건을 고급스럽게 한다. 옷칠은 이 같은 기능성과 미적 효과로 인해 효용성은 높았으나, 나무 한 그루당 약80~200g정도의 수액만 채취할 수 있어 고대부터 값진 재료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옷나무를 관리하고 재배할 것을 권장했으며, 전담 기구를 두어 칠기를 제작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록상으로 칠기 제작과 관련된 국가 기구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신라시대의 칠전(漆典)이다. 이미 경덕왕(재위 742~765) 이전부터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칠전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간에 식기방(食器房)으로 고쳤다는 기록을 보면 왕실에서 사용하는 칠기를 관장하던 기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옷칠과 옷나무는 국가의 중요관리 품목 중 하나였다. 고려 선종 5년(1088년)에는 잡세를 정하면서 옷나무에 1승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인종 23년(1145년)과 명종 18년(1188년)에는 뽕나무·밤나무·옷나무·닥나무 등을 땅의 성질과 때에 맞춰 심도록 권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경공장과 지방 외공장에 칠장을 소속시켜 국가와 관청에 필요한 칠기를 제작·납품하게 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군현에 옷칠이 공물로 분정되었는데, 이를 위해 지방관아는 칠전(漆田)이라는 공전(公田)을 운영하여 옷나무를 재배하고 수액을 채취하였다. 특히 옷칠은 특수물자인 토산희귀자 토공에 속하여 국가의 특별한 관리 속에 생산이 이루어졌다(김현중 2017 : 22~64). 이처럼 옷칠은 삼국시대부터 왕실과 관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운영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재배를 권장하는 중요 관리품목이었다. 이는 고대부터 칠기가 고가의 사치품이자 특정 집단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물건임을 짐작하게 한다.

Ⅲ.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출현

1) 중국과 일본의 옷칠 출현

우리나라 옷칠의 기원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중국과 일본의 옷칠 출현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신석기시대부터 옷칠 자료가 확인된다. 옷나무 원산지가 중국 양자강 중·상류역이라는 점에서(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7 : 20), 오랫동안 중국은 옷칠의 기원지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고대 문헌기록인 『時經』, 『書經』, 『韓非子』, 『鹽鐵論』, 『史記』 등에는 옷칠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실물자료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6,000년경부터 칠기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 과호교(跨湖橋) 유적에서 칠공이 출토되었고(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이보다는 늦은 절강성 여요현(余姚縣) 하모도(河姆渡) 유적에서 주칠완(朱漆碗), 주칠원형칠기(朱漆圓形漆器) 등이 조사되었다(河姆渡遺址考古隊 1980).

이후, 상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시신을 안치하는 목관에 부패를 막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에 옷칠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²⁾. 정주(鄭州) 명공로(銘功路) 서측 2호묘 바닥에서는 목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칠편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부식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바닥에는 주사가 깔려 있었다(鄭州市博物館 1965 : 500). 안양 은허 유적에서도 청동기와 함께 복골, 옥기, 골기, 석기 등과 칠기가 조사되었다(河北省博物館·河北省文官外台西發掘小組, 1974 : 45). 동주시대 하남(河南) 고시(固始) 후고퇴(後古堆) 고분은 내곽 외벽에는 흑칠, 내벽에는 주칠을 하였고, 배장갱에서는 칠조(漆雕) 비파, 북, 진모수, 조(俎), 두(豆), 합(盒) 등의 목칠기가 출토되었다(固始後古堆一號墓發掘組, 1981 : 2~6).

무덤뿐 아니라 생활 유적에서도 다양한 목칠기가 확인된다. 서주시대 하남(河南) 신양현(信陽縣) 손채(孫砦) 수산(水産) 유적에서는 요갱에서 도기, 청동기 등과 함께 가래, 두, 국자, 합, 갈고리, 손잡이, 노 등의 칠목기가 확인되었고(安金槐 1998 : 125~126), 호북(湖北) 기춘(圻春) 모가취(毛家嘴) 건축 유적에서는 칠이배가 출토되었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湖北發掘隊 1962 : 7). 중국의 경우 대부분 장강 유역을 따라 보존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목칠기가 확인된다. 특히 중국 칠기의 전성기인 전국시대~한나라대에는 고분에 부장되는 칠기의 양이 급증한다. 이 시기 중국 칠기는 우리나라 옷칠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죠평 초기부터 칠기 자료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아오모리현[靑森縣] 고레카와(是川) 나카이[中居] 저습지 유적에서 조사된 붉은 옷칠 된 바구니, 나무 빗, 나무 팔찌, 검 모양 목기(木器)와 후쿠이현[福井縣] 토리하마[鳥浜] 패총에서 출토된 주칠 나무 빗, 통형 삼족 용기, 칠채문 토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원전 7,000년경으로 추정되는 홋카이도 가키노시마[北海道 垣ノ島] B유적에서 옷칠 흔적이 보고되면서(朝日新聞社 2000), 가장 이른 옷칠 자료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7 : 26).

이처럼 옷칠의 기원지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초기에는 중국을 기원지로 하여 단선적인 전파론의 우세

2) 옷칠은 아니지만 안양 은허 소둔촌의 부호묘에서도 곱을 덮는 뚜껑에 적색칠을 한 것이 확인된다(郭寶鈞 1951 : 13). 한반도에서도 정백동과 석암리에서 목관에 옷칠을 했던 것이 확인되며, 무령왕릉 목관에도 부패와 부식을 막고 화려함을 더하는 요소로 옷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목관에 옷칠을 하는 습속은 최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옷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옷칠의 기원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과 일본은 신석기시대부터 옷칠이 출현했다는 것이 공통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옷칠 문화 출현 시점은 우리나라의 옷칠 문화의 기원과 출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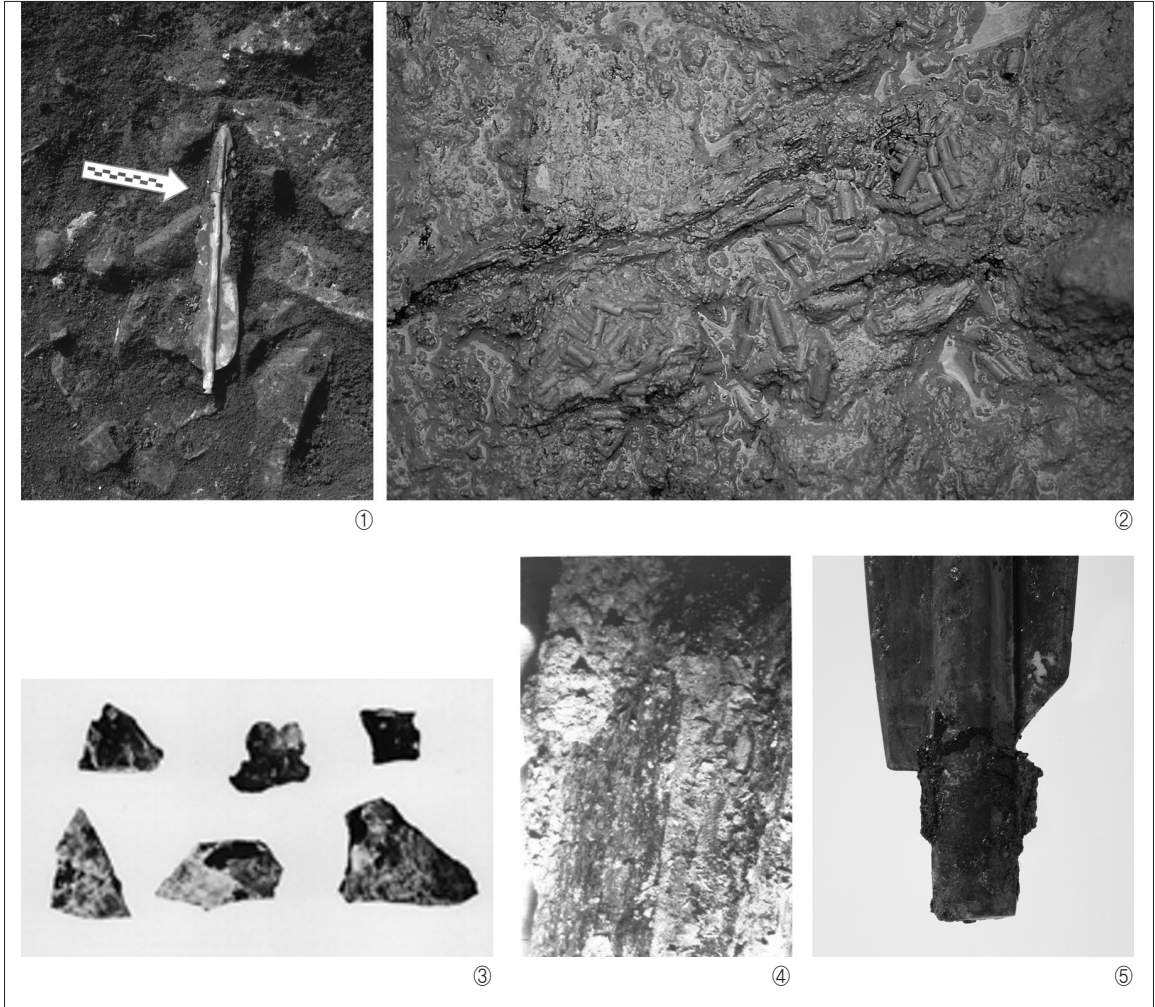
2) 우리나라 옷칠의 출현 시점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옷칠 자료는 청동기시대에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 또한 대부분 흔적이나 편으로만 확인된 것이어서 칠기의 정확한 형태, 소지(素地), 제작방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완형으로 칠기가 확인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창원 다호리유적이다. 이로 인해 초창기 우리나라 옷칠의 기원과 출현에 대해서는 낙랑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었다(김종태 1976; 김원용·안휘준 2003). 낙랑군 영향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옷칠 자료는 낙랑군 설치 이전부터 확인되나, 본격적인 칠기 확산은 낙랑군을 통한 중국 칠기의 영향이 강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하지만 아산 남성리유적에서 출토된 옷칠편이 낙랑 칠기와는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고(한병삼·이건무 외 1977 : 5), 원삼국시대 다호리유적 칠기 역시 기종이나 제작방식 등에서 낙랑 칠기와 차이가 뚜렷하기에 현재는 이러한 견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생설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옷나무를 근거로 특정 시점에 옷칠 문화가 시작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이다. 다만 자생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마다 출현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산 남성리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된 옷칠편을 근거로 기원전 3세기(김수철 2007)로 보는 견해, 창원 덕천리 2호 지석묘에서 나온 흑칠(黑漆) 흔적을 근거로 기원전 4세기로 보는 견해(차순철 2008), 다호리유적의 칠기를 근거로 기원전 1세기로 보는 견해(안덕춘 1988), 다호리유적에서 이미 수준 높은 칠기가 등장함에 따라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종석 1984), 특정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옷칠 문화의 자생 조건이 한반도에 이미 충분했다는 점에서 세형동검문화 시기 이전에 출현했다는 견해(김은경 2012 : 217~218) 등이 있다.

그러나 기원전 6~5세기에 해당하는 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에서 옷칠 흔적이 확인되었기에(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 39) 우리나라 옷칠 출현의 시점은 기원전 6세기 이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조현중 2012 : 237). 물론 자생설 역시 청동기시대 이전에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옷칠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동기시대 확인되는 옷칠편이 비파형동검과 지석묘와 연관이 있다는 점, 초기철기시대에 보이는 옷칠 자료 역시 주로 세형동검 검초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동기문화권 내에서 옷칠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무계가 실린다.

여수 적량동유적 이후로 다호리유적 단계까지 옷칠 자료는 빈약한 편이다. 이 시기 옷칠 자료는 지석묘와 적석목관묘에서 확인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에서는 비파형동검과 묘광 바닥석 사이에 흙을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목질과 함께 옷칠 흔적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형태 등은 알 수 없으나, 비파형동검 목제 검초에 옷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창원 덕천리 2호 지석묘에서는 관옥 주위에서 흑칠이 확인되었다. 흑칠이 관옥 주변에서 확인되었고, 관옥에도 일부 칠이 묻어 있는 점에서 이를 보관하는 그릇에 흑칠을 하였을 가



〈그림 2〉 우리나라 옷칠 출현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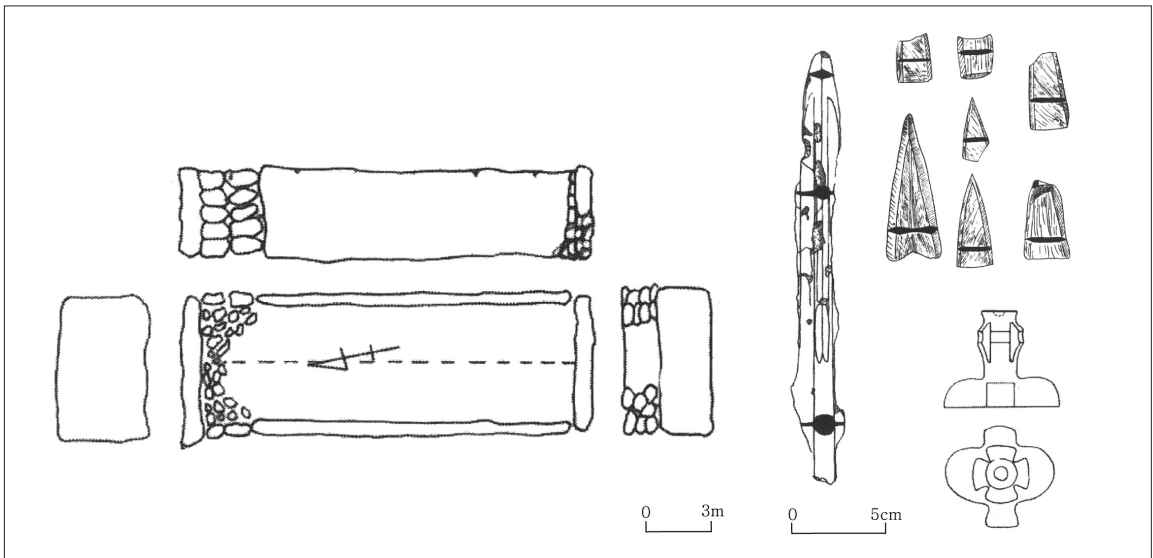
①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 ②창원 덕천리 2호 지석묘 ③아산 남성리 적석목관묘 ④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 ⑤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능성이 있다. 이보다는 늦은 시기지만 평양 태성리 11호 목관묘에서도 구슬과 청동 고리 주변에서 이를 보관했던 주철 그릇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과학원 출판사 1959 : 52). 또한 다호리유적과 양지리유적 요갱에서도 칠기를 담은 칠기함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시부터 귀중품을 담은 칠기를 상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반도 초기 적석목관묘는 주로 호서와 호남지역의 세형동검을 공반하는 유적에서 확인된다.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에서는 세형동검 주위에 유기물질 윤곽과 함께 옷칠편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세형동검 검초에 옷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부식된 흙의 양상으로 보아 검초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볼록렌즈형인 검초라고 보았다(국립광주박물관 1988 : 37). 이는 검초 양 끝이 벌어진 검파형검초와는 다른 형태임을 의미한다. 이견무는 이러한 검초를 ‘검신형검초’로 분류한 바 있다(이건무 1995 : 199). 아산 남성리 적석목관묘에서는 내부 퇴적

토에서 옷칠편이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는 목개에 칠해졌던 것이나 동검 검초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한병삼·이건무 외 1977 : 5). 목관 바닥 부분이 아닌 내부 퇴적토에서 출토된 점, 남포 태성리 4호 목관묘와 평양 석암리 205호의 목관에 옷칠이 된 예가 있다는 점에서 남성리 적석목관묘도 목관 혹은 목개에 옷칠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에서 확인되는 옷칠 자료는 대체로 세형동검 검초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남성리 적석목관묘 역시 검초의 옷칠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에는 특이하게 세형동검 경부에 목제 자루와 결합하기 위해 사용한 옷칠이 남아있다. 비록 검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세형동검 외면에 목질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옷칠을 한 검초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2)

우리나라 옷칠의 출현 시점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역시 이 시기 옷칠 자료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지역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서흥군 천곡리 석관묘의 옷칠편이다(백련행 1966 : 27~28). 옷칠편은 무덤 바닥 동남쪽에 30cm 정도로 퍼져서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이 놓여있었다. 세형동검 좌우로 삼각형석촉이 부장되어 있었다. 출토된 세형동검은 검신 하단부가 결실되기는 하였으나 기부부터 올라오는 각도를 볼 때, 호선형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능각은 결입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림 3). 이러한 세형동검은 남한지역 세형동검 I단계로 파악되며 함께 출토된 삼각형석촉 등을 볼 때,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오강원, 2020b, 12~20).



〈그림 3〉 서흥군 천곡리 석관묘

이후 목관묘 단계인 평양시 용추동유적(리기련 1967), 남포시 태성리유적(채희국 1959), 은률군 운성리유적(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등에서 옷칠된 검초, 그릇 등이 출토되었다. 목관묘와 검파형검초는 남한지역, 특히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자료와 유사성이 확인된다(이제현·장용준 2020 : 230).

이처럼 자료의 양은 충분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실물 자료로서 옷칠은 청동기시대부터 확인되며³⁾, 지석묘에서만 출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흔적만 남아있고, 출토 예가 적어 이 시기부터 옷칠 문화가 보편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이 시기는 옷칠의 존재를 인식하고, 정착하는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우리나라 고대 옷칠 문화의 형성과 전파

1) 세형동검문화의 확산과 옷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출현기 옷칠 자료는 지석묘, 적석목관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석묘에서는 옷칠의 출토 사례도 적을뿐더러 흔적만 남아있어 현재까지 양 문화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석묘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옷칠 문화가 시작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석묘와 비파형동검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옷칠 문화가 요령지역과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요령~한반도 내의 옷칠 자료가 축적된다면 옷칠 문화 출현기의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세형동검문화 성립기의 주요제로 채택된 적석목관묘는 옷칠 문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 이는 한반도 초기 옷칠 자료가 주로 세형동검 검초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되는 검초는 목관묘에서 유행하는 검파형검초와는 다른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초포리유적에서 보이는 검초 끝이 좁아지는 검신형검초였을 것이다. 시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성리나 대곡리 역시 검초가 존재했다면 검신형검초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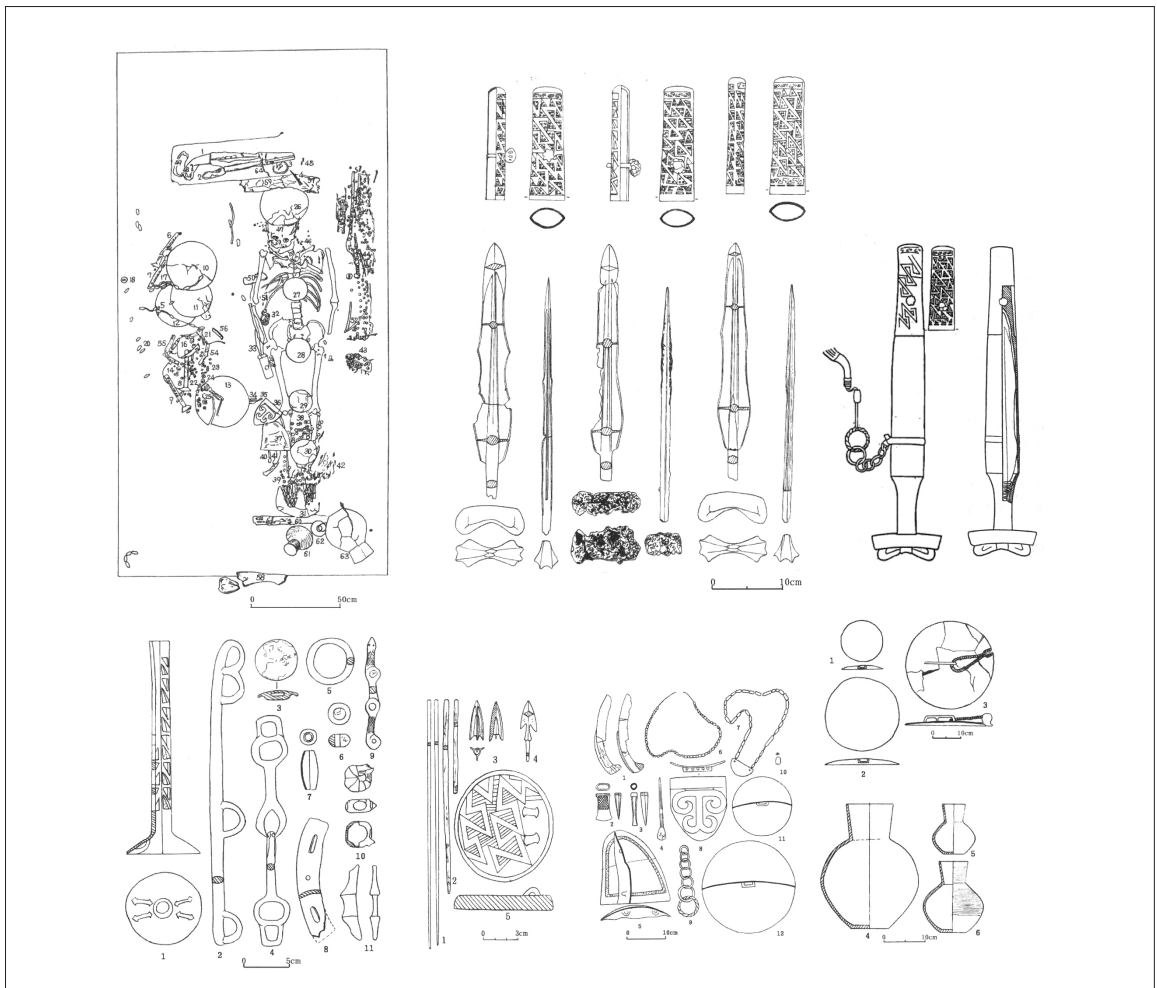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에서 이건무는 검초의 형태를 검신형, 검파형, 사각봉형, 봉상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이건무 1995 : 199~200)⁴⁾. 하지만 검신형으로 발굴 보고된 것은 초포리유적뿐이며⁵⁾, 사각봉형으로 분류한 다호리 24호는 남아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평면 장방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김민철은 위의 분류 외에 사라리 130호 철검 검초와 佐賀縣 楠比本村遺蹟 SJ137호 출토 검초를 근거로 장조형(長條形)을 새로운 형식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김민철 2021 : 83).

3)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신석기시대까지 옷칠의 기원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석기시대 밀양 신안 유적 적색마연토기에서 옷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이 확인되었다는(국립김해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옷칠 출현시점이 신석기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제기한 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우루시올 성분이 추출된 것이 아니라, 우루시올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옷칠의 존재 여부는 향후 실물 자료의 증가와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자료 축적이 이루어질 때,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청규는 검초를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검집에 연결금구가 보이지 않고 검초 끝을 주머니모양의 마구리 장식으로 마감한 것을 I식, 검집에 일정 간격으로 부속구가 있으며, 표면에 투공 장식이 있는 것을 II식, II식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부속구가 간략화되고, 부속구의 투공 장식이 없는 것을 III식으로 분류하였다(이청규 1997 : 43). 구문경도 I식은 이청규와 동일하지만 검파형검초 가운데 목심 자체를 일자식으로 만든 것을 II식, 목심을 곡선적으로 만든 것을 III식으로 분류하였다(구문경 2002 : 7~26).

5)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검초가 평양 울리검마장 2호분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고 한다(이건무 1995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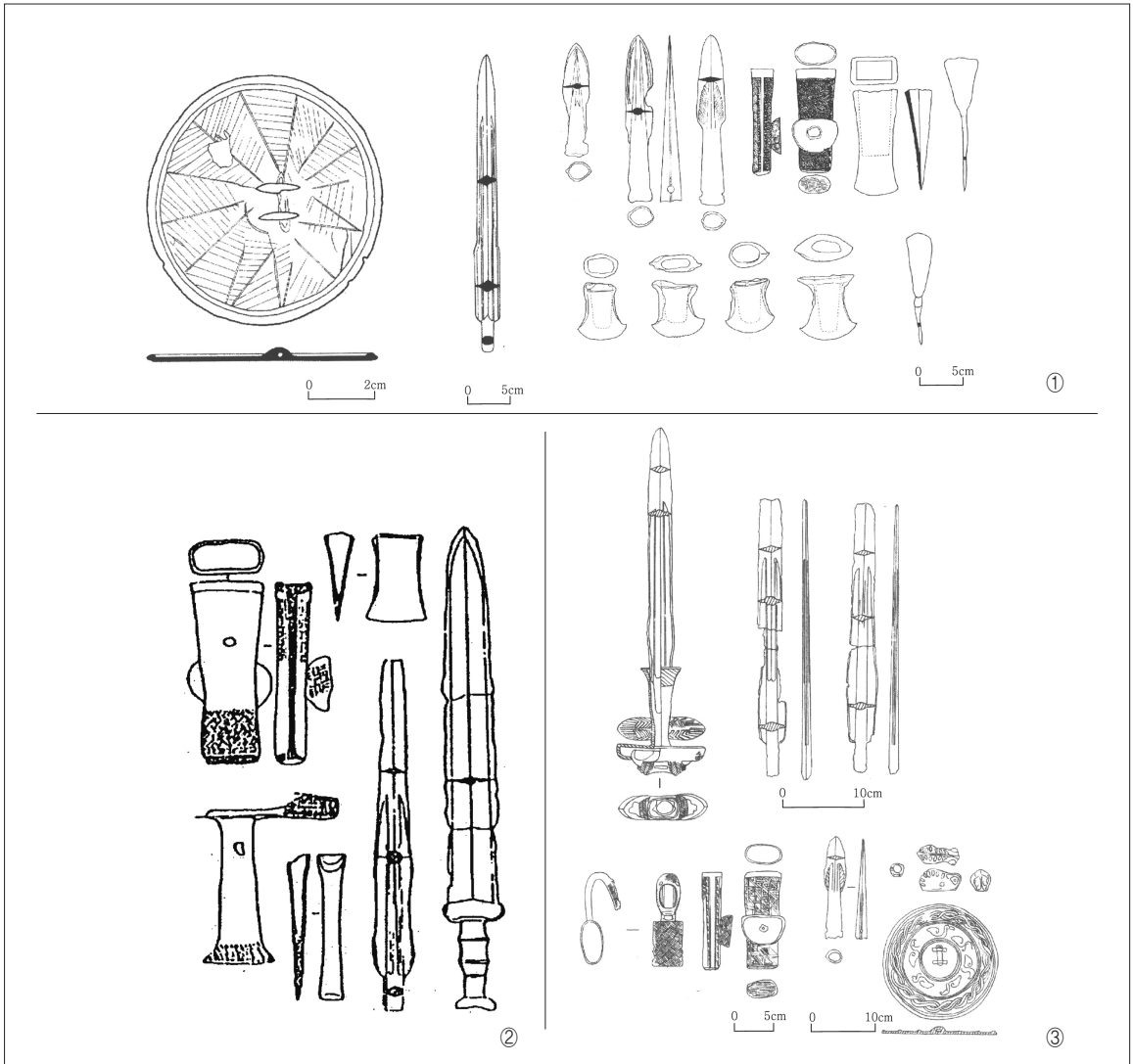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검초 자료가 부속구만 확인된 것이고, 완형의 검초 자료는 부족한 상황에서 형식을 너무 세분하면 향후 검초 연구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청규와 구문경 모두 지적한 것처럼 형태적으로는 정가와자유적의 직선적인 검초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곡선적인 검파형검초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목초의 형태, 즉 직선적인 검신형과 곡선적인 검파형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 물론 선행 연구자들이 검토한 것처럼 검파형검초도 금속 부속구의 문양 시문 방식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검신형 역시 평면 형태나 검집 끝 마감 장식의 형태에 따라 세분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러한 검초의 형식분류나 변천 과정은 다른 지면을 빌어 논의하고자 하고, 여기서는 옷칠 문화의 확산이라는 큰 주제가 중심이기에 검신형에서 검파형이라는 큰 변화 과정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4〉 정가와자 6512호 목곽묘

6) 이외에 봉상형검초는 다호리 1호와 태성리 6호에서만 확인된 특수한 형태이다. 출토량도 적을뿐더러 세형동검과 철검의 검집이 아닌 짧은 단검의 검집이다. 따라서 봉상형검초를 칠초동검·칠초철검과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는 것보다 다른 형식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검신형검초는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검초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검초가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어 참고가 된다. 정가와자유적에서 출토된 검초는 피장자 오른쪽 허리에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과 함께 조사되었다⁷⁾. 목제 검초 부분은 부후되어 흔적만 남아 있었다. 복원된 자료를 참고하면 형태는 직선적이었으며, 길이는 15cm, 너비는 5.2cm 정도이다. 검초 끝(秘)은 직사각형의 청동제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3점의 비파형동검과 세트를 이루듯이 검초 끝 장식 3점이 함께 조사되었다.(그림 4) 검초 상부에는 청동못으로 검초 끝 장식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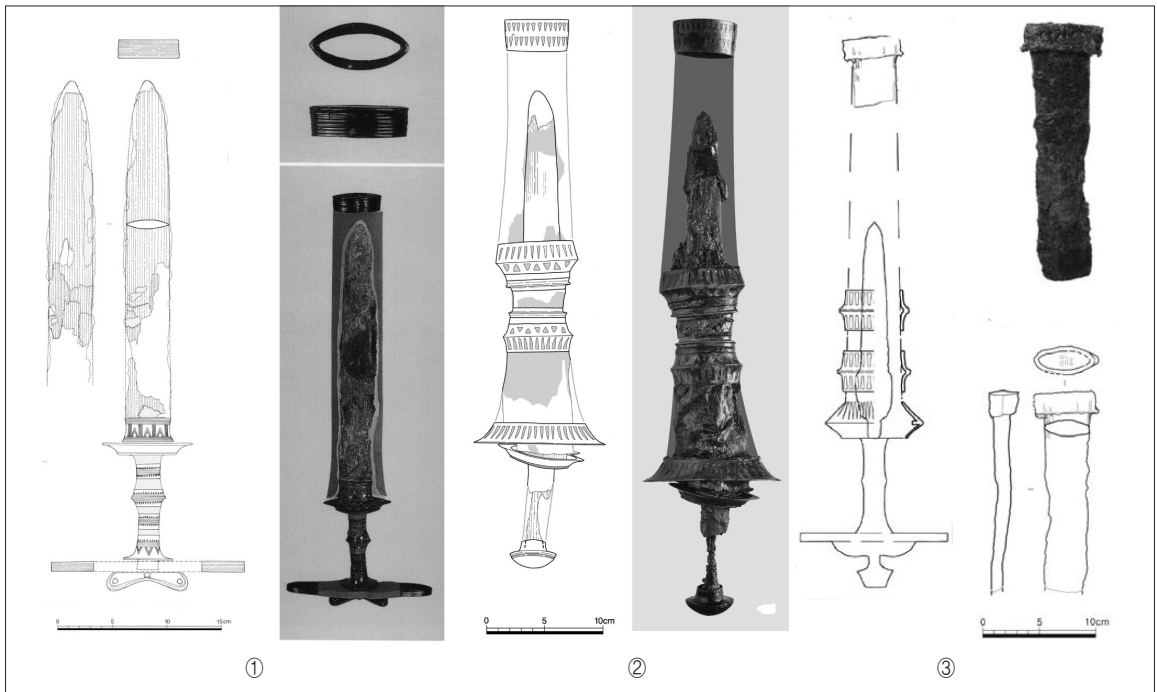
<그림 5> 요령지역 검초 검집 끝 장식(축척 부동)
 ①오도령구문 적석묘 ②서가구 석곽묘 ③유가초 석관묘

7)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은 돌기부가 둔화되고, 검날의 곡인률이 낮아져 심이대영자문화의 비파형동검에 비해 세장화된 형식이다(오강원 2006 : 161~172)

이와 같은 검초 끝 장식은 정가와자유적 뿐 아니라 본계 유가초 석관묘,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 장해 서가 구 석곽묘 등에서도 출토되었다.(그림 5) 대체로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보다 후행하는 변형 비파형동검 단계로 기원전 3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오강원 2006 : 280~289). 이 유적들의 검집 끝 장식은 정가와자 출토 검집 끝 장식에 비해 문양이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못하다. 목제 검초 부분은 부후되어 남아 있지 않지만 형태는 정가와자유적의 복원된 검초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형동검문화는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전신으로 하여 한반도에 형성된 청동기 문화이다(이건무 1994 : 133). 세형동검문화의 형성에 대해서는 자생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심양의 정가와 자유형의 비파형동검문화가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 직접 파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건무 1994 : 167; 조진선 2005 : 213~218; 오강원 2020a : 243). 이는 정가와자유형의 청동기가 세형동검 성립기 유적인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대전 괴정동, 부여 연화리 등지에서 보인다거나(오강원 2020a : 239), 이 시기 금강 유역에서 유행하는 적석목관묘의 전통을 정가와자 656호와 6503호 무덤 등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박진 일 2021 : 74~75) 뒷받침된다.

이런 점에서 정가와자 6512호 출토 검초는 검파형검초 이전 호서와 호남지역 적석목관묘 출토 검초 형태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건무가 ‘검신형’로 명명하였던 것도 초포리유적의 옷칠 흔적만을 근거로 하였기에 정확히 검초 끝이 뾰족한 형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가와자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그림 6〉 영남지역 철초철검

①경주 사라리 130호 ②경산 양지리 1호 ③울산 교동 1호

검초 끝 장식처럼 검초 끝을 다른 것으로 마감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이보다는 늦은 시기지만 경주 사라리 130호, 울산 교동 1호,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에서도 검초 끝을 금속구로 마감하는 검초가 확인된다.(그림 6) 다만 요령지역의 검집 끝 장식은 길쭉한 세장방형인 반면, 영남지역의 검집 끝 장식은 검파형검초의 부속구와 유사한 납작한 형태이다. 납작한 검집 끝 장식을 공반한 이 검초들은 초하부에 부속구가 확인되기도 하며, 초하부가 곡선적인 검파형검초를 띠기도 한다(그림 6) 또한 모두 철검 검초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검신형검초의 전통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파형검초의 새로운 제작 방식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초기 검신형검초 역시 정가와자유적의 검초처럼 검집 끝을 금속구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호서와 호남의 적석목관묘 출토 검초와 정가와자 6512호 검초는 전형적인 검파형검초가 아닌 직선적인 형태의 검초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양 지역 청동기문화의 직접적인 교류를 감안하면 한반도 적석목관묘 출토 검신형검초는 정가와자유적 검초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중서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요령지역에서 확인된 옷칠 자료가 많지 않고, 정가와자유적의 검초에 옷칠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없기에 한반도 남부 검초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목제 유물과 옷칠의 잔존은 보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요령지역의 옷칠 자료가 빈약한 이유일 수 있다. 오히려 세형동검문화의 파급 경로, 출현기 옷칠이 세형동검 검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옷칠의 기원을 요령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요령지역 역시 옷칠 자료가 좀 더 보강되고, 비파형동검 혹은 세형동검 단계의 검초의 양호한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해본다.

2) 목관묘문화의 확산과 옷칠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춘 칠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목관묘 단계부터이다. 이 시기 칠기는 소지, 제작방법, 옷칠의 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나 칠도막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창원 다호리, 광주 신창동, 성주 예산리, 대구 팔달동, 봉무동, 학정동, 경산 양지리, 김해 양동리, 안동 가곡리, 경주 사라리, 경주 탑동, 경주 죽동리, 충주 호암동, 울산 하대, 울산 다운동, 울산 교동, 전주 동산동, 나주 구기촌, 서산 동문동, 함평 마산리, 서천 군사리, 서산 예천동 등 전국적으로 확인된다⁸⁾.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목관묘, 그것도 영남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⁹⁾. 이 유적들에서는 도태칠기(陶胎漆器)와 남태칠기(藍胎漆器)도 일부 제작되나, 대부분 나무 소지 위에 그대로 옷칠을 한 흑칠목심칠기(黑漆木心漆器)가 중심이다. 그 가운데 검파형검초(동검, 철검), 칠두, 칠부채 등의 집중적으로 부장되며, 이전에

8) 물론 일부 유적은 옷칠 자료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검초 부속구만 출토되고 있어 실제 옷칠이 된 검초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발굴 자료를 볼 때, 검초에는 예외 없이 옷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칠기 출토 유적으로 간주한다.

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서와 호남지역의 적석목관묘와 토광묘에서도 검파형검초 부속구 자료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영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서도 칠기의 출토 예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발굴 상황을 놓고 보면 영남지역 목관묘에서 칠기의 부장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영남지역이 한반도 고대 칠기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로 볼 수 있다.

〈표 1〉 원삼국시대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칠기 유물

기종	유적	다호리	예산리	양지리	팔달애	가곡리	신대리	평리봉	성곡리	지산동	영전리	가야의숲	임곡리	조양애	사라리	양동리	평리봉	팔달애
		무기류	칠초동검	●	●	●	●			●	●	●					●	●
	칠초철검	●	●	●	●	●						●	●	●	●			
	칠초동모			●														
	과초			●				●		●	●							
	활	●	●															
	화살통	●																
	철촉		●															
	철모	●																
	갑옷	●																
그릇류	두	●	●						●									
	장경호	●				●												
	원통형 칠기	●	●	●			●		●			●						
	주머니호	●	●			●												
	대부소호		●															
	뚜껑	●	●						●									
	잔/컵	●							●									
	완		●															
	우각형 파수부호	●																
	칠반	●					●											
기타	목제함	●																
	부채	●	●	●			●					●	●					●
	붓	●																
	철부	●																
	따비	●																
	자귀			●														
	겸형칠기	●																
	도자	●			●									●	●			
	신발	●																
	국자	●																
칠겉이	●																	
현악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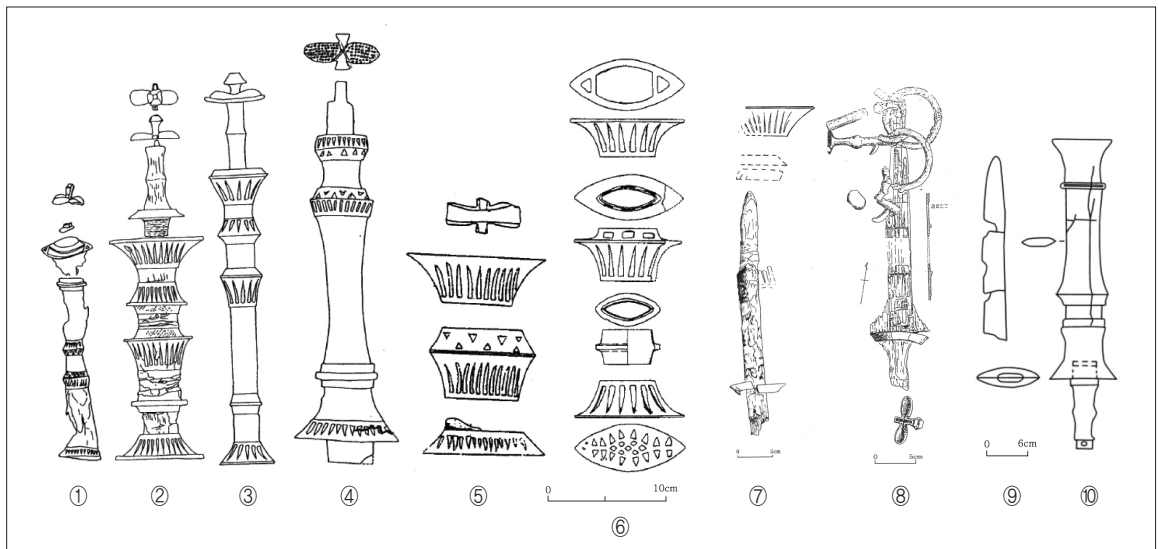
비해 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간의 분석 자료를 통해 보면 옷칠은 대체로 2~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목관묘 단계부터 급증하는 칠기 자료를 볼 때, 한반도 옷칠 문화 확산이 목관묘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남부, 특히 영남지역으로의 옷칠 문화 확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목관묘의 확산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영남지역 목관묘 등장에 대해서 요깁을 근거로 중국 남방과 연관 짓는 주장도 있고(이재현 1995), 한반도 서남부의 마한 군집 목관묘가 진·변한 군집 목관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박진일 2021 : 78). 하지만 한반도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의 목관묘는 청동기만 부장하는 목관묘의 존재 차

이, 철기 조합 구성, 토기 조합 등에서 차이성도 뚜렷하다(박진일 2020 : 62; 김민철 2019 : 138~144). 또한 목관묘단계 서북한지역과 영남지역은 공히 한경이나 거마구 등 한식 유물이 많이 부장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미야모토 오사무 2010 : 335; 김용성 2016 : 31). 그로 인해 영남지역의 목관묘 계통을 중국 동북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 파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주현 1994; 김용성 2016; 김민철 2019).

현재까지 영남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목관묘는 김천 문당동유적과 칠곡 심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단독묘로 중서부지역에서 영남지역으로 오는 접경지대에 분포한다. 초기 단독묘로 조성되던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 초엽에 경주 월성동과 경산 입당동으로 확산되어 군집화 경향을 보이며, 이후 낙동강 하류까지 확산된다(김민철 2019 : 130~138).

초기 목관묘의 계통이 서북한지역이라면 한반도 남부 옷칠 문화도 서북한지역에서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서북한지역의 목관묘와 철기 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평양 용추동, 남포시 태성리, 은률군 운성리 목관묘에서 철기가 출토되었다. 용추동 목관묘와 태성리 8호·10호 목관묘에서는 검과형검초가, 태성리 6호 목관묘에서는 봉상형철초가 출토되었다. 이외에 목관묘와 지표수습품에서도 검과형검초와 부속구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傳평양 출토품, 정백동 1·37·88호, 정백동 채토장, 석암리 219호 등이 있다(그림6).



〈그림 7〉 북한지역 검초 자료

- ①1. 정백동 37호 ②정백동 고분 ③석암리 219호 ④낙랑군 ⑤정백동 88호 ⑥정백동 채토장 ⑦태성리 8호 ⑧태성리 10호 ⑨용추동 목관묘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목관묘 이전 단계에 서북한지역의 옷칠 자료가 한반도 남부보다 빠르지 않다는 점, 서북한지역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목관묘는 한식 철기와 S자형 재갈머치 등으로 볼 때 그 연대가 빨라야 기원전 2세기 중엽(황기덕 외, 1971 : 31~35), 혹은 1세기경이라는 점이다(오강원 2013 : 191). 이는 영남지역 철기 출

토 목관묘와 거의 같은 시기이거나 오히려 늦다¹⁰⁾. 다만 칠기 출토 이외의 목관묘는 서북한지역이 영남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서북한 지역의 발달된 검초 자료, 칠기를 제외한 다른 물질문화 파급 경로를 고려하면 서북한지역을 영남지역 목관묘단계의 칠기 전파 기원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북한지역에서 목관묘 단계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칠기가 목관묘 단계부터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심양의 정가와자유형은 기원전 6~4세기경에 요령지역에서 무기류, 공구류, 장신구류, 거마루규, 위 세류 등을 포함하는 최상급의 청동기 부장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입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되기 전까지 정가와자유형이 고조선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크다(오강원 2013: 197~205). 진개의 동진 이후, 기원전 3세기 전국 연나라 문화는 요서를 포함하여 요동 일부 지역까지 확산된다. 이 시점에 서북한지역 역시 세형동검과 함께 칠기문화가 이전의 신흥동유형을 대체하며 등장하게 된다(오강원 2013: 189~193). 옷칠 문화 역시 이 과정에서 서북한지역으로 함께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남지역 목관묘 단계의 옷칠 문화는 요령지역에서 서북한지역으로 이동한 고조선 세력의 일부가 다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확산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남지역 목관묘단계의 옷칠 문화를 고조선의 옷칠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이유이다.

물론 목관묘 단계의 칠기, 구체적으로는 다호리유적의 칠기에서 낙랑 칠기의 영향이 언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다호리 칠기 제작기법¹¹⁾이 한나라 혹은 낙랑 칠기의 제작방식과 유사하다는 점, 다호리 1호 출토 원형두가 평양 정백동 127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점, 1호 출토 유개통형칠기가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동효한묘(東效漢墓) 출토 도창(陶倉)과 유사하다는 점, 다호리유적에서 중국 한경 등 교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물 등이 출토된다는 점 등이다(김은진 2005: 76~84). 또한 청주 오송 유적에서는 중국과 낙랑 칠기의 대표적 기종인 이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442). 비록 옷칠이 되어 있지 않은 토제이배이지만 토제이배는 평양 남정리 53호에서도 출토되고 있어(황현성 외, 2013: 7), 당시의 낙랑 칠기의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양 지역 옷칠 문화의 유사성과 함께 상이성도 부각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목관묘단계의 칠기는 흑칠목심칠기가 중심이며¹²⁾, 일부 붉은색으로 거치문과 사선문을 새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문양이 없다. 이에 비해 낙랑 칠기는 흑칠기도 존재하나, 모시와 삼베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헝저 칠기가 많다. 또한 붉은색, 황색, 녹색, 갈색, 청색 등 다양한 색을 이용해 능형, 톱니, 물결, 구름, 새, 짐승, 용, 괴인 등의 무늬를 넣는다. 이외에도 헝저칠기의 전통으로 직물의 울퉁불퉁한 면을 메우기 위해 두꺼운 바탕칠[下地]을 하는 특징이 있고, 중국 전국시대~한나라 칠기의 대표적 기종인 칠이배(漆耳杯)와 칠반(漆盤)의 수량이 우세하다. 즉 낙랑 칠기의 대표 기종인 칠이배와 칠반의 부재, 바탕칠과 칠화기법의 부재 현상은 양 지역의 상이성을 더욱 보여주는

10) 호서와 호남지역의 적석목관묘와 완주, 신평 일대의 목관묘가 영남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옷칠 문화도 함께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11) 손으로 깎는 방식, 물레를 사용하는 방식, 판으로 짜 맞춘 방식을 들 수 있다(이건우 외 1989: 5~53).

12) 김해 가야의 숲 3호 유적에서는 목심저피 원통모양칠기가 확인되었다. 다호리유적을 비롯하여 이 시기 유적들이 대부분 목심칠기가 중심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다만 이 유적 근처에서 당시 삼베나 모시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06: 151~157; 박윤미 2020: 74). 모시나 삼베의 생산이 목심저피칠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는 목심저피칠기나 헝저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³⁾.

오히려 낙랑 칠기의 영향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되는데, 이 시기부터 낙랑 칠기의 대표적인 제작 기술인 바탕칠과 칠화기법이 성행한다. 바탕칠은 삼국시대부터 비중이 늘어나는 목심저피나 협저칠기 제작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인데, 바탕칠이 목태 위를 감싸는 직물의 눈을 매우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탕칠의 성분 역시 낙랑 칠기와 유사한데, 양 지역 모두 골분과 토분을 혼합한 바탕칠을 사용하였다(이용희 2010 : 63~67). 칠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칠화기법 역시 삼국시대부터 칠기에 동물이나 구름 등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석촌동 고분군과 원주 법천리 유적, 부여 쌍북리 유적 등에서 낙랑칠기의 대표 기종인 칠이배와 칠반이 출토된다. 이외에도 무령왕릉 두침, 죽좌나 부여 능산리 출토 채색 칠기 등에 보이는 금박 장식도 낙랑 칠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낙랑 칠기는 원삼국시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상대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 목관묘단계의 옷칠 문화 역시 낙랑군 설치 이후, 급증한 것이 아닌 낙랑군 설치 이전 고조선 옷칠 문화가 한반도 남부로 파급되면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적석목관묘단계에 요령 지역에서 해로를 거쳐 한반도 중서부로 파급되었던 것을 한반도 옷칠 문화의 1차 파급이라고 한다면 서북한 지역에서 내륙을 통해 한반도 동남부로 파급되었던 것을 2차 파급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적어도 옷칠 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 차례의 걸친 파급은 검초 제작 방식 차이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3) 양지리유적 칠기의 특징과 의미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대 옷칠 문화에서 양지리유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산 양지리유적은 금호강 중류 북안에 위치하여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구가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이 가운데 칠기는 II-5구역 1·2호 목관묘에서 출토되었다. 1호 목관묘는 구유형 통나무 목관으로 다른 목관묘군에서 남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조성되었다. 칠기는 피장자 오른팔 근처에서 칠초동검 2세트, 칠초철검 2세트, 피장자 상반신에 칠부채 3점, 요갱에서 칠초동모 2세트, 철과초¹⁴⁾, 자귀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피장자 머리 부근과 요갱에 칠기함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도자에도 유기물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요갱 칠기함의 잔존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호 목관묘는 나무 목개 위에 천석을 보강한 적석목관묘이다. 칠기는 원통형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세형동검과 동과가 출토되었으나, 검초나 과초가 조사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무기류의 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된 예가 없는 비파형동모초와 오수전으로 장식한 과초가 출토된 점이 시선을 끈다.

양지리 출토 칠기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파형동모의 모초의 존재이다. 모신이 비파형을 띠는 점에서 그동안 조사 예가 없어 형태를 추정할 수 없었던 비파형동검 검초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3) 다호리유적을 포함한 목관묘단계의 와질토기는 이전 무문토기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이라는 점도(박진일 2016 : 132) 양 지역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4) 보고서에는 동과초로 보고되었으나, 동과를 삼입하기에는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 X-선 촬영을 통해 본 재질이나 과초 안의 유물의 형태를 볼 때 철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김민철, 2020b : 7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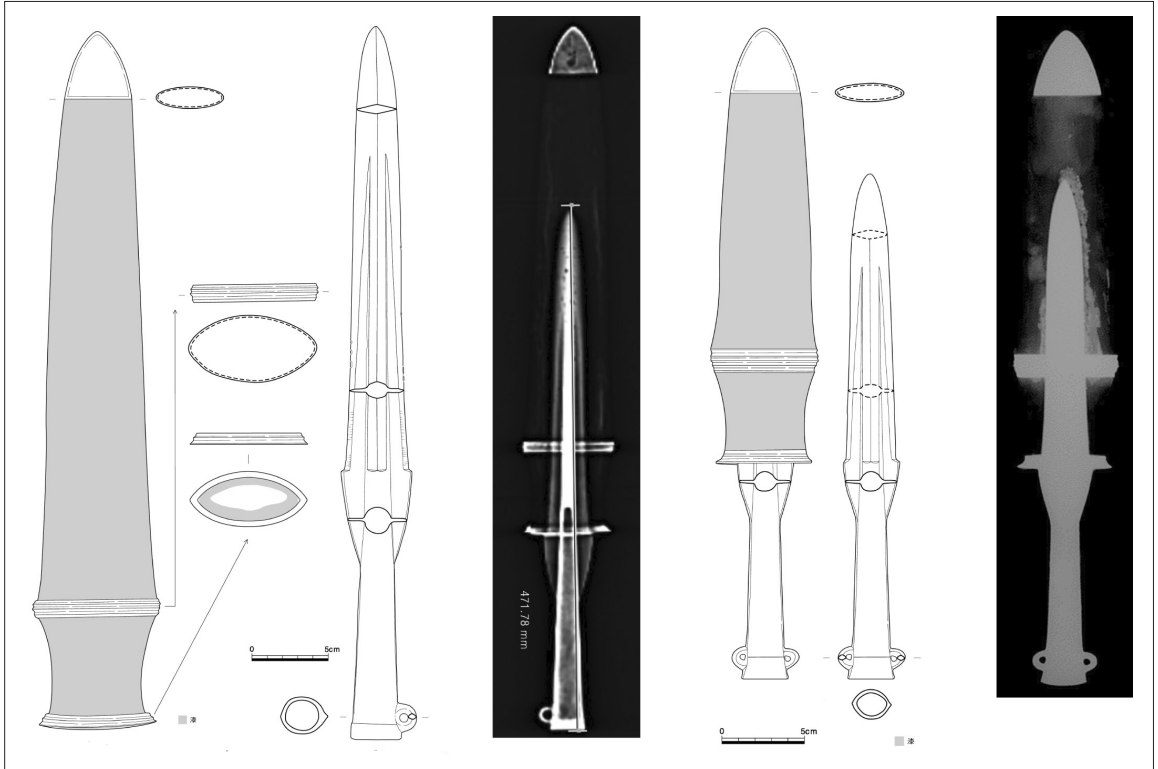


〈그림 8〉 양지리유적 출토 철기

청동기시대 부장품으로서 비파형동검의 위상을 고려하면 검초가 함께 제작되어 부장되었을 것이다. 양지리에서 출토된 비파형동모초는 세형동검의 검파형검초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이다. 즉 검초 양 끝이 벌어지는 형태가 아닌 직선적인 형태라는 점, 검초 끝을 금속구로 마감한 점 등에서 정가와자유적의 검초와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비파형동검 검초도 검파형이 아닌 직선적인 검신형이었을 가능성이 컸음을 알려준다.

다만 양지리유적 출토 비파형동모초는 청동제의 봉(捧)과 초하부 금속 연결구가 있으며, 그 사이가 곡선적인 검파형검초 형태를 띠는 점에서 일정 부분 검파형검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양지리유적은 전형적인 검파형검초를 부장하는 단계였기에 비파형동모초는 기존 검신형으로 제작하면서도 일정 부분 검파형검초의 제작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양지리 출토 칠초철검이다.(그림 6) 앞에서 다룬 것처럼 초하부는 검파형을 띠지만 검집 끝은 금속구로 마감하고 있다. 비파형동모초와 같이 삼각형 끝 장식은 아니지만 금속구로 검집 끝을 마무리하고, 초하부는 금속 부속구를 활용해 검파형으로 제작한 양쪽의 제작 기술이 모두 반영된 사례라고 생각된다. 교동 1호 역시 목초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직선적인 검집 끝 장식과 검파형검초의 부속구가 함께 보이는 것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지리유적의 비파형동모초는 초기 세형동검 유적인 직석목관묘에서 검신형검초 형태를 띠던 것이 목관



〈그림 9〉 양지리유적 출토 비파형동모와 모초

모 단계에 들어서면서 검파형검초로 형태적 변화가 변화했음을 유추하게 하며, 검신형과 검파형검초의 제작 기술이 접목되는 모습도 추적하게 하는 자료이다.

그렇다면 왜 비파형동검단계의 검신형검초가 세형동검단계부터 검파형검초로 변화된 것일까? 검초의 형태만 보자면 검신형검초와 같은 직선적인 형태가 동검의 형태를 볼 때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검신형에서 부자연스러운 검파형으로 형태를 바꾼 이유가 필요한데, 크게 기능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파형검초 내부를 X-ray로 살펴보면 검 크기에 비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검초의 외형 변화가 기능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장식적인 면에 집중하여 검초의 형태가 재고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형동검문화의 확산은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의 위축과 쇠퇴 속에 이루어졌다.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가 확산되는 시기에 요령지역은 이미 연계 철기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더욱이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세형동검은 초기철기시대까지 장기간 부장되며, 철기와 공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양지리유적과 다호리유적 등과 같이 동일 유구 내에서 철초동검과 철초철검이 공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검파형검초가 등장하는 기원전 2세기 경은 한반도 남부에서 저온 단야공정의 철기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상민 2021 : 64~67). 그렇다면 왜 철기라는 신문물이 유입된 이후에도 세형동검과 검파형검초

가 지속적으로 부장되었을까?

이는 철기문화가 세형동검문화권 내에 파급된 후에도 여전히 세형동검이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물건으로 는 상당 시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임을 나타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검파형검초는 세형동검의 위세 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장식적인 효과를 더해 화려하게 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물 이 정백동과 다호리, 양지리, 사라리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검파형검초이다. 이곳들에서 출토된 검초는 단순 목 제검초가 아닌 금속 부속구를 활용하여 검초를 제작하였고, 금속 부속구를 삼각형, 혹은 사각형 문양으로 음각 하거나 투창, 혹은 사선문과 거치문을 새겨 장식하였다. 이외에도 양지리, 평리동, 입당동, 다호리 등에서 보이 는 것처럼 중방향의 세장한 청동판을 부착하여 검초를 장식하기도 하였다(김민철 2020a : 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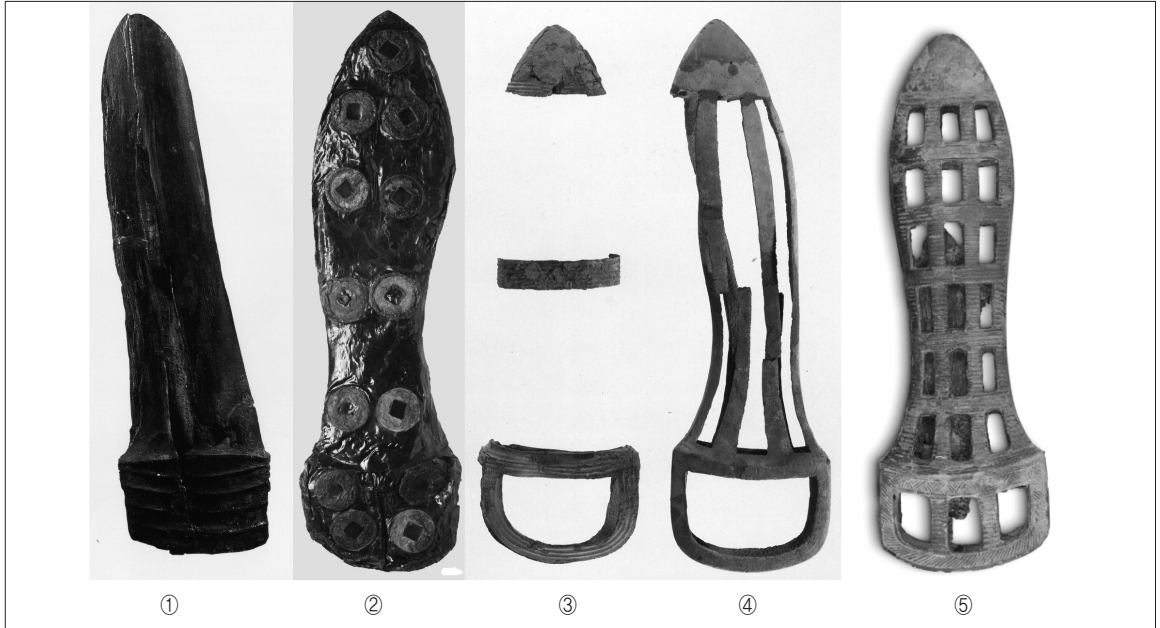
결국 검파형검초는 철기 문화가 파급되는 과정에서 세형동검집단이 위세품인 세형동검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 히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검초인 것이다. 이는 검파형검초의 비실용적 부분의 확대, 세밀한 문양을 통한 장식 효 과의 증대, 철기의 보급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무덤에 부장되는 점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철기 시대 지식묘 집단이 철기문화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묘 상석의 거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를 결속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과도 연결된다(이제현 2021 : 118).

다음으로 주목되는 유물은 과초이다. 그동안 과초는 영천 용전리, 대구 평리동, 지산동, 평양 정백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세형동과 과초로 추정되는 정백동 과초만이 직선적이고, 나머지 철과초로 추정되는 것들은 과초 중 양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이다.(그림 10) 그러나 양지리유적 출토 과초는 나머지 용전리, 평리동, 지산동 과초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확인된다. 나머지 과초는 청동으로 과초 뼈대를 이룬 반면, 양지리 과초는 청동제의 뼈대가 확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목재로 과집을 제작하였다. 또한 양지리유적 과초는 전면에 옷칠을 하고, 앞 뒤로 26개의 오수전을 붙여 장식하였다. 장식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장식적 측면의 강화는 과초의 삽입부의 독특한 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양지리 과초는 우측면 하단에 삽입 부가 있고, 나머지 좌측부와 하단부는 목재가 부후된 탓인지 부착되어 있다. 삽입부의 위치로 인해 과를 꺾어서 삽입했을 것이기에 소형이거나 중원식동과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이은경 2021 : 756). 그러나 X-ray 상에서 과의 경부가 매우 짧아 중원식동과로 보기 어려우며, 중원식동과라 하더라도 실제 우측면 하단을 통해서 삽입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소형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잔존 길이 13.5cm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X-ray상처럼 과가 바르게 삽입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오히려 오수전 26개를 붙여 장식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단순 부장품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철과와 과집을 따로 제작하여 삽입한 것이 아니라, 철과 위에 바로 목재 과집을 결합하여 옷칠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로 인해 다른 과집과는 달리 청동이 뼈대를 이루고 앉았으며, 오수전을 과집 표면에 과도하게 붙여 장식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외에 칠부채, 원통형칠기, 칠기용기로 추정되는 칠편, 자귀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의 조사 사례를 보면 목관 묘단계 칠기는 칠초동검·칠초철검·활·철모·갑옷 등의 무기류, 두(豆)·주머니호·장경호 등의 그릇류, 철 부·파비·철도자 등의 생활용구 등이 출토된다. 이 가운데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칠초동검·칠초철검과 칠부



〈그림 10〉 한반도 출토 과초

①평양 정백동 ②경산 양지리 ③대구 지산동 ④대구 평리동 ⑤영천 용전리

채가 주요한 부장 세트를 이루었다. 철부채는 장례 과정에서 복안의 의미를 지니며(오광섭·정현석 2015 : 9), 피장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물건이었다. 원통형철기는 석암리 205호분에서 손잡이가 달린 것을 근거로 술을 담는 기물로 추정하기도 하며(김은진 2005 : 33), 고대 목간이나 죽간과 같은 책을 담는 용도로 해석하기도 한다(신용민 2006 : 184~185). 철두는 양지리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禮記』를 참고하면 제사에서 나뭇이나 고기를 담는 제기이다¹⁵⁾. 실제 철기가 제기 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중국 고대 문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韓非子』에는 중국 우임금 때부터 제기에 옷칠을 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¹⁶⁾, 『管子』에서는 옷칠을 사람의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죽은 자를 보낼 때의 필수품으로 기재하고 있다¹⁷⁾.

자귀와 같은 농공구류의 옷칠을 한 예는 양지리유적을 제외하면 다호리유적이 유일하다. 다호리유적에서는 철부 자루와 따비, 겸형철기 등에 옷칠을 하였다. 모든 무기류에도 하기 어려웠던 옷칠을 농공구류까지 했던 것은 당시 양지리와 다호리 집단이 옷칠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거나, 다양한 철기를 부장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철기는 주로 제기와 위세품에 관련된 기물에 이루어졌으며, 철기 부장은 곧 피장자의 위세와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철기 부장 양상에서 기종의 다양성은 다호리, 양지리, 예산리유적 정도에만 한정된 현상이며, 그 외의 유적들은 대부분 철초철검과 철부채만 부장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15) 물론 삼한시대 굽다리접시는 주거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실생활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심수연 2011 : 120).

16) 『韓非子』, 第十篇, 十過7. “禹作爲祭器 墨漆其外 而朱畫其內…”

17) 『鹽鐵論』, 『本義』, 第一

드러난다. 물론 잔존 환경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나, 칠기가 잔존하는 유구 내에서도 부장량과 기종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볼 때, 단순 잔존 환경의 문제만으로도 돌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칠기 부족 현상, 혹은 칠기 기종의 제한적 부장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정할 수 있다. 첫째는 칠기의 원활한 제작과 공급이 어려웠을 가능성, 둘째는 일부 유적에서는 특정 기종만을 선호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후자의 가능성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특정 기종을 선호했다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고, 더욱이 칠기의 기능성이나 미적 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웃칠의 희소성으로 칠기 생산과 소비 중심지를 제외하면 칠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 시기 칠기와 함께 부장되는 흑색마연토기의 존재는 칠기의 공급 부족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제현·장용준 2020 : 245~246). 다호리유적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두가 칠기와 흑색마연토기 모두에서 확인되었고, 예산리 31호 목관묘에서는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대각에 돌대가 둘러진 칠두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장각고배가 출토되었다(그림 11). 이러한 양상은 결국 모든 토기에 웃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흑색마연토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⁸⁾.



〈그림 11〉 흑칠기와 흑색마연토기

①창원 다호리유적 칠기 ②창원 다호리·성주 예산리유적 흑색마연토기(상: 다호리 34호, 하: 예산리 31호)

18) 백제의 흑색마연토기를 웃칠의 모방 효과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한 연구가 있다(박순발 1999 : 5). 물론 반대로 흑칠기가 재래의 토기와 일부 청동제기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대곤 2009 : 41). 하지만 중국에서 흑도의 전통이 보이는 용산문화보다 흑칠기가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된 점에서 흑칠기를 모방하여 흑색마연토기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원삼국시대 철기의 제한적 부장은 철기의 원활한 제작과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상이며, 반대로 철기의 높은 부장량은 해당 유적 집단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옷칠 문화상으로는 보자면 경산 양지리유적과 창원 다호리유적은 당시 진한과 변한의 유력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 고대 철기 자료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옷칠 문화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옷칠 자료는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문화와 지석묘문화와 연관되어 처음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흔적만으로 남아있어 명확한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옷칠 문화도 신석기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은 있다. 향후 선사시대 옷칠 문화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옷칠 문화의 본격적인 추적이 가능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는 요령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의 1, 2차에 걸친 옷칠 문화의 확산 속에서 형성되었다. 1차는 심양 정가와자유형에서 한반도 중서부로 직접 파급된 것으로 적석목관묘 출토 세형동검의 검초인 검신형검초가 그 주요한 증거이다. 2차 파급은 서북한지역의 목관묘와 함께 영남지역으로 파급된 것으로 양 지역 검파형검초와 부장유물의 유사성 등을 통해 확인된다.

최근 조사된 양지리유적은 우리나라 옷칠 문화 연구에 중요한 점을 추가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조사된 비파형동검은 비파형동검의 검초의 형태를 추정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비파형동검 검초가 적석목관묘단계의 세형동검 검초와 마찬가지로 검신형이었을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또한 검신형검초에서 검파형검초로의 변화는 세형동검문화 집단이 철기 문화의 확산 속에 기존의 위세용인 세형동검의 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옷칠은 물건의 내구성, 내열성, 방수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원료를 인해 모든 물건에 하기 어려웠던 사치품이었다. 고대 철기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기나 위세품에서만 확인된다. 따라서 누구나 얻고자 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철기의 부장량은 당시 유적 집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양지리유적과 다호리유적이 당시 진한과 변한의 유력 집단으로 지역 내의 네트워크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철기였다.

이 글을 작성하는 가운데 부족한 자료의 한계로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비약과 추정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과 추정은 향후 고대 옷칠 자료가 더욱 축적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한 한계가 뚜렷함에도 이 글을 작성한 것은 부족하나마 이 글이 향후 우리나라 옷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우리나라 옷칠 문화의 기원과 출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具門慶, 2002, 『組立式 銅劍의 칼집에 대하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김해박물관, 2019, 『고대의 빛깔, 옷칠』.
- 국립김해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고인돌·널무덤 소장품 과학적 분석 보고서』.
- 국립대구박물관, 2020, 『땀다! 지배자 -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 국립중앙박물관,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범우사.
- 김수철, 2007, 『고대철기 분석 및 보존처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웅·안휘준, 2003, 『한국미술의 역사-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공사.
- 김은경, 2012, 『한국 옷칠예술의 형성과 그 시원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5, 『樂浪古墳 出土의 漆器 研究 -평양 석암리 205호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태, 1976, 『철기공예론』, 일지사.
- 김현중, 2017, 『조선시대 옷칠 정책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미야모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박영규·김동우, 2005, 『목칠공예』, 숲.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북부조선지역의 고대무덤』, 진인진.
- 손대현, 2006, 『전통옷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 문화』, 청계.
- 이용희, 2010, 『우리나라 고대 철기의 철기법 연구-초기철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발굴 철기유물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석, 1984, 『한국 고대 철기 연구-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선,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 채희국, 1959,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5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하부 준코(강봉원 옮김), 2016, 『일본 조몬 고고학』, 사회평론.
- 安金槐(오강원 옮김), 1998, 『中國考古-夏商周 篇-』, 백산자료원.

(2) 논문

- 김민철, 2019, 『對外交流와 威勢品으로 본 首長層의 出現』,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민철, 2020a,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요강 출토 철과의 특징』, 『땀다! 지배자 -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국립대구박물관.
- 김민철, 2020b,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검초의 특징』, 『땀다! 지배자 -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국립대구박물관.
- 김민철, 2021, 『한반도 남부지방 출토 검파형검초의 특징』,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금속기-』,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김상민, 2021,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생산기술의 등장과 발전배경』, 『한국상고사학보』 104, 한국상고사학회.
- 김용성, 2016,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 리기련, 1967, 『용추동 움무덤』, 『고고민속』 1967년 4호, 사회과학출판사.
- 박영성, 2013, 『한반도 남부지역 검초 연구』, 『考古學誌』, 제19집, 국립중앙박물관.
- 박순발, 1999, 『한성백제의 성립』, 『초청학술강연회 백제의 역사』, 국립부여박물관.
- 박유미, 2020, 『가야 고분군 출토 직물』, 『가야 직물』, 국립김해박물관.
- 박진일, 2016, 『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외질화와 그 의미』,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영남문화재연구원
- 박진일, 2020, 『분묘 구조로 본 마한과 진·변한 묘제의 전통과 개성』, 『철기문화 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진일, 2021, 『점토대토기문화기 오동~서남한 지역 묘제의 전통과 변형』, 『철기문화 수용 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백련행, 1966, 『천곡리 돌상자 무덤』, 『고고민속』 1966년 1호.

신대근, 2009, 『다호리유적 출토 의기의 특징』, 『과기고고연구』 15집, 아주대학교박물관.

신용민, 2006, 『김해 가야의 숲 3호 목관묘에 대하여』,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김해 무계리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심수연, 2011, 『영남지방 출토 두형토기 성격』, 『한국고고학보』 79, 한국고고학회.

안덕춘, 1988, 『韓國 木漆工藝의 研究』, 『전주대학교논문집』 17, 전주대학교.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오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오강원, 2020a, 『한국식동검문화(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국의 청동기 문화2020』, 국립청주박물관.

오강원, 2020b, 『남한지역 세형동검의 출현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117, 한국고고학회.

오광섭·정현석, 2015,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복안(覆顔)과 청동제유물의 재검토, 『야외고고학 제22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왕배신(양은경 역), 2009, 『낙랑문화와 주변지역과의 관련』, 『考古學誌』 특집호, 국립중앙박물관.

李建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 『韓國의 靑銅器文化』, 국립중앙박물관.

李建茂,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誌』, 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이경미, 1992, 『樂浪古墳出土 漆器에 對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11, 한국상고사학회.

이은경, 2021, 『1호 목관묘 출토 오수전 장식 동과초(銅戈鞘)』, 『경산 양지리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제현·장용준, 2020,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칠기』, 『삼한의 신앙과 의례』, 국립김해박물관.

이제현, 2021, 『김해지역 지석묘 축조의 지속과 사회적 의미』, 『영남의 지석묘 사회』, 국립김해박물관.

이주현, 1994, 『삼한의 목관묘에 대하여 -영남지방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화』 4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청규,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영남고고학』 21, 영남고고학회.

장용준, 2019, 『웃과 웃나무 그리고 웃칠』, 『고대의 빛깔, 웃칠』, 국립김해박물관.

조현중, 2012, 『신창동 유적의 목기와 칠기』, 『2000년 전의 타임캡슐』, 국립광주박물관.

차순철, 2008, 『韓國의 漆生産과 變化』, 『경주문화연구』 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황기덕 외, 1971, 『기원전 5세기~기원 3세기의 서북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황현성 외, 2013, 『평양 남정리 53호분 출토 토제칠기의 보존 및 제작기법 연구』, 『考古學誌』 제19집, 국립중앙박물관.

(3) 발굴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1988, 『咸平 草浦里 遺蹟』.

국립경주박물관, 2000·2003, 『慶州 朝陽洞 遺蹟Ⅰ·Ⅱ』.

국립경주박물관, 2007, 『永川 龍田里 遺蹟』.

국립중앙박물관, 2012, 『昌原 茶戶里 1~7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41冊.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06,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김해 무계리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경산 양지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慶山 林堂洞 遺蹟Ⅰ』.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慶州 舍羅里遺蹟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大邱 八達洞 遺蹟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慶山 林堂洞 低濕地遺蹟Ⅲ』.

이건무 외, 1989,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1,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외,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3,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외,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5,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외,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7, 국립중앙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麗川 積良洞 상적 支石墓』.

趙現鐘 外, 1997, 『광주 신창동저습지 유적Ⅰ』, 국립광주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18, 『충주 호암동 유적』.
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포항 성곡리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20, 『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 XⅧ』.
한병삼·이건우 외, 1977, 『남성리 석관묘』,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서 10.

(4) 외국어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7, 『URUSHIふしぎ物語-人ら漆の1200年史』.
郭寶鈞, 1951, 『一九五〇年春殷墟發掘報告』, 『考古學報』 1951年 5期, 中國科學院.
瀋陽古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爲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年 1期.
鄭州市博物館, 1965, 『鄭州市銘功路西側的兩座商代墓』, 『考古』, 1965-1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湖北發掘隊, 1962, 『湖北圻春毛家嘴西周木構建築』, 『考古』, 1962-1.
張飛龍, 2010, 『中國生漆文明的起源』, 『中國生漆』.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跨湖橋』, 文物出版社.
朝日新聞社, 2000, 『2000 古代史發掘総まくり』, 朝日新聞社.
河北省博物館·河北省文官外台西發掘小組, 1974, 『河北藁城县台西村商代遺址1973年的重要發現』, 『文物』 1974-8.
河姆渡遺址考古隊, 1980, 『浙江河姆渡遺址第2次發掘的主要收穫』, 『文物』 1980-5.
固始後古堆一號墓發掘組, 1981, 『河南固始後古堆一號墓發掘簡報』, 『文物』, 1981-1.

종합 토론

이창희 _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박진일 _ 국립중앙박물관

김대욱 _ 영남대학교박물관

우병철 _ 영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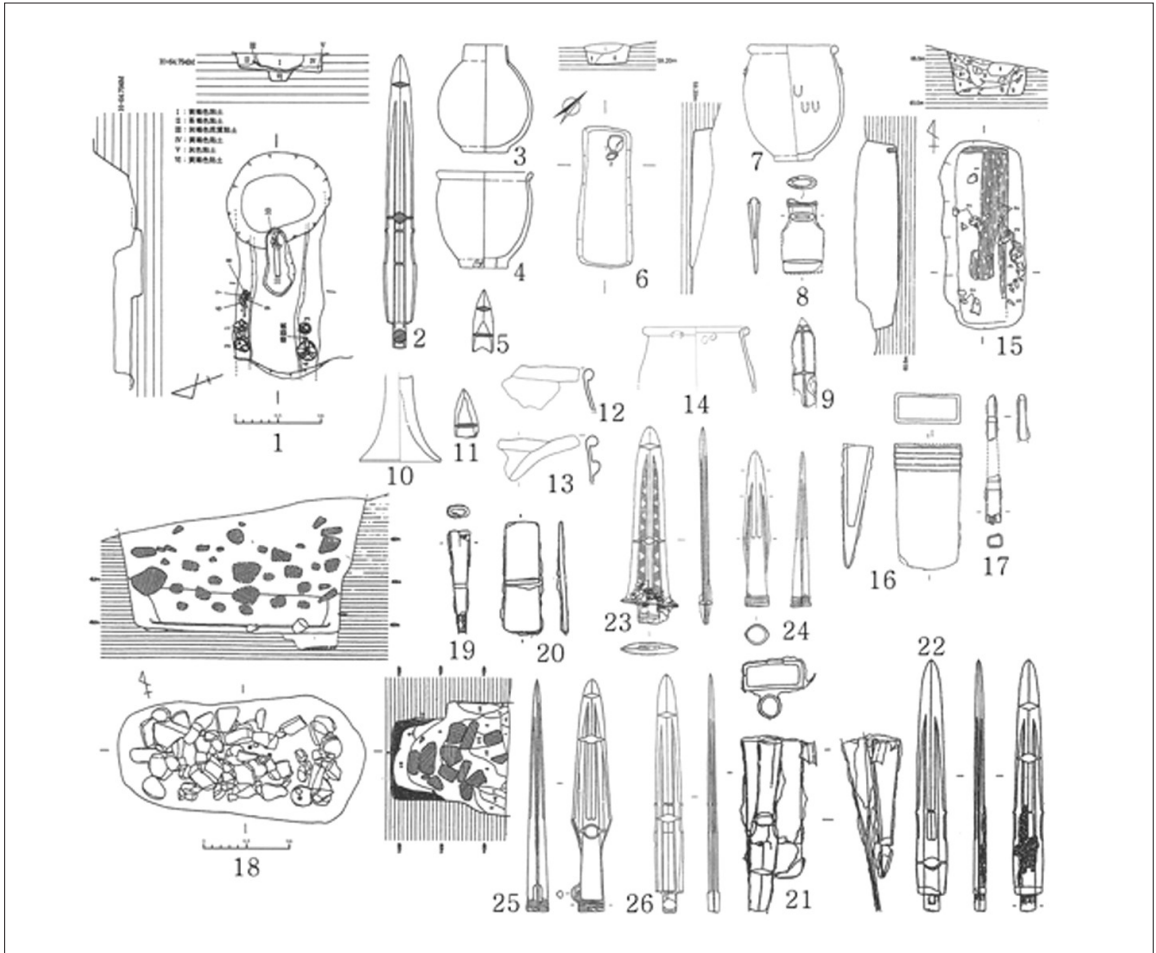
오광섭 _ 울산문화재연구원

허준양 _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산지역의 초기철기 문화’에 대한 토론문

이창희(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이번 학술대회에서 해당 주제가 제1발표로 마련된 이유는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고고학적 전개 양상을 개관하고, 나아가 영남지역이나 한반도 내에서 한 지역문화로서의 특징과 위상, 전후 시기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문은 ‘철서(鐵鋤)’ 한 기종에 대한 내용이어서 경산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기란 여의치 않다. 이에 토론자가 미루어 짐작하여 본래 주제의 내용으로 환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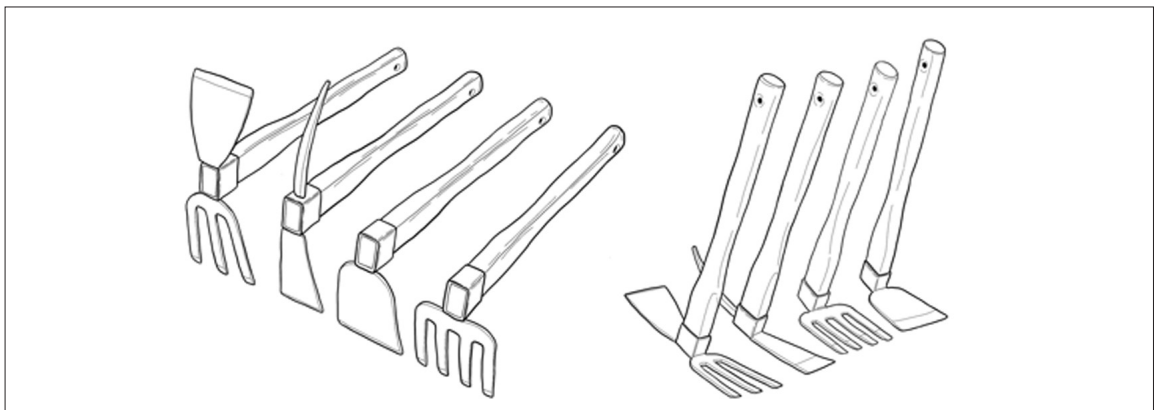
〈그림 1〉 경산·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 유물군(목관묘=1/80, 토기=1/10, 석기·금속기=1/8) 1~5: 조영 I B-7호, 6·7: 심천리1호, 8·9: 임당F I-42호, 10~13: 연암산, 14: 와촌, 15~17: 임당F II-34호, 18~22: 팔달동45호, 23·24: 同90호, 25·26: 同100호

경산지역(대구 포함)의 초기철기시대¹⁾ 유물상은 <그림1>과 같다. 주지하듯이 호서·호남지역처럼 다뉴조문경 단계의 유물군은 보이지 않고 늦은 단계의 세형동검문화 유물군이 소량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양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며, 다뉴세문경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은 특징적이다. 소위 세죽리-연화보유형 초기철기의 출토 사례도 많지 않다. 경산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초기철기시대의 수장급 분묘는 확인된 바 없는데, 그것이 발굴조사된 유적이 적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실제로 분묘 조사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와촌, 상동, 월성동, 연암산 등지에서 생활유적의 조사 사례와 지표조사를 통해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취락이 존재했던 것은 틀림없다. 또한 기원전 3~2세기로 볼 수 있는 목관묘와 적석목관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거 형태와 취락의 경관이 변모하는 시점도 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아 시대적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 ❶ 세형동검문화의 유물상을 나타내는 초기철기시대 전반기 경산지역의 주민들의 출자 및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지민과의 관계
- ❷ 적석목관묘를 비롯한 2단 굴광 목관묘의 계보와 묘제의 확산 루트

기왕에 철서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하 철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다. 토론자는 제작 기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장품으로서의 의미가 궁금하다. 경산지역 출토 철서는 모두 결실된 부분이 많은 채로 부장되었다. 토론자는 그것이 사용에 의한 파손이나 보존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실패품으로 판단된다.

- ❸ 철서의 기능과 사용법
- ❹ 완형품이 아닌 철서를 부장하는 이유와 농공구의 일종으로서 부장품이 갖는 의미



<그림 1> 서형(鋤形)의 철제농공구 (그림: 이창희)

1) 시대구분론이나 연대론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한국고고학강의』에 표현된 초기철기시대를 전제로 한다. 曰: “연나라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유입되어 철기문화가 시작되지만 철소재와 철기의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 “청동기 제작기술이 최고도에 도달하였지만,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기도 이어짐”, “역사적으로 후기고조선과 위만조선에 걸쳐 있음”.

“경산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 소국 형성과정에 관하여” 토론문

박진일(국립중앙박물관)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점유와 경관을 중요한 근거로 경산 지역의 소국 형성 과정을 살펴, 이전의 무덤 부장품을 중심의 연구 방식을 탈피한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발표자의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1. 고고학적 견지에서 소국 등장 지표

고고학에 근거한 연구인 이상 당연히 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고고학적으로 어떤 양상이 확인될 때 이 발표의 핵심 키워드인 ‘소국’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고고학적 관점에서 ‘小國’의 등장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주변보다 부장품이 월등한 유력 개인묘의 존재를 곧 소국의 등장 증거로 보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환호, 지속적인 목관묘 축조, 규모가 큰 주거지, 유력 개인묘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 모든 요소가 완비될 때 소국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특정 소국의 연속성

앞선 질문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영남의 군집 목관묘에는 주변보다 월등한 부장품을 가지는 유력 개인묘가 있습니다. 창원 다호리 1호, 경주 탑동 1호, 경산 양지리 1호,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 등이 자주 거론됩니다. 대개 성운문경, 일광경, 소명경 등 전한경을 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기를 전후한 몇 십 년의 부장 시기를 가지는 일군의 전한경을 유력 개인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후속하여 목관묘가 등장하기까지는 전한경의 부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전한경 부장묘와 목관묘 등장 사이의 기간에 있었던 유력 개인은 어떤 지표로 파악해야 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영남의 군집 목관묘 중 전한경을 비롯한 유력 개인의 상징물을 부장한 무덤이 단발적이며 후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국의 연속성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지요?

3.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

주지하듯이 초기철기시대는 두 유형(시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기 등장 이전의 괴정동유형이고 두 번째는 철기 등장 이후의 갈동유형입니다. 전자는 비군집(3기 이하) 적석목관묘(적석이 없는 경우도 많음), 한국식동검, 원형점토대토기가 지표이고, 후자는 군집 목관묘(적석이 있는 경우도 있음), 철기(서남한은 주조, 동남한은 단조 중심),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지표입니다. 영남 일대에서 후자는 대구 월성동 목관묘와 경주 하

구리 군집 목관묘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와질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발표자의 이전 글(이성주2015)에서 원삼국시대 등장의 지표로 ‘지배집단 목관묘의 군집화, 전국식 철기의 유입, 외줄고래의 등장, 무문토기의 와질토기의 변천’을 들고 서기전 100년을 획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선 세 개의 요소와 와질토기의 등장 시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지배집단 목관묘의 군집화와 철기는 대구 월성동 목관묘가 가장 이른 시기인데, 완주 갈동 유적과의 시기차를 고려하면 서기전 200년 무렵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늑도유적을 근거로 한 외줄고래의 등장 시기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와질토기의 등장은 대개의 연구자가 서기전 1세기(토론자는 후반)로 봅니다. 즉 위의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원삼국시대’라면 서기전 100년 무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때 대구 월성동 목관묘 전체, 팔달동과 임당유적 중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달동과 임당 유적 목관묘들의 墓型과 부장품 조합을 살펴보면 서기전 2세기(例: 팔달동 45호, 임당 FⅡ-34호)와 서기전 1세기 목관묘를 다른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와질토기’의 등장이 획기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월성동 목관묘가 등장하는 시점인 서기전 2세기 초의 ‘군집 목관묘와 철기부장’이 훨씬 중요한 획기라 생각합니다. 와질토기 등장을 근거로 양자의 문화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토론자는 발표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 방식보다 서기전 2세기(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양상)와 서기전 1세기(와질토기 등장기의 양상)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편(개인적으로는 양자를 모두 원삼국문화라 생각합니다)이 경산뿐만 아니라 영남 일대의 소국 등장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인식 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용례인 ‘초기철기시대’라 이르지 않고 ‘초기 철기시대’라 이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4. 점토대토기 개시기의 매장시설에 대한 평가

경산지역에서 점토대토기 개시기의 매장시설은 목관묘가 아닌 석관묘이며, 경산 대학리 유적의 점토대토기단계에 속하는 석관묘의 입지와 배치가 이전 지석묘 공동체의 의례를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대학리 유적의 석관묘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점토대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아야 할 당위성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이보다 지석묘와 석관묘를 사용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점토대토기 사용 집단과의 교류 과정에서 유물 일부가 유입되어 부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사례를 김해 지역에서 다수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한국식동검을 부장한 김해 내동 지석묘와 김해 율하의 석관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이성주,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26~227쪽, 사회평론

‘경산 양지리 유적 발굴성과’에 대한 토론문

김대욱(영남대학교박물관)

경산 양지리유적은 2017년 발굴 당시에도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여러 차례 언론이나 세미나를 통해 유적에 대한 소개¹⁾가 있었으며 또 발굴보고서²⁾와 특별전³⁾ 등을 통해서도 그 발굴 성과가 공개되었다. 최근에는 이곳 경산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주요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박기혁 선생님은 당시 발굴현장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집필까지 직접 진행하셨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아주 상세하고 현장감 넘치는 발표를 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으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유적 발굴과 관련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 보고자 한다.

1. 발표자는 경산 양지리 유적의 자연지리적 입지를 설명하면서 선사 및 원사시대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 유적을 비롯한 영천, 경산,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 일대는 크고 작은 하천을 끼고 넓은 충적지와 농경지, 낮은 산지를 갖춘 지형이 많은 편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 이 금호강 일대는 선사~고대 유적과 유물이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지리 유적 특히 오늘 주로 논의되고 있는 탁월한 유물이 부장된 목관묘와 관련하여, 이 양지리 목관묘가 축조되는 것이 자연지리적 입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 또한 금호강 주변의 다른 목관묘 축조 입지(영천 용전리나 어은동유적, 경산 임당동과 신대리 유적, 대구 만촌동·팔달동·신천동·학정동·평리동유적 등)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 발표자께서는 1호 목관묘의 축조 양상과 축조 공정에 따른 유물 출토양상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다. 아마 이러한 축조 공정마다 특별한 제의를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하며 이는 발표자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고찰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반적인 축조 공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 축조 공정마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 각각 의미를 부여하거나 각 단계마다 부장되는 유물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호 목관묘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상태는 어떠했으며 인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피장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장벽 서쪽부 충전토 상면에서 출토된 단경호 내부에서 송어 머리뼈, 복숭아, 참외 등의 음식물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장양상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1) 김동숙·박기혁, 2019, 「경산 양지리유적 목관묘 발굴조사 성과」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1. 유적 사례 발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경산 양지리 유적」

3) 국립대구박물관 외, 2020, 「떴다!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2020 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1호 목관묘와 2호 적석목관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즉 1호 목관묘는 통나무 목관을 사용한 전형적 형태의 목관묘로, 2호 적석목관묘는 판재식 목관에 적석을 하고 목관 상면에 3조의 횡대를 설치하였는데 이 두 목관묘의 축조 방법이 아주 대조적이다. 발표자는 그 축조 연대에 대해서도 전자는 기원전 1세기 전반, 후자는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보았으므로 약 100년 정도의 시차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목관묘의 상관관계나 피장자의 관계, 계층차, 유물 부장양상 등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에 대한 토론편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

기왕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반도 동남부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축조양상에 대한 연구는 대구 팔달동유적, 경산 입당동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창원 다호리유적의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울산 교동유적이나 이번 경산 양지리유적과 기존 연구 성과와 더불어 이 시기 분묘유적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양호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향후 이 시기 분묘의 전체 양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발표자는 경산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구체적인 구조 분석을 토대로 창원 다호리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경산 입당동유적 등 기왕에 알려져 있었던 주요 목관묘의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 동남부지역 목관묘의 전체 양상에서 경산 양지리유적 목관묘에서 보이는 상사성과 상이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상이성을 부각하여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전체 분포양상으로 보아 공간 배치상 단독묘가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미시적으로 양지리 1호 및 2호 목관묘의 구조분석과 운구용관의 사용여부, 棺床개념의 적용, 목관 내부의 二中隔壁 구조, 목관 덮개의 존부문제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대체로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1. 발표문의 순서에 따라 경산 양지리 2호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 발표자는 양지리 2호 목관묘의 구조를 대구 팔달동유적과 경주 조양동유적의 적석목관묘와 비교하면서 양지리 2호 목관묘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양지리 2호의 무덤 내에 형성된 이중굴광의 요소는 상위 적석을 하는 적석목관묘 중 대구 팔달동 45호와 경주 조양동 5호 적석목관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적석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대해서는 큰 차이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팔달동 45호와 조양동 5호의 상부 적석 위치는 지표면에 형성된 묘광의 굴광선에 목개가 설치된 후 적석이 이루어 졌다면, 양지리 2호의 경우에는 무덤 내부의 이중굴광선에 목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적석이 이루어진 점이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양지리 2호는 무덤 내부에 상부적석을 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성과에 의하면, 이중굴광의 어깨면에 횡방향으로 각각 3개 총 6개의 구덩이를 굴착하여 2조의 구덩이를 연결하는 횡대를 설치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무덤 내부의 이중굴광의 어깨면에 상부적석도 독특한 양상이지만 어깨면에 횡대 설치를 위한 수혈 굴착 시설도 기왕의 목관묘 구조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시설도 무덤 내부의 적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2. 앞의 무덤 내부의 상부적석과 관련한 계통의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린다. 발표자는 양지리 2호 무덤 내부의 상부적석을 보성 동천리, 창원 덕천리유적 등 이전 시기의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에서 그 계통과 이어

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기왕의 묘제에서 하부구조의 전통을 잘 정리한 발표자의 의견에 의하면, 한반도 서남부지역은 청동기시대 석관묘- 초기철기시대 순수목관묘와 적석목관묘의 혼재, 동남부지역은 청동기시대 석관묘- 초기철기시대 순수목관묘 - 적석목관묘와 순수목관묘 혼재 - 원삼국시대 순수목관묘의 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동남부지역의 경우, 대구 팔달동유적과 경주 조양도유적의 지표면 상부 적석은 한반도 서남부지역 적석목관묘의 영향으로, 경산 양지리 2호 무덤 내부의 적석은 보성 동천리, 창원 덕천리유적 등의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의 재지적 전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표자는 기왕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순수목관묘는 ‘외래계’로, 적석목관묘의 시설 중에 상부 적석 부분은 ‘재지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앞 시기의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대부분 石을 주 재료로 하여 축조하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 상관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石을 이용하는 것이 모두 ‘재지계’로 보는 인식은 동북아시아의 거시적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먼저 발표자는 ‘재지계’의 공간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염두하고 있는가를 먼저 질의 하고자 한다.

그리고 몽골의 흥노 무덤을 보더라도 지표면 상부적석, 무덤 내부의 다중굴광 어깨면에 상부적석, 양지리 1호과 같은 통나무목관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무덤 구조와 유사한 형태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흥노는 기원전 4~2세기에 중국의 한나라에 조공을 받을 정도로 융성하였으며, 한반도 북부지역은 흥노와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묘제는 중국의 순수목관묘만 ‘외래계’로 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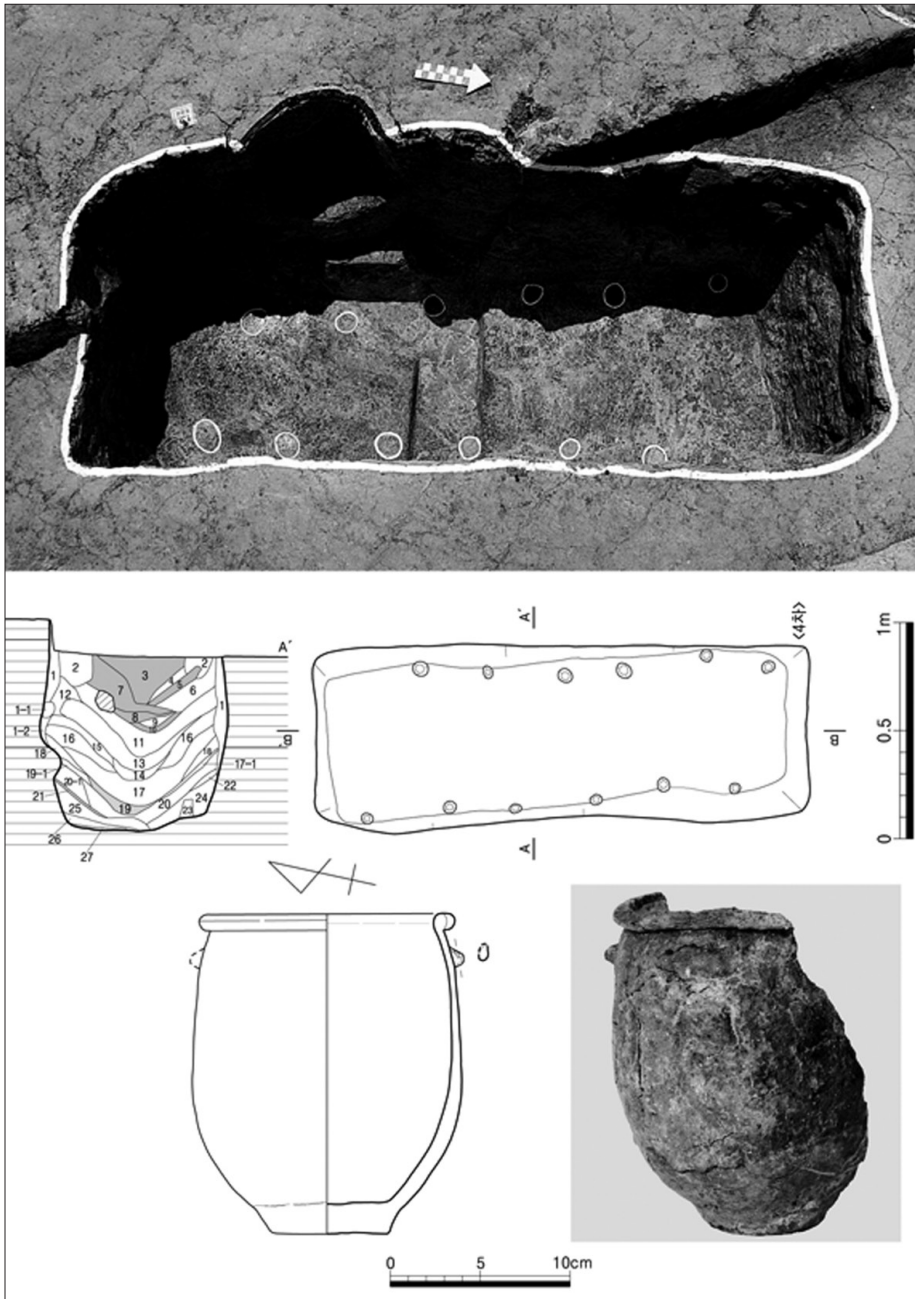
3. 이어서 양지리 1호 목관묘의 구조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구유형 목관 하부에 위치한 점토층을 日本 黒塚古墳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던 목관을 안정적으로 받치는 기능을 한 ‘棺床’으로 보았다. 日本 黒塚古墳는 시기적으로 기원후 3세기대로 양지리 1호 목관묘와는 수백년의 차이가 있지만 순수하게 형태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구유형 목관을 고정시키는 장치로는 창원 다호리1호의 뼈기와 그 穴이 잘 알려져 있다. 양지리 1호와 다호리 1호처럼 다수의 주요 유물이 제의의 프로세스에서 제 위치에 놓기 위해서는 관을 고정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양지리 1호 외 다른 목관묘에서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구유형 목관의 고정과 관련하여 경산 중산동유적 C구역 1호 목관묘에서도 타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위치에 뼈기 穴이 확인되었다(참고1 참조).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의 ‘棺床’의 의미에 대하여 그 범주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4. 양지리 1호 목관묘의 구조 중 ‘中隔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이중격벽 보다는 가장자리 단축의 관 마감재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자의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발표자 의견의 타당성을 차지하더라도 길이 이중격벽을 설치하여 10cm 내의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발표자는 조사 성과에서는 관의 뚜껑(관개)으로 보는 의견과 달리 묘광의 뚜껑(광개-목개?)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성과와는 큰 이견인데, 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발표자의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모르겠으며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타 유적에서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관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매장례상 어떤 의미로 보는가?



〈참고 1〉 경산 중산동유적 C구역 1호 목관묘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에 보이는 제작기술’에 대한 토론문

오광섭(울산문화재연구원)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동검2의 습베 끝단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용전리 목관묘 출토 청동 잔존물 등을 실마리로 동검의 주조 과정 및 그 거푸집 상단에 깔대기와 같은 기물의 존재를 추정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그 해석에 대해 부연 설명을 묻고, 일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검의 습베 쪽에 탕구와 함께 배치되는 토제 깔대기 내에 주입구와 가스배출구가 분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는 논지 전개와 함께 관련 주조기법이 동검의 전장과 경부 길이 간의 상관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 한 해석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발표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과 의견입니다.

첫째, 주입구와 가스배출구 그리고 청동찌꺼기의 좌우분할선을 근거로, 3개체의 깔대기 조합을 상정하셨는데요. 거푸집의 합범선과 같은 가로 방향으로 분할한 2개체의 깔대기 조합이 제작에 더욱 용이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로 분할시 토제 깔대기 제작에 있어, 좌우 대칭이 되는 모범과 같은 요철면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정인성은 경부 하단부의 축약현상을 설명하면서, 토제 깔대기와 함께 주물사의 사용을 언급하였고, 거푸집과 달리 토제 깔대기 내의 축약 주조 부위(얇게 처리된 탕구와 동검의 연결 부위)에서는 좌우분할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012, 『細形銅劍의 湯口 處理法』,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연구발표개요집』 6호, p.13.). 이를 근거로, 여러 개체의 조합 형태로 깔대기를 만들지 않고, 청동찌꺼기의 좌우분할선에도 매이지 않는다면, 주물사를 깔대기 형태로 가두어 다진 후에 주입구와 가스배출구를 뚫는 것이 토제 깔대기의 제작상 보다 용이하고 주조작업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아래 사진 참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토제 깔대기를 3개체로 조합할 경우, 주조시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체의 토제 깔대기가 어떤 방법으로 조합이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개체간 결속 그리고 틈을 메우는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거푸집에 가스배출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가스배출구는 필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주조 작업이 순식간에 진행되고, 거푸집의 밀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 배출구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동검은 아니지만, 교동리 1호 출토 동모의 엑스선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포의 이동은 예열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탕구 반대편 수축현상과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합범선을 따라 이루어

지는 배기현상으로 나타납니다(아래 도면 참조). 반면 중력 반대방향으로의 기포 이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추정으로 특히 내형 없이 주조된 동검 습베 쪽의 가스배출구 존재가 언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검 거푸집에서 모두 봉부 쪽에서 관찰되는 가스배출구의 목적이 실제 간접적인 용도에 더 비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강암 거푸집은 주조실험 시 5회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오광섭, 2013). 당연히 사용횟수에 비례해 내부 마모와 외부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험에서 가스배출구와 거푸집의 내구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지만, 동검의 주조불량 방지 못지 않게 거푸집의 내구성 연장이 가스배출의 실제 더 중요한 효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론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거푸집은 주조시 고열로 터지거나 용탕이 굳어지는 시간차에 따른 수축현상으로 인한 이완으로 내구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조불량은 가스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것 외에 예열이 충분치 않아서도 발생하는 수축현상으로 야기되기도 합니다. 거푸집은 석질의 열화가 발생하는 만큼, 수축현상이 발생하는 봉부쪽에 위치한 가스배출구와 거푸집의 열화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제기해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입구와 근접한 가스배출구가 내형이 있는 청동주조의 계보를 채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째, 동검의 습베 쪽에 탕구와 함께 배치되는 추정 깔대기가 편년의 자료가 되며,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술계보와 기술적인 이점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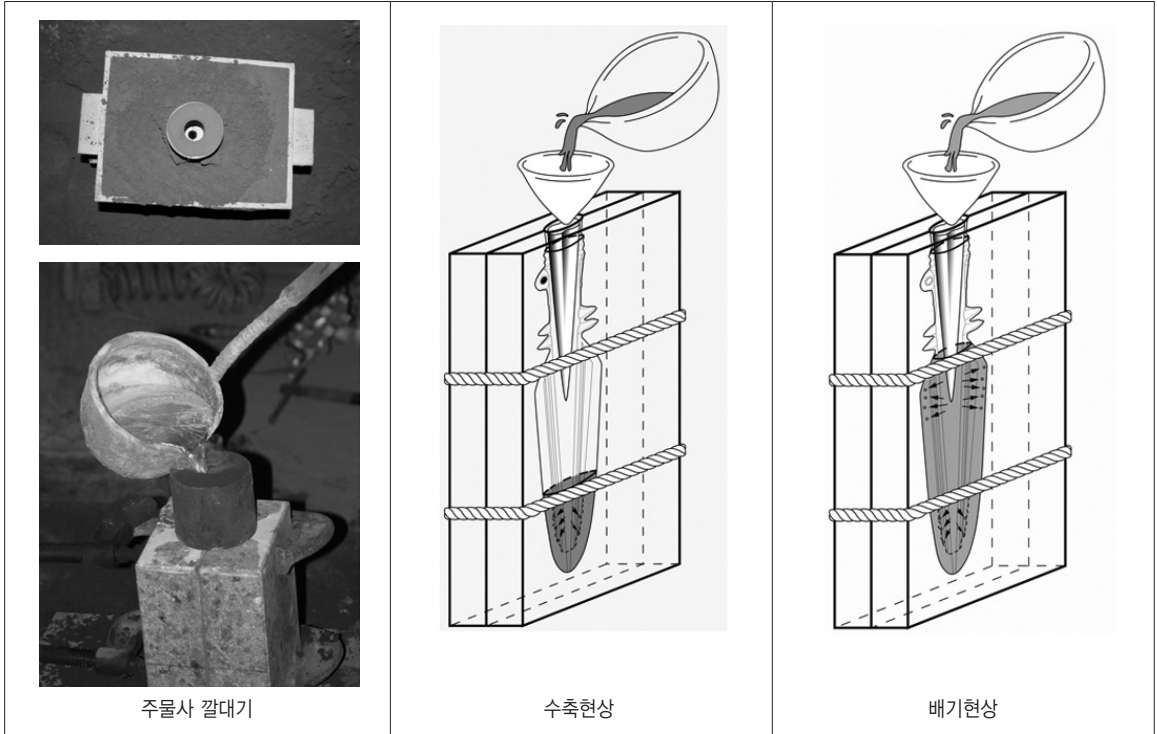
여섯째, 유물을 실견 후, 양지리에서 출토된 동검 3점이 같은 공인집단에서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각 경부(습베)의 길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호 목관의 동검1은 1.9cm, 동검2는 2.2cm 그리고 2호 목관의 동검은 2.0cm로, 2.0cm 내외의 경부가 검파에 삽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삽입되는 부분이라 원하는 제원을 충족하면 검신과 같이 마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호 동검1의 경부는 2.0cm 이상이 주조되어 1.9cm 지점에서 깔끔히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하여 마무리 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1호 동검2의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주조되어서 끊어냈다가 보다는 원하는 마감선 언저리까지 용탕이 부어지고 거칠게 마무리된 양상을 보입니다. 주조 마감시 용탕의 고상화가 진행되면서 깔대기를 통해서 흘러들어간 용탕이 가운데가 음푹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많이 흘러내려 굳어져 발표자께서 반달모양으로 크게 부러진 부분이라 표현하신 부분은 쪼듯이 인위적으로 박리를 시켜 2.2cm의 길이 즈음에 맞추었다고 보이고, 점상으로 부러져 가스배출구로 주장하신 부분은 용범선을 따라 적게 머금듯 흘러내린 용탕이 표면장력으로 굳어 오목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2호 동검을 보면, 거친 주조 마감에 대한 확신이 더욱 듭니다. 2.0cm 길이로 경부 주조를 마무리 하였는데, 합범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덜 채워지고 나머지 한쪽은 기준까지 채워진 양상을 보입니다. 이 역시 고상화되는 용탕이 합범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원하는 지점까지 채워지고 나머지 한쪽 다소 모자라게 채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파에 삽입되어 결속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기에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장하시는 1호 동검2 경부 마감을 고상화되는 용탕의 거친 마감으로 재고할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주조되어 제거가 필요한 부분을 쪼아서 강제 박리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

울산 교동리 유적 1호 목관모 출토 동검 주조 실험 및 동모 주조 모식



토론문: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허준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칠기에 대한 이제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중국과 일본의 칠기에 대해 개괄하고, 한국 칠기의 출현 시점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한국 옷칠 문화의 형성과 흐름, 그리고 경산 양지리 유적 출토 칠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발표문의 곳곳에 언급된 흥미로운 내용은 기왕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라 주목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번 발표는 이전 논고와 흡사한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아 보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칠기는 한국고고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칠기의 출토 수량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노출 문제, 보존처리 과정과 보관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가 필요한 고고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자인 저도 칠기를 접할 기회가 적어 이번 토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1.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옷칠은 중국의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고, 한국은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 일부, 원삼국시대에 상당수 출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시대에 따라 그 계통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칠기의 기술적 계보 또는 생산을 지식묘 출토품에서 목관묘 출토품까지 구분해서 중국의 전국계, 한(낙랑)계 등과 연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동일 계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한국 칠기문화의 흐름과 범위와도 관련되어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위와 연계해서 한국의 옷칠 자료가 검토에서 확인되는 점을 주목하여 심양 정가와자, 본계 유가초, 집안 오도령구문 유적 등의 출토품과 관련성을 짚었습니다. 본문에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초기철기시대에 검토 또는 옷칠 자료가 미미한 점은 이들과의 연속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발표자는 영남지역과 서북한지역의 칠기 자료를 비교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부장품의 차이로 구분하고, 오히려 낙랑의 칠기는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양 지역에서 출토되는 동일품 또는 주요 제품의 부재 등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과도 연결되는 해석인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칠반(漆盤)에 시문된 '촉군서공(蜀郡西工)'의 명문이 중국 四川省 成都의 官營工房으로 살피 묘제와 칠기, 동경과 함께 기술자가 한반도로 들어온 해석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村上 恭通 2020). 이

러한 점은 철기의 생산은 동북아시아의 유통과도 관련되는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영남지역 철기의 전파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 경산 양지리 유적 출토 철기를 검토하면서 동묘의 초를 ‘비파형동묘초’로 언급하였습니다. 비파형동묘초는 앞선 비파형동검의 초를 염두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기물의 형태를 적용한 ‘검신형검초’가 통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모신형묘초’ 또는 ‘모신+검파형묘초’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인 사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신형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목관묘에 부장되지 않는 ‘비파형○○’의 용어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5. 오늘 발표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철기와 관련된 주요 논점은 제작기법입니다. 이미 생철 접착법(李健茂 1995), 목심내법 실납법(정인성 2013), 평탈기법(崔鍾圭 2021) 등 다양한 제작기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는 경산 양지리 1호묘의 동묘초, 울산 교동리 1호묘의 동검초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중 후자는 부속구의 조립방식 또는 마감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는 발표에서 언급한 비파형동검초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양자의 제작기법 등에 대한 발표자의 다양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림 1〉 영남지역의 철기초 2례(필자 촬영)

李健茂,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誌』7.

정인성, 2013, 「細形銅劍 附屬具의 製作技法과 韓國式 靑銅器」, 『연구발표자료집』7, 아시아주조기술학회.

이제현·장용준, 2020,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철기」, 『삼한의 신앙과 의례』, 국립김해박물관.

村上 恭通, 2020, 「동아시아 세계의 철기문화 연구와 지역재생 사업으로의 활용」, 『해외 석학 초청 온라인강연회』,

2020년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고고학전공(ACHI Lab.), 영남대학교.

崔鍾圭, 2021, 「慶山 陽地里 출토 平脫戈鞘에 대한 淺見」, 『考古學探究』24.

제1회 경산시립박물관 학술대회

경산지역 청동기~원삼국시대 문화 전개양상

— 양지리유적을 중심으로 —

발행 | 경산시립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발행일 | 2022년 5월 20일

인쇄처 | 블루애드컴 T. 053. 256. 9415